

## 제주신화이야기(본풀이) 이용옥본

### 자료채록

일시 : 2017, 09,06~ 09,15

장소 :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 1. 천지왕본풀이

천지왕(天地王)은 옥황(玉皇)이고, 지부왕(地府王)은 총명부인(總明婦人). 서수아미엔 허주게. 켜디. 옥황(玉皇)에서 천지왕(天地王)이, 총명부인(總明婦人)안티, 지하에 지부왕(地府王)신디 느린거라. 경 허연 느리난. 총명부인(總明婦人)은 천지왕(天地王)이 내리난에 밥을 혼상 출령 내놔사 헐 거 아니라. 게난 밥을 혼상 출령 내놓젠 허난. 쏘이 엇인 거라. 밥 헐 쏘이 엇이난. 그 고을에 수멩이 덩덜<sup>1)</sup> 살앗인디. 수멩이가 잇인디. 수멩이네가 경 잘 살안. 곡식(穀食)을 허면, 동네에, 장네(長利)<sup>2)</sup>에 붙여주고. 엇인 사람들 꺾단 먹엇단, 새 곡식(穀食)허민 물고 허는디. 묵은 곡식(穀食) 장네(長利) 쥘, 받을 땐 새 곡식(穀食)으로 받고. 또, 뉘로 쥘, 말로 받아먹고. 말로 주어뉘, 섬으로 받아먹고. 게난 말하자면 완전 욕심쟁이 주게. 이제 대미쑈(大白米)에는 대몰레(大沙)<sup>3)</sup>를 섞엉 늬을 주고, 소미쑈(少白米)에는 소몰레(少沙)를 섞엉 늬을 주고. 게난 이제 총명부인(總明婦人)은 밥 혼상을 출리젠 허난 헐 수 엇이 수멩이네 집이 간. 쑈 혼 뉘를, 간 장네(長利)에 빚져단. 이제 그걸 혼 작박<sup>4)</sup> 거려난, 썻언. 밥 혼 상을 출련 천지왕안티 상을 들렁 가난. 천지왕은 첫 순가락을 뜯게 머흘<sup>5)</sup>이 썻힌 거라. 게난 총명부인(總明婦人)안티

“어뎡허난, 쳇 순가락이 머을이 썻험덴.”

게난

“아이, 그런게 아니고. 이 고을에 수멩이가 잇인디. 수멩이네 집인 묵은 곡식(穀食) 늬 쥘뉘, 자기가 받을 땐 새 곡식(穀食)으로 받고. 이제 뉘로 쥘뉘 말로 받고, 대미쑈(大白米)에는 대몰레를 섞고, 소미쑈(少白米)에는 소몰레를 섞엉 경 늬을 쥘젠.”

허난. 상을 물린 거라. 상을 물린 허는 말이. 대별왕이 총명부인(總明婦人)이라, 상 물리면서

“이걸랑 시걸명 잡식<sup>6)</sup>허영, 나 뒤에 삼천명에 금상, 오천명에 중생들이

1) 덩덜: 혈족. 친족.

2) 장네(長利): 가난한 농가에서 식량이 모자라는 고비에 곡식을 꾸었다가 값을 때에 따르는 변리.

3) 대몰레: 모래.

4) 혼 작박: 한 바가지.

5) 머흘: 밥에 섞인 자잘한 돌멩이.

6) 시걸명 잡식: 제사가 끝난 뒤에 제상에 차린 제물을 조금씩 뜯어 문밖으로 던져 잡귀를 대접하는 일.

오랐이메. 시결명 잡식해당 쥐불고, 그추룩 나쁜 므음 먹은 수맹이네랑 이  
제 이 그을에 놔들 필요가 없다. 수맹이네랑 사름 죽어난 디, 귀양풀이<sup>7)</sup>  
혈 때랑 오곡밥허영. 경 허연. 그걸로 주렌.”

그 법지법(法之法) 마련해 된. 그날 밤인, 밤이 어둡언. 초경, 이경, 야사  
삼경 넘언. 깊은 밤 넘어 뒷날 아침<sup>8)</sup> 득 울어가난. 천지왕(天地王)은 옥황  
엘 올라사알 거주게. 계난 올라가젠 허난 총명부인(總明婦人)이 허는 말  
이,

“대별왕님아, 간 밤이 된 아기는 나면 뉘엔 이름을 지웁네까?”

경 허난. 대별왕 허는 소리가

“만약, 흰 텃줄에 두 개를 낳뉘. 아들랑 낳건 먼저<sup>9)</sup> 난 걸랑<sup>10)</sup> 대별왕,  
말째<sup>11)</sup> 난 걸랑 소별왕. 경 헨 이름 지와주고. 만약 딸을 낳걸랑. 먼저 난  
걸랑 대털왕, 말째 난건 소털왕으로 허연 이름을 지와도렌.”

“게믄 본메본짱이나 주어뉘 잡서.”

계난 본메본짱 내어준 건 꼭씨<sup>12)</sup> 시 방울을 내준 거라. 이 꼭씨를 정월  
첫 해일(初亥日) 날. 계난, 도세기<sup>13)</sup> 날이주게. 계난 첫 듯날, 이거 싱경,  
이거 순이 낭 자라걸랑. 흰 줄랑 지붕 우터레 발을 번게 허고, 두줄랑 옥  
황더레 올리렌. 경 헨 가분디. 아난게 아니라, 이젠 애긴 나난 아들 성제  
난 거 아니. 계난 먼저 난 건 대별왕으로 이름을 지으고, 말째 난 건 소별  
왕으로 해연 이름을 지완. 이 아기들이 커 가난 아방국도 츠지허키여<sup>14)</sup>,  
어멍국도 츠지허키여 형제가 허여가난. 이젠 죽은 아시<sup>15)</sup>가 더 으망진<sup>16)</sup>  
모양이라. 계난 소별왕 허는 말이

“게믄, 성님아, 우리가 예숙이나 제경 이기는 자랑 아방국을 츠지허고,  
지는 자랑 어멍국을 츠질협주.”

허난.

“게건 아멩이나 허렌.”

소별왕이,

7) 귀양풀이: 사령(死靈)을 위무(慰撫)하여 저승에 보내는 곳.

8) 아침: 아침.

9) 먼저: 먼저.

10) 난 걸랑: 낳은 것은.

11) 말째: 나중에.

12) 꼭씨: 박씨

13) 도세기: 돼지.

14) 츠지허키여: 차지하겠다.

15) 죽은 아시: 작은 아우.

16) 으망진: 푹푹하고 야무진.

“성님아, 어떤 일로 동지 석 달 설한풍(雪寒風)이 불영 백눈(白雪)이 펼  
펼 오고. 헤가면, 어떤 낭<sup>17)</sup>은 잎이 푸령 스시스철<sup>18)</sup> 시양삭삭 이제 싱싱  
허고, 어떤 낭은 잎이 다 떨어집네까?”

경 헨 질문을 허난. 대별왕 허는 말은,

“서룬 나 동싱아, 모른 소리 허지 말라. 속이 옴은<sup>19)</sup> 낭은 잎이 아니  
떨어지고, 속이 구린<sup>20)</sup> 낭은 잎이 떨어진덴.”

경 허난,

“성님아, 모른 소리 허지 맙서. 어떻허난 머구낭<sup>21)</sup>은 속이 옴아도 잎이  
떨어집네까? 경 허고, 어떻 허난 왕대 죽대는 속이 구려도 잎이 아니 떨  
어집네까?”

경 허난

“나 동싱아, 왕대 죽덴, 속이 믈디믈디가 속이 탕탕 옴으난 겨울에도  
잎이 아니 진다.”

이젠

“알앗수덴.”

허연.

“게른 성님아, 어떻허난 동산에 풀은 이제 메<sup>22)</sup>가 즐르고<sup>23)</sup>, 굴형<sup>24)</sup>에  
풀은 메가 집네까<sup>25)</sup>?”

허난

“동산에 풀은 비가 오라도 물이 잘 엇이난, 메가 즐르고, 굴형에 건 아  
멩헤도 물이 고이니까 경 허난, 메가 진다. 경 허고 아무레도 햇빛도 맞고  
뒤 허난”

“성님아, 모르는 소리 허지 맙서. 우리 인간 사름은, 어떻 허난 머리는  
션대잔<sup>26)</sup> 머리, 수페머리<sup>27)</sup>가 뒤고, 발등에 털은 즐릅네까?”

허난 그것에도 진 거라. 예숙도 제끼단<sup>28)</sup> 전. 게난 아시 허는 말이,

---

17) 낭: 나무

18) 스시스철: 사시사철.

19) 옴은: 여문.

20) 구린: 고린.

21) 머구낭: 머귀나무.

22) 메: 초목의 묘종.

23) 즐르고: 째고.

24) 굴형: 움푹 패거나 깊이 빠진 구렁.

25) 집네까: 깊니까.

26) 션대잔: 션대지, 길다. 의 뜻.

27) 수페머리: 숲처럼 무성한

28) 예숙도 제끼단: 수수께끼 놀이를 하다가.

“성님아, 경 말앙. 우리가 꽃춘심<sup>29)</sup>이나 허영 꽃이나 키워 뵙, 번성허는 자랑 어멍국이고, 아방국이, 이녁이<sup>30)</sup> 츠지허구정<sup>31)</sup> 허는 국을 츠지허고, 번성을 못허는 자랑 어멍국을 츠지협주게.”

허연.

“게른 경 허렌.”

허연. 이젠 서천꽃밭<sup>32)</sup>테레 간. 꽃씨를 간 은상귀(銀床龜)에 꽃씨를 하나씩 심언. 수돚 주고<sup>33)</sup> 물 주언. 덩기단 보난 대별왕 싱근<sup>34)</sup> 꽃은 막 시양 삭삭 고와지고, 소별왕 싱근 꽃은 검뉴울<sup>35)</sup>이 뵈 거라. 거난 소별왕이 께를 쓴 거라.

“성님아, 우리 즘이나 혼 즘 잡주.”

허난 성은 아무레도 슷저신 ㄱ<sup>36)</sup>.

“경 허라.”

허연. 이젠 누원<sup>37)</sup> 즘을 자는디, 즘 자는 동안에 꽃을 바짜<sup>38)</sup> 놔분 거라. 소별왕이 꽃 바짜 놔뵈<sup>39)</sup>,

“성님아, 일어 납서.”

허난. 일어난 보난 꽃은 바짜진 거 아니. 대별왕 허는 말이

“설운 나 동싱아, 어떻허연 꽃사발은 선후도착(先後倒錯)이 뵈언.”

이제 바꾸와져뵈 허는 말이주.

“선후도착이 뵈엇저만은 기여 늘랑 어멍국을 츠질허라. 날랑 아방국을 츠질허마.”

게난 이제 그 꼭씨 싱경<sup>40)</sup>. 혼 줄은 지봉 우터레<sup>41)</sup> 올리고, 양 줄은 옥황더레 올리난, 대별왕은 그걸 탄 올라사젠 허난. 올라가단 보난 말 모르는 가막세달<sup>42)</sup>, 새. 그 길짐승들이 오조조조 말을 곤는 거라. 사람 ㄱ<sup>36)</sup> 말을 곶으난. 아이고, 영 허민 안뵈켄 곱<sup>43)</sup>을 갈라야뵈켄. 켄 소피(松皮) ㄱ

29) 꽃춘심: 꽃가꾸기 내기

30) 이녁이: 자기가.

31) 츠지허구정: 차지하고 싶은.

32) 서천꽃밭: 환생(還生)꽃 멸망(滅亡)꽃 등 주화(呪花)를 가꾸는 꽃밭.

33) 수돚 주고: 흙을 모아 올린다.

34) 싱근: 심은.

35) 검뉴울: 시들어가는.

36) 슷저신 ㄱ: 소박하고 께가 없는 모양이라.

37) 누원: 누워서.

38) 바짜: 바뀌.

39) 바짜 놔뵈: 바뀌 놔 두고.

40) 싱경: 심어서.

41) 우터레: 위쪽으로.

42) 가막세달: 까마귀들.

루<sup>44</sup>)터 닷 말 닷 뉘 칠세오리 허여단 동서러레 싹 허트난, 말 므른 가막 세들도 세(舌)가 즐란, 겐 말을 못 근게<sup>45</sup>) 멘들고. 아이, 보난, 귀신 갈 디 생인이여. 생인 갈 디 귀신이여 막 서로가 허꺼진 거라. 겐 아이고, 이것도 안뉘겐. 겐 이젠 이걸 곱을 갈라사주겐 허연. 남정중(南正重) 화정녀(火正黎)<sup>46</sup>)엔 현 신이 잇어예. 허난 저승법을 마련 현 남정중(南正重), 이승법을 마련 현 화정녀 허난. 남정중, 화정녀(火正黎)를 불러단. 귀신 갈 디 귀신 가게허고, 생인 갈 디 생인 가게허난. 계난 귀신은 저승더레 보내게허고, 우리 생인들은 이승더레 보내게 허연. 이제 곱을 갈란.

겐, 올라사젠 허난. 아이, 하늘 우터레 브리난 낮이도 해가 두개가 떠오고, 계난 해가 두개 뜨난. 인간 백성들이 좇안<sup>47</sup>). 좇아 살 수가 엇고, 이제 가진 낭에 강 목을 메영 죽고, 막 헤가고<sup>48</sup>). 밤인 뉘여가난, 들(月) 두개가 떠오난, 백성들이 천 멧백 명이 고사(涸死), 얼어, 실령. 경 현에 접시물<sup>49</sup>)에 강 빠져 죽고 막 경 헤가난. 아이, 이것도 아니 뉘겐. 이젠 궁정방에 놀러들어 대별왕은 천근들어 백근쌀(百斤矢), 원이둥둥 금올려단. 앞이 오는 일광(日光) 생겨두고, 뒤에 오는 일광(日光)을 화살로 쏘안. 겐, 맞쳐단, 동이와당<sup>50</sup>)더레 받지 헤두고<sup>51</sup>), 소별왕은 이젠 또, 원이둥둥 금올려단 활로 쏘안에. 앞이 오는 월광(月光)을 생겨두고, 뒤에 오는 월광(月光)을 맞쳐단 가운데 받지허니까. 흐 하늘에 해도 하나, 흐 하늘에 들(月)도 하나.

계난 일일광도 도업(都業), 월일광도 도업(都業). 아방국으로 간, 경 헤된. 아방국으로, 대별왕은 이제 아방국으로 도올리난. 어떤 사람들은 아방국더레 갈 때 용상(龍床)을 탕 갖덴 헤예. 용상(龍床)을 탕 가는디 용상(龍床)우에 탁 앉이난 용상(龍床)이 드르릉 허난예, 이 용상(龍床)아, 저 용상(龍床)아. 임제 므른<sup>52</sup>) 용상(龍床)아, 경 허연 웬 주먹으로 웬 뿔을 탁 치난. 계난 용상은 웬 뿔이 엇젠 헤예. 경 용상(龍床)도 탕 갖젠허고, 경 허난. 이제 저승법을 마련현 대별왕도 도업, 소별왕도 도업. 이것이 천지왕

43) 곱: 경계.

44) 루: 가루.

45) 근게: 말하게.

46) 남정중(南正重) 화정녀(火正黎) 『사략(史略)』 전옥(顛頊) 고양씨(高陽氏) 항목에서 따온 것. 여기서는 남정중의 예법(禮法). 또는 다툼의 분한(分限)을 구별하는 법.

47) 좇안: 뜨거움이나 더위, 추위 등에 못 견디는 상태를 말함.

48) 헤가고: 하고 있고.

49) 접시 물: 접시 물

50) 동이와당: 동해바다.

51) 받지 헤두고: 바쳐두고.

52) 임제 므른: 임자 모르는.

(天地王) 본(本)입네다.

## 대별상(마누라) 본풀이

마누라본은. 요즘은 점종허고, 뉘허고 헤부난 잘 엇주만은. 옛날은 홍역. 말하자면 홍역허영. 거, 얼굴에 뽀골 뽀골허게시리. 겐 얼굴에 막 물집이 생견 현 때에. 그 마누라 송<sup>53)</sup>을 보민, 그걸 막 애기가 막 굶영, 굶어불민 얼굴이 덧냥. 우리 말하자면 곱보, 것이 되는 거주게. 덧이 난. 송 안본디는 경 허여도 곱닥허게<sup>54)</sup>, 오물렉기 허는 거고. 겐디. 그 마누라본은 얼굴 츠지는, 게난 얼굴 츠지엔 현건. 얼굴을 곱닥허게 헤 주느냐, 어떻 허느냐 그 홍역에 대해서 허는 말인데.

얼굴 츠지는 홍진국대별상, 경 허연 허는다.

홍진국 대별상이 옥황에서 준지(眞珠)지기, 책갑(冊匣)지기, 영끼(令旗)지기, 몸끼지기, 경 헨 거느령 인간땅에 이제 즈순덜신디<sup>55)</sup> 호명<sup>56)</sup>을 허레 내려사는 거라. 겐 호명(呼名)허레 내려삼젠 허난. 인간 명진국할마님이 브름썩<sup>57)</sup>에 구름썩<sup>58)</sup>에 들으난. 아이, 홍진국대별상이 이제 책갑(冊匣)지기덜 거느리명 인간에, 게난 할마님 즈순이주게. 인간 즈순들은, 명진국할마님 즈순이다. 이제 할마님 즈순신디 호명을 허레 왓덴 허난. 할마님이 막 불안헌 거라. 경 허연. 그만히 들으난 브름썩에 구름썩에 홍진국이 알더레 내려사는 걸 들언. 명진국할마님이 홍진국안테 옆데를 허연<sup>59)</sup>

“아이고, 홍진국대별상님아, 우리 즈손들안티랑 준지(眞珠)<sup>60)</sup>를 주어도 보기 좋게시리 쥘, 경 준지(眞珠)를 하영 주지 말아 줘센.”

경 허연. 이젠 옆더정 스정(事情)을 헤가난. 홍진국대별상 허는 말이,

“저 할망은 어떻 현 할망이고?”

“난 인간 명진국할망이우다.”

허난에.

53) 송: 흥.

54) 곱닥허게: 곱다랄게.

55) 즈순덜신디: 자손들에게.

56) 호명: माम을 일컫는 말. ‘호명정구’라고도 함.

57) 브름썩에: 바람에 떠도는 소문에.

58) 구름썩에: 구름에 떠도는 소문에.

59) 옆데를 허연: 옆드려 절하면서.

60) 준지(眞珠): 진주. 여기서는 그 모양이 마마자국과 같다고 해서 쓰인 표현임.

“막상 해봐야 인간에서 애기 내우레 땡기명 무시거 핏네 나는 디나 땡기는, 여정네가 흙부로 남자의 행차길에 이제 험덴.”

할망신디 막 욱을 헌거라. 계난 할마님이 슬그문찍이<sup>61)</sup> 부에<sup>62)</sup>가 난.

‘응, 나한티 했주만은 두고보자.’

젠 해신디. 아닌게 아니라. 흥진국대별상은 땡기명 즈순들신디 막 준지를 준 거 아니. 경 허연 막 준지를 줘. 흥명을 허고 막 허는다. 할마님은 흥번 나 즈순을 훗아보주젠 헨 간보난. 아닌게 아니라. 얼굴에 엮어진 단<sup>63)</sup>, 엮어지고. 틀어진 단, 틀어지고. 막 대닥대닥 준지를 준 거라. 젠 주난. 부에가 풋죽 ㄱ찌 난 거라 할마님이.

경 허는다. 흥진국대별상 아들이 장계를 간. 계난 메느리가 가메 탄 가가난, 할마님이 가메벧줄에 딸랑 간 거라. 딸랑 간, 이젠 그 흥진국대별상 메느리안티 치메깍<sup>64)</sup>에 딸르고<sup>65)</sup> 헨 간에 포테(胞胎)를 시젯주게. 포테(胞胎)를 시견 허난. 흥 덜, 두 덜 넘언 석 덜 열흘 넘언, 아호열 덜 준삭(準朔)차도 애긴 안 나는 거 아니. 열흥 덜이 돼가난. 경 해도 아니 난, 열두 덜이 돼가난 애기 어명도 죽을 스경(死境)이 돼가고, 이젠 베 쏘곶에 잇는 애기도 죽을 스경(死境)이 돼가고. 계난, 흥진국이 그냥 메누리 죽는 꿀광, 손지 저추룩<sup>66)</sup> 못뵤 허는 꼴을 어떻 보렌 그냥 탁 탄복을 허연. 이젠 말하자면 아판 눈거주. 경 허난. 흥진국대별상 부인이 이제, 흥진국대별상이 서신국마누라 허고 막 친헌 걸 아니까, 계난 흥진국대별상 부인이 서신국을 훗앙 간거주게. 훗앙 간.

“아이, 야카야카허연. 이제 영영 헌 일이 잇인디 어떻 험네까?”

허연.

“아이고, 경 허건. 이제 흥포관디(紅袍冠帶) 입고 허영, 느람지<sup>67)</sup> 폐와 놓고 허영, 벵보 베깃딜로<sup>68)</sup> 할마님안티 강, 굽어 신청을 허영 스정을 허여사 헌덴.”

계난. 이제 대별상, 흥진국 대별상 부인이 오란에

“아이고, 서신국 마누라님신디 훗앙 간 곶으난<sup>69)</sup> 저 이만저만 허렌 험

61) 슬그문찍이: 슬며시.

62) 부에: 화.

63) 엮어진 단: 얼굴에 마마 자국이 생긴 곳.

64) 치메깍: 치맛자락.

65) 딸르고: 따르고.

66) 저추룩: 저렇게.

67) 느람지: 이영.

68) 베깃딜로: 바깥으로.

69) 훗앙 간 곶으난: 찾아가서 말하니.



디다.”

허난에, 혈 수 잇이 그 며느리 죽는 꼴을 안 보젠허난, 출런, 도폭 입고 허연 출런, 느람지 폐완 백보 베끼딜로. 게난 애기덜이 흥역허영 막 승 뺑. 옛날은 승 뺑은에. 옛날은 애기들이 열세 개 난 반뺑작<sup>70)</sup> 허ㄴ라, 열 개 난 세 개 살았저. 흥역허명 애기들이 다 죽는 거라. 승 뺑. 게난 그추 룩 혈 때는 진짜로, 느람지 폐와 놓고. 나도, 경 허연. 나 멧 밧디, 나 간 빌어난 경 현 일이 잇인다. 게난 느람지 폐와 놓고 허연. 엇더전 올레로부 떠 그 상 출런디 ㄱ지<sup>71)</sup> 빌명 혼 밧 혼 밧 영 굽영, 경 허영 그 ㄱ지 빌 명 오는 건디. 게난 흥진국대별상이 간 느람지 폐완 이제 엇데헤연<sup>72)</sup> 앓 으난. 할마님이 영 금법당 안에서 영 문을 올안 보난, 흥진국대별상이 바로 그디완 직냥도포<sup>73)</sup> 입고, 관디 입고 허연 엇데 헨 잇이난. 모진 광풍이 불게 할마님이 축지법(縮地法)을 읽은 거라. 막 브름이 불어도 옷이 다 찢 어지고 경 해도 꿈쩍도 안허연. 그디 꿇여 앓안 엇데헤연 잇이난. 할마님 이 여자에 마음으로서

“저디, 저 시군문<sup>74)</sup> 베끼디, 백 보 베끼디 잇는 건 누구냐?”

허난. 대별상 허는 말이

“저 흥진국대별상입네다.”

“어떻 허연 남정네가 여정네를 좇앙 왓이넨.”

허난

“아이고, 할마님아, 우리 며느리가 포테(胞胎)가 되언. 열 들이 뒤어도 헤산을 못허난, 며느리도 죽을 스경(死境)이 뒤고, 배 쏘굽에 잇는 손주도 못 볼 지경이 뒤난, 할마님아, 과연 내가 잘못허엿수덴. 할마님을 몰라 뺑. 내가 잘못헛수덴.”

허난

“응, 너도 너 자손 보고 싶으냐, 나도 내 자손 고운 얼굴 보고싶으덴. 경 허믈, 내 자손안티 강. 옛날 얼굴을 다 못 멘들아도, 내 자손 고운 얼굴을 멘들아도렌.”

허난

“아이고, 할마님아, 과연 잘못허엿수다. 내가 강 메꿀만이<sup>75)</sup> 메짜보고

70) 반뺑작: 주로 주인과 소작인이 서로 수확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계약해서, 경작하거나 관리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반만 살아남았다는 뜻임.

71) 출런디 ㄱ지: 차린데 까지.

72) 엇데헤연: 무릎 꿇고 절하면서

73) 직냥도포: 도포(道袍)의 한 종류.

74) 시군문: 곳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문을 열어 곳을 하다라는 용어를 차용, 대문이라고 볼 수 있음 .

허쿠텐.”

허연. 이젠 경 허연. 흥진국 대별상이 이젠 또 내려산, 그 할마님 즈순 안티 간. 얼굴에 간 메꾼디 메꾼덴 허난. 경 허난, 그 지금은 수두. 게난, 흥역 잇고, 마누라<sup>76)</sup>가 잇주게. 게난 이제 말제 헌건. 마누라 헤 나믄, 또 흥역허연. 그땐 이젠 얼굴에 난 것들 또 메짜주고 헌덴 허연. 게난 할마님이 간 보난. 옛날 본 얼굴은 엇언. 경 해도 그냥 칠세오리 정도 막 더닥더닥 헤난 거를, 게도 메꿀만이 메짜시난. 그땐 알앗덴 허연.

“당신도, 당신 즈순 보고 싶으난 내가 알앗덴.”

허연. 그땐 할마님이 들어산에, 대별상 메누리<sup>77)</sup> 애깃배 맞추게 허연. 경 허연 얘기 나오라가난 은<sup>78)</sup>췌로 콧주둥이 쏘악<sup>78)</sup> 건드난, 옥동자가 팔락허게 씨더지<sup>79)</sup>난. 그땐엔 대별상 허는 말이

“아이고, 나 기술만 좋덴 허단 보난 나 기술보다 더 좋은 할마님도 잇구나.”

경 허연. 그땐엔 얘기를, 손지를 본 법으로서, 흥진국대별상은 흥역 혈 때에 이진 비는 거. 흥진국대별상이엔 허영 흥역 혈 때 비는 본풀이입니다.

---

75) 메꿀 만이: 메꿀 만큼.

76) 마누라: 마마.

77) 메누리: 며느리.

78) 쏘악: 끝이 날카로운 것이 연한 무 같은 것을 찌를 때 쉽게 들어가는 꼴.

79) 씨더지<sup>79)</sup>난: 쏟아지니.

## 멩진국 할마님 본풀이

멩진국할마님은 천왕불도(天皇佛道)할마님, 지왕불도(地皇佛道)할마님, 인왕불도(人皇佛道)할마님. 공(空) 씨. 계난, 공방에 떠다닌다 해서 공(空) 씨, 방방곡곡을 다닌다 해서 방(方) 씨, 서역불법 할마님이라 해서 서씨여리(昔氏如來). 계난 공(空) 씨, 방(方) 씨, 서씨여리 인간 멩진국 사암불도 할마님 허영 해된.

할마님은 옥황에 명전대왕따님아기로서, 하도 열렬하고 똑똑하고 으망지 난, 옥황상제의 영을 받안

“널랑 인간에 내려강. 인간 즈순덜 포테(胞胎)도 시겨주곡, 해산도 시겨주곡, 경 허영 법지법을 마련 허라.”

허연. 계난 내어주는 건 보니까. 할마님은 남방사주(藍紡紗紬) 저고리에 북방사주(白紡紗紬) 말바지 입고, 열두복 대홍대단(大紅大緞) 홋단치마 입고, 물명지(水禾紬) 장장옷에 단추도 열두 단출 들고, 이제 금주란 철죽대, 은주랑 만족대를 짚고, 춤썰<sup>80)</sup> 흥 제, 은 7췌<sup>81)</sup>. 그걸 들런 만산족두리 둘러썸, 나막창신에 웨코<sup>82)</sup> 접은 백농보선 신고허연. 이제 이구산으로 허연, 할마님은 정월 초사흘 날, 정월 초사흘 날 인간에 내려산, 이구산으로 딱 내려산보난,

할마님 들어갈 딴 보난, 이제야 뭐 멧 층경 집덜 막 나오주만은. 외국 같은 딴 백 층도 나오고 허주만은. 그 옛날 구한국 시절이난, 십이 층경 집이 최고 높은 생인고라. 십이 층경 집을 지언. 누룩으로 다 성을 싸고, 이제 문 베끼던<sup>83)</sup> 보난. 걸레삼승<sup>84)</sup>, 업계삼승<sup>85)</sup>, 구덕삼승, 일흔으담 보살 청덜, 창 안네도 일흔으담, 창 베끼디도. 계난 창 안네, 창 베끼디엔 헌건. 문 안네, 문 베끼디엔 헌 말이주. 이 창문 안네와 베끼을. 경 허연. 이젠 잇이난, 할마님은 쏘옥허게<sup>86)</sup> 금법당더레 들어산. 글로 들어가난 금법당 잇이난. 그디 들어간 할마님은 앓아 천리를 보고, 사 만리를 보난. 아, 가난헌 집이도 자손이 귀하고, 막 잘사는 부잣집이도 자손이 귀하고. 계난

80) 춤썰: 명주실.

81) 은 7췌: 은 가위.

82) 웨코: 보선 코가 하나

83) 베끼 딴: 밖에는.

84) 걸레삼승: 아기 업는 포대기의 수호신.

85) 업계삼승: 업저지의 수호신.

86) 쏘옥 허게: 쏙 하게.

‘아이고, 이거 자손을, 이거 주젠허민<sup>87)</sup> 가난헌 자손에도 강 포테(胞胎)를 쥐야 뉘 거고, 이제 부제칩이 즈순에게도 간 포테(胞胎)를 쥐야 뉘로구나.’

헤연. 할마님은 이제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경을 읽은 거라. 할마니가 경을 익언. 이제 앓아 천리를 보고, 사 만리를 보양. 가난헌 즈순에게도 포테(胞胎) 주고, 이제 부제칩이 자손에게도 포테(胞胎)를 주는다. 하루 앓아 천 명을 포테(胞胎)주고, 해산을 시기젠 허면, 하루 만 명을 해산을 시키는다.

첫째는, 아방 몸에 석 덜 열흘 붉은 피를 빌고, 경 허연. 빼를 빌고, 이제 아호열 덜을, 어멍 몸에 이제 흰 피를 빌어. 게난 석 덜 열흘 백일이 넘어가민. 아기, 이제 인간 사름으로. 이제 다, 할마님이 고운 얼굴, 고운 매치<sup>88)</sup>를 그려. 아홉열 덜 받은 덜은 뉘민. 원래는 애기가 우이로 앓았단, 우이로, 머리는 여기 잇고, 영 앓았단. 아홉 덜 뉘민 여기서 돌아, 돌아 거꿀로 애기가 내려강, 머리는 밑으로 가는 거라. 겐 할머님이 여기서 영급을 줘 애기도 숙언. 경 허연.

이제 할마님이 그 열 덜 준삭(準朔) 차면 아무리 발전되고 뭐 헤엿젠 헤도. 할머님에서. 뭐 요즘 제왕절개 허면 애기 나는 거 뭐 허주만은. 옛날 식으로 허면, 할마님이 힘을 안 주고는 애길 날 수가 없어. 아무리 우리 인간 뭐헌덴 헤도. 게난 할마님이 딱 열두복 대홍대단(大紅大緞) 치메 벗어 걸어두고, 딱 즈순<sup>89)</sup> 포테(胞胎)뉘언 애깃배 맞추는디 들어간 보난. 막 공단 이불, 서단 이불, 원앙칭칭 잣베게 폐와놓고 허연 잇이난. 할마님은 그거 다 걷어 뉘. 북덕자리 출런. 옛날엔 보리낭 짚안. 보리낭 짚안, 거기서 이제 할마님이 애기 어멍 상가메<sup>90)</sup> 머리를 술술허게 연세 번을 썰어두언.

이제 어멍 오모순이<sup>91)</sup> 알더레 술술허게 할마님이 썰어 가난. 게난 아들은 낳젠허민 일주일이나 삼일 전에 이슬을 내리는데, 붉은 이슬이 내리고. 좀 붉으름허게 줄 잇게끔 허영 붉은 이슬이 내리고, 뉘은 낳젠 허민 흰 이슬을 내려. 경 허연 할마님이 들어간. 이제 애기 어멍 오모순이 알드레 술술허게 쓸고, 할마님이서 힘을 주게 헤가믄. 이제 아끈 장식, 한 장식.

---

87) 주젠허민: 주려고하면.

88) 매치: 맵시.

89) 즈순: 자손.

90) 상가메: 머리의 가마.

91) 오모순이: 오목가슴.

애기 어떻 열두빼에 다 무너지게 해연. 애기 어명이 아끈 장식 힘을 내드  
로민<sup>92)</sup>, 할마님이 인간더레 애기를 탄생허젠 허민. 할마님 손콥으로 애기  
붓을<sup>93)</sup> 내 튼엉, 영 허게시리 탁 내 튼으면, 애기 머리 받은물 물 썬어지  
명<sup>94)</sup> 애기가 태어나는 거라.

젠 태어나민 할마님에서 이젠, 옥황에서 올 때 춤썰을 혼 제 가져 오난,  
그 춤썰로 애기 베포롱줄<sup>95)</sup> 묶엉, 할마님이 은ㄴ췌를 가져 왓주게. 게난  
ㄴ췌로 애기 베포롱줄 끊엉, 게 즈친<sup>96)</sup> 거, 이제 내완 곱 갈란. 즈친 거엔  
현 건 태반. 태반 이제 곱 갈라된, 애긴 몸모욕 시견. 할마님이사 애기광,  
어명광 곱을 딱 갈랑 눅지면, 사흘 돼민, 애기 낭 사흘 돼민. 이제 치셋  
때<sup>97)</sup> 지언 올리곡, 속 숲안<sup>98)</sup> 애기광 어명광 몸모욕 시기고. 또 일뤄 돼민  
치셋때 올리고. 또, 이제 속 숲안 몸모욕 시기고, 경 허영 허민. 세 설 돼  
민, 할마님이 초걸렛벨<sup>99)</sup> 벳기고, 또 일곱 설 돼민 이걸레 벳기고, 열다섯  
십오세가 되면 삼걸렛베를 벳경.

이젠 할마님이 머리 벳경 내는 거라. 이제 성인이 된 거라. 열다섯이 돼  
면. 겐 성인이 되면, 할마님은, 거난 애기들 열다섯 안네엔 할마님이. 할  
마님은 언제 상 받느냐면, 초사흘날, 초일뤄, 열사흘, 예일뤄, 쓰무사흘,  
쓰무일뤄. 경 혼 들 앗앙 으섯 번 할마님이 상을 받고. 할마님에서가 이제  
꽃을 취급을 허젠 허면, 번성 꽃을 허영. 꽃을 싱그면 동더레 벌은 가지는  
동청묵, 서더레 벌은 가지는 서백금, 남더레 벌은 가지는 남장수, 북더레  
벌은 가진, 이제 북하수를 시겨권. 거 허는다. 할마님에서가 그 애기 날  
때에, 애기 날 때에 옛날은 방에서 막 등글명게<sup>100)</sup>, 자기 멋대로 등글명  
허당 애길 나면, 그 애기가 머리가 동쪽드레 헨 애기가 나면.

‘아따, 이 애긴 동더레 머리헨 난, 잘 살키여.’

경 허고. 서더레 머릴 헨 나민,

‘요거 서가난(西家難) 험직허다.’

허고. 남더레 머릴 헨 나민,

---

92) 내드로민: 내지르면.

93) 붓을: 태반.

94) 썬어지명: 쏘아지면서.

95) 베포롱줄: 땃줄.

96) 즈친: 압편. 까투리. 여기선 여자아이를 뜻함.

97) 치셋때: 아기를 분만한 다음 아기의 생육을 관장한다는 ‘삼승할망’에게 감사하고 기원하는 뜻으로 방  
의 구석이나 벽 위에 차려두는 상에 올리는 때.

98) 속 숲안: 썬 삶아서.

99) 초걸렛벨: 아기 업는 포대기.

100) 등글명게: 땡굴면서.

‘남장수(南長壽)가 돼키여.’

경 허고. 북더레 머털 헨 나민,

‘아이고, 이거 공이나 헨 드러사 허키여. 이거 북단명(北短命) 험직 허다.’

경 허영 이제 허는 거. 할마님에게서는 애기를 키우젠 허민.

‘이제 물웨<sup>101)</sup> 크듯, 당베치<sup>102)</sup> 크듯, 넘늑물<sup>103)</sup> 키와 가듯, 버릇 버릇 허영 할마님에게서 잘 키와 줘센.’

허영 이제 우리가 할마님안테 불도맛이도 하고, 할마님안테 공 들이는 거, 이것입니다.

---

101) 물웨: 물외.

102) 당베치: 배추.

103) 넘늑물: 나물.

## 구할망본

이번에는 구 할망본입니다.

구할망은 뭐고 허면. 열다섯 살 안네에, 이제 죽어부는 애기들은 구할망이 데령 가는<sup>104)</sup> 거. 서천꽃밭더레. 우리 열다섯이 넘영 어른 역할허는 사름들을 데리고 가는 거는, 체스가, 사자가 데리고 저승을 가지만은, 애기들은 구할망이 데령 서천꽃밭더레 가는 거. 거난 이거 구할망본인데.

옛날 동이용궁말젯뜰아가기가 흔 설적엔 어떻 젓가심을 두드린 췌, 두 설적엔 아버지 삼각수(三角鬚) 훌튼<sup>105)</sup> 췌척<sup>106)</sup>, 시 설적엔 뽀<sup>107)</sup> 의복을 버물린<sup>108)</sup> 췌척, 니 설적<sup>109)</sup>엔 동네 델척중저<sup>110)</sup> 우막음제<sup>111)</sup> 준 췌척, 다섯 살엔 날레 널영 놔두민, 그거 다 허데겨분<sup>112)</sup> 췌척, 경, 다섯 술까지 마련 허연. 무쇄설캅(鐵石匣)을 짠. 이거 그냥 보내민 안될 거난. 글 삼제(三字)를 백이기를 ‘임브로 임박스 시절 나건 게문 게탁’ 허연. 그 무쇄설캅에 글을 썬. 강남천자국에서 그냥 그걸 보내난 물 우이도 연삼 년 흥당망당 살고, 물 아래도 연삼 년, 중간에도 연삼 년 살안 떠 덩기단. 들물썰물에 지쳐네<sup>113)</sup> 올른 건 보난, 백물레왓디<sup>114)</sup>에 그 무쇄설캅(鐵石匣)이 올른 거라. 거난 임박스 시절이 나난, 임브로 임박스는 아무생각 엇이 츠에 물가에 느려다보난 무쇄설캅이 잇인 거아니. 거난, 저건 무신건고 허영 간 보난. ‘임브로 임박스 시절 게문 게탁’ 행 써젯이난. 아,

‘어떻헨 날ㄴ라 이걸 열렌헤연 이것이 써진 거라. 무신 거 들엇인고.’ 허연. 그걸 건져 놓안 올안 보난. 꽃ㄴ쁜 애기씨가 앓아잇인 거라.

“넌 누게냐?”

허난.

“나는 동이용궁말젯뜰아가가 됩니다.”

허난.

---

104) 데령 가는: 데리고 가는.

105) 훌튼: 잡아 뽑은.

106) 췌척: 죄목.

107) 뽀: 뽀.

108) 버물린: 더럽게 한.

109) 니 설적: 네 설적.

110) 델척중저: 덜 성 부른 중자

111) 우막음제: 식물을 옷자라지 못하게 순을 자름.

112) 허데겨분: 흘뜨려버린.

113) 지쳐네: 치여서..

114) 백물레왓디: 백모래밭.

“너 잘하는 게 뭐냐?”

허난.

“나는 모든 걸 다 잘 합니다.”

허난.

“경 허민. 우리 집이 안부인, 강 흔 번 포테(胞胎)나 시겨보라.”

허난

“시겨지크냐?”

허난. 시겨지켄. 경 허거들랑 우리 안부인 포테시기렌. 게난 이젠 간 임박서 안부인은 포테(胞胎)는 시기난. 아이, 흔 덜 두 덜 아호열 덜 준수(準朔)은 차도, 해산을 못 시기는 거라. 포테(胞胎)는 줄줄 알고, 해산을 못 시기는 거라. 아이 게난 그디도 또 애기어명도 죽을 스경(死境)이 당허고, 임박서가 탁 천만낙심(千萬落心)을 허연 잇단, 아이고, 아멩해도 이제 옥황더레 등장(等狀)을 드러보주긴 허연. 백물레왓딜로 간. 낮인 촌<sup>115)</sup> 벳<sup>116)</sup> 맞고, 밤인 촌 이슬 맞으멍 옥황드레 금바랑 소리를, 옥황상저님안티 등장(等狀)을 드난. 옥황상저님이

“야, 성관도서야, 저 굽어보라. 어떻허난 뭐가 칭원(稱冤)헌 일 잇인 백성이 이렇게 이제 밤낮으로 금바랑<sup>117)</sup> 소리를 올렸이나?”

허난. 성관도서가 내려산 들으난,

“아이고, 우리 안부인 포테(胞胎)는 뉘어도 해산을 못 허연. 이제 애기어명이 죽을 스경(死境)이 뉘엇습네다.”

허난. 이젠 옥황상저가 이제 할마님신디 연락을 헌 거주게. 명진국 할마님신디. 게난, 명진국 할마님은 들어오멍 지동더레 열두폭 대웅대단(大紅大緞) 치메 벗언, 탁허게 걸어 두고, 만상 죽두리 호양미 감테<sup>118)</sup> 벗어 놔 두고 허연. 들어 완, 북덕자리<sup>119)</sup> 출런. 아끈<sup>120)</sup> 장식<sup>121)</sup> 한<sup>122)</sup> 장식에 할마님 들언. 그 애긴 내완. 놔 두난. 아이, 동이용궁 말젯뜰 애긴 어디 텅기단 보난 난데엇이 애기 울음소리가 나고 허난.

“아이고, 난 해산을 안 시겼인디 어떻 험인고?”

---

115) 촌: 찬.

116) 벳: 별.

117) 금바랑: 요령과 바라.

118) 감테: 모자의 일종.

119) 북덕자리: 짚을 두툼하게 깎 자리.

120) 아끈: 작은.

121) 장식: 몸이 불편할 때 내는 끽끄끄는 소리.

122) 한: 큰.



이젠 들어와보난, 명진국 할마님이 앓안 잇인 거라. 경 허난 이젠,

“아이고, 내가 포테준 거 감히 누게가 이거 해산을 시겠이넨<sup>123)</sup>.”

이젠 싸움바라기 뉘 겨주. 게난 명진국할마님은 옥황더레 도올라산<sup>124)</sup> 옥황상저님한테 간, 이만저만 허연.

“동이용궁 말젧똥 아기가, 지가 포테(胞胎)헌 거 나가 해산 시겠덴 헤연 영영 헛우다.”

허연 이르난. 경 허민 너네 둘이 다 이리 오렌. 경 불러단. 은동이 늦둥이에 꽃씨 싱건 그걸 준 거라. 너네가 이거 수뚝 주고<sup>125)</sup> 물 주멍 잘 키워보렌. 겐 주난. 할마님이 싱근 꽃<sup>126)</sup>은 보룩보룩 허연. 빨리<sup>127)</sup>는 하나에, 웨 불리에. 가지가지 송에송에가 사만오천육백 가지로 벌어지고, 동이용궁 말젧똥 애기 싱근 건, 가지는 웨가지<sup>128)</sup> 하나가 딱 올라오고, 빨리는 사만오천육백 가지로 막 벌어진 거라. 게난, 너네 이걸 보나, 저걸 보나. 경 허건, 명진대왕 뜨님아기랑 명진국 할마님으로, 널랑 들어 상, 이제 법지법(法之法)을 마련허고.

동이용궁 말젧똥아기랑 명진국 할망이 포테(胞胎)를 쥘 놔두건. 석 달, 열흘 백일 쯤만 돼 걸랑. 물로, 피로 흐르게 맨들고. 또, 애기 낭<sup>129)</sup> 사흘 일주일 백일 쯤만 돼걸랑 애기 어멍 젧네<sup>130)</sup> 맞춥, 경 허영 그 애기 들앙 가고, 경 해근에게 널랑 얻어먹길 마련 허렌. 게난 할마님이 포테(胞胎) 쥘 놔두민. 흔 백일쯤 돼민, 그냥 낙태(落胎) 돼게시리 낙태증을 불러 쥘. 경 허연 구할망이 이제 허고, 또 애기 낭 며칠 아니 돼민, 애기 어멍 핏네<sup>131)</sup> 맞추왕 오랑. 애기 들앙 가불고, 또 애기, 흔 백일쯤 돼영. 업영 덩겡이믄<sup>132)</sup> 젧네 맞추왕 애기어멍 업영 덩겡이민 젧네 나고 허난, 애기 지성기<sup>133)</sup>에 붙언, 경 허연 들앙가불고. 경 허멍 허난. 명진국 할마님은 흔 달 앓으민 여섯 번을 상을 받는데, 구할망은 흔 달 앓으민 세 번씩 상을 못받아. 초 아흐레, 열 아흐레, 스무 아흐레. 이 아흐렛날은 구할망 날이엔 허영 이제 허고, 서천꽃밭더레 열다섯 안네 즈손들 들앙가부는 것은

123) 시겠이넨: 시켰느냐.

124) 도올라 산: 올라 사서.

125) 수뚝 주고: 흙을 모아 올리다.

126) 싱근 꽃은: 심은 꽃은.

127) 빨리: 뿌리.

128) 웨가지: 외가지.

129) 낭: 나서.

130) 젧네: 젧 냄새.

131) 핏네: 피 냄새.

132) 덩겡이믄: 다니고 있으면.

133) 지성기: 기저귀.

구할망본 입니다.

## 초공본풀이

초공본풀이를 하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옛날이라 옛적에. 게난 초공 임전국 상시당 허난. 임전국 허고, 천하(天下) 임전국, 지하(地下) 짐전국 낙신땅에 부베간이 살았인다.

애기가 엇인 거라. 아무리 잘 살양. 강나록<sup>134</sup>)도 좋아지고, 초나록<sup>135</sup>) 밧도 남전북답(南田北沓) 너른 전지도 좋고, 고대광실(高臺廣室) 높은 집을 허영, 기는 종, 낙는 종, 종덜 데령 살아도 자식이 엇언.

허를은

‘에, 경 말양. 흥번 저 산천(山川)에 강나록도 밧, 초나록 밧이나 돌아방 오저.’

허연. 이제 물을 턱허게 탄. 아이, 강나록 밧, 초나록 밧은 들안 보젠 가단 보난, 말 므른 길중싱<sup>136</sup>)들이 오조조조 앓안 다 까먹었어, 그걸. 게난

“주어 저 새!”

허연 썰 다올린 게<sup>137</sup>). 그 새들이 놀아가명, 아방 본 새는 아방 콤데레<sup>138</sup>) 들어가고, 어명 본 새는 어명 콤데레 들어가고. 게난 그걸 보난

‘아, 이거 말 므른 길짐승도 새끼 께왕, 어명 강골 아방 강골 허건만은. 날 7뜯<sup>139</sup>) 팔즈가 어디시리.’

허연. 이젠. 물 타 앓언 오단 보난, 삼천선비덜이 앓안 두어 바둑 두어 장길 몹이난. 그디 간

“나도 흥번<sup>140</sup>) 바둑 두는 게 어찌 호리파?”

허난.

“어서 경 협센.”

허연. 천하임전국 대감이 두어 바둑 두어 장기를 둔 게, 삼천선비덜 돈을 문 딱<sup>141</sup>) 따 분 거라. 겐 그 돈을 다 따난. 일어산 오젠 헤 가난. 삼천선비덜 허는 말이,

“임전국 대감님아, 그 돈을 앓양 가민 어느 누게 우는 애기가 잇영 주쿠과? 경 말양. 우리 삼천선비덜 흥 입씩 다 갈라줘동 가는 게 어떻 호리파?”

그 말 끝에는 대답할 말이 엇어. 기냥 그 돈 다 갈라줘 뵈. 이젠 돌아산 집

134) 강나록: 발벼.

135) 초나록: 찰벼.

136) 길중싱: 길짐승.

137) 다올린 게: 멀리 가도록 내물거나 내쫓다.

138) 콤데레: 품으로.

139) 날 7뜯: 나 같은.

140) 흥번: 한번.

141) 문딱: 전부. 모두.

더레 고개 폭 숙연. 힘이 다 빠진 거주게. 경 헨 오노렌 허난. 비주리 초막<sup>142)</sup>에서 막, 황천대소(仰天大笑) 웃음 소리가 막 나.

‘아이, 이 집인 어떻 허난. 무신 일이 좋안 영 웃없인곤.’

허연. 담 고망으로 영 눈을 쏘안 브려보난, 애기 하나 놓안. 애기가 풀풀풀풀 기영 어명신데레 기어가민 막 웃고, 또 기영 아방신데레 가문 막 웃고, 게명<sup>143)</sup> 애기 하날 놓안 막 웃는 거라. 그때서야 애기 없는 한탄을 헨 거라.

“하이고, 날 만 못한 얻어먹는 게와시(乞人)도 애기를 낳안 저렇게 웃음을 웃으멍 살암건만은, 나 팔즈는 무슨 팔즈고.”

허연. 집으로 돌아와 이젠 상깃지동<sup>144)</sup> 앞이 앓안, 삼백도리 진서냥갓<sup>145)</sup> 벗어 놓아두고 앓은 게 비세(悲鳥)같이 울어가난. 짐전국 부인이

“아이고, 어떻 허난 경 울없수파?”

허난.

“경 헨게 아니고, 우리만 못한 길짐승도 새끼 깨왕<sup>146)</sup> 어멍 강골 아방 강골 허고, 얻어먹는 게와시(乞人)도 애길 난 웃음들을 웃영 살건 만은, 우리 둘이 부베간<sup>147)</sup> 팔즈는 뭇 놈에 팔즈라서 우리가 애기도 하나 엇인고.”

허연 허단. 짐전국 부인이 나상 허는 말이

“아이고, 대감님아, 경 허지말앙 잇입서. 나가 웃음 웃을 일을 허쿠다.”

뭇 허젠 헛인고 보난<sup>148)</sup>, 간 은단팽(銀唐瓶)에 서단마게<sup>149)</sup>를 막고, 촘실 흔질 졸라 메연<sup>150)</sup> 미달이 안으로 꺼낸 거라, 그거를. 꺼내언 각장장판에 놓안, 이레 동굴력 저레 동굴력 해봐도 웃음이 안 나와. 그거 동글려도. 게난 부베간 이 한탄을 허영, 상깃지동 앞이 앓안 막 한탄하노렌 허난. 시군문 베깃디서<sup>151)</sup>, 올레로 스님이 들어온 거라. 겐. 스님은 누겐곤 허민, 황금산(黃金山)도단땅에 절이 있는데, 도단땅 추접절이 있는데, 추접 선생이라. 겐 스님이 들어와. 짓알로<sup>152)</sup>

“소승 절이 웹네다.”

허난

142) 비주리 초막: 아주 작은 초막.

143) 게명: 그렇게 하면서.

144) 상깃지동: 상방(上房)과 큰방 사이의 기둥. 제주어로 ‘생깃지둥’이라고 함

145) 삼백도리 진서냥갓: 갓의 테두리인 양태를 짜는데 대를 아주 가늘게 하여 3백 회선(回線)으로 정교하게 잔 줄은 갓.

146) 새끼 깨왕: 새끼를 까서.

147) 부베간: 부부간에.

148) 헛인고 보난: 하는가 보니.

149) 서단마게: 마개. ‘서단-’은 ‘은단-’에 맞춘 조운(調韻).

150) 졸라 메연: 짧게 묶어서.

151) 베깃디서: 밖에서.

152) 짓알로: 아래로.

“어느 절에서 옵데가?”

그땐 스님 대답하기를

“예. 나는 동계남(東觀音)은 상저절, 서계남(西觀音)은 금법당(金法堂) 황금산(黃金山)은 추접절에서 오랏습네다.”

허난.

“어떻허연 오십데가?”

허난.

“내가 오기는 우리 당도 헐어지고, 우리 절도 헐어지난. 인간에 내려상 시권 제를 받아다가 헐 당도 수리허고, 헐 절도 수리허고, 인간에 명 없는 자엔 명도 주고, 복 없는 자엔 복도 주고, 생불환싱(生佛還生) 없는 자는, 자손은 생불환싱 취급을 시겨줄까 해서 권제를 받으레 내럿습네다.”

허난. 이제 가지깁이<sup>153</sup>에 쓸을 떠단,

“높이 들렁 비웁서. 이거 헐 방울이 떨어지민 명도 떨어지고, 복도 떨어집네다.”

허연. 전대(纏帶)더레 스크르허게 비원.

“추접 선생님아, 단수육갑(單數六甲)이나 짚어 볍서. 오용팔괘(五行八卦)을 헐번 짚어 볍서.”

게난. 딱 짚으단 허는 말이,

“어떻 허난 당신님넌 고대광실(高臺廣室) 들 높은 집도 잇고, 남전북답(南田北沓)너른 전지도 좋고, 느진덕 정하님을 거느런 살았우다만은. 어떻허난 부베간에 아기가 엇엉 호호탄복을 허엿수까?”

허난.

“경 허민 우리 부베간에 얘기가 잇이쿠과? 엇이쿠과?”

허난에. 영 단수육갑 짚어받. 엇이렌 헐 팔존 아니우다.

“게믄 어떻 허믄 우리덜 얘기를, 포테(胞胎)를 줍네까?”

허난에

“경 말앙. 우리 법당에양 출령을 읍서. 잘 출리나, 못 출리나 그것은 당신네 성의난, 출령 완 수록이나 드러볶서. 수록 들이민 허다 못허민 톨조식이라도 남직허우다.”

허난. 게믄 스님은 권제 받안 올라가불고. 그날부턴 부지런히 느진덕 정하님 들한테 다 곱안. 강나록<sup>154</sup>도 비어 오라. 초나록<sup>155</sup>도 비어 오라. 비어단 흘탄<sup>156</sup> 테작허연 장만 허난, 제일 우이로, 이제 그거 불공허레 갈 쓸이난, 제일

153) 가지깁이: 개지. 늦그릇의 뚜껑.

154) 강나록: 발벼의 일종. 거친 땅에서도 경작이 되는 발벼.

155) 초나록: 찰벼.

우이로 고장쌀<sup>157)</sup> 거련. 감은 암췌<sup>158)</sup>에 상백미도 일천 석, 중백미도 일천 석, 하백미도 일천 석, 송낙베<sup>159)</sup>도 구만장, 장삼베도 구만장. 일천 석이엔 헤도 그 일천 석 못 시끄주<sup>160)</sup> 옛날 애기난 영 곤는 거주. 경 헨. 그걸 다 시깁<sup>161)</sup> 절에 올라 간. 이젠 상탕에 간 메 짓고, 중탕에 간 몸모욕하고, 하탕에 간 수 족 씻언. 그날부턴 불공을 들어간 거라. 불공을 들어간, 석 덜 열흘 백일 동안 불공을 허난, 이제 마지막 불공이 끝나는 날은 대추낭<sup>162)</sup> 은저울로 출령간 걸 딱 저울리난. 정성이 부족허연, 혼 근이 부족허연 백 근 근량(斤量)이 못 찬 거라. 게난 추접 선성님 허는 말이,

“당신님네, 이거 정성을 드러서 허영 왓이면 백 근 근량이 창 아덜을 날걸. 정성이 부족허연, 혼 근이 부족허연 백 근이 못 찻우다. 게난<sup>163)</sup> 툐이라도 취 급(處給) 시겨<sup>164)</sup> 줌직 허난, 가당, 내려가당 울로 요만이 가당보민 꿈산이 잇 이난 그디 강양 몽중(夢中)성에 꿈이나 꿩 갑서.”

“우리 팔즈엔 툐도 좋수덴.”

경 헨 부베간이<sup>165)</sup> 법당을 하직 허연 이젠 내려오는 거 아니. 경 헨 오단 보 난 꿈산이 잇인 거라. 게난 잠깐 그 디 부베간이 앓은 게 즘을 든 거라. 꿈에, 임전국 대감님 꿈에는 물 아래<sup>166)</sup> 옥돌 ㄱ뜬<sup>167)</sup> 애기씨, 가마귀 젓늘게<sup>168)</sup> ㄱ 뜬 애기씨가 아버지신디 풀풀풀풀 기어오란에 아버지 통설대도 문직어<sup>169)</sup> 뵈 곡, 짐전국 부인님 꿈에는 가마귀 젓늘게 ㄱ뜬 애기씨가 어멍신디레 풀풀 기어 완 어멍 젓가심도<sup>170)</sup> 헤싸보고<sup>171)</sup>, 젓 먹젠.

둘이가 퍼쩍허게 깨난 보난 몽중(夢中)성 꿈인디 같은 꿈이라. 게난 집으로 내려완. 조은 날 합궁일을 잡안 부베간이 천상베필을 무엇더니만 그날부떠 포 테(胞胎)가 뵈거라. 아방 몸에 빼<sup>172)</sup> 빌고, 어멍 몸에 술<sup>173)</sup> 엇고 석 덜 열흘

156) 흘탄: 흘어서.

157) 고장쌀: 가장 품질이 좋고 깨끗한 백미

158) 감은 암췌: 검은 암소.

159) 송낙베: 고깔을 만드는 천감인 베 .

160) 시끄주: 짐 따위를 옮길 것에 차례로 얹어 놓다. 실지.

161) 시깁: 실어서.

162) 대추낭: 대추나무.

163) 게난: 그러니까.

164) 취급 시겨: 낱게 하여.

165) 부베간이: 부부가.

166) 물 아래: 물 아래.

167) ㄱ뜬: 같은.

168) 젓늘게: 앞날개.

169) 문직어: 만져.

170) 젓가심: 가슴.

171) 헤싸 뵈고: 풀어 헤쳐 보고.

172) 빼: 빼.

173) 술: 살.

백일이 넘언 아홉열 덜 준삭(準朔) 채완 애긴 나난. 이름을 짓젠 허난 애긴 곧  
털어지고,

“느진덕정하님아, 지금 이거 때가 어느 때고?”

허난에,

“아이고, 지금양, 구시 월 단풍 들언양, 녹하가 지엿우다.”

계난 우리가 조청(自請)허연에, 절에 간 조청(自請)허연 난 애기씨면 녹하지  
언 단풍들엿덴 허연 녹하단풍조치명왕애기씨로 이름을 지은거라. 아이, 계난  
이 애기씨 귀허연 불면 놀어나카<sup>174)</sup> 쥬민 까질건가, 여름이 됬민 상다락에서  
애길 노념허고<sup>175)</sup>, 봄광 가을이 됬민 중다락에서 노념을 허고, 겨울은 됬민 하  
다락에서 노념을 허고, 경 헨 이 애길 노념을 허는디 훈 솔 두 솔 열다섯, 십  
오세가 됬어가난. 천하임전국 대감님이랑 천하공수(天下公事)를 살레 읍서. 지  
하 짐전국 부인님이랑 지하공수(地下公事)를 살레 읍서 허연. 편지가 온거라.  
겐 옛날은 강 베슬<sup>176)</sup>을 살아오민 멧 년을 7만히 앓아서 먹고, 입고, 쓸 그계  
다 나왕 허난. 베슬 살레가젠 허난, 아고 이 애긴 어떻허민 좋코. 이걸 어떻  
놓아똥 가코. 아덜로 나시민 책실(冊室)로나 들양 거주만은 톨로 나부난 책실  
로도 못 들양가고, 느진덕 정하님을 불러다 낀 허는 말이,

“우리 애기씨, 궁 안네서, 문 안네서 가두왕 궁 안네서 밥을 주고 옷을 쥬  
키얏이민<sup>177)</sup>, 느 잘 키얏이민 우리 강 오랑 느 살을 도리를 해주켄.”

거난

“어서 경 험셴.”

허연. 이젠 가젠 허난, 아버지가 중근<sup>178)</sup> 문은 어머니가 수리두고, 어머니가  
중근 문은 아버지가 수리를 두뉘. 빗골장 모람장 지계살장<sup>179)</sup> 문을 해연. 계난  
말하자면 아버지가 중근 문 열쇄<sup>180)</sup> 주계, 아버지가 중근 문 열쇄는 어머니가  
갖고, 어머니가 중근 문 열쇄는 아버지가 갖고 경 헨 애기를 궁 안네에 들여놔  
문을 탁 채와뉘 베슬 살레 가분거 아니. 경 헨 가부난, 하루 이틀 사는 게,

흐를날은 추접 절에서 스님들이 다 모연. 아멩해도<sup>181)</sup> 절이 큰 절인 생인<sup>7</sup>  
라 스님들이, 각 처도에서 스님들이 모여 앓안 하늘 우터레<sup>182)</sup> 브리난<sup>183)</sup> 들

174) 놀어나카: 날아갈까.

175) 노념허고: 놀이하고.

176) 베슬: 벼슬.

177) 키얏이민: 키우고 있으면.

178) 중근: 잠근.

179) 빗골장 모람장 지계살장: 살장의 종류.

180) 열쇄: 열쇠.

181) 아멩해도: 아무래도.

182) 우터레: 위에.

183) 브리난: 보니.

(月)이 떠서 계난

“어떠가라 저 들은 곱긴 곱다만은 계수나무나 박혔저. 침 곱기도 곱다.”

허난. 그때엔 추접 선성님 허는 말이,

“저 들은 곱긴 고운 가운데 계수나무 박혔건만은, 우리 법당에 오랑 수록드런 낱은 인간에 녹하단풍즈치명왕애기씨만큼은 못 곱덴.”

경 허난. 아이고, 저 들보다 더 고운 애기씨가 어딴이리엔, 스몯<sup>184</sup> 스님들이 다 환호를 허는 거라. 경 허민 그 애기씨한테 강 본메<sup>185</sup>를 뒤두엿 오렌. 계난 추접선성이 나사명

“나가 갖다 오겠습네다.”

허연. 이젠 흰 침 질러 굴송낙<sup>186</sup> 둘러쓰고, 두 침 질러 비랑장삼(備郎長衫), 목에는 백파염줄(百八念珠), 손에는 단줄(短珠) 메연. 이제랑 금주랑 철죽대 만 주랑 철죽대 들르고, 석 자 호롬줍치<sup>187</sup> 어깨에 탁 두러매연 금바랑 옥바랑 들르고 허연 내려산거 아니. 먼 올레로 들어사명, “짓알로<sup>188</sup> 소송 절이 웹네다.”

허난. 느진덕정하님이 나상

“어디서 옹데가?”

허난.

“난, 이디 녹하단풍즈치명왕애기씨 수록드런 난 절에서, 추접 절에서 오고렌.”

허난

“어떻 허난 옹데가?”

“내가 온 거는 이디 애기씨가 명과 복이 쫄르난, 명과 복을 잇으레 권제를 받으레 오랏습네다.”

허난

“아이고, 이디 큰상전님네영, 안상전님네영, 문딱<sup>189</sup> 베슬 살레 가명<sup>190</sup> 아버지가 증근 문은 어머니가 수리두고, 어머니가 증근 문은 아버지가 수리두언, 경 헨 가부난, 애기씨는 궁 안네 잇어부난 권제를 못 안넵니다.”

경 허난.

“나가 안네쿠다.”

---

184) 스몯: 사몯.

185) 본메: 증거물이 될 만한 사물.

186) 굴송낙: 창호지로 만들어 쓰는 고깔.

187) 호롬줍치: 종이 쌀을 얻으러 다닐 때 쌀을 넣어지게 된 주머니 비슷한 것인 듯.

188) 짓알로: 아래로.

189) 문딱: 전부. 모두.

190) 베슬 살레 가명: 벼슬 살러 가면서



허난

“느진덕정하님 손으로 혼 말 주는거짱, 애기씨 손으로 혼 흡 주는 걸 맞서질 못합니덴.”

“겐 문 증근 걸 어떻습네까?”

허난. 경 허민 애기씨안티 강 들어봡 오렌 허는 거라.

“무시거옌 들어 봅네까?”

허난

“강 증근<sup>191)</sup> 문을 내가 올라<sup>192)</sup> 주크메, 베끼디 나왕<sup>193)</sup> 권제를 줄 티옌<sup>194)</sup> 강 들어 보렌.”

게난. 느진덕 정하님은 상전님안티 간

“애기씨 상전님아, 저디양, 영영현 추집 선생이 절에서 시권제를 받으레 왔 인디, 문 증근 거 올라 주민 권젤 내보넬텐 강 들어봡 오렌 했수다.”

허난

“게민, 경 허렌. 게문, 나, 증근 문 올라주민 나가 권젤 내보내켄”

게난 이젠. 그때옌. 천양낙화금정옥술발<sup>195)</sup> 들러 받안, 그 스님이 이젠 증근 증근 들어산. 혼 번을 둘러치난 천지가 요동허고, 두 번을 둘러치난 지에<sup>196)</sup>가 요동허옌. 이젠 일흔<sup>197)</sup> 빗골장<sup>197)</sup> 문이 절로 싱강허게<sup>198)</sup> 문이 올라진거라. 게난 애기썬 나온 거 보난, 하늘이 볼 건가 청너울을 둘러 쓰고, 땅이 볼 건가, 게난 얼굴 뻘지 말젠. 땅이 볼 건가, 지하님이 볼 건가 흑너울을 둘러 썬. 권제 가지깁이<sup>199)</sup>에 쓸 들런 증근증근 베끼더레<sup>200)</sup> 혼 발자국 두 발자국 나오 난 꿀러 앓안. 스님은 전대(纏帶)를, 권제 받는 전대를 혼착 귀는 입에 물고, 혼착 손은 엇영, 입에 문 거라. 손으로 영 허질 안허영, 입에 무난,

“어떻 허난. 스님아, 손 혼착은 어디 갓습네까?”

허난에, 하늘옥황에 단수옥갓 짚으레 갓덴. 손 혼착은 곱져붙어난 거주게. 곱 전, 장삼 쏘곶에 곱젓단에

“거난, 혼 방울도 떨어지지 안허게 이걸 스투르 스투르 비웁서.”

허난. 스투르 스투르 비우는다. 비우단 입에 물엇던 전뎃겘 잘락허게<sup>201)</sup> 내

191) 증근: 잠근.

192) 올라: 열아.

193) 나왕: 나와서.

194) 줄 티옌: 줄 것인지.

195) 천양낙화금정옥술발: 요령을 일컫는 말.

196) 지에: 지하.

197) 빗골장: 살장의 종류.

198) 싱강허게: 열쇠나 키가 쉽게 열리지거나 닫히는 소리.

199) 가지깁이: 늦사발의 두껍.

200) 베끼더레: 밖에.

201) 잘락허게: 무거운 것이 아래로 힘없이 쓰러지거나, 늘어져 처지다.

분거라. 계난 알더레 그 쓸 다 쏟아진 거 아니. 계난 은제 늦제를 주멍 이걸로 다 좇으렌 이걸. 헨 방울도 떨어지지 안허게, 이거 떨어지민 상전님 명과 복이 떨어지는 겨우덴. 거난 이걸 다 좇으셧 허난. 걸 줍젠 굽영 줍노렌허난, 아이, 훈착 손<sup>202)</sup> 옥황에 단수육갑(單數六甲) 짚으레 갓덴 헨 손이 뜬금엇이<sup>203)</sup> 나오란 애기씨 상가메 머리를 세 번을 솔솔허게 찢어분거라. 애기썩 그거 좇으멍 춤막춤막<sup>204)</sup> 놀렌거주게 거 손 나오란 머리 찢어가난. 계난 춤막춤막 놀레멍

“아, 이 중 저 중 귀썩헨 중이여. 양반칩이 못 덩길 놨으 스서로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알고나민 큰일이 날 중이엔.”

막 욱을 헨거라. 애기씨가. 계난 스님 허는 말이,

“아이고, 지금은 나신디 경 욱했우다만은, 셋 덜 열흘 백 일만 잊어봅서. 날 생각이 남네다.”

경 곱아똥<sup>205)</sup> 나가젠 헤가난. 애기씨가,

“야, 느진덕정하님아, 저 강 추접 선생<sup>206)</sup> 증가난 문 올라 논 거 이 문이라도 증가똥 가렌허라.”

거난 이젠 베끼디 나완 이젠. 나가 가가난

“아이고, 느진덕정하님아, 저 스님이 이상허다. 석 덜 열흘 백 일만 똥민 지 생각이 난덴 허멍이<sup>207)</sup>, 지 좇아올 일이 잊젠 허난, 강이 송낙지<sup>208)</sup>도 훈착 강 부령오라<sup>209)</sup>. 장삼(長衫) 옷도 훈착<sup>210)</sup> 강 부령오라<sup>211)</sup>. 게 그거 부런 오난 스님이 이젠 돌아산 허는 말이, 녹양낙하금정옥술발<sup>212)</sup> 들러 받안 또, 헨 번을 둘러 치난 천하가 요동(搖動)허고, 두 번을 둘러 치난 지하가 요동(搖動)허연. 이젠 빗골장, 모람장 지계살장<sup>213)</sup> 문이 싱강허게<sup>214)</sup> 절로 증가진거라. 다 축지법(縮地法)으로 허난게. 겐 그 문 증가전 돌아산 가멍

“이루제<sup>215)</sup> 날 좇앙 올 일이 생깁네다. 날 좇앙 올 때랑, 나 철죽대 그똥 그 어두영 가크메 그 철죽대 그똥만 보멍 날 좇앙 읍서.”

허여똥 가분거 아니. 가부난 애기씨가 그날부떠 먹던 밥도 먹고 싯푸고<sup>216)</sup>

---

202) 훈착 손: 한쪽 손.

203) 뜬금엇이: 난데없이.

204) 춤막춤막: 놀라서 갑자기 조금 움직이는 모양.

205) 경 곱아똥: 그렇게 말해두고.

206) 추접선성<sup>206)</sup>라이: 추접 선생한테

207) 난덴 허멍이: 난다고 하면서.

208) 송낙지: 고갈.

209) 부령오라: 찢어오라.

210) 훈착: 한쪽.

211) 부령오라: 찢어오라.

212) 녹양낙하금정옥술발: 요령을 일컫는 말.

213) 빗골장, 모람장 지계살장: 살장의 종류

214) 싱강허게: 열쇠나 키가 쉽게 열리지거나 닫히는 소리

215) 이루제: 나중에.

속이 니올니올헌 게, 그냥 석 덜 열흘 백 일이 돼어가난 돌곰돌곰헌<sup>217)</sup> 연드레도 먹고정 허고<sup>218)</sup>, 세금세금 오미즈도 먹고정 허고.

“아이고, 느진덕정하님아, 나 연드레나 오미즈나 먹고정 허덴.”

막 헤가난. 느진덕정하님은 멩텅이<sup>219)</sup> 들런, 높은 낭에 열매라부난 타지는 못허고, 낭 아레 상 열매만 털어지카부덴 암만 기다려도 열맨 안 털어지믄

“아이고, 하늘님아, 브름이나 불영 열매, 오미즈<sup>220)</sup>나 연드레<sup>221)</sup>나 털어지게 협서. 우리 상전님 애기씨 이거 먹고정 허연 죽을 스경 뉘엿수다.”

허난. 추접 선생은 법당에 앓아도, 앓아 천 리, 사 만 리 보난, 낭 아레 강 느진덕정하님이 막 열매 타지 못헿 우는 거를 봐주게. 경 허연 축지법으로 브름이 불게 맨든거라. 게난 브름부난 그거 방울방울 털어지난 멩텅이에 담양 오란

“아이고, 상전님아, 헿저 이거 먹영 정신 출립서. 나 이거 탕 오랏수덴.”

아, 것도 헿 두 방울 먹으면, 얼마나 먹을 듯이 헤뉘 헿 두 방울 먹으면

“아이고, 낭에 낭네 낱저<sup>222)</sup>. 풀에 풀네 낭 못 먹키여. 이것도 나 못 먹키여.”

옷도 빨양<sup>223)</sup> 그 옷 입지믄

“아이고, 똥네<sup>224)</sup> 낭 못 입으키여.”

밥도 헿 안네민

“풀네 낭 못 먹키여.”

물도 안네민

“펼네<sup>225)</sup> 낭 못 먹키여.”

그냥 막 요빈닥이<sup>226)</sup> 헿거라. 점점 잇어가난 베가 점점 불려진 거 아니. 벤 불려지고, 애기는 죽을 스경(死境)이 돼어지고. 경 허난 느진덕정하님이 편지 답장을 보내기를,

‘아이고, 임전국 대감님아, 짐전국 부인님아, 삼 년 살 공스(公事)결랑 단 셋 덜에 살양 읍서. 셋 덜 살 공스(公事)건 단 사흘 살양 읍서. 아기씨 상전님이 죽을 스경(死境)이 뉘엿수다.’

216) 실푸고: 움직이거나 일하기가 싫다.

217) 돌곰돌곰헌: 달콤 달콤한

218) 먹고정 허고: 먹고 싶고.

219) 멩텅이: 주로 곡식 따위를 담아두거나 담아 나르거나 할 때 쓰려고 짚을 곱게 엮어 만든 망태.

220) 오미즈: 오미자.

221) 연드레: 연다레.

222) 낭네 낱저: 나무 냄새 난다.

223) 빨양: 빨아서.

224) 똥네: 똥 냄새

225) 펼네: 펄 냄새.

226) 요빈닥이: 요망스러운 짓.

허연 편지를 띄우난, 아이고, 그땐 임전국 대감님하고 짐전국 부인님은 이것 사 뭘 말이니? 그만이 우리가 다 문을 다 증가뵈 왔인다, 문 증강 와부난 무신 송시가 낮인고. 그냥 살던 공소(公事) 다 내붙어 두언 온 거라. 겐 오난. 느진덕 정하님이,

“상전님아, 아버지 어머님신디 선신문안(現身問安)을 드려사 헐 거 아니꽈?”

허난.

“게메이. 아버지안틴 어떻 선신문안(現身問安)을 드리코이?”

허난.

“아버지는 남 부모에 여 즈식이기 때문에 펡풍 두이<sup>227)</sup>로 가뵈, 아버지안티랑 풀 죽은 옷을 입영 치메도 풀 죽영 맨지글락<sup>228)</sup> 험거 저고리도 경 험거 입영, 소곡소곡 굽영, 소곡소곡 소곤정<sup>229)</sup>으로 가근앵에 선신문안(現身問安)을 드립서.”

게난 느진덕정하님 곤는 데로 이젠. 문딱 그추룩 출령 아버지안티 간. 펡풍 두이로 간 선신 문안을 드리난

“아이고, 나 톨아, 아버지 어머니 엇어부난 고생 하영 헛져. 겐디 어떻허난 머린 경 주치산이 메방석<sup>230)</sup>이 뵈엇이니?”

허난

“아버지 어머니, 오카부덴 메날 머리 굽으멍 허단 보난 주치산이 메방석이 뵈엇우다.”

“눈은 무사 경 곰박눈<sup>231)</sup>이 뵈불엇이니<sup>232)</sup>?”

허난

“창고망으로, 무슨 사람 소리 뷁스락<sup>233)</sup> 소리만 나도 아버지 어머니, 오랏이 카부덴<sup>234)</sup> 메날<sup>235)</sup> 마당드레만 뷁리단보난 눈은 영 곰방눈 뵈어불엇우다.”

“게난, 코는 무사 물똥코<sup>236)</sup>가 뵈엇이니?”

“큰양, 하도 울멍 콧물이영 눈물이영 하도 썬어부난<sup>237)</sup> 물똥코가 뵈엇우다.”

“게난, 입은 무사 경 작박입<sup>238)</sup>이 뵈엇이니?”

227) 두이: 뒤.

228) 맨지글락: 촉감이 매끄럽고 부드러운 풀.

229) 소곤정: 늘상 부친에 대해 지닌 정으로

230) 주치산이 메방석: 평이나 매가 거쳐하는 짚을 이용하여 지은 방석과 같은 자리

231) 곰박눈: ‘곰박’에 난 구멍과 같이 일그러진 모양

232) 뵈불엇이니: 되어버렸다.

233) 뷁스락: 바스락.

234) 오랏이카부덴: 오고 있을까봐.

235) 메날: 매일.

236) 물똥코: 말의 분(糞)처럼 일그러진 코.

237) 썬어부난: 쓸어서

238) 작박입: 주걱처럼 생긴 입모양이 큰 것을 표현함.

“하도 울어불고 허난 영 똥우다.”

“벤 어떻 허난 두릉둥베가 똥엇이니?”

허난에

“느진덕 정하님이, 아버지 어머니م 잇일 때 ‘상전님아, 하영 먹영 헌저 콕서’ 허명. 아버지 어머니 잇일땐 흡으로 마련을 헛인디, 아버지 어머니가 잇이난 똥로 마련허영 밥을 쥐부난 먹단 보난 벤 영 불엇우다.”

자기 자신도 애기 베진 건 몰랐지. 경 허난.

“아이고, 나똥 아기 착실허다. 느 방으로 가라.”

허연 보내난. 이젠 어머니신디 가젠 허난

“어떻허영 가느니?”

허난. 느진덕 정하님 허는 말이,

“여 부모에 여 즈식이난 무슨 승허물<sup>239</sup>이 잇입네까, 어머니신디 갈 때랑 풀 써<sup>240</sup> 치메 입고, 풀 써 치메 저고리 입고 경 허영 펑풍 베깃디레<sup>241</sup> 말앙 그 냥 어머니신디레 강 선신문안(現身問安)을 헛서.”

허난. 이젠 어머니신디레 제직제직<sup>242</sup>허영, 영영허연 제직제직허난 벤 이만 이 헛 거 아니. 경 제직제직허영 제직헌 정으로 강 선신문안(現身問安)을 가 난. 어머니도 아바님 질문허듯이 다 질문 허난, 겐디 어멍은 아멩헤도<sup>243</sup> 내가 헤 본 경험이라 이상헌거라. 아멩헤도 이상허다 나, 똥애기야 이레 오렌, 즈꿇 디에<sup>244</sup> 오렌 허난. 치멜 확허게 걸영보난. 아이고, 가슴에, 젓줄이 프룻프룻 산 거 아니. 젓에.

“아이고, 얘야, 이거 궁 안네도 브름이 드느냐? 이거 어떻헌 일이고?”

애길 벤거라.

“아이고, 이거 큰일났젠.”

이젠 암만 아깝고 헤도 양반집이 즈식이기 때문에 죽여불어살거 주겐 허연. 애기씨 죽이젠 허민 느진덕정하님이 왕,

“아이고, 상전님은 아무 쥬도<sup>245</sup> 엇우다<sup>246</sup>. 나가 잘못된 일이주 애기써 아 주 쥬도 엇우덴 헤영 날 죽여 쥬셴.”

허고. 이제 또 느진덕정하님 죽이젠 허민 녹하단풍애기씨가 오랑

“아이고, 느진덕정하님 잘못된 일 하나도 엇우다. 나가 잘못된 일이주. 날 죽

239) 승허물: 흡이나 걸점 따위를 일컫는 말.

240) 풀써: 풀을 강하게 해서 옷감이 뽀뽀한

241) 베깃디레: 밖으로.

242) 제직제직: 허리를 뒤로 젓히고 걸어가는 모양.

243) 아멩헤도: 아무래도.

244) 즈꿇디에: 가까이.

245) 쥬도: 죄도.

246) 엇우다: 없습니다.

여 줘센.”

허고. 아, 서로가덜 영 헤가난. 은대양에 물을 떠단, 원 이상허던 헤연 앓전 보난<sup>247)</sup> 종이 아덜 삼 형제가 배 쏘곶에<sup>248)</sup> 잇인 거라. 야, 이거 양반칩이 스 단공즈 낫저. 이거 하나 죽이젠 헤가민 다섯 목숨이라. 배 쏘곶엿 애기 세 개 에, 녹하단풍애기씨에, 느진덕정하남에. 게난 이제 다섯 목숨 죽이민 무시거 허고, 경 말양 우리가 귀양정배(定配)라도 보내영 아무디라도 그자, 가지는 디 라도 강 살렌허영 보내불주긴 허연

이제 가젠 허난, 아버지도 울고 어머님도 울고 이젠 애기씨도 비세 7찌<sup>249)</sup> 울어가난, 아버지신디 하직 인사를 허레 들어가난. 아버지 비세 7찌 울명,

“설운 나똥아, 아멩이나 아무딜 가도 명만 붙영 살렌 허명, 울명, 금봉채(金扇)를 내어준 거라.

“이건 무시겘<sup>250)</sup> 허는 거꽈?”

허난

“이거 앓앙 텅기당, 가당가당 텅겨도 질이 안 나건 이걸로 땅을 탁탁 세 번 을 치민 느 갈 질<sup>251)</sup>이 나온다.”

계연 내어주고. 어머님신디 가난. 어머님도 비세 곶이 울명

“설운 나똥아, 느 어뎡 허연. 느 얼마나 공들게 허연 난 풀인다. 이게 무신 일이고.”

어명도 비세곶이 울명, 연봉채(銀扇)를 내어준 거라.

“이거 무시거꽈?”

“이것도 느 가당가당 질이 아니 나건, 땅을 연시 번만 때리민 질이 흰허 게<sup>252)</sup> 난다.”

허연. 이젠 아바님도 하직허고, 어머님도 하직허고 금마답<sup>253)</sup>에 수리를 두고, 이젠 올레에 간 막음 두연. 느진덕정하남허고, 감은 암셴 내어주난. 그것에 탄, 돌리가<sup>254)</sup> 하직 허연 올레에 나간 거 아니. 올레에 나강 보난, 스님 가명 그은 그 철죽대 그뭇이<sup>255)</sup> 흰허게 잇인 거라. 게난 그거 의지 삼안 가단 보난. 그냥 산에 불이 활활 부뜨는<sup>256)</sup> 산이 있어.

---

247) 앓전보난: 앓혀보니

248) 배 쏘곶에: 배 속에.

249) 슬픈 새처럼

250) 무시겘: 무엇을.

251) 느 갈 질 :내가 갈 길

252) 흰허게: 환하게.

253) 금마답: 마당. 전정(前庭)을 일컫는 말.

254) 돌리가: 둘이서

255) 그뭇이: 금이

256) 부뜨는: 붙는

“느진덕정하님아, 저건 무신 뉘이고?”

허난.

“아이고, 상전님아, 부모 즈식이 생이별을 허젠 허난, 죽어 이별은 나라에 대  
동이고, 살아 이별은 생초목에 불이라. 이거 살아 이별허젠 허난 부모님네 가  
슴에 불이 활활 부뜨는 뉘이우다.”

“아이고, 경 허냐.”

이젠 그딜 넘어산 가단 가단 보난, 물이 동산에서 알더레 내려와사혈 걸, 아  
랫물이 동산 우터레<sup>257)</sup> 막 치데기는거라<sup>258)</sup>.

“저건 무신 뉘이고?”

허난

“저건 부모 즈식 생이별허연 나가젠 허난, 거은물 건드리우다<sup>259)</sup>.”

“경 허냐.”

이젠 가는 거 아니. 가단 가단 바려보난, 이젠 우이는 퍼지고 알은 쫄아  
진<sup>260)</sup> 산이 있어.

“야, 저건 무신 산이고?”

허난.

“저건양, 상제님아, 건지산<sup>261)</sup>이우다. 남편 본메 못 보아도, 이젠 혼전싱을  
그리쳐우께.

계난 옛날은 총각머리<sup>262)</sup> 허영게, 두이로 머리, 그냥 영 세 개로 갈라근에  
하나로 딸왕<sup>263)</sup> 이디 영 놓앙 덩기단. 이젠 그 산 우이 올라가근영에 건지를  
허여사 험니덴.”

건지를 허문 이젠, 남편 본메를 못 봐도, 말하자면 결혼식 헌 사람이나 마찬  
가지주게. 계난 그디 강 앓앙 비세굴이 울멍 이젠 건지를 헌거라. 삼동낭 용얼  
레기<sup>264)</sup> 내난 머리 빚언. 세갑머리<sup>265)</sup>를 으섯개 갈라다완, 육갑 머리로 허연,  
딸와 앓언, 건지허연. 겐 그디 건지산으로 허연 앓안, 건지허연

“느려 글라.”

가겐 허연. 나사난. 동해산, 서해산, 남해산을 넘어사난. 아양동축산이 잇인  
거라. 아양동축산을 넘어 잘도 걸엇주. 경 허연 가단 가단 보난, 동이 청산이

---

257) 우터레: 위쪽으로.

258) 치데기는거라.: 치올리는 거라.

259) 거은물 건드리우다: 거슬러 흐르는 물 거슬린 다리입니다.

260) 쫄아진: 좁아진.

261) 건지 산: 건지머리 (머리를 올려 결혼했음을 나타냄) 상.

262) 총각머리: 처녀나 총각이 양쪽으로 딸아 길게 늘어뜨린 머리.

263) 딸왕: 딸아서.

264) 삼동낭 용얼레기: 삼동나무로 만든 빚.

265) 세갑머리: 세 가닥으로 갈라서 딸은 머리.

잇고, 청산을 넘어사난 청수와당(靑水海)이 잇는 거라. 청수와당(靑水海) 넘어 가젠 허난 질이<sup>266</sup> 안 난 거 아니. 이제 아버지 준 금봉채(金扇) 내어 놓안 딱 딱 연세 번 치난, 질이 흰허게 난거라. 그 질로 허연 가단 보난 청몰레왓이 나오고, 서이 백산, 백몰레산도 넘어사고, 이젠 남해 적산 흑몰레왓을 넘어사고, 넘어왓언 가노렌 허난. 가단가단 보난 낙수와당 수삼천릿질이(數三千里路) 나온 거라. 낙수와당 수삼천릿질(數三千里路), 큰 강인지 바당인지 경 헨 나오난. 그거를 넘어가젠 어멍 준 은봉채를 내어놔 연시 번을 후려도 질이 아니 나. 이젠

“아이고, 이디도 못 넘어가고 이 노릇을 어떻헨 좋고.”

헨. 느진덕정하님허고 애기씨허고 앓안 비세굴이 우노렌 헨. 아, 울단보난 무정 눈에 줌이 소로록허게 온 거 아니. 경 헨 자노렌 허난 꿈에 선몽을 허기를, 하양 현 백강생이<sup>267</sup> 나완 꼴렝이<sup>268</sup> 혼돌혼돌허멍

“아이고, 상전님아, 무사 이디서 영 앓안 울곡 즐앓수파<sup>269</sup>?”

경 허난.

“난, 이 질을 못 넘어간 헛저.”

허난에.

“게난, 는 누게고?”

허난

“난, 옛날 상전님에 집이 백강생이로 강 살앗우다만은, 상전님 하도 날 애껴 주언 허단 죽으난, 난 요왕황제국(龍王皇帝國) 딱님애긴디 하도 쥬가 만허연 우리 부모님네가 날 인간에 백강생이로 귀양정베 보내부난, 상전님네 집이 간. 나 살단 죽으난 요왕황제국 던져부난, 난 요왕황제국 툐이우덴. 이디 잇입서. 아버지 어머니안티 강 등장을 들영 이디 건너갈 걸 나가 마련을 허쿠덴.”

겐. 흐꿈<sup>270</sup> 잇이난 큰 거북이가 온 거라. 거북이가 완 영 눈짓으로 이제 지 등더레<sup>271</sup> 타렌. 게난 그디 녹하단풍족치명왕 애기씨허고 느진덕정하님허고 둘이 타문 좋주. 감은 암쇄<sup>272</sup> 깝지 테왕 갈 순 엇인 거라. 게난 이젠 아이고, 감은 암쇄랑 클러 쥬 불게. 아무데라도 지 살 도리를 헝 살게. 겐 클러 뉘. 그 걸 탄 넘어가노렌 허난 느진덕정하님이 영 뒤돌안보난 놈이 곡석 밧디 든 거 아니.

266) 넘어가젠 허난 질이: 넘어가려고 하니 길이.

267) 하양 현 백강생이: 하얀 백(白)강아지.

268) 꼴렝이: 꼬리.

269) 즐앓수파: 즐고 있습니까.

270) 흐꿈: 조금.

271) 지등더레: 자기의 등에

272) 감은 암쇄: 검은 암소.



“아이고, 상전님아, 저거 볍서. 감은 암쎈 그동안 놈이 곡석밧디<sup>273)</sup> 들었우다.”

허난.

“아이고, 본 말랑 본디 브리고, 들은 말은 들은 디 브령 혼저 글라.”

겐 헨. 가단 보난, 벌써 추접선생은 이제 녹하단풍 애기씨가 이녁<sup>274)</sup> 좇아 오는 거를 안거라. 알안 질을 닦으렌 허연, 이제 열두 문을, 다 질을 닦아근에게<sup>275)</sup> 문을 잡으렌 허고, 혼 착 찾아분<sup>276)</sup> 송낙도 큰 낭에 간 탁허게 돌아메고, 장삼도 찾아분 거 돌아메고. 게난 애기쎈 그걸 다 콤에 콤언<sup>277)</sup> 놔뒀주게. 그 찾아논 거를. 게 본메본짱이난. 질을 닦으는 인정을 드렌 헨<sup>278)</sup> 거 아니. 무슨 인정, 돈 가정 가서. 돈도 안 가정 갖인디, 돈도 엇고. 이젠 상전님 열두 폭 치메를<sup>279)</sup> 입엇단 혼 폭씩 브려네<sup>280)</sup> 열두 문에 인정 걸어부난. 치메가 엇인거라, 허리백이. 게난, 느진덕정하님 ㄱ라,

“아이고, 그 치메 우리 으섯 폭씩 갈라 입겐.”

겐, 느진덕정하님 치메 브령 이녁<sup>281)</sup> 허리더레, 허리만 남으난, 허리더레 들안. 경 허연 먼 올레로 가단보난, 혼 착 엇인 송낙도 브름에 년들년들 헛고, 장삼도 혼 착 풀 찢어져분 거 년들년들 헛이난, 이녁 가슴에 요디 콤엇단 거 슬쩍 앓아내언 그디 간 맞춰보난 똑히 맞으는거라. 아이고, 이거 분명히 잘 좇앙 오랏젠. 이젠 스님한테 좇안 들어가난에, 추접 선생 허는 말이,

“날 좇앙 오랏건 초나록을 내어주크메 그거 반착짜리 쓸 하나토 엇이, 착쓸<sup>282)</sup> 하나 엇이 그거를 문딱<sup>283)</sup> 깡 혼 동이를 올리면 날 좇앙 온 게 분명허덴.”

허난. 아이고, 이젠 그걸 앓안 느진덕정하님허고 돌이가 그걸 베깃디<sup>284)</sup> 나 오란 니빨로<sup>285)</sup> 까젠 허난 니빨 아프고, 손콥으로<sup>286)</sup> 까젠 허난 손콥 아프고. 이젠 그거 까단 스로록허게<sup>287)</sup> 줌 들어분 거라. 줌드난 꺾설메에<sup>288)</sup> 막 쎅이 들 소리가 오조조조 소리가 나난. 그냥 새 다울림이엔<sup>289)</sup>

273) 놈이 곡석 밧디: 남의 곡식 밧에.

274) 이녁: 자기를.

275) 질을 닦아근에게: 길을 닦아서.

276) 찾아분: 찢어버린.

277) 콤에 콤언: 품에 품어서.

278) 드렌 헨: 달라고 한.

279) 치메를: 치마를.

280) 혼 폭씩 브려네: 한 폭씩 찢어서.

281) 이녁: 자기.

282) 착쓸: 반쪽 쌀.

283) 문딱: 모두.

284) 베깃디: 밖에.

285) 니빨로: 이빨로.

286) 손콥으로: 손톱으로.

287) 스로록허게: 알맹이나 액체 따위가 가볍게 빠져 나가거나 들어가는 꼴. 곱게 잠이 드는 꼴.

288) 꺾설메에: 실체가 없는 소리를 잠깐 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듯한 환청 현상.

“주어 저 새!”

헨 다올린 게, 새들이 놀멍<sup>290</sup> 놀게로<sup>291</sup> 퍼딱 허난, 새들이 완 다 까준 거라. 겐 까난, 채는 채대로 쓸은 쓸대로. 게난, 착쓸 하나도 엇이. 아이, 헨 동 일 다 까진 거 아니. 겐 그걸 추접 선생안티 바찌난,

“아이고, 날 좇아 온 자가 적실허다<sup>292</sup>. 경 허면 우리 법당에는 부부출령 사는 법이 엇이난 내가 시왕 곱은연질을<sup>293</sup> 놓아주크메 시왕 곱은연질을 탕 그 디 내려사민 불도땅이난 그디 강 해산도 허고, 그디 내려사렌. 게난 시왕 곱은연질을 추접 선생이 놓아주난 내려산 불도땅에 간 거라. 가난 예산 친구월 초 여드렌 뉘난

“아이고, 베여. 아이고, 베여.”

애긴 낱젠 허난. 둥글단 보난 베 쏘곶에 애긴 알로 낱젠 헤도 알은 아버지도 못 본 궁문이여. 느단 겨드랑이<sup>294</sup>로 헤우천<sup>295</sup> 튼언<sup>296</sup> 나온 거라. 겐 그 애 기 웅이자랑 웅이자랑 헤노렌 허난, 아, 열으드렌 뉘난 또 신명두가 나오젠 허 난, 알로 낱젠 헤도 아버지도 못 본 궁문이고, 느단 겨드랑이론 성(兄)이 나와 부난 부정이 만허고, 이젠 웬 겨드랑일 헤우천 나온 거라. 경 헨 나오난, 웅이 자랑 웅이자랑. 이제 또 스무여드렛 날은 뉘난, 살아살축 삼명두가, 이젠 신명 두 본명두 경 헨 솟아나고, 살아살축 삼 형제가 나오젠 허난, 웬 쪽도, 느단 쪽은 제일 큰 성이 나와나불고, 웬 쪽은 작은 성이 나와난 부정들 허고, 게난 이 오모손이<sup>297</sup>, 요 가슴을 헤쌍 나온 거라. 겐 나오난 이 애기덜 웅이자랑 웅 이자랑 허명 키워가난, 헨 서너 설 뉘언, 대으섯 설 뉘난 동네 친구덜 도둑질 허는 친구들이영 놀민 도둑질만 허젠허고, 또 칼들령 무신 쉼나 잡고 무슨거 허는 친구들이영 놀민 칼들령 그것들 허젠허고. 아이고, 이거 아니 뉘키여. 이 거 벗을 잘헤사 애기덜을 잘 키울로구나허연. 게난 그 동네에 거무 선생이 잇 어난 쟁이라. 거무 선생안티 좇앙 간, 어머님이,

“거무 선생님아, 우리 식구들 이디 써 줍서. 날랑양 부엌데기로<sup>298</sup> 들어사고, 우리 큰아덜랑 굴묵지기<sup>299</sup>로 들어사고, 셋아덜랑 베리지기<sup>300</sup>로 들어사고, 족

---

289) 다올림이엔: 내쫓는다고.

290) 놀멍: 놀면서.

291) 놀게로: 날개로.

292) 적실허다: 틀림없이 확실하다.

293) 곱은연질: 꼬부라진 길. ‘연질’의 ‘연-’은 접두사.

294) 느단 겨드랑이: 오른쪽 겨드랑이

295) 헤우천: 헤쳐서.

296) 튼언: 뜯어서.

297) 오모손이: 오목가슴.

298) 부엌데기로: 부엌일을 맡아서 하는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299) 굴묵지기: 온돌 아궁이 불 때는 사람.

300) 베리지기: 벼루지기.

은아덜랑 문지기로 들어상, 우리가 거무 선생 집이 일을 허쿠다.”

허난.

“게문 경 허렌.”

허연. 어명은 부엌지기로 들어상 부엌에서 하간거<sup>301)</sup>, 거무 선생안티 물도 떠 가고, 밥도 행 올리고, 큰아덜은 굴묵에서 앓앙 어둑어가민, 열어가민 굴묵도 지더<sup>302)</sup> 안네고, 셋아덜은 선생 글 쓰젠허민 즈꿏디<sup>303)</sup> 앓앙 먹 곶아 안네고, 족은아덜은 문 옆이 샷당<sup>304)</sup> 그디 글 공부허는 아이들이영 문도 올라주고 덮어주고, 경 허는디, 눈치로 보멍, 거무 선생 글 허는 걸, 아이덜 글 허는 걸 눈치로, 율 눈으로 브레멍<sup>305)</sup> 글 공부를 배운거라. 겐 그날 배운 공부는 어둑영 아이들 다 가불민 굴묵에 강 고는 대로 솔솔허게 재 등겨다 낵<sup>306)</sup>, 경 헨 손으로 끈끈허게 녹들어 낵에<sup>307)</sup> 그날 배운, 복습을 허는거라 말하자면. 경 허멍 공부를 허는 것이, 흐를 날은 거무 선생이 집안 올라릴 돌단 보난, 굴묵에 천하 명필 글씨가 잇인거라. 보난, 재 우이 천지혼합(天地混合) 천지개벽(天地開闢) 세상에 없는 글이라. 아이고, 이 아이들 이거 이렇게 똑똑헌, 으망진 아이들이로구나. 마침 서울 상시관이 시월동당 과거가 잇젠허난, 과거보레 가젠 삼천 선비들을 이제 다 준비들을 허는디, 이젠 그 애기덜토<sup>308)</sup>

“어머님아, 우리도 과거보레 가민 어떻허우꽈?”

허난.

“아이고, 느네덜<sup>309)</sup> 과거를 보레 가젠 허민 옷도 엇고, 어떻헨 갈티<sup>310)</sup>?”

느네들 공부나 다 허영 나사민 구쟁이, 점벙이나 하나씩 행 입지젠<sup>311)</sup> 돈 세입, 툃툃허게<sup>312)</sup> 소중기<sup>313)</sup>에 짤 곱전 낵단 이제 그거 내난 구쟁이<sup>314)</sup> 점벙이<sup>315)</sup> 하나씩 행 입지고, 느네들, 게걸랑<sup>316)</sup> 명심허여근에 강 오렌 허연. 보낼 때에 거무 선생이 허는 말이,

“저 아이들 삼형제 들앙가민 느네들 과거 낙방헌다. 절대 저 아이들 글이 명

301) 하간거: 이것저것의 모두.

302) 지더: 불을 때서.

303) 즈꿏디: 걸 또는 가까운 곳.

304) 샷당: 샷다가.

305) 율 눈으로 브레멍: 옆 눈으로 보면서.

306) 등겨다 낵: 당겨다 놓고.

307) 녹들어 낵에: 눌러 놓고

308) 애기덜토: 애기들도.

309) 느네덜: 너희들.

310) 어떻헨 갈티: 어떻게 해서 갈거니.

311) 입지젠: 입히려고.

312) 툃툃허게: 단단하게.

313) 소중기: 무명이나 삼베로 만든 여자의 속옷인데 폭이 넓고 길이는 무릎까지 옴.

314) 구쟁이: 일할 때 입는 얇은 옷.

315) 점벙이: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흠바지.

316) 게걸랑: 그렇다면.

필이라라.”

허연. 곶아분 거라<sup>317)</sup>. 재에 쓴 거를 본 거를, 경 헨 곶아부난. 이젠, 가가민 삼천선비들은 가이들 안 들양가젠 돌맹이로 맞춰 불고, 가가민 두드려 불고, 막덩이로 앓양 떼려 불고 허멍, 가가민 기어코 쫓아 간 거라. 겐 하도 쫓아 가가난 이젠 삼천선비들도 귀찮은 모양이지. 경 허연 쫓아가노렌 허난 베좌수 고을은 딱 들어사난, 베 낭 우이 베가 드랑드랑 올라시난에<sup>318)</sup> 삼천선비들이 꺾을 쓴 거주게.

“경 말앙이 느네들 우리영 हु디 가컬랑은에게<sup>319)</sup> 저 베 낭 우이 올라강 हु 사름이 천 방울씩 탕이, 우리 삼천선비들 हु 방울씩, 너네 삼형제난 삼천 개 타당 우리 갈라주민<sup>320)</sup> 너네 들양가키여.”

허난. 그 아이들은 아이고, 베라도 탕 삼천선비들 주민 곱게 들양 거주카부덴 베 낭 우이 올라간 거 아니. 베 낭 우이 곱은 디 곱억 곱은 디 곱억 허멍 들 올라간. 베 हु 사름이 천 방울씩, 다님<sup>321)</sup>은 묶으고 허리만 클렁 이 쏘곱더레 타멍 담은 거라. 양 가달에 소뻑허게시리<sup>322)</sup> 천 방울씩 담으난, 돌베주게 요만씩 हु 거게 경 헨 담으난, 올라가도 못허고 내려오도 못허영 허난 삼천선비들은

“우리 가자.”

허연. 와르르르 다 돌아나분 거 아니 . 그 아이들은 베 낭 우이서 비세곶이 운거라. 게 울어가난 아, 그날 이 베좌수 꿈에 선몽허기를, 베 낭 우이 청룡 황룡 뱀이 얹어지고 틀어진 거라.

‘아이고, 피라곡절(必有曲折) 허다.’

뒷날 아척은<sup>323)</sup> 베지근이<sup>324)</sup> 동 터가난, 베 낭 우이 히뚜룩헌 거<sup>325)</sup> 뭐 있어.

“야, 너네 귀신이나, 쟁인이나? 귀신이건 썩 물러나고 쟁인이건 어서 내려오렌.”

허난. 가이들 삼형제가

“우린, 귀신이 어찌 여기 올 수가 잇입네까. 우린 쟁복이삼형젠디 과거보레

317) 곶아분 거라: 말해버린 거야.

318) 올라시난에: 열려있어서

319) 가컬랑은에게: 가고 싶다면.

320) 갈라주민: 나눠주면.

321) 다님: 대님.

322) 소뻑허게시리: 가득하게.

323) 아척은: 아침엔

324) 베지근이: 헤지근이. 주로 날이 밝으려 할 때 빛이 약하고 가늘게 퍼져 오르면서 희미하게 밝아 오다.

325) 히뚜룩헌 거: 어느 정도 흰색이 떠올라 비치다.

가단 삼천선비들이 베 삼천 방울 땅완<sup>326)</sup> 하나씩 갈라 주민 들앙가켄 허난, 이 디 완 벤 타 놓고 올라가도, 내려가도 못헨 영 울었우다.”

허난.

“아이고, 설운 애기덜아, 게건 다님<sup>327)</sup> 풀어불라.”

겐 다님 풀어부난. 벤, 삼천 방울 다르르허게 알더레<sup>328)</sup> 털어진 거 아니. 게 난 그땐 이젠 너네 흔저 느려오렌 허연. 그 애기덜 느루완

“아이고, 느네 어제 저녁부떠 올라간 그 진진헌<sup>329)</sup> 밤을 세고 허젠 허난 베 고프진 안허냐?”

이레 오렌들 허연. 식은 밥에 물즙이<sup>330)</sup>허연 흔 그릇씩 즙안 맥연.

“설운 애기덜아, 니네 가민 분명히 당선됐다.”

그 청룡 황룡이 막 엮어진, 꿈에 경 허난,

“느네, 당선됐다. 흔저 가렌.”

허연. 보내난 삼형제가 가노렌 허난. 청만주에미<sup>331)</sup>가 그냥 웨우느다<sup>332)</sup> 갈 라가는 거라. 게난 그 법으로 시왕맞이<sup>333)</sup> 험 때는, 우리 일 허레 강 시왕맞이 험 때는 이런 물섹<sup>334)</sup>이나 막 허영 이레 감고, 저레 감고 천장에 막 만주에미 베염 질 갈라난 식으로 그걸 막 엮으는 거주게. 경 허연 이젠 넘어산. 이젠 들 으멍 기멍 소못, 요즘 사람 말 마땅이나 발바닥에 불이나게 간 보난, 동문 서 문 남문을 다 잡아 분거라. 상시관에, 동안문 마당에, 게난 들어가도 못허고 올레에 수양청버드낭 하나 잇이난, 그거 의지삼양, 그늘 삼양 그디 앓아둬 서<sup>335)</sup> 이 노릇을 어떻 허민 좋고허연 그꺄지 가두고 허연 헤가난. 아이, 주모 할망 꿈에 선몽을 헨거라. 게난 주막 집이 할망이주게. 주막 집 할망 꿈에 스 님이 선몽(現夢)허기를,

‘아무 디 강 보민, 수양청버드낭 아레 도령들 서이가 앓앙 비세굴이 울없이 메 그 아이덜 돌아당 시장기도 멀려주고, 그 아이덜 밥 먹는 동안에 붓전에 강 붓도 사다주고, 종이전에도 강 종이도 사다주고, 베리전에 강 베리도 사다주 렌.’

경 헨 선몽(現夢)을 딱 시긴 거라. 경 헨 가이덜 글 쓰걸랑, 할망 손지가, 웨

326) 땅완: 따와서

327) 다님: 대님.

328) 알더레: 밑으로.

329) 진진헌: 길고 긴.

330) 물즙이: 밥을 물이나 국에 말다.

331) 청 만주에미: 작은 뱀

332) 웨우느다: 좌우로.

333) 시왕맞이: 시왕에게 축원하는 곳 이름. 무흔(撫魂), 치병(治病) 등을 위하여 함.

334) 물섹: 알록달록하게 물들인 천.

335) 앓아둬서: 거동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손지<sup>336</sup>)가 상시관이, 아멩해도<sup>337</sup>) 몸종사 뉘신?라. 경 헨 글 쓰걸랑 손지안티 주렌. 경 허영 꿈에 선몽(現夢)을 허난, 퍼쩍 깨난 보난 꿈이라. 아이, 이젠 좇아앗영<sup>338</sup>) 간 보난, 수양청버드낭 아레

삼형제가 앓앙 비세골이 우는 거 아니. 베 고프고 허난.

“아이고, 느네들 이레 오라. 이레 오라.”

허연. 그 애기덜 돌아단 밥 허영 주고,

“느네들, 밥 먹없이라이.”

헤 뉘. 나산에, 베리전에 강 베리사젠, 영 심젠 허민 청주녕이가<sup>339</sup>) 그레 바르르허게 기고, 붓전에 강 붓 사젠 허민 흑주녕이가 바르르허게 기고, 아이고, 첨 이거 피라곡절(必有曲折) 헨 일이옴. 경 헨 그거 문딱<sup>340</sup>) 베리영<sup>341</sup>) 상 완.

“느네들, 글 쓰라.”

허연. 겐 글 썸.

“걸 날 쥐 뉘 가렌.”

허연. 걸 할망이 말앗단. 점심 시간에 손지가 점심 먹으레 왔이난, 이거, 강 상시관이 독무릅<sup>342</sup>) 앞더레 강 솔쩍이<sup>343</sup>) 놓아불렌. 게난 손진 앓앙 간, 상시관 독무릅더레 솔쩍이 논 거 아니. 독무릅 밋더레<sup>344</sup>). 과거를 다 끝난. 과거를 주젠 삼천선비들 글을 지은 것이. 과거 줄 만한 글이 엇인 거라. 이젠 무릅 아레 낫던 거를 내뉘 보난.

아, 세상없는 천지개벽(天地開闢), 천지혼합(天地混合), 천앙베포 경 허연 썸이난. 아이고, 이거 세상 없는 글이라고.

“이거, 누게가 썸느냐?”

삼천 선비들?라 곱으난, 아무도 안 썸덴 허는 거라. 게난 할망 손지가 허는 말이,

“저 올레 베깃디<sup>345</sup>) 보난, 수양청버드낭 아레 도령 서이가 앓아십디다.”

허난.

“게건, 가이덜을 돌아와보라.”

허난. 그 아이덜을 돌아 완

---

336) 웨손지: 외손자.

337) 아멩해도: 아무래도.

338) 좇아앗영: 찾아서.

339) 청주녕이가: 청지네가.

340) 문딱: 전부. 모두.

341) 베리영: 베틀하고

342) 독무릅: 무릎.

343) 솔쩍이: 살짝

344) 밋더레: 밑에

345) 베깃디: 밖에.

“이거 너네가 씻느냐?”

허난

“예, 씻습니다.”

“게문, 너네들 또 한 번 써 볼 수 잇겠느냐?”

허난.

“예. 쓰겠습니다.”

게난, 삼형제가 붓을 먹 적정은에<sup>346)</sup> 입에 물엿 입으로 영영휘휘 써도 그추룩<sup>347)</sup> 쓰고, 손가락에 꿰엿 써도 경 쓰고, 발가락에 꿰엿 써도 경 쓰고. 아이, 천하 멩필이로구나. 삼천선비들 다 낙방을 시겨분거라. 가이들 과거 당선허연 과거를 준 거라. 겐 과거를 주난, 유정싱 아들이 그디 과거를 보레 가나신<sup>348)</sup> 라<sup>348)</sup>, 유정싱 아들이 상시관(上試官)신디 간.

“왜? 우리 양반에 자식은 과거를 안주고, 중이 즈식은 과거를 줘네까?”

허난.

“중이 즈식인지 아닌지, 너히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잇느냐?”

허난.

“헌번 배석상(拜席床)을 출령 술허고 꺀기하거 쥬 밥서. 자이네<sup>349)</sup> 먹느냐.”

허난. 이젠 술허고 꺀기허고 상에 출려주난. 아이, 아닌게 아니라.

‘이거 아버지도 아니 먹어난 건디 이거 먹으믄 뉘랴.’

헨. 가이들 안 먹어 부난 또 낙방시겨분 거 아니. 겐 낙방 시견. 재과거를 허젠 허난.

이젠 연주문을 활로 맞추는 자를 이제 과거를 주기로 헛어. 게난 화살들을 다 하나씩 주난, 삼천 선비들이 다 맞쳐도 연주문을 못 맞쳐. 맞추는 사름 하나도 엇인 거라. 게난 그 아이덜이 딱 간 허는 말이,

“우리도 과거는 아니 주어도 좃수다만은, 헌 번 활이나 헌 번 등겨똥 가쿠다<sup>350)</sup>.”

게난

“경 허렌.”

허난. 놉잇 아이덜 쏘아난 거, 활이영 쌀이영 좃엉, 문딱<sup>351)</sup> 발루완<sup>352)</sup>, 꺀꺀 놀리멍<sup>353)</sup> 발루완, 그걸로 제일 큰 성은 맞친 게 쥬 우이 간 맞친 거라. 이제

346) 적정은에: 적서서.

347) 그추룩: 그렇게.

348) 가나신<sup>348)</sup>라: 갔던 모양이라.

349) 자이네: 저 아이들.

350) 등겨똥 가쿠다: 당겨두고 가겠습니다.

351) 문딱: 모두.

352) 발루완: 바르게 해서.

353) 꺀꺀 놀리멍: 꺀꺀 누르면서.

셋 성은 맞치난 가운데 복판을 간 맞친 거라. 족은 아신 맞친 게 제일 굽동허릴<sup>354</sup> 맞치난 연주문이 왈랑허게<sup>355</sup> 씨더젓어<sup>356</sup>. 부서질 정도로 맞쳐부난, 에이씨, 우리 과거도 낙방시겨 불고 허난, 부엌 질에<sup>357</sup> 앗앙 등겨분 거주게<sup>358</sup>. 계난 그 연주문이 부슬좌져부난<sup>359</sup>, 아이고, 과거 당선 뿔젠. 과거를 준 거아니. 재과거를 허연 주난, 와라차락 막 허난, 이젠 유정싱 아들이, 삼천 선비들을 시킨 거지. 빨리 강, 옛날은 부모가 죽으면 과거를 헤여도 과거를 안짚나덴.

계난, 빨리 훈저 강, 어멍 잇일 거난<sup>360</sup>, 어멍을 간 짚은 궁더레 가두와불렌 현거라. 겐 가두와뵐 어멍 죽엇젠 거짓말 허영 이것들 과거 불합격 허게 헤불젠. 경 헨 이제 앞이 놀아완<sup>361</sup> 어멍은 이제 물명지 전데로 걸려단 짚은 궁에 간, 아들들 너무 별란허게 낫젠 허영 간, 가뵐 불고. 이제 느진덕정하님은, 어멍 속곳하나 허영 이젠, 봉분을 멘든거주게. 속곳<sup>362</sup> 하나 담아 난 봉분<sup>363</sup>을 멘들안 잇이난, 삼형젠 과거 허영 비비둥당 앞엔 선베, 뒤엔 후베 막 어수에 비수에 청금 옥단저 비리단저 불명, 막 빠라바바 허멍 오는 거라. 과거 허영 와 가난, 이젠 오단 보난 느진덕정하님이 먼 정까지<sup>364</sup> 나산거라.

아이고, 어느제랑 강 우리 어머니 기쁘게 헤 드리곤. 삼형젠 기분 좋게 오는디, 느진덕정하님이 울멍,

“아이고, 족은 상전님네야, 과거는 허민 뿔 허곡, 등당은 허민 뿔 험네까? 상전님, 어제 그지겅 날<sup>365</sup> 죽언에 출병막<sup>366</sup> 헛우덴.”

허난. 그땐 오금<sup>367</sup>이 늑큰헌<sup>368</sup> 거 아니. 아이고, 어멍 엇인디 과거는 허민 무시겅 허여. 이제 과거덜 다 돌아가렌. 앞인 선베, 뒤엔 후베, 일과노 일기생들이고, 다 돌아가렌 허연 문딱 보내어 뵐. 행경(行纏) 벗언 통두건으로 데가리에 쓰고, 두루막 벗언, 어멍은 웨가난, 웬짝 팔 내어 난 이제 좃겅이<sup>369</sup> 알로 뉘오고, 경 허연.

354) 굽동허릴: 밑동의 허리를.

355) 왈랑허게: 한꺼번에 덤비거나 쓰러지는 꼴.

356) 씨더젓어: 쓰러졌어.

357) 부엌 질에: 화가 난 상태에서.

358) 등겨분 거주게: 당겨버린 거지게.

359) 부슬좌져 부난: 부스러져 버려서.

360) 잇일 거난: 있을 거니까

361) 놀아완: 날아와서. 날아서 오는 것만큼 빨리 왔다는 말.

362) 속곳: 속옷.

363) 봉분: 묘. 산.

364) 먼 정까지: 먼 올레의 정까지.

365) 그지겅날: 그저께 날

366) 출병막: 정식 매장을 하기 전에 송장을 가까운 곳에 임시 묻어 두는 일. ‘토롱’이라고도 함.

367) 오금: 허벅다리나 무릎의 구부리는 안쪽.

368) 늑큰헌: 충격을 받아 힘이 빠져 나른한.

369) 좃겅이: 겨드랑이.



“어멍, 우리 어멍 어디 묻었이니? 출병막이나 ㄱ르쳐도렌.”

경 허연 강 보난, 산이 잇인 거라. 경 허연이고 우리가 어머니님 그냥 영 묻엉 만<sup>370)</sup> 볼게 아니고 죽은 어멍 얼굴이라도 보켄. 경 허연 그걸 판 보난, 어멍 얼굴이랑마랑 어멍은 엇고 어멍 속곳<sup>371)</sup> 하나 잇인 거라. 게난 그거 들런 나산 디<sup>372)</sup> 산 봉분 우이로 옷 상제가 딱허게 별러지는 거라. 게난 우터레 가라 허는 거주게. 게난 느진덕정하님 ㄱ라 들은 거라.

“우리 웨가가 어딜로 가민 잇이넨?”

허난.

“천하임전국 대감님은 웨하르방<sup>373)</sup>이고, ㄴ신땅에 지하짐전국 부인은 웨할 망<sup>374)</sup>이난 아멩 아멩이영 좃앙 갑서<sup>375)</sup>.”

허난. 이제 삼형제가 어멍 속곳은 들른 거주. 어멍 속곳을 본메본짱<sup>376)</sup>으로 그걸 들르고 허연 웨가를 좃으멍 좃으멍 간 거라.

가난, 가멩문<sup>377)</sup>도 안 올라 쥘. 웨손지들 왓젠 허난, 그 스님 애기들엔 헨게, 양반칩이게, 암만 웨손지라도. 경 헨 가멩벳줄<sup>378)</sup> 문도 안 올라주난 족은 문으로, 이제 먼 올레에 앗안, 경 헨 앗젠 허난, 그 애기덜 앗아난 디 풀사 죽으카 부덴산디. 웨하르방 웨할망이 초석을 하나 준거라. 그거 주멍 그거 꼴앙 앗앗당, 그거 꼴앙 앗으렌. 게난 그거 꼴앙 앗으난,

“우리 성가가 어딤네까?”

허난.

“느네 아방을 좃으켄, 황금산 도단땅에 가민 추적절이 잇인디. 그디 추적선 쟁이 느네 아버지여.”

그덜 좃앙 가렌. 게난 생각을 허난 궤썸헌거라. 웨하르방 웨할망사 게도 암만 뭐 허주만은 문도 안 올라 주고, 올레 베깃디서<sup>379)</sup> 초석 주멍 앗으렌, 초석을 그자 우리 앗아난 것도 물이라도 털어지카부덴 험시카부덴 뱅뱅 몰아앗언<sup>380)</sup> 율덩이에<sup>381)</sup> 탁허게 끼어앗언 앗안 가부는 거라. 겐 황금산을 좃아 앗언 올라가노렌 허난 팽즈낭<sup>382)</sup>이 소뻍허고<sup>383)</sup>, 유저낭<sup>384)</sup>이 소뻍헌 디가 잇어.

370) 묻엉만: 묻어서만

371) 속곳: 속옷.

372) 들런 나산디: 들러서 나서는데

373) 웨하르방: 외할아버지.

374) 웨할망: 외할머니.

375) 아멩 아멩이영 좃앙 갑서: 어떻게 어떻게든 찾아서 가세요.

376) 본메본짱: 증거가 될 만한 증거물.

377) 가멩문: 가마 문

378) 가멩벳줄: 가마의 밧줄

379) 베깃디서: 밖에서.

380) 뱅뱅 몰아앗언: 뱅뱅 말아서.

381) 율덩이에: 옆에

382) 팽즈낭: 팽나무.

그 질을 헤우천<sup>385</sup>) 가단 보난, 어떤 도령들 서이가 앓앙 비세골이 우는 거 아  
니. 울어 가난

“느네 무사 이디 앓앙 울엎디??”

“아이고, 말도 말고, 이르도 맙서. 어멍 아방 다 죽어 불고, 일가 쁘당 엇고  
영 허난, 갈 데 올 데 엇언 앓안 울엎우다.”

허난.

“아이고, 설운 애기덜아, 느네나 우리나라 훈 팔즈, 훈 스주여. 경 말앙 우리  
육형제나 삼겐.”

그 어멍 속곳 앓앙 덩기단 어멍 속곳으로 웨으로 들어강 녹다 나오고, 녹다  
들어강 웨로 나오고, 계난 어머니가 낳았다는 표실 허젠게<sup>386</sup>). 겐 육항열(六行  
列)을 삼아 두언. 이젠

“경 말앙이, 느네들 이디 앓앙 잇이라. 아무 날 아무 시가 뉘민, 아무 때가  
뉘민 우리 만날 날이 잇일 거여. 어디 가지말앙 이디 꼭 잇이렌.”

허연 헤 된. 아방국을 가는데 첩첩산중이라 제우제우<sup>387</sup>) 간 거라. 가난, 올레  
에 간 앓으난, 마당 너구리 땅 너구리 개는 드르쿵쿵 내쿵쿵 주끄는<sup>388</sup>) 거아  
니. 겐 아버지가<sup>389</sup>) 피라곡절(必有曲折)허다 허연 나완 보난, 도령들 삼형제가,  
참 아들이 완 앓은 거라. 아버지는 벌써 아들이인 줄 알았주게. 경 헤도 아  
들들은 아버지를 몰라. 봐 보지도 안허고, 월 뉘허난, 손 심영 들어 완

“느네 어떻 허연 오란디?”

허난.

“우리 아버질 좃안 오랏우다.”

“계난 느네 외가영 어멍 이름 곱아보라.”

허난에. 아, 곤는 건 보난 다 맞았어. 아방 이름도 다 곤고, 계난.

“설운 애기들아, 잘 좃안 오랏구나.”

경 헤연, 이때에 어떤 사름은 절에서도 상을 출령<sup>390</sup>) 쫓덴<sup>391</sup>) 허여. 절에서  
도 술허고 꺾기허고 놓안 스님이 딱 출령 주난, 이건 우리 아버지도 안 먹어난  
음식이난 안 먹켄. 계난, 안 먹영 내려놔 부난, 내 자식이 적실허다<sup>392</sup>). 경 헨

383) 소뻑허고: 가득하고.

384) 유저낭: 유자나무.

385) 헤우천: 헤쳐서.

386) 표실 허젠게: 표시를 하려고.

387) 제우제우: 겨우겨우.

388) 주끄는: 짓는.

389) 아버지가: 삼형제의 아버지, 추접 선생을 말함.

390) 출령: 차려서

391) 쫓덴: 주었다고.

392) 적실허다: 틀림없이 확실하다.

헛덴도 허고

“아이고, 설운 애기들 느네 이디 오젠 허난, 하늘 보멍 오랏이나? 하늘 천자, 땅 보멍 오랏이나? 따 지자, 물으멍 오랏이나? 물을 문자. 올레 보멍 오랏이나? 올레 문자.”

경 허영 그 천문에 하늘 천, 물을 문자허고 딱 글을 베견<sup>393)</sup> 경 허영 주어 될.

“설운 애기들아, 느네들이 어멍을 좃젠 허민<sup>394)</sup>, 과거는 허민 당대고, 심방질<sup>395)</sup>은 허민 전대전손(傳代傳孫) 만대유전(萬代遺傳) 유래전득(遺來傳得) 될거여, 게난 느네가 어멍을 좃젠허민 심방질을 헤사 한다. 게난, 아무건들 어려웁네까. 머리 삭발, 아버지가 문딱 삼형제를 머릴 박박 감아 두언. 아무 거라도 허쿠덴. 경 허민, 곳을 허젠 허민 뭐가 있어야 헐 거난. 설운 애기들, 글렌 허연. 게난 아방 본메는 천문이주. 게난, 그 하늘 천자 따 지자 물을 문자 쓴 거는 아방 본메로, 낭에다가 동골락허게<sup>396)</sup> 남천문<sup>397)</sup>을 만든 거라. 남천문을 만들고, 어멍 본메로는 모욕상잔<sup>398)</sup>, 동골락 헛거로 이건 어멍 본메로, 그걸 나무로 다 판, 아방이. 다 팡 본메를 멘들안. 이제 이 애기덜 돌아왔언 어덜 가 신고 허면 백물레왔디<sup>399)</sup>를 간 거라. 그디도 간, 아끈 도간 한 도간, 아끈 모레 한 모레 일언, 거기서 이젠 문딱 본메 놓안 멧 번을 멘들아도 안뉘어. 게난 아이고, 이거 피라곡절(必有曲折) 허덴 허연. 이젠 독 하나 잡안 희생(犧牲) 시견. 겐 옥황드레 등장을 드난 검은 옷 입영 전정록이가 내려완에 아끈 도간 한 도간에 아끈 불미<sup>400)</sup> 한 불미<sup>401)</sup> 허연 이젠. 일월조상<sup>402)</sup>을 딱 지완 고운 얼 굴 고운 메치<sup>403)</sup> 내노난, 조상(祖上)만 잇덴 뉘여. 뭐 연물<sup>404)</sup>이 있어서 헐거난. 이제 굴목이낭<sup>405)</sup> 간 끈언. 첫 통은 골라단. 아이고, 우리 아버지 절에서 불공도 허곡 허난, 절에, 절간 북으로 놓아 두고, 두 번째 통은 쫄라단 삼천기덕(三千器德) 북을 멘들고, 장기통 쫄란 삼동맥<sup>406)</sup>이 멘들안, 질로 죽은 멩생

393) 베견: 세기어서.

394) 좃젠 허민: 찾으려고 하면.

395) 심방질: 심방일.

396) 동골락허게: 동그랄게.

397) 남천문: 무구의 하나. 엽전 모양의 낫쇠판에 ‘천지문(天地門)’ 또는 ‘천지일월(天地日月) 등이라 새겨져 있음.

398) 모욕상잔: 낫으로 만든 술잔 비슷한 무점구(巫占具).

399) 백물레왔디: 하얀 모래밭에.

400) 아끈 불미: 작은 풀무(治)

401) 한 불미: 큰 풀무(治)

402) 일월조상: 일가내지 일족 수호신

403) 메치: 맷시.

404) 연물: 무악기(대영, 설쇠, 북)를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

405) 굴목이낭: 느티나무.

406) 삼동맥: 무악기인 장구의 별칭. 삼동막 살장구라고 함.

이<sup>407</sup>) 덩겹이난<sup>408</sup>) 그거 가죽 벳견, 나전방<sup>409</sup>)에 놀려들언 나전허고, 부전방<sup>410</sup>)에 놀려 들언 부전허고 허연. 왕대 죽대 깎아단, 꿩이메 나게<sup>411</sup>) 깎아단 체 멘들아 놓고, 장귀 체<sup>412</sup>) 멘들고 허연. 이제 그걸 들런, 이제 절에 들안 온 거라, 아버지가. 다 헨 절에 들안 완. 허명 혈 때에 아버지안티 골은 거라.

“우리 영영 허연, 우리 7튼 팔즈사주(八字四柱) 헌 아이들 잇이난, 그 아이덜 신디 골아네<sup>413</sup>) 우리 육형제를 무엇우다.”

가이들 들앙 오랜 허연. 계난 가이들 소미(小巫)로 허고 허연

“너네가, 경 말앙, 굿을 허여 보라. 큰 아덜랑 청관디(靑冠帶)를 입영 초감제<sup>414</sup>)를 허여 보고, 셋아덜랑 황관디(黃冠帶)를 입영 초공맞이<sup>415</sup>)를 허고, 족은아덜랑 홍관디(紅冠帶)를 입영 시왕맞이<sup>416</sup>)를 허렌.”

이제 그 너사무 삼형제들은 들안 오난, 소미(小巫)로 허연 두들렌허고<sup>417</sup>), 경 헨 막 굿 행 헤가난, 짚은 궁에 든 어머니가 번뜩허게<sup>418</sup>) 나산 거라. 계난

“짚은 궁에 든 어멍 얇은 궁더레 내놀립서. 얇은 궁에 든 어멍 신가심<sup>419</sup>) 내 울령<sup>420</sup>) 아주 혈씩 나삽서.”

허명 굿을 헤가난, 어멍이 나온 거라. 계난 애기들이 심방이 됩니까 그 갇혔던 사람들이 어멍을 내 준거지. 과거허영 양반으로 헛이민 어멍을 안 내줄건디, 경 허연 어멍을 내주난. 아이고, 어멍 만난.

“어머님아, 어머님 경 보고픈 웨진 땅<sup>421</sup>)으로 갑주긴.”

어멍 들안, 삼형제가 웨하르방네, 임전국 대감 지하 짐전국 부인님신디 ㄴ신 땅을 들앙 간거라. 경 허연 들안 가난, 어멍 아방이 멘발로들 나왕 비세골이운 거 아니.

“아이고, 설운 나 툘아, 그동안 어땡 살아지언디?”

경 허명 막 울언, 그땐 부모 즈식이 일부 훈 잔 허연, 부에가<sup>422</sup>) 난 집에 삼형제가 그디서 연물을 막 두들어 분거라. 그 웨하르방 웨할망도게 중이 즈

407) 멩생이: 망아지.

408) 덩겹이난: 다니고 있어서.

409) 나전방: 부전에 조운(調韻)

410) 부전방: 장구의 줄을 조일 수 있게 달아 놓은 가죽 조각.

411) 꿩이메 나게:

412) 장귀 체: 장구 체

413) 골아네: 말해서.

414) 초감제: 굿을 시작하면 가장 처음에 신을 청하는 제차(祭次).

415) 초공맞이: 초감제를 한 후 다시 한 번 신을 청하는 제차(祭次).

416) 시왕맞이: 맞이곳의 하나로 시왕을 청하여 하는 굿.

417) 두들렌허고: 두드리라고 하고

418) 번뜩허게: 도드라지거나 선명하여 돋보이는 상태이다.

419) 신가심: 깨끗이 씻음.

420) 내울령: 밖으로 나오거나 퍼지게 하다.

421) 웨진 땅: 외가가 있는 땅.

422) 부에가: 화가.

식<sup>423</sup>)이엔 헨게 문도 안 올라주고, 무신 털이라도 털어지카부덴 초석 쥘 꼴  
양<sup>424</sup>) 앓게 허고 헤가난 웨손지들이주만은 암만 웨하르방 상이라도 섭섭은 헨  
거라. 경 헨 그디서 연물<sup>425</sup>)을 와상와상<sup>426</sup>) 두들연. 게난 신칼은, 웨하르방네  
도 마음을 돌린거지. 신칼, 신칼은 웨하르방이 내어준거라.

겐 내어주멍, 뭘 으든 닷단(八十五尺)이여, 일흔 닷단(七十五尺)이여, 이제,  
그 칼이주. 그 헨 닷단(一五尺)이여. 경 허영 저 칼을 내어 쥘. 겐 이제 돌아왔  
연 젓부기삼형제 허고 허연. 어주에 삼녹거리 완. 비즈냥<sup>427</sup>) 텡즈냥<sup>428</sup>) 비고,  
이제 물사옥이 실사옥이 허여단 악기도 멘들고, 이제 마흔으덥 초간주, 서른으  
덥 이간주, 스물으덥 하간주를 이젠 당쫓방을 지어 논거라. 경 헨 지어 놓안.  
아, 잇이난, 옥황에서 젓부기삼형제랑 삼시왕으로 도올랑 앓으렌<sup>429</sup>) 명령이 내  
려온거라. 게난 올라가젠 허난. 아이고, 불쌍헌 어멍, 설운 어멍 내불어뵈우  
리만 어뎡 가코. 이젠 막 탄복이 뵈우 거 아니. 어멍이영 만나난 생전이영 살아지  
카부덴 헨디, 올라오렌 허난, 올라가멍, 느진덕정하님이영 너사무삼형제 7라,

“아무 날 아무 시나 뵈우민 이 츠지혈<sup>430</sup>) 조상이, 즈손 나올거난 그때 77지만  
잇이렌.”

해 뵈우.

“어머님아, 하도 우리 엇젠<sup>431</sup>) 섭섭헨 생각 많서. 브름 불건 브름 뚜벽청 살  
고, 초스름에랑<sup>432</sup>) 우리들 보고정 허건 베깃디레<sup>433</sup>) 나오란 하늘더레 브리민  
동산 새별 떴이난 그거 브레멍 살고<sup>434</sup>), 어머님이랑 삼하늘<sup>435</sup>)로 좌정을 험  
서.”

아덜덜은 저승 삼시왕이 뵈우고, 어머니는 삼하늘은, 당주방<sup>436</sup>)에 딱 지경 앓  
고, 느진덕정하님 허고.

경 허난 옥황에 도올란 7만히 생각을 허난, 유정싱 아들이 들연 우리 과거  
헌 것도 낙방을 시겨 불엇덴 말이여. 거난 유칩이 강 원수 갓음을 허주겐 헨.  
유칩이 심방을 내왕은에게<sup>437</sup>) 멘들아 불주겐<sup>438</sup>) 헨. 게난 유정싱 아들이 경

423) 종이 지식: 종의 자식.

424) 꼴양: 깔아서

425) 연물: 무악기를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

426) 와상와상: 사기 그릇 따위를 아주 세게 부수는 소리.

427) 비즈냥: 비자나무.

428) 텡즈냥: 텡자나무.

429) 도올랑 앓으렌: 신으로 좌정하여서의 뜻.

430) 츠지혈: 차지할.

431) 엇젠: 없다고.

432) 초스름에랑: 초 저녁이랑

433) 베깃디레: 바깥으로.

434) 브레멍 살고: 보면서 살고.

435) 삼하늘: 복제주군 한경면 조수리 당신.

436) 당주방: ‘당주’는 심방집에 무조신(巫祖神:守護神)을 모신 곳.

헤부난, 아들이 누이주게, 게난 유정싱뜨님 애기 으섯 설에 뎡겘이난<sup>439)</sup>, 놀레 뎡겘이난 하숫물가에 가네 놀앳이난, 간제비<sup>440)</sup> 으섯 개를, 파란 거 으섯 개를 간 채와 분 거라, 신력으로. 채와부난, 베끼디 놀레갈 땐 그거 들렁 막 놀고, 집이 들어 올 때엔 어멍 아방안티 욱 들어지카부덴 집가지에<sup>441)</sup> 곱져불고,,경 허멍 헨게 일곱 설 뉘난, 눈이 어둑어 분거라. 십 년에 훈 번씩, 열일곱 뉘난 눈 턴, 쓰무일곱 뉘난 눈 어둑언, 서른일곱 뉘난 또 눈 턴, 마흔일곱 뉘난 눈 어둑언, 예순일곱 뉘난 눈이 튼거라. 아이, 예순일곱에 눈이 트난, 이젠 그 신이 붙어노난게, 막 어정짱헨 뎡긴거주게. 어스럭 더스럭<sup>442)</sup> 뎡기단 훈번인<sup>443)</sup> 어덜론가 내려오노렌 허난, 아렛녁에 즈북장제네 집이 보난, 막 우념<sup>444)</sup> 꼴이 꼴아 저서<sup>445)</sup>, 우는 소리가 나는 거라. 게난, 아, 이 집인 무사 영 울엿인고 허연. 이젠 들어가난에

“누겐디다가<sup>446)</sup> 왓이넨?”

허난.

“아, 이 집이 막 우는 소리 난 왓우덴.”

허난

“무사 완디엔.”

허난.

“아니, 어떻게 일 잇언?”

“아이고, 곤도 말고 일르지 말고 가렌. 우리 단똥 애기 하나 잇인디. 어제 그 지젓날<sup>447)</sup> 죽언에 울엿젠.”

허난.

“게민, 나 훈번 진맥이나 헤 뵙 가쿠다.”

허난.

“진맥 행 뭘 헐거고?”

허난.

“이녁 명예나 가시냐? 늬이 명예나 가시냐? 진맥이나 행 가쿠다.”

허난. 딱 진맥을 허난, 이견 삼시왕에 걸렸우다. 대번칙이<sup>448)</sup> 점을 잘 헨 모

---

437) 내왕은에게: 나게 해서.

438) 맨들아 불주겐: 만들어 버리자고

439) 뎡겘이난: 다니고 있으니.

440) 간제비: 무구의 하나. 엽전 모양처럼 생긴 것이 모두 6개 있음.

441) 집가지에: 지붕의 가장자리. 처마.

442) 어스럭 더스럭: 이리저리 어지럽게 다니는 모양.

443) 훈번인: 한번은

444) 우념: 울음.

445) 꼴아 저서: 깔아졌어.

446) 누겐디다가: 누구인데

447) 그지젓날: 그저께 날

양이라.

“삼시왕에 걸렸우다.”

허난

“거믄 어떻허믄 좋으니?”

허난.

“저 문전더레 상 하나 놓양예, 쪼꼴락헌<sup>449)</sup> 상 낭양<sup>450)</sup>, 향불 피와 놓서. 물  
흔 사발 거려 놓서. 쫄 혼 사발 거려 놓서.”

허여근예. 곶을 말은 없고 그자, 공신강신 그자, 내릴 강신 경 허영. 단지 그  
말만 헤뵈, 쫄 쫄, 뵈뵈 감안 육급 우에 쫄 주명.

“이거 머리말더레<sup>451)</sup> 놓곡양, 나 가불걸랑, 이 애기 살아나건 날 좃양 읍서.”

허난예

“아, 어딜 좃양 가느니?”

허난. 이녁 입으로도 몰르게 나오는 소리가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 땅에만 읍서.”

경 곶아뵈 후딱 나와분거라. 아, 나가부난 죽엇던 애기가 게꿈<sup>452)</sup> 보계기<sup>453)</sup>  
물명<sup>454)</sup> 살아나는 거 아니. 켜 살아나난, 이젠

‘아이고, 사름을 좃아사 혈 건디 어디강 좃으콘.’

허난. 십 년 동안을 좃양 뵈겏뵈. 그디서는 십 년 동안을 좃양 뵈기는다, 이  
젠 유정승뵈님애기는 어리궤이 두리궤이<sup>455)</sup>가 뵈분거라<sup>456)</sup>. 막 머리도 허부쨌  
놓고<sup>457)</sup>, 귀신도 아니고 쉅인도 아니고, 신이 붙어노난 막 헌거주게. 막 뵈기  
단 탁 간 엇더정 잇인디<sup>458)</sup>, 어주에 삼녹거리에 강 엇더진 거라. 경 허난, 자  
기 생각에는 어주에 삼녹거리가 어딘중도 몰랑 간 엇더지난, 삼시왕이

“야, 쨏부기 삼형제야, 저디 왕 엇더진 건 누게고?”

허난예.

“궈만 십셴. 강 들어 보쿠뵈.”

헨 강 보난, 유정승뵈님 애기라. 게난

“이젠, 이래 물명지로 걸려 들이렌.”

---

448) 대번칙이: 단박예.

449) 쪼꼴락헌: 아주 자그마한

450) 상 낭양: 상 놓고.

451) 머리말더레: 머리말예.

452) 게꿈: 거품.

453) 보계기: 거품이 많이 일어나는 모양.

454) 물명: 물면서.

455) 어리궤이 두리궤이: 미친 사람.

456) 뵈분거라: 되어버린 거라.

457) 허부쨌놓고: 머리털이나 옷을 어지럽게 풀어놓다.

458) 엇더정 잇인디: 엇어져서 있는데

명주 허연 영 야게기에<sup>459</sup>) 걸령 그 앞더레 완. 하도 냄새도 나고게 귀신도 아니고 쟁인도 아니고 허난, 향불 피완 머리로 다 헨 부정 서정 게이고, 술 허 영 뿌령 연임허고 허연. 심방질을 허연 그 집이강 곳을 헤질 건가, 못 혈건가 허연 딱 산을 지으난, 자격이 없어. 심방 뵈 자격이, 백 근이 안 차는 거라. 거난 이젠, 젓부기삼형제가 무당서 삼천 권을 내어주멍

“이거 가정 강 다 통달(洞達)을 허렌. 이거 가져가근에게 다 통달(洞達)허영 오렌.”

거난, 그거 가정 간 통달(洞達)을 허난 십년이 걸린 거라. 그거 읽는 것이. 일흔일곱 나는 해엔 또, 그거 다 익어지니까. 또 그디 완 앞데허난<sup>460</sup>), 그땐 물명주로허연 걸려단 향불허연 다 부정(不淨) 가이고<sup>461</sup>), 서정<sup>462</sup>) 가이고 허 연, 장대 내어낸 딱 저울리난 백 근이 차는 거라.

“야, 이젠 뉘켤.”

경 허연 이젠 등으로 금님(金印) 옥님(玉印), 감봉수리 막음 두언에<sup>463</sup>)

“이젠 당당한 심방이 뵈으니까 강 곳헿 오렌.”

겐 너사무삼형젠 소미로 보내고, 경 헨 이젠 즈북장제네 집이 간, 곳을 헤연, 그 애기 이제 살아나난 그디 강 곳 헿 완. 일흔일곱에 그디 강 곳헿 완, 그자 유정싱떡님애기 일흠일곱에 돌아가신거. 이 까지가, 이 일로 해서 다 지금 연 줄연줄 다 줄이 번고 발이 번어 심방 뵈는 사람도 뵈고, 그런 본풀이입니다.

---

459) 야게기에: 목에.

460) 앞데허난: 앞드리니.

461) 가이고: 개이고. 씻어내고.

462) 서정: 부정에 대한 조운(調韻)구.

463) 감봉수리 막음 두언에:



## 이공본풀이

옛날이라 옛적에 짐진국 대감님은 가난공신 서난헝게<sup>464</sup> 살고, 원진국 대감님은 막 부자로 잘살엇어예. 게신디<sup>465</sup> 두 대감님들이 다 얘기가 없어. 얘기가 엇이난<sup>466</sup>, 원진국 대감님이 짐진국 대감님을 좇안 간

“짐진국 대감님아, 읍서. 우리 절에 강 수록이나 드러보게마씀.”

허난.

“아이고, 난 절에 가젠허여도<sup>467</sup>양 출령 갈 게 아무것도 엇우다게. 난 뉘, 앓양<sup>468</sup> 갈 게 엇우다게.”

허난.

“허다 못허영 빈 찬물 혼 그릇이라도 정성을 들이고 가면 그것이 정성이니까 어떻허우파?”

허난.

“게민 경 험셴.”

허연. 원진국은 절에 가명 구루마에 슴빱 헝나<sup>469</sup>, 송낙배<sup>470</sup>여 장삼배<sup>471</sup>여, 쫄도 대백미(大白米)여, 소백미(少白米)여 막 실령<sup>472</sup> 가고, 짐진국은 가정 갈 거 엇이난, 물 혼 그릇 평<sup>473</sup> 아침이민, 밤이민 이제 촌 이슬을 맞히고, 낮인 촌 벧을 맞히명 장항 뒤에서 경 허명 지극정성을 헨 간 거라. 절에 간 원수록은 드련. 장대로 내어뉘 저울리난, 막 하영 출령 간 원진국 대감님네는 출린 건 많이 출리나 정성이 부족허연 백근이 못차 불고, 짐진국 대감님은 물 한 그릇 정성을 헨 갓인디 아, 백 근이 차분 거라. 게난 스님 허는 말이,

“짐진국 대감님은 출령 온 건 엇어도 하도 정성이 기특허니까 아덜을 취급시겨<sup>474</sup> 줄 듯 허고, 원진국 대감님은 출령 온 건 많은디 정성이 부족 허난 딸을 취급시겨 줄 듯 허난 이제 내려 갑셴.”

헨.

---

464) 가난공신 서난헝게: ‘가난하고 서럽다’란 뜻.

465) 게신디: 그런데.

466) 엇이난: 없으니

467) 가젠허여도: 가려고해도

468) 앓양: 가지고.

469) 슴빱 헝나: 가득하게 하나.

470) 송낙배: 고깔을 만들 감.

471) 장삼배: 승려의 옷을 만들 감.

472) 실령: 실고

473) 평: 떠서.

474) 취급시겨: 처급(處給)시겨

“좋은 날을 골리 잡앙 합궁일(合宮日)을 무어 봅서.”

허난. 내려 완. 좋은 날 골리잡안<sup>475)</sup> 합궁일(合宮日)을 무엇더니만은, 짐진국 대감님은 아털을 낳고, 원진국 대감님은 딸을 난 거라. 이름이나 지와보젠 허연. 짐진국 대감님이 난 아들은 이제 사라국 사라도령으로 이름을 지우고, 원진국 대감님이 난 딸은 월강아미로 이름을 지왓인디<sup>476)</sup>. 간수륙 두어 된 내려오명 그냥 장난삼아 곱은 말이주게. 장난감아 원진국 대감님이 곱는 말이,

“양, 짐진국 대감님, 우리 둘이가 영 완 수륙 드령 가명 강, 당신이 아들 낳고 나가 딸을 나나, 나가 아들 낳고 당신이 딸을 나나, 우리가 구덕혼스<sup>477)</sup>허영 사둔 이추륙 허게양.”

허연. 장난말로 넘어가는 소리로. 경 헨 곱안 내려왔인디. 아닌게 아니라 이젠 사라도령허고 원강아미 나난. 이 애기덜이 혼 슬 두 슬 넘언. 혼인헐 때가 돼어오난, 월강아미신디 하간디서<sup>478)</sup> 중진<sup>479)</sup>이 오는 거라 부제로 잘살고 허난. 경 해도 시집을 아니만 가쿠덴<sup>480)</sup> 허는 거라. 아니만 가쿠덴 헛인디. 짐진국 대감님네 집에서 사라도령한티 이젠 시집오렌 허연 중진을 오난. 아, 대번칙에<sup>481)</sup> 대답을 허는 거라. 가쿠덴. 게난, 아버지 어머니 곱는 말이,

“아이고, 애야 스몏<sup>482)</sup> 헨다 헨 집이서 와도 다 물리쳐 똥, 경 가난헌 집이 강 어떻 살젠 느 그디 시집가젠 험디.”

허난. 그땐 베지도<sup>483)</sup> 안 헐 때주게.

“아버지, 어머니, 절에 갖단 내려오명 무시거옌 곱읍디가<sup>484)</sup>? 아버지 곱은 말 잊어뵈데가<sup>485)</sup>?”

경 허명.

“구덕혼스 허지 안헛수가?”

경 허난.

“느 알앙 허라.”

475) 골리 잡안: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골라서.

476) 지왓인디: 지었는데.

477) 구덕혼스: 아기 구덕에 눕혀 키울 때 미리 서로 약혼시킴.

478) 하간디서: 여기저기서.

479) 중진: 중매

480) 아니만 가쿠덴: 아니만 가겠다고.

481) 대번칙에: 단번에.

482) 스몏: 사몏.

483) 베지도: 아기를 배지도.

484) 무시거옌 곱읍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485) 잊어뵈데가: 잊어버렸습니까.

허연. 이젠 둘이가 혼인 허연 사느디, 애긴 벤 거 아니. 애긴 벤디 물구  
덕 지언에 물 질레 간 오노렌 허난 편지 답장이 턱허게 마당에 털어진단,  
그걸 봉간<sup>486</sup>) 익어 보난에. 사라도령이랑 서천꽃밭디 꽃감관(化監官) 꽃생  
인(化聖人)을 살레 오렌. 게난 월광아미 허는 말이,

“아이고, 나도 혼디 가쿠다. 나 혼자만 이디 잇이민 어떻힙니까, 나도  
혼디 가쿠다. 가쿠다.”

허난.

“아이고, 베는 두룽둥 베<sup>487</sup>) 뉘고 어떻 허연 갈티?”

허난.

“가단 죽는 한이 잇어도 낭군님 딸앙가쿠다<sup>488</sup>).”

허난.

“경 허렌.”

허연. 이젠 서천꽃밭디레 돌아앗언<sup>489</sup>) 가느디. 헨 서산열락(西山日落)에  
지어부난. 이젠 어욱밭디<sup>490</sup>) 영 으지(依支)허연 눈 계, 천하 득은 목을 들  
런 즈지반반<sup>491</sup>) 운 거아니. 경 허난, 확 일어나젠 어욱을 심언 확 동긴게  
손이 어욱에 베여먹은 거라<sup>492</sup>). 게난 우리 손이 마디마디 잇는게 그때에  
어욱에 비어부난 마디가 생긴 거고, 어욱이, 텅기단 보민 빨정헌 줄거리가  
잇어예, 어욱에. 그것은 월강아미 피라, 그것이.

“아이고, 낭군님아, 저건 어디서 우는 득이우파<sup>493</sup>)?”

허난.

“제인 들어 제인장제네 집이서 우는 득이엔.”

허난.

“경 허파.”

허연. 이젠 또 흐꿈<sup>494</sup>) 뉘 누위자노렌 허난. 지하 득이 목을 들런 즈지  
반반 울어 가난.

“저 득은 어디서 우는 득이우파?”

허난

---

486) 봉간: 물건이나 돈 따위를 거저준다.

487) 두룽둥 베: 둥그렇게 차오르거나 부풀어 오른 배.

488) 딸앙가쿠다: 따라가겠습니다.

489) 돌아앗언: 데리고

490) 어욱밭디: 역새밭에.

491) 즈지반반: 닭의 울음소리를 표현한 것.

492) 베여먹은 거라: 베인 거라.

493) 득이우파: 닭입니까.

494) 흐꿈: 조금.

“만년들어 만년장제(萬年長者)네 집이서 우는 득이옴.”

허연.

“아이고, 경 허건. 낭군님아, 날랑양 저 집이 강 폴아두언<sup>495)</sup> 갑서. 난 질에 질병 나고, 발에 발병 난 더 이상 결영 가질 못 허쿠다.”

허난

“어서 경 허렌.”

허연. 이젠 그 집이 들어간

“이디 종이나 삼서.”

허난에. 제인장제는 앓아들서로

“야, 큰딸애기야, 저레 나상 보라<sup>496)</sup> 저디 누게 왔이니?”

“아이고, 아버지 종사렌 왓우다만은. 사지 맙서.”

또 흐꿈 시난에<sup>497)</sup>

“종 삼서.”

허난에.

“셋딸애기 나상 보라.”

“아이고, 아버지, 사지 맙서. 우리집이 신세 먹을 놈이 종이우다.”

죽은딸 애기 곶아,

“저 디 나상 보라 누게 왔이니?”

허난.

“종 사렌 험우다. 아버지 상 낫단양, 아버지 심심풀이라도 험서.”

허난. 경 험 나간

“얼마 받젠 험이네<sup>498)</sup>?”

허난. 보난 베는 이만이 불고

“애긴 이제 곧 날겨우다만은 어명이랑 돈 백 냥을 주고, 베 쏘굽에 잇 인 애기랑 은 백 냥을 줍서.”

계난

“경 허렌.”

허연. 이젠 돈 백 냥에 은 백 냥을 주언, 사난. 이젠 저 올라가젠 허난에

“아이고, 낭군님아, 가불민 이 애긴 나민 이름은 무신거옴 지옴네까?”

495) 폴아두언: 팔아두고.

496) 나상 보라: 나가 보아라.

497) 흐꿈 시난에: 조금 있으니까.

498) 험이네: 함이냐.

허난에 .

“이 애기랑 나걸랑, 아덜랑 낱걸랑 한락궁이로 지우고, 딸랑 낱걸랑 한락데기로 이름을 지와도렌.”

“젠디 본메본짱<sup>499</sup>)이나 주어똥 갑서.”

아이, 내논 건 보난, 삼동냥 용얼레기<sup>500</sup>)를 딱 허게 꿇엉 반착을<sup>501</sup>) 주는 거라. 이거 반착 가지고, 나가 반착 가정 가켄. 경 헨 반착 주난, 그거 앓안. 사라도령은 이젠 서천꽃밭드레 가 분거 아니, 가 부난. 그날 밤인 줌자노렌<sup>502</sup>) 허난 천연장제가 호룽불 싸고 헨 문을 동동동동 두드리는 거라.

“아이, 누구 똤시파<sup>503</sup>)?”

허난에.

“나, 천연장제.”

온 허난.

“무사마썸<sup>504</sup>)?”

허난.

“나, 여기 온 이올 몰르크냐?”

허난.

“아이고, 이제 베 쏘곱에 애기가 잇인디다가 베 속에 벤 애기 낱앙 석덜 열흘 백일은 똤어사. 이 국에 법은 모르쿠다만은 우리 국에 법은 백일이 똤어사 몸 허락을 험니다.”

허난

“경 허넨.”

허멍 속안 넘어가서. 이제 그 애기 난. 아덜을 나난 한락궁이로 이름을 지은 거 아니. 한락궁이로 이름 지와인디 그 애기 난 백일이 똤난, 또 호룽불 들르고 허연 천연장제가 문을 동동동동 허난.

“이 문 열라, 이 문 열라.”

허난.

“아이고, 이 국에 법은 양 몰르쿠다만은 우리 국에 법은양, 이 애기가 흐꿈 켕 마당에 작데기<sup>505</sup>) 헤근앵에<sup>506</sup>) 들 타근앵에<sup>507</sup>) 으려썩썩 으려썩

499) 본메본짱: 증거물이 될 사물.

500) 삼동냥 용얼레기: 상동나무로 만든 빗.

501) 반착을: 반쪽을.

502) 줌자노렌: 잠자려고

503) 누구 똤시파?: 누구 되십니까?

504) 무사마썸: 왜 그렇습니까.

씩

허영 돌려가사<sup>508</sup>) 몸 허락을 험네다.”

허난. 알았젠 허연 또 넘어간 거라.

또 살았이난, 그 얘기가 옥안, 마당에 작데기 헤영 강알에 담양, 몰타는 식으로 으러씩씩 행 돌려가난. 또, 이젠 밤중이 완

“문 열라. 문 열라.”

허난. 이 국에 법은 모르쿠다만은 헤가난. 너, 이년 저년 날 속엿젠. 경헨 막 죽일팔로 허는 거 아니.

“큰뜰얘기야 저것들 어떻 헤부느니?”

허난.

“죽여 봅서.”

“셋뜰얘기야 어떻게 든 좋암직허니?”

“죽여 봅서.”

“죽은뜰얘기는 어떻 험이민 좋암직허니?”

허난.

“아바지, 돈 백 냥 은 백 냥 쟁 사 논거양, 죽여불민 그거 다 일러불 거난<sup>509</sup>) 웬 벌역(罰役)이나 시겨 봅서.”

“그 말도 들언보난 맞덴.”

허연.

“게민 어명이랑 굽 터진 항에 물 흐 항을 채완 놓고, 아덜랑 오늘 굴미 굴산노조방산아야산<sup>510</sup>)에 올라 강, 즈씨 닷 말 닷 뉘 칠세오리 앗안 강, 몰들 잇곡 헨 강, 그 밧 다 갈양 씨 뿌령, 갈양, 불러두영<sup>511</sup>) 오렌.”

헨. 웬 벌역(罰役)을 시긴 거라.

게난, 어명은 물을 서너 허벽 질어단 풍풍풍풍 비우난. 아, 굽 터진 항이 탁 막아져 분 거 아니. 어디서 영급(領給)을 준거라. 경헨 막아 전. 세 번 질어오난, 물 흐 항이 뉘 분 거라. 이젠 한락궁이도 간에, 올라간. 그 들진 밧<sup>512</sup>) 벨진 밧<sup>513</sup>)이영 간, 문딱 단장허연에, 즈씨 삭삭 뿌런, 몰허연

505) 작데기: 막대기.

506) 헤근앵에: 해서.

507) 몰 타근앵에: 말 타서.

508) 돌려가사: 달려가야.

509) 일러불 거난: 잃어버릴 거니까

510) 굴미굴산 노조방산 아야산: 아주 깊은 산중을 뜻함.

511) 불러두영: 밧아 두어서.

512) 들진 밧: ‘달이 지거나 떨어진 밧.’이란 뜻인데, ‘넓은 밧.’을 가리킴.

513) 벨진 밧: ‘별이 떨어진 밧.’이란 뜻으로, ‘넓은 밧.’을 가리킴.

불런 허난, 확 허연 헤 진 거 아니. 이젠 집이 왓이넨에 한락궁이신더레 허는 말이 천연장제가,

“아이고, 오늘은 멸망일(滅亡日), 고추일, 하와일 오늘 씨 뿌령은 곡식은 안 돼는 날이난, 이제 강 그 좁씨를 닷 말 닷 돼를 문딱 주워오렌.”

허는 거라.

“아이고, 나 이거 좃으레 어떻 가린.”

옌 허연.

‘강 이거 어떻 좃으리옌.’

울멍 올라가노렌 허난. 게염지<sup>514</sup>), 큰 장게염지 이디 움막 들어 간 장게염지가 좁씨 흐 방울 물언, 겨울 양석허젠<sup>515</sup>) 물엉 값이난, 발로 바락허게 존동일<sup>516</sup>) 불런 거라. 경 블라부난<sup>517</sup>) 게염지는 허리가, 이디가 ㄱ는덴. 경 헨 이젠

“아이구, 게염지야. 저 게염지야”

아, 강 문딱 좃으오렌 허난, 강 좃으레 간. 막 울단보난 새덜이 문딱 느려완에 오조조조 허멍 좁씨를 다 좃어다 논거라. 퍼쩍<sup>518</sup>) 깨어난 보난, 새들이 막 잇고 좁씨가 다 모아 전. 그걸 가정 제인장제네 집이 오난 제인장제가,

“아이고, 흐 방울이 또 떨어졌저. 빨리 강 그걸 좃으오렌.”

아이고, 첨 그걸 좃으레 가단 보난, 개미가 그걸 물언 겨울 양석허젠 값이난, 인척 쥐 불엇이민 나 두 불 걸음을 안 혈걸. 무사 이제사 좃이넨 허연. 경 헨 이제 그거 가전 오난. 이젠 뉘 벌역(罰役)도 아니 뉘거고. 이젠 노, 쉼 동일 꼬렌 허난. 산디짚 허연에 노 흐 서너 번 박박 멩게난 쉼 동이가 확허게 꼬아진 거 아니. 그 벌역(罰役)도 아니 뉘고. 경 허난, 흐를날은 천연장제 어디 가부난, 비는 축축허게 오고 허난에 한락궁이가 허는 말이,

“어머님아, 제인장제네 집 콩장막이나 털엉 봅서.”

“무사?”

허난

“콩 잇건 콩이나 볶아 줍서. 나 먹저.”

---

514) 게염지: 개미.

515) 양석허젠: 양식하려고.

516) 존동일: 잔등이. 허리 부분.

517) 블라부난: 밟아버려서.

518) 퍼쩍: 벌떡.

허난. 경 허렌 허연에. 이젠 콩장막 털어단 콩 볶음이엔 빗자락 앓단 놓고 허연에 볶으노렌 허난. 베끼디 갓단 한락궁이가 안터레 들어오명 정지에 완.

“어머님, 어머님 흔저 저 올레 가 봅서.”

허난.

“무사?”

허난에.

“제인장제 불렀우덴<sup>519</sup>.”

허난. 확하게 나가분 트명에 빗자락이고, 남수리고 문딱 곱저분 거라. 젓으는 거 다 곱저동

“아이고, 어머니 제계<sup>520</sup> 읍서. 뭐 험우과? 콩 다 카불엄수계<sup>521</sup>.”

허난. 이젠 완, 젓젠은 허난<sup>522</sup>, 아무것도 엇인 거 아니. 남술이<sup>523</sup>도 곱저불고, 빗자락도 곱저불고, 다 허난, 어명 손을 솟창더레<sup>524</sup> 꼭하게 놀린 거라

“어머니, 바른 말 험서.”

“아이고, 거 무신 말이고?”

“제인장제, 우리 아바지 아니지양? 어서 바른 말 험서.”

허난.

“기여, 느네 아방은 서천꽃밭디 꽃감관(化監官) 꽃생인(化聖人) 살레 갓젠.”

허난.

“알앗수덴.”

허연.

“어머니, 이제랑 범벅을 헤 줍서. 소금 닷 뒤 걸랑, 는쟁이 ㄱ루<sup>525</sup> 닷 뒤 놓앙, 범벅 두 덩어리만 헤주고, 또 소금 흔 줍이건, 춤 ㄱ루를 닷 뒤 놓아근앵에 범벅 두 덩어리만 헤줍센.”

허난.

---

519) 불렀우덴: 부르고 있다고.

520) 제계: 어서 빨리.

521) 카불엄수계: 타고 있잖습니까.

522) 젓젠은 허난: 저으려고 하니.

523) 남술이: 넓적 길쭉한 나무로 만든 죽젓개.

524) 솟창더레: 솔바닥에

525) 는쟁이 ㄱ루: 메밀을 맷돌에 갈아 가루를 만들 때, 가루를 쳐내어 남은 것으로, 갈린 껍질과 가루가 뒤섞인 상태.



“어서 걸랑 경 허렌.”

허연. 이젠 그거 해주난 어명신디

“어머니, 제인장제네가 왕, 암만 어머니 죽이켤 허고 어머니가 뉘를 헤  
도, 나 어디 갓젠 골으민 안 뉘니텐. 비밀이우텐. 절대 곤지 맙서.”

헤 뉘. 서천꽃밭더레 가분 거라. 이젠, 가노렌 허난 제인장제넨 별써 알  
안, 천리둥이 개, 만리둥이 개를 내 논 거라. 한락궁일 강 물영오렌. 가노  
렌 허난 천리둥이 개가 물젠 왕왕왕왕 허멍 놀러든<sup>526)</sup> 거 아니. 범벅 소  
금 닻 뉘에 논쟁이 그루 닻 뉘 난 헌거, 혹허게 던지난. 그거 먹으난 짹짹  
허난에게, 그거 먹영 물 먹으레 가분 트멍에<sup>527)</sup> 천리도 가고, 또 가노렌  
허문 또 만리둥이 개가 나오랑 막 물젠 허문, 범벅 짹짹 헌거 흥 덩어리  
주른 그거 먹영, 물 먹으레 가분 틈영엔 만리 질도 나고 가고.

경 허연 간. 서천꽃밭디 간 무에낭 상가지(上枝)에 간 앓안. 영 보난, 서  
천꽃밭디 열다섯 십오 세 안네에 죽영 간 애기들은 막 물을 질어감서. 겐  
디<sup>528)</sup> 부제칩<sup>529)</sup>이서 살앙 늦그릇에 밥 먹어난 애기들은, 이제 늦동에 허  
여 물 잉영<sup>530)</sup> 물 질영가단, 마이정당 쉼정당<sup>531)</sup>에 강 어디 칙 그튼<sup>532)</sup> 것  
에나 뉘에, 발 걸렁 푸더지민, 탁 그 사발이 털어져도 물만 손아져불주 사  
발은 안 벌러지주게. 게문 또 일어낭 강, 그 사발 가정 강, 물을 질어단  
꽃밭디강 물을 주민, 그 꽃이 막 살앙 막 히양삭삭<sup>533)</sup> 좋아지고, 막 가난  
하게 살앙 옛날엔 남박세기에<sup>534)</sup> 밥 먹고, 사기그릇에 밥먹고 경 헤난 애  
기들은, 물 잉영 가당 발 탁 창 푸터지민<sup>535)</sup>, 남박세기도 벌러져불고<sup>536)</sup>  
사기그릇도 벌러져불고 허민 물거렁 갈 그릇이 엇어. 그릇이 엇이민 꽃에  
물은 못주민, 꽃은 막 검뉴울꽃<sup>537)</sup> 뉘영 시들시들 물리와불민<sup>538)</sup>, 꽃감관  
(化監官)은 꽃춘심 오랏당 이거 누게 꽃이고 허영, 아랫저고리 걸어 세왕.  
이 꽃 잘 관리 아니헛젠 막 두드려부는 거주게. 경 두드려불민, 그 애기덜  
은 인간덜에 돌아앗앙. 날 낳안 나 아버지, 날 낳안 나 어머니, 무사 나

526) 놀러든: 달려든.

527) 가분 트멍에: 가버린 틈에.

528) 겐디: 그런데.

529) 부제칩: 부잣집

530) 잉영: 머리카 어깨 따위의 위에 이다. 이어서.

531) 마이정당 쉼정당: 땡땡이 덩굴의 한 가지.

532) 칙 그튼: 칙 같은

533) 히양삭삭: 몹시 흰.

534) 남박세기에: 나무바가지에.

535) 푸터지민: 넘어지면.

536) 벌러져 불고: 깨져 버리고

537) 검뉴울 꽃: 시들어 가는 꽃.

538) 물리와불민: 말려버리면.

맹 졸르게<sup>539)</sup> 납디겐 허영, 비세 ㄹ찌 울어불민, 형제간들도 즈박즈박허고  
애기덜, 경 허영 막 헤가난. 무에낭 상가지에 앓앙 그걸 보단, 산손가락을  
꼭허게 짠. 피를 흔 방울을 똑허게 떨어친 거라. 떨어치난 그 물 질어단  
서천꽃밭디 주난, 꽃들이 다 검뉴올 뉘분 거아니. 아이, 게난 아방, 꽃감  
관 꽃생인은 꽃춘심 완 보난 꽃밭디 문딱<sup>540)</sup> 꽃 검뉴올이 뉘 거라. 게난  
이거 어떻헌 일이고 허난, 애기덜 곤는 말이,

“무에낭 상가지(上枝)에 어떤 총각이 앓안 피 빠네 물에 뇌부난, 그 물  
을 떠당주난<sup>541)</sup> 이추룩<sup>542)</sup> 험우다.”

허연. 주천강 연훼못덜 딱 내려산 보난. 아난게 아니라 무에낭 상가지  
(上枝)에 어떤 도령이 앓앙 잇인 거라.

“너 누게냐? 이리 내려오라.”

허난. 내려오난.

“너 성진땅이 어디냐?”

허난.

“나 성진땅은, 이제 아버지는 사라국 사라도령이고, 어머니는 월광아미  
고, 우리 성하르방<sup>543)</sup>은 짐진국 대감이고, 우리 웨하르방<sup>544)</sup>은 원진국 대  
감이엔.”

허난. 내 자식이 분명헌 거라. 겐디, 확실헌 거를 몰라. 게난, 은동이에  
물 떠단, 이젠 아방 피도 흔 방울, 아들 피도 흔 방울 경 험, 물 우터  
레<sup>545)</sup> 똑 떨어치난<sup>546)</sup> 그것이 동골동골동골 떠 뎡기단<sup>547)</sup> 탁허게<sup>548)</sup> 간 합  
수가 뉘 붙은 거라. 아, 영 허난 내 자식이 분명허다. 게난, 옛날부터 자  
식을 잘 모르면은, 그 피 검사허영 우리 그 디엔에이 검산가, 무신 거 허  
는 법. 그것도 뉘고. 게난

“설운 아들아, 느 오명 보난 발등 친 물 엇어냐?”

“아이고, 잇입데다.”

“게, 오단 보난 무릅<sup>549)</sup> 친 물 엇어냐?”

---

539) 맹 졸르게: 명 짧게.

540) 문딱: 전부. 모두.

541) 떠당주난: 떠다주니.

542) 이추룩: 이렇게.

543) 성하르방: 성할아버지.

544) 웨하르방: 외할아버지.

545) 우터레: 위에.

546) 떨어치난: 떨어뜨리니.

547) 뎡기단: 다니다가

548) 탁허게: 탁하게.

549) 무릅: 무릎.

“잇입데다.”

“오단 보난 목 친 물 엇어나?”

“잇입데다.”

“그거이 느네 어멍이, 느 엇이난. 초대김, 이대김, 삼대김 받단, 느네 어멍은 죽엇저.”

“아이고, 경 헛수과? 게른 서천꽃밭 구경이나 시겨줍서”

게난 아들 들양 서천꽃밭더레 간

“요건 무신 꽃이우파?”

허믈.

“검뉴울 꽃이여.”

허믈 똑기<sup>550</sup> 꺾으고

“요건 무신 꽃이우파?”

허믈.

“그건 싸움혈 꽃이여.”

허믈 똑기 꺾어 놓고

“요건 무신 꽃이우파?”

허믈.

“거는이 씨멜죽(種滅族) 혈 꽃이여.”

허믈 똑기 꺾어 놓고

요건 무신 꽃이우파?”

허믈.

“그건 막 웃음 웃을 꽃이여.”

허믈 똑기 꺾어 놓고

요건 무신 꽃이우파?”

허믈.

“그건 사름 살리는 꽃이여.”

허믈 똑기 꺾어 난.

“알앗수텐.”

허연. 이젠 어멍국, 어멍 신디 훗아앗영 이젠, 인간에 온 거 아니. 겐 완 보난, 벌써 제인장제네 권당<sup>551</sup> 일족이 다 모인 거라. 한락궁이 오민 막 죽이젠. 경 허연 다 모영 가가난 다들 와상와상 막 헤가난.

---

550) 똑기: 똑.

551) 권당: 권당(眷黨).

“아이고, 상전님네들 어떻 허난 영 험우과?”

허연. 웃음 웃을 꼳을 내난, 다글다글 흥그난<sup>552)</sup> 그자 켄당(眷黨) 들이 막 하하하하 웃이멍 다 자빠지는 거라. 하하호호 막 험. 켄 싸움험 꼳 내 어난, 와글와글 흥글어 가난 서로가 머리들 메멍 막 싸움을 허는 거라. 이 켄 씨 멜죽험 꼳을 내난, 와글와글 흥그난 다 죽어분 거라 그냥.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어디 갓인고.”

허노렌 허난. 장방(長房) 쏘곱<sup>553)</sup>에서 제일 죽은딸, 죽이지 못험 죽은딸

“아이고, 상전님.”

허멍 나오난

“야, 느가 상전이주. 나가 상전이가? 우리 어떻 잇인디 곶아 주민. 나, 느 살려주마”

허난. 뒤에 간 보난 신돔박낭<sup>554)</sup> 아래, 돔박낭 아래 간, 청댓섭<sup>555)</sup>으로 목 걸련에 영 목 메영 돔박 낭 아래서 죽어분 거라. 게난 아이고, 이거 보 난 거미줄은 막 헤영허게 쓰고,

“아이고, 설운 어떻 이거 나 엇이난. 초대김, 이대김, 삼대김 받안 영 죽엇구나.”

허연.

그 거미줄 썬 법으로. 지금 저 고리동반에<sup>556)</sup> 너울지, 너울지. 우리 어디 곶허레 가멍 공깃상<sup>557)</sup>에 항상 댓섭<sup>558)</sup> 헤영을 찌르나, 돔박낭 험, 영 쥘렁 노는, 고망 베통베통 현. 영 동글동글 현 떡 쏘곱에 담양 현 거. 그 법으로 저 너울지 허고. 이젠 대로 목 즐란<sup>559)</sup> 죽엇젠 허영 댓섭으로 영 동골락허게 영영영영 꼬웁니다 그거. 경 꼬아 놓고, 돔박낭 아래서 죽엇젠 허영 돔박낭 영 쥘르고.

그 땅을 판 거라. 판 보난 어떻 빠만 슬그랑허게<sup>560)</sup> 남앗이난. 피 오를 꼳, 슬 오를 꼳, 오장육부, 말 곶을 꼳, 사름 생길 꼳 난. 연시 번을 송악 낭<sup>561)</sup> 막데기로

552) 흥그난: 흥드니.

553) 쏘곱: 속.

554) 신돔박낭: 동백나무.

555) 청댓섭: 청댓잎.

556) 고리동반: 고리동반떡을 이름. 이는 소위 ‘심방떡’이라 불리는 것으로, 방석 역할을 하는 병개떡과 7개의 방울떡으로 이루어짐. 떡 위에는 너울지를 씌움.

557) 공깃상: 삼명두(요령, 신갈, 산판)을 모신 상.

558) 댓섭: 댓잎.

559) 목 즐란: 목 졸라서.

560) 슬그랑허게: 몸 형체가 없고 빠만 남아 있는 상태.

561) 송악낭: 두릅나뭇과의 상록 활엽 덩굴성 식물.

“이건 내가 어머니 때리는 메가<sup>562)</sup> 아니고, 어머니 살리기 목적으로 때리는 멍니덴.”

허연. 세 번을 딱딱 후리난 와들랭이<sup>563)</sup> 어명이 일어나명

“아이고, 나이 봄 즈이난 너미 자젓저.”

허난. 그 때엔 이젠 어머님 살려 된. 어명 누워난 자리도, 땅도 하도 아까운 거라. 어명 누웠 잇어난 거 어명 내불린. 그걸 동골동골 손에 낀 멘든 거라. 게난, 개인집이 굿혈 때는 일곱 방울, 큰굿 스당클(四祭棚) 메영 정의 곶은 디 강, 당클 네 개 메영 대 세왕 허는 디는 열네 방울, 곱빼기. 심방침이 굿혈 때는 곱빼기 곱빼기 허난, 이제 스무으덱 방울. 네 부를 허니까. 스무으덱 방울 헤영 허곡, 아랫건 이제 병거떡<sup>564)</sup>이엔 헌거, 둥글락허게<sup>565)</sup> 멘들안 그 우터레 놓아근에게, 이제 고리동반 허는 법. 게난 이공 본은 그것이 주목예.

---

562) 메가: 매가.

563) 와들랭이: 급히 벌떡 일어나는 모양.

564) 병거떡: 신에게 바치는 떡을 고리동반떡이라고 하며, 병거떡과 방울떡으로 이루어지는데, 병거떡은 밑에 받치는 방석 역할의 하는 떡.

565) 둥글락허게: 둥그렇게.

## 삼공본풀이

옛날은 옛적에 옷상실<sup>566</sup>)은 간이영성이 살고, 알상실<sup>567</sup>)은 홍문수천이 살았으니, 옷상실에서는 막 송년(凶年)들었. 막 송년드난 소문에 듣기를, 알상실에 막 풍년 들었덴 소문이 나고, 또 알상실에서는 옷상실에 풍년이 들었덴 소문이 난거라. 서로서로 소문이 잘못 댜언.

계난 돌이가 다 얻어먹는 게와시(乞人) 덜이니, 옷상실에선 간이영성이 알상실테레 얻어먹으레 내려살 때고, 알상실에선 홍문수천이 옷상실테레 얻어먹으레 올라사는 도중에 질레서<sup>568</sup>) 돌이가 만난 거라.

“어드레 가는 아주망이파?”

허난에.

“난 알상실 사는 홍문수천이니 옷상실에양 막 풍년 들었젠 허난, 우리 세젠 막 ㄱ물안 송년(凶年) 지어부난 얻어먹으레 값우다.”

허난.

“계난 아주방은 어디레 값수파?”

허난.

“난 옷상실에 간이영성이니, 우리 옷상실에 막 송년들었 소문에 들으난, 알상실에 막 풍년 들었젠 허연 그디 얻어먹으레 값우다.”

허난. 아, 서로가 질레에서 통성명 허멍 어땡어땡 허단 보난

“경 말양 읍서. 우리 돌이가 부배간이나 삼양 삼주.”

젠 돌이가 이제 부부가 댜 거아니. 경 부부가 댜언 사는 게, 물고랑<sup>569</sup>)에서 산거라. 물고랑에서 사느디, 애긴 배언 낳는 거 보난, 딸이 난거라. 젠, 이름이나 지와보져 허연. 은장아기로 이름을 지우고, 이젠 또 살단살단 보난. 또 애길 배언. 나난, 딱시 딸 난거라. 계난 늦장아기로 이름을 지우고, 젠디 큰딸 난 때 ㄱ지는 물고랑에서 살단, 흐뎡 배지그랑허연<sup>570</sup>) 이젠 비주리초막 행 간 살단, 늦장아긴 나난 흐뎡 더 이젠, 눈이 배지그랑 현 거라. 경 헨 이젠 이칸 집이허연 살단. 또 임신댜언 낳는 건 보난, 딱시 딸 난 거 아니. 계난 이결랑 가문장아기로 이름을 지으젠 허연. 아, 가문장아기가 난 살아가는 게, 그냥 삼시간에 경 부제(富者)가 댜어부는 거

566) 옷상실: 가문장아기 신의 부신명(父神名). 또는 그 출생지.

567) 알상실: 가문장아기 신의 모신명(母神名). 또는 그 출생지.

568) 질레서: 길에서.

569) 물고랑: 마굿간.

570) 배지그랑허연: ‘배지근허다’는 고기 따위를 끓인 국물 같은 것이 깊은 맛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졌다는 의미임.

라. 계난, 막 천개의 집도 혜연에 소실 대문 들안 살고, 남전북답(南田北畚) 너른 밧덜토 나고 부제(富者)가 웨언. 막 살아가난 이 애기덜토 아멩헤도<sup>571)</sup> 일고 으듬 설에 으남은 설 뵈인ㄴ라. 흐루는 심심허고 야심허난 이젠 딸을 불른거주게. 큰딸을 불린,

“은장아기야.”

허난.

“예.”

허난에.

“이레 와보라.”

허난. 이젠 아버지 방에 들어가난 어멍허고 앳아듬서로

“야, 넌 누게 덕에 ,먹고 입고 행공발신(行動發身) 헤서 사느냐?”

허난.

“예. 아버지도 덕, 어머님도 덕, 하느님도 덕, 지하님도 덕에 살았우다.”

허난

“하 침, 나 딸애기 적실허다<sup>572)</sup>. 느 방으로 가라.”

허연 보내고. 이젠

“눗장아기야.”

허난

“예.”

허난

“이레 오라보라.”

허난.

“넌, 누게 덕에 살았느냐?”

“하느님도 덕, 지하님도 덕, 아버님도 덕, 어머님도 덕에 살았우다. 먹고, 입고, 행공발신(行動發身) 했우다.”

허난

“어 침, 나 딸애기 착실허다. 느 방으로 가라.”

허고. 가문장아기 불런에

“넌, 누게 덕에 먹고, 입고, 행공발신(行動發身) 허느냐?”

허난

---

571) 아멩헤도: 아무래도

572) 적실하다: 확실하고 분명하다.

“하느님도 덕, 지하님도 덕, 아버지 어머니도 덕이우다만은. 나 베또  
룽<sup>573)</sup> 아래 선그릇이 덕이우다.”

허난.

“아, 요년, 생긴 년, 너 베또룽 아래 뭐 선그릇이 덕이고.”

허멍 딱리젠<sup>574)</sup> 헤가난. 베깃디레<sup>575)</sup> 돌아나분거라. 통설대로<sup>576)</sup> 딱리젠  
허난 돌아나부난. 이젠 아버지영 어머니영,

“야, 은장아기야, 저디 강 느네 아시 강 들앙오라.”

허난. 올레에 간 물팡 우이 올라사멍 곤는 말이

“가문장아기야, 흔저 저레 돌아나불라. 아버지 통설대 들르고, 어머니  
부깃뎡이 들런 느 두들젠 앓저.”

허멍 허난. 겐 그 말 골아뎡 알더레 탕 내려사난 아, 청주녕이<sup>577)</sup>가 뉘  
분 거라. 청주녕이로 변장 헤불언.

이젠 늦장아기<sup>578)</sup>라

“야, 어떻허난 느네 성도, 느네 아시 들레가당 안 앓이니? 간 보라. 강  
들아오라.” 허난. 이젠 간. 걸름 우터레<sup>578)</sup> 올라사멍

“야, 가문장아기야 흔저 돌아나불라, 아버지영 어머니영 느 딱리레 오랏  
저.”

헤뉘. 탁 느려사젠 현 게 용달버섯<sup>579)</sup>이 뉘분거라. 게난, 어떻 아방은 뜰  
삼형제가 나간 아무도 안 돌아오는 거 아니

“아이고, 이거 피라곡절(必有曲折) 현 일이옴.”

이젠 아방은 베깃디레 나가젠 현게 저 대문에, 문대방<sup>580)</sup>에 눈, 강 탁  
쳐부난에 아야야야 허단보난 오꼳 눈이 어둑어불고, 어멍은 정지에서, 정  
지로 나가젠 현게. 정짓문에 문대방에 강 그냥 앓앙, 눈, 간 쳐부난 아야  
야야 등글단보난. 정신 출령 하르방, 하르방, 할망, 할망 좇안 보난, 들이  
가 다 오꼳 눈이 어둑어<sup>581)</sup> 분거라 그냥. 게난 짐작삼아 손으로 영영영영  
헤연. 이젠. 하르방, 할망, 할망 좇안. 경 허연 현디. 가문장아긴 그 질로  
나산 집인 돌아올 순 엇고, 가노렌 허난.

573) 베또룽: 배꼽.

574) 딱리젠: 때리려고.

575) 베깃디레: 바깥으로.

576) 통설대로: 긴 담뱃대.

577) 청주녕이: 청지내.

578) 걸름 우터레: 거름 위에.

579) 용달버섯: 음달버섯. 말뚱버섯.

580) 문대방: 문지방.

581) 어둑어: 어두워.



큰 마통이가 마 파는디가 잇어. 마 파는디 둥굴랑 둥굴랑 허멍 마 짚이  
난,

“아이고, 말이나 흐꿈 물으쿠다예. 어디가민 인간처가 잇인고예?”

“에이그, 여잔 꿈에만 시꾸와도<sup>582</sup>) 새물(邪物)인디 예편년이 말 시겨부  
난, 오꼳 나, 마 빨리 끊어져 불어라.”

허멍 막 욱을 헤 분거라.

이젠 또 가당가당 보난, 셋 마통이가 둥굴랑 둥굴랑 마 짚이난

“말이나 흐쓸 물으쿠다.”

허난에

“아이고, 여편년이 말 시겨부난 오꼳, 마 데가리 끊어져 불어렌.”

막 욱을 허여.

또 가단보난 또 죽은 마통이가 마 파는디 잇이난에

“아이고, 말이나 흐꿈 물으쿠다예?”

허난. 죽은 마통이는

“예. 글읍서.”

허난

“어디가민 인간처가 잇인고양?”

허난

“요 재 넘고, 저 재 넘고 강 보민양. 비주리초막<sup>583</sup>)에양 노인네 할마님  
혼자 잇인디 잇우다. 그디 강 오늘밤이 가근앵에 주인이나 맺영 갑서.”

경 곱아주는 거라. 경 헨 이젠

“아이고, 고맙수다게.”

헤 뵈. 가노렌 허난, 흠 요 재 넘고 저 재 넘고 강 보난에 잇어, 집이.  
집 잇이난 그때엔 할망신디 간

“나 주인이나 흐꿈 맺젠 헛수다.”

허난.

“아이고, 이제 우리 마통이들 들어오민 우리 마통이들 누울 방도 엇인  
디다가 나그네까지 줄 방이 엇젠.”

허난.

“나, 정지 구석에라도 좋수다.”

경 헨. 아이, 어둑어가난 둥굴랑 둥굴랑 허멍 거 무슨 소리가 나는 거

---

582) 시꾸와도: 비추어도.

583) 비주리초막: 매우 작은 초막.

라. 겐

“이거 무슨 소리짜?”

허난 우리 큰 마통이 마 팡 오는 소리엔. 흐끔 잇이난 또 둥굴랑 둥굴랑 소리 나난

“이건 무슨 소리짜?”

허난 이진 셋 마통이 마 팡 오는 소리엔. 죽은 마통이 마 팡 오는 소리가 둥굴랑 둥굴랑 허연. 마통이들이 집이 완, 마 팡 온 거 셋언. 숭안 앓아 온 건 보난. 큰마통인 데가린 어명을 안네고, 꼴랑진 손님을 안네고, 복판은 이녀이 먹고. 셋 마통인 데가린 어명을 안네고, 꼴랭인 손님을 주고, 복판은 이녀이 먹고. 죽은 마통인 출렁 온건 보난, 데가린 이녀이 먹고, 꼴랭인 어명 안네고, 복판은 손님을 안넨 거라. 그걸 얻어 먹언.

“에이구, 나도 무시거 대접을 헤사주긴.”

헤연. 가믄장아기도 히양삭삭 ㄱ은 쓸 난 ㄱ밥<sup>584</sup>허연. 큰 마통이한테 들어나상 허난. 육만 후려<sup>585</sup>허는거라.

“어디 버랭이밥 헤단 우리 조상 전이도 안 먹어난 거 가정 들어왔덴.”

막 육허연 앓앙 나가렌. 셋 마통이한테도 앓앙가난 그냥 손더레 영 거려와 가난

“아이, 아이 나 말덴. 버랭이밥 치우렌.”

허연 안 먹으켄 허고. 이젠 죽은 마통이한테 앓아가난 죽은 마통인,

“아이고, 영 맛 존 밥이 어디 시넨.”

허명 그냥 손으로영 숭가락으로영 막 먹어가난. 이젠 큰 마통이, 셋 마통인 그뻘 간, ㄱ만히 산 바리단

“나도, 흐끔 드라. 나도 흐끔 쥐 보라. 쥐 보라.”

허명. 하도 죽은 아시 맛 좋게 먹어가난 먹구정 허연. 경 현디. 이젠 그거 다 치와 뉘. 즘은 자젠 허난 큰 마통이 방에 가난, 막 육을 허는 거라

“여펜이 누게 발에 눅젠 헛이넨.”

막 허연. 이젠 셋 마통이 신디도 가도 막 육허연. 죽은 마통이 신딘 가난

“죽은 마통이가 저 나 발더레라도 눅서.”

경 허연. 발에 누원 허는 게, 이제 가믄장애기 하고 부베간이 뉘어. 경 부베간이 뉘난, 뒷날 아침인 큰 마통이 마 파난디 둘이가 간 보난. 개똥,

584) ㄱ밥: 쌀밥.

585) 후려: 마구.

췌똥만 문딱 이디 저디 데작데작 허고. 셋 마툽이 마 파난디나 강 보주긴 허연 간 보난. 돌멩이만 왕그랑 현 거아니. 죽은 마툽이 마 파난 디나 강 보주긴 허영 간 보난, 파민 금이여, 파민 은이여 그냥 금과 은이 보화가 막 나온 거라. 경 헨 그냥 삼시간에 큰 집도 나고, 큰 밧도 나고, 부제가 똥 거라. 게난 가문장애기가 그만큼 생각허난

“설운 낭군님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살았인디, 어떻게 똥인디 흔번 훗아 보는데 어떻 허우짜?”

허난.

“게문 경 허렌.”

허연.

“게문 걸인 잔치나 헤 보게마썸.”

허연. 이제 걸인 잔치를 허는디, 이제 춤 각처 도에 잇인 거지덜은 다 오는 거주게. 맹인 들이영. 경 허영 다 오는디. 메날 아버지가 오랐인가, 어머니가 오랐인가. 두일레 열나홀 걸인 잔치 허는디, 암만 기다려도 아니 와. 말제 끝 마무리<sup>586</sup>) 똤가난, 손덜 심영 둘이가 봉사 똤연 막똤이<sup>587</sup>) 꺾고 쥘고 허연 오는 거 보난,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라. 경 허난. 그디 간 앓으난에 제일 말제<sup>588</sup>) 어떻 못가게 허젠 허난. 우이로 똤여가단<sup>589</sup>) 딱, 그 어떻, 아방 앓은 디 가민 끊영, 똤여불지 말고, 또 알로 똤여가단 어떻 아방 신디 가걸랑 딱 끊영, 똤여불지 말렌 허연. 시긴 거라. 게난 우이로 똤여오단 끊어불고, 이제 우티나 강 앓으민 주카부덴, 알로 똤여 오단 그 디 가민 끊어불고 허난. 원, 일로 강 앓아도, 절로 강 앓아도. 손가락 소리, 돌고락 돌고락 손가락 소린 나고. 밥은 못 먹고 경 허단 마지막 두일레 열아홀이 끊나난. 이젠 그디 그 부하들<sup>589</sup>) 곶은 거주게

“저 디 앓은 할망, 하르방이랑 못 가게 심영 가지 못허게 허연 놆두렌.”

경 허여 똤.

“헤치자.”

허난에. 전국적으로 게와시(乞人)들이 문딱 가게 된 거 아니. 다 가불어 가가난 이제 아방 어떻은 막 손 삭삭 부비멍

“아이고, 죽을 췌를 지엿우다. 우리 살려 줍서. 우리 췌엔 현 건 아무

586) 끝마무리: 맨 마지막 끝 무렵

587) 막똤이: 막대기.

588) 말제<sup>588</sup>): 맨 마지막까지

589) 똤여가단: 먹여가다가.

쨌도 엇우덴.”

막 해 가난.

“계난 어디서 읍디겐?”

허난.

“아이고, 난 옷상실 강이영성이고, 각신 알상실 홍문수천이우덴.”

허난

“계건 옛말이나 곱아봅서. 들은 말이나 곱아봅서.”

“아이고, 우린 옛말도 엇고, 들은 말도 엇수다.”

허난.

“계건 살아 온 말이라도 곱아봅서.”

경 허난. 이때부터 아방 어멍이 거지에서부터, 만냥 들고랑에서 애길 나고 헌 말로부터, 쪽 놀레<sup>590</sup>)로 불러 왕 이제 가문장아기 집 나가분제까지. 그까지백이 몰르주게. 게 그까지만 불르민. 이젠 가문장아기도 나도 노래 불르쿠덴 허연. 이젠 그 집에서 나완 마통이들 만냥 해난 말로부터 허영. 이 잔치허는, 걸인 잔치허는디 까지 허영 곱아. 경 허영 허민, 이제

“나 술 혼 잔 받으시오.

허민. 술, 딸 가문장아기가 술 들렁은엔에 잔더레 비왕 해 가민, 잔이 다락 떨어져부난 눈이 번뜩허게 떠져분거라. 어멍, 아방이. 눈이 번뜩허게 뜨난, 어멍 아방이 입어난 옷 싹 벳견. 이젠 그거 들렁 청스록(靑邪氣)<sup>591</sup>)도 내놀리자<sup>592</sup>), 흑스록(黑邪氣)도 내놀리자. 나무광대 정자스록 내놀리자 허영. 스록들 거느리멍 다 놀려불고 경 해뉘. 이제 어멍 아방 입어난 옷 허영 해뉘 그 옷은 불 케와<sup>593</sup>) 불고, 새입성(新衣服) 허영 어멍 입정은엔에 허는 거. 이거 원칙으론 두 번, 그 노래 부를 때에 처음부터 허연 부르고, 반에서부터 끝까지, 또 이건 가문장아기 불르곡 허면 본풀이가 뉘는 겁니다.

---

590) 놀레: 노래.

591) 스록: 되어가는 일을 그르치게 하는 사기(邪氣).

592) 내놀리자: 내쫓자.

593) 불 케와: 불 태워.

## 지장본풀이

지장본은,

지장이 아기씨에 대한 본입니다.

이제 나까시리 놀려 나면 청하늘 청도전, 흑하늘 흑도전,

백하늘 백도전, 도전에 풀이로 지장이 본풀자 허여.

강남은 천저국, 일본은 주년국, 서천은 서역국 허시던 말썸이.

남산국 본이여, 여산국 본이여,

옛날은 옛적에, 남산과 여산이 자식이 없어서 호호 탄복을 헨거라.

소문에 들으난, 어느야 당에사<sup>594</sup> 영급(靈及)이 좋고, 수덕(授德)이 좋덴 허난. 송낙베 구만장, 가삿베 구만장, 백근을 중중이 흘려서 이제 동계남 상저절, 서계남 금법당, 이제 절에 간 수록을 들인게. 지장이 아기씨가 소로롱 소로롱 솟아난 거 아니.

계난 혼 설(一歲)이 나는 헨, 어머님 무릅에 앉안 연즈세 허고<sup>595</sup>. 두 설(二歲)은 나난, 아버지 무릅에 앉안 연즈세를 부리고. 세 설(三歲)은 나난, 할마님 무릅에 연즈세 허고. 네 설(四歲)은 나난, 할아버지 무릅에 연즈세를 허고. 아이, 다섯 설(五歲)은 나난, 어명부터 오꼳<sup>596</sup> 죽어분거 아니.

여섯 설(六歲) 나난, 아버지가 죽어 분거라. 이젠, 일곱 설(七歲)은 당허난, 할망이 죽어불언. 거꿀로 헤영 죽엇이민. 옛날도 경 허난. 어명 죽어분 애긴 불쌍허고, 아방 죽어분 애긴 불쌍허지 안 헨다고. 이젠 으덱 살(八歲) 나난, 오꼳 하르방<sup>7</sup>지 죽어부난. 이제 갈 디가 엇인 거라. 지장이 아기씨, 경 허난.

동네에 웨삼촌<sup>597</sup>, 웨삼촌이 금방산에 사난. 웨삼촌 텍으로 수양(收養)을 간 거라. 수양(收養)을 가난. 그 애기도게 버릇이 굿언. 하도 빌흐럽<sup>598</sup>을 허연. 계난 개 먹던 접시에 술납을 달레고<sup>599</sup> 허연 사는디. 하도 버릇이 굿이난 삼도전 시커리<sup>600</sup>로 그냥 나아도 가더라. 쟈 그디 삼도전 시커리에 가난, 하늘은 옥황에서 부영새가 짓늘아오란<sup>601</sup>, 혼 늘게<sup>602</sup>는 풀리고,

594) 당에사: 신당.

595) 연즈세 허고: '어리광을 부리다' 의 뜻.

596) 오꼳: 곧. 즉시. 아무런 흔적이나 자취도 없이.

597) 웨삼촌: 외삼촌.

598) 빌흐럽: 어린애가 무엇을 달라고 울며 조르거나, 조그마한 일에도 잘 울며 버티는 짓.

599) 술납을 달레고: 술밥의 음변(音變). '술랍을 달렌다'함은 숟가락으로 밥의 양을 계산하여 준다는 뜻.

600) 삼도전 시커리: 세거리를 말함.

흔 늘게는 덮고, 겐 사는게. 이런송 저런송 그자 그럭저럭 고생고생허멍  
어떻어떻 사는 게.

열다섯, 십오세가 돼어가난 하도 착허난. 착허덴 소문이 동서로 나난.  
하늘은 옥황에 문왕상 문도령에서 중전(仲媒)을 오는 거라. 계난 허급(許  
給)을 허난. 이젠 이바지<sup>603</sup>가 오고, 신랑이 오고 신부가 가고, 경 시집을  
가난. 가는 날 저녁에 조은 일을 허난. 이젠 애기를 가진 거라. 계난, 조  
은 일 허난에 지장이 아기씨 포태(胞胎)가 뉘난. 시어멍 시아방 ,

“아이고, 나 며늘애기씨, 출림도 출렸저<sup>604</sup>. 착험도 착허덴.”

오명싸라<sup>605</sup> 이제 애기를 가지난. 유기((鑰器)야 전답(田畝), 물모쉬(馬牛)  
아울라 문딱<sup>606</sup> 재산을 물러졌어. 겐 물러 줏인디 열으섯 나난, 시어멍부  
터 죽어분거야니. 열일곱 나난, 또 시아방이 죽어불엇어. 열으덱은 나난,  
낭군이 죽어분거라. 서루신<sup>607</sup> 낭군이 죽어도 가시고, 열아홉은 뉘난, 이  
젠 애기 아울러 오골렉이<sup>608</sup> 죽어분 거라. 아이고, 계난

“이젠 어딜로 가리오.”

이젠 팔즈(八字)가 험악허난 생남저 ㄱ지<sup>609</sup> 다 죽어부난. 동네에 시누이  
가 사난 시누이 사는 디 가난. 시누이, 나 딸년은 흔지방 넘으난 벼룩<sup>610</sup>  
이 닷 돼, 니<sup>611</sup>가 닷 돼, 이제 시누이 테<sup>612</sup>를 현거라. 시누이 테허난, 그  
디도 못 살안.

주천장 연쇄못디 연세답<sup>613</sup>을 가난. 쫓고만 애기씨허고, 예숙을 제끼  
난<sup>614</sup>, 예숙이 지언. 계난 물명지 치메, 단 치메 흐나 입엇단 거ㄱ지 다  
벗언 쥐두고 허연 오는게. 동으로 오는건 은장에 거리여, 서으로 오는건  
눗장에 거리여. 은장과 눗장은 다 버려두언 오노렌 허난, 이제 스님이 온  
거라. 스님이 텅겅이난. 동으로 오는 건 대스(大師)님 오시고. 서으로 오는

601) 짓놀아오란: 날아와서.

602) 흔 늘게: 한 날개.

603) 이바지: 혼례가 치러지기 전에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보내는 혼례에 필요한 물품.

604) 출림도 출렸저: 차리기도 잘 차렸다.(家具등 遺産을).

605) 오명싸라: 오자마자.

606) 문딱: 전부. 모두.

607) 서루신: 겹으로는 ‘서러운’의 뜻이나, 단순한 ‘서러운, 불쌍한’의 뜻이라기보다는 가슴속에서 우려나  
는 깊은 애정이 담긴 말로 보임.

608) 오골렉이: 고스란히

609) 생남자 ㄱ지: 생남자(生男子) 까지.

610) 벼룩: 벼룩.

611) 니: 이(蝨).

612) 시누이 테: 시누이 티.

613) 연세답: 빨래.

614) 예숙을 제끼난: 수수께끼를 하니.

견 소스(小師)님 오시고. 대스(大師)님, 소스(小師)님 심어 놓안.

“나 팔즈(八字)나 골려 줘서. 나 스주나 골려 줘서. 나 팔자 골읍서.”

허난. 딱, 스님 허는 말이

“어떻허난 초본엔. 게난 어린 때는, 초년에는 조은 팔즈(八字)에 잘 살 안 헤도, 중년에는 굿수다. 말년에는 조쿠다. 그대신 말년에 좋젠허민. 시아방, 시어명, 남편, 원아방, 원어명, 이제 생남자까지 라도 다 전새남<sup>615</sup>을 헤 줘서.”

헌 거라. 게난 전새남을 허젠 허난. 아무것도 엇이난게 무신거 헤사 전새남을 헐 거 아니. 쉼테자 구덩이<sup>616</sup> 헤우쳐 판, 그디 뽕낭 싱진. 그 디 뽕 잎 나난. 그 뽕잎 타단, 누에 질루완. 누에 밥을 주고, 누에 즙을 재우고, 경 허연 그 누에를 키완. 이젠 강명지(強明紬) 꼬리여 물명지(水明紬) 꼬리여 누에 실을 뺀 거라.

실을 뺀. 왓그락 잘그락 강명지도 짜고, 물명지도 짤. 이제 그거 짜 난. 이제 할마님 드리여, 이제 시왕(十王)의 드리<sup>617</sup>여, 초공전 드리여, 이젠 각 일만팔천에 드리에 다 츠서(差使)에 드리여. 멩감(冥官)에 드리여, 일월(日月)에 드리여. 본향(本鄉) 드리, 영가(靈駕) 드리, 경 험 다 허단. 남은 건 잇이난,

열대자(十帶子) 들여서 아강베포<sup>618</sup>, 게난 큰 포따리를 멘들고, 일곱 자 들여서 호름줌치<sup>619</sup>를 허고, 게난 찰리<sup>620</sup>를 멘들고, 석자 들여서 호름줌치에 다 멘들안. 그걸 이제 둘러메연 권제를 받으레 덩긴 거라. 쓸을 마련 헤사 이제 전새남을 헐 거난.

게난 동으로 들어서 서으로 나시고, 서으로 들어서 동으로 나시고. 게난 권제 받으레가민 불쌍허텐 허영 흠으로 줄 때는 뉘로 주고, 뉘로 줄 때는 또 말로 주고. 게난 흠흠(습습)히, 세세히 메와단. 그 쓸을 이젠 짓넙은<sup>621</sup>, 굽넙은 다라에 물적져 등근다<sup>622</sup>. 물적져 등그난.

이제 그걸 건전 굴묵낭 방에<sup>623</sup>에 도에낭 절꿇대<sup>624</sup>로,

615) 전새남: 병자를 살려주기를 기원하는 곳.

616) 구덩이: 구덩이.

617) 드리: 다리. 곳을 할 때 걸어놓거나 깔아놓은 긴 천을 말하는데, 신이 이 다리를 밟아 내린다고 함.

618) 아강베포: 종이 메고 다니는 뽕뽕.

619) 호름줌치: 종이 쌀을 얻으러 다닐 때 들고 다니는 자루.

620) 찰리: 천이나 형겅 따위로 기다랗게 만든 큰 주머니. 자루.

621) 짓넙은: 넓은.

622) 물적져 등근다: 물 적시어 담근다.

623) 굴묵낭 방에: 느티나무 방아.

624) 도에(桃花)낭 절꿇대: 복숭아나무 절굿공이.

‘이어도 방에여, 이어도 방에여,’

콩콩히 지언.

계난 채할망<sup>625</sup>) 불러단 채바퀴 탁 치난. 채 아래 ㄱ루<sup>626</sup>)는 줍짐도<sup>627</sup>)  
줍질고, 채 우에 ㄱ루는 흙음도<sup>628</sup>) 흙으난. 채 아래 ㄱ루는 강남서 들어  
온 멧시리<sup>629</sup>)에, 일본서 들어온 멧숫디<sup>630</sup>). 초징 이징 삼중을 놓안. 불낙시  
(火食)<sup>631</sup>) 시견. 시리떡을 멘들고, 채 우에 ㄱ루는 흙음도 흙으난 즈는  
펜<sup>632</sup>), ㄱ는펜. 물펜<sup>633</sup>)이여 펜 멘들고 경 허연 시리 멘들안에.

이젠 시왕(十王) 스지(小紙)에 올련. 그거 동골동골 노념허연<sup>634</sup>). 옆도전  
네여단. 연당(靈筵祭棚)<sup>635</sup>), 만당(滿當)

비어 잇인디 문딱 올련. 그 전새남을 올리난. 살단살단 지장이 애기씨  
가 죽언 가난. 년 인간에서 좋은 일을 많이 헤엿젠. 서천꽃밭디 통부체 몸  
으로 환싱(還生)을 허난.

“서천은 꽃밭디 이제 새 앓아 오르고, 천왕새 드리자<sup>636</sup>), 지왕새 드리  
자, 인왕새 드리자, 옥황엔 부영새, 땅아렌 도닥새, 준지새, 만을새, 영낙  
엔 호박새, 안땅에 노념새, 밧땅에 시념새 허영. 쫄 기린<sup>637</sup>) 새랑 쫄주고,  
물 기린<sup>638</sup>) 새랑 물주멍 쥐라 휘~얼쭈!”

허영. 새 드리는 거. 지장만보살 신풀엿습니다.

625) 채할망: 가루를 치는 도구인 채를 치는 할머니라는 의미임

626) ㄱ루는: 가루는.

627) 줍짐도: 가늘기도.

628) 흙음도: 굽기도.

629) 멧시리: 시리.

630) 멧숫디: 솔에.

631) 불낙시(火食): 불을 피워 찌는군 의 뜻.

632) 즈는펜: 김으로 찢 돌레떡.

633) 물펜: 물에 삶은 돌레떡.

634) 노념허연: 놀음놀이해서.

635) 연당(靈筵祭棚): 영연(靈筵) 당클(祭棚)의 약어. 곧 제상(祭床).

636) 드리자: 쫓아내자.

637) 쫄 기린: 쌀 먹고 싶은.

638) 물 기린: 물 먹고 싶은.



## 멩감본풀이

삼멩감(三冥官) 하늘님은, 천왕(天皇)은 열두 멩감(十二 冥官). 지왕(地皇)여럿 멩감(冥官). 인왕(人皇) 아홉 멩감(九冥官), 동(東)이 청멩감(靑冥官), 서(西)이 백멩감(白冥官), 남(南)이 적멩감(赤冥官), 북(北)이 흑멩감(黑冥官), 중앙(中央) 황신멩감(黃神冥官), 산으로 산신멩감(山神冥官), 물로 요왕멩감(龍王冥官), 배로 선왕멩감(船王冥官), 책 보는 집인 책불멩감(冊佛冥官), 삼상할망 집인 불도멩감(佛道冥官), 농사 하영 짓는 집인 세경멩감, 우리 ㄱ추룩<sup>639)</sup> 텅기는 집인 당주멩감(堂主冥官) 경 험. 일흔으덱 도 멩감(冥官)이엔 허고.

멩감본(冥官本)은,

옛날 옛적에 주년국 스만이가 살앗인다.

어렸을 적 조실부모를 헤여서 살단. 고생고생 일천 고생 다 허연. 이제 춤실로 거리 개똥 줍다시피<sup>640)</sup> 허연 살단. 이제 스만이 안부인을 만난 살젠 허난. 애긴 보릿ㄱ루, 밀ㄱ루 애기덜은 하영 나고. 옥은<sup>641)</sup> 애긴 옷 줍서, 밥 줍서. 두린<sup>642)</sup> 애긴 젓 줍서. 경 허연 울고. 경 허영 살 수가 엇어 가가난.

이젠, 흐를 낱은 스만이 안부인이 머릴 막 하영 질랏단<sup>643)</sup> 그 머리를 끌 영 주명

“이거 애기들 배고판 살아지쿠가. 장에 간 무시거 쓸이라도 곡식(穀食), 식량이라도 반양<sup>644)</sup> 읍서. 이 머리, 강 풀양<sup>645)</sup> 반양 읍서.”

허난. 그 머리 들린 간 보난. 이 장, 저 장 텅기단 보난. 젊은 청년이 막 연설을 허는다. 이 총 하나만 잇이면은 할 일도 나고, 살을 도리<sup>646)</sup>가 나고. 이 총 하나만 잇이면 먹을 연도 나고, 입을 연도 나고 헌덴, 하도하도 선전을 험이난. 스만이는 그 선전허는 거에 그냥 허연. 얼마쎈? 허난. 아니. 저, 머리부떠 간 풀안. 머리부떠 풀아뉘. 그 돈 들렁 텅기단. 그 총 선

639) ㄱ추룩: 같이. 처럼.

640) 춤실로 거리 개똥 줍다시피: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는 뜻의 표현.

641) 옥은: 성장한.

642) 두린: 어린.

643) 질랏단: 길렀다가.

644) 반양: 받아서.

645) 풀양: 팔아서.

646) 살을 도리: 살 도리.

전 험이난 그디 간 사네

“얼마펜?”

허난.

“돈 석 냥이엔.”

허난. 머리 석 냥에 풀안. 쓸 받아오렌<sup>647)</sup> 헌 일을 간, 석 냥에, 간 총을  
오꼴 사분 거라게. 경 사부난. 집인 들어오난 스만이 각신

“아이고, 이 어른아, 쓸은 어느거짜? 애기덜은 어느 때 울고, 혼저 당신  
오민 아이들 밥 험 주젠 험덴.”

허난. 총을 오고생이<sup>648)</sup> 들렁 온 거라.

“아이고, 쓸은 아니 받아 오고, 이견 무시거짜?”

허난. 이것만 잇이민 쓸도 나고, 밥도 나고, 돈도 나고, 별거 다 난덴 험  
험 허난. 원, 어이척량<sup>649)</sup> 엇인 거라. 경 험 이젠. 스만이가 각시보고 허는  
말이

“나 사농허레 나가크메 상물(香-) 숭아놓고 허여근에게, 메 삼끼 지어  
놓고, 저레 찬 물 올리고 허영 허험.”

험. 문전드레 출렁 난. 이제 문딱 절 허영. 사농을 나간 거 아니. 사농을  
나간 그날 밤인 간, 동더레도 팡허게 쏘아도 헛총질만, 서더레 팡팡 쏘아  
도 헛총질만 허여내언. 눈은 그냥 붕이대작<sup>650)</sup>으로 와 가고, 동서남북더레  
총을 쏘아도 무신거 물건은 하나 못 허고. 아이고, 그대로 집이 들어 올  
수가 엇인 거라. 그 머리 쫄른 돈 앓아 강은에 총 상 완 뒤 헤부난. 이젠  
그때엔 그 산에 굴 쏘굽이 잇이난 굴 속에 들어간. 모닥불을 피워 앓안.  
영 그 불을 찻는게 바싹 언 디 텡기단 모닥불 잇인디 간 쫄이난, 소로록  
허게 즐아운 거라<sup>651)</sup>. 경 허연 눈 영 허연 즐아가난

“스만아, 스만아.”

허멍. 막 스만일 불르는 소리가 나.

“아이고, 이거 어디서 불렀인고.”

번쩍허게<sup>652)</sup> 깨 난 거라. 깨 나난.

“스만아, 스만아 나도 너처럼 사농을 좋아허영 텡기단 사롬인디. 텡기  
단 이 산천에서 죽언 백골이 뉘언. 백년 데굴이<sup>653)</sup>가 뉘단 보난. 베고프

647) 쓸 받아오렌: 쌀 받아오라고.

648) 오고생이: 물건을 본디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모양.

649) 어이척량: 어처구니가

650) 붕이대작: 눈 송이가 크고 많이 쌓인 모습

651) 즐아운 거라: 즐린 거라.

652) 번쩍허게: 번쩍하게.

고, 시장하고, 얻어먹을 디 엇언. 이제 스만이 그디 사농 왓단<sup>654</sup> 굴속에  
잇젠 허난 좃안 오고렌.”

허난.

“게난, 뭇 때문에 날 좃았수젠<sup>655</sup>?”

허난.

“경 말앙. 나를 너네 집이 안고팡에 강 몸 모욕 시경 모상. 츠흐를 브  
름을 헤여주면 너 먹을 연도 내와주고, 입을 연도 내와 부제팔명(富者八  
命) 시겨주키여.”

헨.

“경 허우겐.”

경 허연. 거 좃아 앓언 그 굴 예염<sup>656</sup>으로 쭉 텅기단 보난, 그게 백년  
데굴이가 잇인 거라. 그거 좃아 앓언. 이제 집더레 오명 저 올레에 떡구슬  
낭 걸어정 잇이난. 츠마 각시신딘 들렁가진 못허고 그 떡구슬낭 우이 간  
걸어 두언에. 집이 완 부인신디 사실 야카야카허고 허연 백년 데굴이 봉  
강<sup>657</sup> 오고렌 허난. 이놈이 어른아, 저놈이 어른아, 쓸데기엇인<sup>658</sup> 것만 막  
허영 덩겜덴<sup>659</sup> 막 허영. 간 보난, 오꼳 백년 데굴인 알더레 털어진거라  
게. 떡구슬낭에서. 털어정 막 데같이 올려부난, 우리 여름뉘민 떡구슬낭  
아래 간 누민 막 머리가 아픈덴. 그 법지법이 잇고. 그거 앓안 집이 들어  
간에 각시한티 굴으난에 각시는 막 봉당봉당 허난. 아무소리도 허지 말앙  
그런거 허민 부정 탕 아니뉘난 그런거 허지 말아근에게, 이걸 저리 올리  
렌. 경 헨. 몸모욕 시기고, 상물 숲앙 허고. 게난 이제 백년 데굴이 허는  
말이

“날 초흐루 보름<sup>660</sup> 허영 잘 위허민 널 먹을 연도 내세와주고, 입을 연  
도 내세와주고, 부제팔명(富者八命) 시겨주키여.”

허난. 이제 그거 허영 몸모욕 시기고, 고팡(庫房)에 달앙 매연<sup>661</sup> 그 우  
터레<sup>662</sup> 놓고, 물 떠 놓고 경 허연. 이제 초흐루 보름을 허는 게. 아닌게

653) 백년 데굴이: 백년 해골(骸骨)이.

654) 사농 왓단: 사냥 왔다가.

655) 좃았수젠: 찾고 있습니까.

656) 예염: 길이나 담장의 옆.

657) 봉강: 주워서.

658) 쓸데기엇인: 쓸데없는.

659) 덩겜덴: 다니고 있다고.

660) 초흐루 보름: 초하루 보름.

661) 달앙 매연: 달아 매여서.

662) 우터레: 위에.

아니라 사농<sup>663</sup>)을 가민 동으로도 광 허민 대각녹(大角鹿)이여, 서으로도 광 허민 소각녹(小角鹿)이여. 노루, 사슴이여. 꿩 사농이여, 매 사농이여. 엄청 허는 거라. 계난 막 가죽은 벳경 이제 풀고, 꿩기광 술<sup>664</sup>)은 지네<sup>665</sup>) 먹고, 경 허명 이젠 막 부제(富者)가 돼난. 흐를은 사농허레 스만이 나가 부난에 저승서, 멧질<sup>666</sup>)이 돌아오난. 강 조상들<sup>667</sup>)라, 멧질을 먹영오렌 보낸 놈두난. 다른 영가(靈駕)들은 다 가난디 스만이네 하르방, 할망 일가 권당<sup>667</sup>)들은 저승 막문에들 2만히 앓은 거라. 계난 초공문에들 다 앓으난 어떻허난 염라왕이

“어떻허난 이승엘 안 값이니? 식계<sup>668</sup>) 멧질 먹으레 안 값이닌?”

허난.

“우린 가도 식계 멧질 헤 주는 사름도 엇고.”

“아들 엇이넨?”

허난.

“아들 잇우덴. 지금 백년 데굴을 봉가당 놔, 그것에만 이제 위허명 우린 위헤주질 안헐젠.”

경 골안. 허거니 이젠 스만이는, 스만이 각시는 집이 앓앙 불노렌. 백년 데굴이가 땡땡땡 땡구르르허명

“스만아, 스만아 나는 살꼭, 너는 죽어불민 무엇을 허느냐. 느 엇어불민 나도 나 놓아난 곳으로 데려다 주렌.”

하도 웨여온다<sup>669</sup>), 웨여간다 헤 가난. 그때엔 이젠 스만이 부인은 정지에서 불 솟단 부짓땡이에 불 벌경 현 거 앓이난<sup>670</sup>)

“이놈이 조상 우리 집이 와네 초흐루 보름허명 잘 먹어가난 베야지<sup>671</sup>) 불영 뉘헐덴.”

경 허연. 백년 데굴이가 땡땡 땡구르르르허명

“너는 죽고, 나는 살면 무엇을 허것느냐. 이제 저승서 염라왕이 명령을 내려완 삼체스(三差使)가 널 데리레 앓젠. 부모조상 식계 멧질 안 헤부난. 경 현 데리레 앓젠.”

---

663) 사농: 사냥.

664) 꿩기광 술: 고기와 살.

665) 지네: 자기네.

666) 멧질: 명절.

667) 권당: 친척.

668) 식계: 제사.

669) 웨여온다: 소리친다.

670) 벌경 현 거 앓이난: 빨강 한 것 가지니.

671) 베야지: 배(腹)의 낮은말.

하도 헤가난. 부지땡이<sup>672)</sup> 앓안 눈깔이 께영 뒷밧디레 혹 데껴부난. 이젠 스만인 어디 땡기단 완 저녁을 먹젠 앓으난 뒷밧디서 땡그르르 땡그르르허멍

“스만아, 스만아, 스만아.”

하도 허는 거라.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일이고.”

허난 각시가

“배아지사 불어신디사. 우리집이 완 잘 먹고 잘 살아가난, 하도, 노망사 험신지, 하도 ‘땡그르르 땡그르르’ 헤가난 저 밧디더레 데껴불엇우다<sup>673)</sup>.”

허연. 이제 그디 간 보난 백년 테굴이에서

“스만아, 스만아 너는 죽고 나는 살면 무엇을 허것느냐.”

경 하도 헤 가난.

“게른 조상님아, 어떻게민 나 명(命)과 복(福)을 잇입네까?”

허난. 빨리 혼저 출령<sup>674)</sup> 집안으로랑 저 대통기<sup>675)</sup> 시킨 거 낱. 이제 큰 곳을 허고, 베끼딜로랑 가걸랑 산으로 가근앵에. 어디 고요현 딜로 강 팽풍<sup>676)</sup> 쳐 놓고, 축지랑 스만이앵 써 놓고. 신도 세 개, 물도 세 개, 쓸도 세 개 경 허연 떠 놔근에. 이제 빨리 액을 막아야켄. 저승서 삼체스(三差使)가 들러오람텐. 경 허난 이젠.

“아이고, 이 노릇을 어떻게민 좋고.”

허연. 빨리 가속한티<sup>677)</sup> 곶안. 집이선 대 싱건 이젠 곳을 시작허연 허고, 또 질레론<sup>678)</sup> 테역단풍<sup>679)</sup> 조은 딜로<sup>680)</sup> 간, 출령 간에, 초석 폐와 놓고 허연. 물도 세 그릇, 쓸도 세 그릇, 돈도 세 개, 신도 세 개 모든 것을 세 개씩 허여 낱. 이제 멀리 옆데헨<sup>681)</sup> 잇이난 삼체스(三差使)가 내려산거라. 내려사난 베(腹)고팡<sup>682)</sup> 죽어지켄 밥을 후려 쳐먹고, 혼 체스(差使)는 왕래 노숙(往來路宿) 엇텐허연 돈을 앓안 담고, 혼 체스(差使)는 이제 옷도 다

672) 부지땡이: 부지쟁이.

673) 데껴불엇우다: 던져버렸습니다.

674) 혼저 출령: 빨리 차려서.

675) 대통기: 큰곳 할 때 마당에 세우는 큰대에 달아매는 기.

676) 팽풍: 병풍.

677) 가속한티: 딸린 식구에게.

678) 질레론: 길엔.

679) 테역단풍: 잔디.

680) 조은 딜로: 좋은 곳으로.

681) 옆데헨: 옆드려서.

682) 베(腹)고팡: 배고파서.

떨어지언 신발 다 헐고 허난. 신발을 신으켄 허연 신발을 신고허연. 아이고, 이거 누게사 이거 놓아신디사 한번 팽풍더레, 누게 이름이나 축지방을 혼번 보켄 보난. 스만이엔 허영 딱 써져서

“아이고, 이거 스만이, 우리가 잡으레 왔인디 스만이거 앓안 가민 웨랴.”

이젠 그거 문서를 내여놓안. 삼십(三十)이엔 쓴 거를 삼천(三千)으로 강고쳐분 거라. 글자를 우에 새 혼 무리<sup>683</sup> 앓언. 경 천자(千字)로 고쳐부난 저승선 염레왕(閻羅王)이 암만해도<sup>684</sup> 이젠 누구를 안 들양오는 거라, 스만이를. 경 말양 검은 숫, 내가 내여주크메 앓양 강 싯찌근에게<sup>685</sup> 흰 숫을 멘들양 오렌 허난에. 그걸 앓양 주천강 연훤뭇디 간. 검은 숫을 히(白)게 싯젠 저 글체<sup>686</sup> 담양 왕글랑 왕글랑 헛이난에 동방색인 넘어가단

“거 뭐허는 짓이고?”

허난.

“아이고, 모르는 소리 맏서. 우리 아버지 중병 들언 생전 좋질 안허난, 이거 허영 딸렁 검은 숫을 히(白)게 싯찌당 딸렁 먹으면 좋은덴 허난 딸렸우다.”

“양, 으마<sup>687</sup> 삼천(三千) 년을 살아도 그런말 못 들엇덴.”

경 글아부난

“아이고, 이거 스만으로구나.”

허연

“어서 가자. 바빠 가자.”

허연. 저승을 들양 간 거라. 그 스만이엔 축지방에 팽풍에 썩 붙지난 이젠 그걸 보안 혼저 글렌 허난

“아이고, 체스(差使)님네야. 여기서 날 데령갈게 아니고 우리 집으로 강, 게도 우리 마누라 신디라도 가노렌 행 가쿠덴.”

“게, 어서 글렌.”

집인 간 보난 큰대(大竹) 세와놓고 상버리줄 메어놓고 막 이제 곳을 허는 거라. 경 허난 마침 방액(防厄) 때가 된 거라. 다라에 쓸 하나 거려놓고, 초신 삼베 놓고 경 허연. 막 황쇄<sup>688</sup> 대령허고 허연 액(厄)을 막았이

683) 혼 무리: 한 마리.

684) 암만해도: 아무리 해도.

685) 싯찌근에게: 싯어서.

686) 글체: 삼태기.

687) 으마: 놀랐을 때 ‘아아, 어마’ 따위의 소리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말.

688) 황쇄: 노란 숫소를 일컬음.

난, 삼체스(三差使)가 그 액(厄)을 받안, 그걸 받아앗언 저승을 간. 저승가  
난 염례왕(閻羅王)이

“스만이 안 들양 왔이넨?”

허난. 벌써 스만이 데리레 간 삼체스(三差使)가 뇌물을 받아먹으난. 완에  
삼십(三十), 열십자에 새 혼 마릴 앗언 천자(千字)를 만들어분 거라. 문서  
지기한테 돈 벌어온 거 흐뎀<sup>689)</sup> 쥐된. 경 허난 이젠 경 허민. 문서 앗양  
와보렌. 염라대왕이 문서 앗양 와보난

“아이고, 염례왕(閻羅王)님아 큰일날 뻔 헛습네다. 삼천(三千)이엔 현  
걸 삼십(三十)으로 알양 우리가 강 들양 와불민 어뎡헐거펜.”

“경 허민 너네 건 잘허고, 강 동방색이 삼천(三千) 년 잡양오렌.”

허난. 그 검은 숫을 히(白)게 씻젠 골체에 담안 씻었이난.

“난, 동박색이 삼천(三千) 년 살아도 검은숫 씻어 히(白)게 된덴 허는  
말은 아니 들엇젠.”

허난.

“아이고, 이게 동방색이로구나. 어서 가자. 바빠 가자.”

허연. 게난, 헌다 현 삼척동자도, 이제 삼척동자 곁은 동방색이도 저승  
체스(差使)님한테 들민 이제 당해내지 못허고 가야만 허는 길이고, 그것이  
법. 이것이 이제 사만이 본입니다. 이 분은 사농헤난 집이, 사농헤난 집이  
가문<sup>690)</sup> 푸는 분.

---

689) 흐뎀: 조금.

690) 가문: 가면.

## 차사본풀이

이번에는 우리 제주도말로 체스(差使)본입니다. 이제 사람이 살다살다 돌아가실 때는, 체서님이 왕 데령<sup>691)</sup> 가는 거. 게난, 이 체서본풀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 옛적에 동개남은 상저절, 서개남은 금법당 절이 있었습니다. 절이 잇인디, 절에는 대스(大師)님허고 소스(小師)님허고 아이 중허고 경, 살앗인디. 대스님이 흐를 낱은 말을 허뉘, 소스를 불러다 낱,

“야, 소스야, 소스야, 난이 아멩헤도<sup>692)</sup> 칠십 골에 팔십 뉘민 내가 속곡허민<sup>693)</sup> 죽어짐직 허다. 날랑 죽거든 낭 천 바리 들영 화장시겨 뉘. 느 혼자만 어뎡 이 법당을 직홀티<sup>694)</sup>. 인간에 내려 상 보민이 버물왕이 잇저. 겐디 버물왕이 애기사 낱는 게 아덜로 아홉 성제를 솟아 낱인디, 우이로<sup>695)</sup> 삼형제도 오꼳<sup>696)</sup> 죽어불고, 알로 삼형제도 오꼳 죽영 갈림 헤불고, 지금 남아 잇는 건 중간으로 삼형제 백인<sup>697)</sup> 엇다만은<sup>698)</sup>, 이 아기덜을 돌아당 명과 복을 잇영, 열다섯 십오 세도 냉겨 주곡, 이 애기덜을 소스중으로 경 시경<sup>699)</sup> 이 법당을 직허라.”

소스님은,

“예. 알았습니다.”

허연. 아닌게 아니라, 흐루 이틀 살단 보난, 대스님이 흐루는 속곡허난 돌아가신 거아니. 게난 죽어부난. 살아계신 때에 곱은 대로, 이른 대로, 나무 천 바리를 헤단 화장을 시긴 거라. 화장시겨 뉘. 소스님도게 대스님 돌아가성 경 헤나난, 탁 지침도 허난. 아이, 법당에 완 누원<sup>700)</sup> 자노렌 허난. 대스님이 꿈에 선몽(現夢)을 허길

“야, 소스야, 소스야, 내가 그만큼 산 때에 경 곧고 이르던 말을 잇었이나? 흐저 일어난 동이용국 버물왕네 집더레 어서 흐저 신수플렌.”

게난 이젠. 퍼쩍 깨난 보난 꿈이난. 흐 침 질러<sup>701)</sup> 굴송낙<sup>702)</sup>, 두 침 질

691) 데령: 데리고

692) 아멩헤도: 아무래도

693) 속곡허민: 인기척 없이 죽어지다.

694) 직홀티: 지키다

695) 우이로: 위로

696) 오꼳: 곧. 즉시. 아무런 흔적이나 자취도 없이. 행하게

697) 백인: 밖에

698) 엇다만은: 없지만

699) 경 시경: 그렇게 시켜서

700) 누원: 누워서

701) 흐 침 질러: 고깔 꼭지의 모양 표현.



러<sup>703</sup>) 비랑장삼<sup>704</sup>), 목에 염주, 손에 단주를 허연. 금바랑 옥바랑 잡고 허연. 이젠 소곡소곡 내려사단 보난, 아이덜이 집에 잇는게 아니고 팽즈낭<sup>705</sup>) 그늘 아래서 막 삼천선비들 하고 노념을 허는 거라. 게난 스님이 넘어가단 딱 그 아이덜을 보더니만 그 아이덜 신더레

“야, 느네덜이 암만 글을 잘 허민 무시걸 허고, 활을 잘 허민 무시걸 허느니. 느네덜이 명이 단단 쫄라지어 열다섯 십오 셨 못 냉김직 허다.”

경 곶아 됴. 단지 경 곶아 됴, 스님은 소곡소곡 지나가부는 거라. 겐 넘어가 부난 아, 삼형제가 놀단 7만이<sup>706</sup>) 생각을 허난. 아, 스님 이상헌 말 헤된 넘어가분거아니. 이제 집으로 간 거라. 삼형제가 가명 질레서<sup>707</sup>) 울명 갖주게. 집이 울명 간. 아버지, 어머니신디 간 허는 말이, 막 울명 가가난

“느네 무사 영 울엄디?”

허난에.

“아이고, 모른 소리 맙서. 아명아명 헌 소스님이 우리 놀았이난 넘어가단 우리덜 7라 열다섯 십오 세도 못 냉기켄<sup>708</sup>) 헤연 곶아된<sup>709</sup>) 넘어 갑디다.”

허난

“어디 경 잘 아는 스님이 잇영 경 곧느니<sup>710</sup>)?”

허난

“아이고. 경 곶앗우덴.”

허난. 게민 느진덕정하님 불러단,

“지금 어느 때나 뵈이니?”

허난에.

“이제 열만이 아니 가실거우다.”

이제 느진덕정하님 7라,

“훈저 저 먼 정<sup>711</sup>) 나강 보라. 어떻헌 스님 잇걸랑, 중이 덩겜걸랑 우리 집 더레 모시렌.”

겐 벌써 나간 보난. 스님은 자기 데리레 올 거를 알안, 논두렁<sup>712</sup>)을 돌아난 디 돌악 돌악, 자꾸 거기만 돈 거라. 경 도난. 느진덕정하님이 간,

---

702) 굴송낙: 모자

703) 두 침 질러: 장삼 소맷자락의 모양 표현.

704) 비랑장삼: 스님들이 입는 장삼

705) 팽즈낭: 팽나무

706) 7만이: 가만히

707) 질레서: 길에서

708) 냉기켄: 넘기겠다고

709) 곶아된: 말해두고

710) 곧느니: 말하느냐

711) 먼 정: 먼 올레의 정.

712) 논두렁: 논두렁

“스님아, 우리 집이양, 안 상전님이 스님 모셔오렌 했수다.”

허난 이젠.

“경 허렌.”

허연 이제 온 거아니. 경 허난 짓알로 도느리멍

“소승 절이 웹네다.”

허멍 시군문<sup>713</sup> 베깃딜<sup>714</sup>로 소곡소곡 들어산 허난. 시권제는 가지깡이<sup>715</sup>에  
뎌 주난, 그걸 비완 이젠 곧는 말이, 버물왕 안부인이,

“소스님아, 소스님아, 단수육갑(單數六甲)이나 짚어 봅서.”

허난.

“소면 혈 듯 허오리다.”

영 짚을 듯 말듯 허단 허는 말이

“어멍허난, 당신은 아덜을 아흠 성제 납데가?”

“예. 낫수다.”

“우이로 삼형제도 죽엇수까?”

“예.”

“알로 삼형제도 죽엇수까?”

“예.”

“지금 중간으로 삼형제 남앗수까?”

“예.”

“이 아기들이 명이 단단 쫄라지언 열다섯, 십오 세를 못 넘길 것 다후다.”

허난.

“것사 어멍 험 말이우파?”

“경 허건, 원천강(袁天綱) 화주역(四柱易)이나 험 번 내놔 봅서 보게.”

아이, 원천강(袁天綱) 화주역을(四柱易) 내난. 초장, 이장, 제 삼장을 견영 보  
난, 딱 그추룩 글 삼자가 벅여진 거라.

“아이고, 이 노릇을 어멍 허민 좋으코.”

“게문 소스님아, 굴송낙이나 험 번 빌려 줍서. 굴장삼<sup>716</sup>이나 빌려 줘 봅서.  
우리 애기덜 법당에 보내젠 허민, 경 해도 소서 행착(行着)이 다후아사 보낼 거  
아니파?”

허난.

이젠 송낙<sup>717</sup>도 벗언 주고, 장삼도 벗언 주난

713) 시군문: 군문. ‘시-’는 접두사. 여기는 그저 문의 뜻으로 쓴 것.

714) 베깃딜로: 밖으로

715) 가지깡이: 개지. 늦그릇의 뚜껑.

716) 굴장삼: 소매 폭이 넓은 장삼.

“야, 큰아덜부떠 이레 오라.”

경 헨 이제 큰아덜 모자 씩읍고, 송낙 씩우고, 옷 입지고 허연

“영 저레 걸어보라.”

허연. 걸영 보난. 앞 정도 보난, 소서 행착. 뒷 정도 보난, 소서 행착이 분명  
허여. 거 벳견<sup>718)</sup> 셋아덜도 씩우난, 걸리와 보난 분명허고, 죽은아덜도 씩완,  
걸리와 보난, 소스 행착들이 분명허여. 이젠 벳겨두언

“소스님아, 가십서. 가시민 우리 애기덜 내일 모레 스시 날<sup>719)</sup> 법당으로  
보내쿠다.”

허연. 소스님은 첩첩산중으로 올라가불고 그 애기덜 돌아단 허는 말이,

“설운 애기덜아, 느네들 어멍 아방이영 훈디 살민 열다섯 뉘기 전이 죽넨 헛  
이네. 못 냉긴덴 허난. 법당에 강 열다섯만 강 아멩이나 살앙이, 열다섯만 넘  
경 오라.”

경 허난. 그 애기덜도 울명도

“경 헛셴.”

허연. 경 가젠<sup>720)</sup> 허난

“느네덜 은기, 늦기를 내어주젠 헤여도. 그걸 지영 뎡기젠 허민 짐이 뉘영,  
무거왕 짐이 뉘거난. 경 말앙 비단을 삼삼은 구, 아흠 필을 내어 주커메. 그  
비단을 이 느네가 지영 뎡기단이. 아이고, 뎡기단 보문 난데엇이 길로변에서  
시장기가 날 때가 있나. 시장기가 7이 나걸랑 아무 집이라도 들어 강, 그 비  
단 세 치 썩만 끊어 주명 식은밥에 물즙이<sup>721)</sup>라도 얻어 먹영 시장기라도 물리  
명 절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허영 가라.”

허연 보내난. 그 애기덜도 울명 이젠 아버지도 하직허고, 어머님도 하직허고

“잘 살암십서. 우리 강, 명과 복 잇영 왕,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허쿠다.”

허연 뉘. 이젠 금마답에 수리두고 올레에 간 막음두언 첩첩산중으로 삼형제  
가 올라간 거야니. 경 헨 올라간 싱근드러 물팡돌(下馬石)이 잇이난 그 디 간  
얏은디. 메여 논 개가 그냥 막 하늘이여, 땅이여 막 주끄는 거라 절에 메여 논  
개가. 겐디 이 개가 양반(兩班)이 오민 양발을 들렁 주꾸고, 무반(武班)이 오민  
누웁 주꾸고 허는 개라. 게 영 보난

“아이 중아, 저디 나상 보라. 어떻허난 개가 저추룩 주꿍이니?”

나산 보난

---

717) 송낙: 창호지로 만들어 쓰는 고깔.

718) 벳견: 벗겨서

719) 날<sup>719)</sup>지: 날까지

720) 가젠: 가려고

721) 물즙이: 밥을 물이나 국에 말다.

“양발을 들은 주건계만은 올레에 간 보난, 어뎡 도령덜 서이가 싱근드러 몰 팡드레 앳앙 막 비새?찌 올없수다.”

이젠 소스님이 나온 거라. 나완

“설은 애기덜아, 잘 오랏저. 울지 말앙 이레 들어오라.”

겐 손 심영 들어간. 머리부떠, 간 고칼<sup>722)</sup> 디런 갑아 두언. 이젠 상탕(上湯)에 간 메 짓고, 중탕(中湯)에 모옥허고, 하탕(下湯)에 수족 씻언 부처님 앞이 들어 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허멍. 이젠 부처님전에 칠성단에, 신중단에, 이제 독거단에, 조왕단에, 불공을 허는 거라. 겐 불공을 허멍 사는 게 해가 바짜진 거라. 이젠 스님 노릇을 허연 애기들은 사는디, 뒷 해가 바짜지난<sup>723)</sup> 아멩헤도, 삼스월 뒤연 산천에 꽃이 만발헿던 모양이라. 게난 삼형제 허는 말이 스님신디 간,

“소서님아, 우리 여기 완도양, 해가 바짜전 저 산천에 보난 막 꽃이 만발허엿수다. 우리가 강 꽃 구경이나 강 허영 오쿠다.”

허난.

“아이구, 경 허건, 강 행 오라.”

경 허난, 삼형제 좋다고 이젠 꽃구경 허젠 산천에 간 거 아니. 간 이산, 저산 막 튀언 덩기멍 꽃구경 허멍 허단. 브려진 치 아니허연<sup>724)</sup> 하늘 우터레 브려보난, 검은 구름이 동글동글 떠오는 거라. 겐 그 구름을 보난 아이들이 그냥 탄복을 허는 거라.

“아이고, 저 구름은 동으로 오멍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 얼굴 보안 일로 넘어가젠 허난, 우리들 삼형제 얼굴도 보안 넘어 감건만은. 우리사 살아 잇어도 아버지, 어머님 생이별 허여 오란 이게 무신 일인고.”

허난. 아, 삼형제가 하나가 울어가는 게 벗 붙이멍 서이가 다 울어분 거아니. 겐 막 울어가난, 절에서 돌아가신 스님이, 대스님이 소스님 꿈에 선몽(現夢)을 현 거라.

“야, 그 애기덜 무시것허레<sup>725)</sup> 산보 구경허레 보넨디. 그 애기덜 이제 오민이 아방도 강 보양 오키여, 어멩도 강 보양 오키여 허영이 허구데나, 절대로 보내지 말라이.”

허연. 깨난 보난 꿈인디. 앳안 잇이난 삼형제가 손심영 영영 울멍덜 들어오는 거 아니. 게난

722) 고칼: 중의 머리를 깎는 칼.

723) 바짜지난: 바뀌어지니

724) 브려진 치 아니허연: 바라보려고 한 것이 아닌데.

725) 무시것허레: 무엇하러

“느네들 무사 경 울엄디?”

허난

“아이고, 소스님아 우리 가지 말 질<sup>726</sup>)을 가전. 갓단 난디엇이<sup>727</sup>) 아바님 어머님 하도 그리완 살수가 엇우다. 우리가 예, 강 아바지, 어머니 얼굴 보양 바로 돌아산 왕 살아도, 강 와사 살쿠덴.”

경 허난.

“경 허민 느네 나가 잇돌<sup>728</sup>) 앞더레 춤<sup>729</sup>) 바끌테니<sup>730</sup>) 그 춤 마르기 전에 갓다올타.”

허난

“아이고, 경 해도 갓다오쿠덴.”

스님은 못 가게 힘으로 춤 바끄크메 그 춤 무르기<sup>731</sup>) 전에 갓다오렌 허는 거주게. 경 허여도 갓다오쿠덴 허난. 아이고, 이만허민 이 아기덜 얼마나 아방, 어멍 보구정 허영 영 험인고 허연

“게문 느네들이, 가기랑 가라만은 이, 과양땅이랑 들어가건 명심허영 간 오라이.”

허연 달레연<sup>732</sup>)

“느네들 마, 이 비단 정 온 거, 지영 강 오라.”

게난 비단 아홉 필 지영 온 거 짚어 전. 보내난. 좋다고 아이들이 춤추멍 뛰 어갓다, 돌아샷다 허멍. 아이고, 어느 제랑 강 아바지, 어머니 얼굴보콘 막 좋 안 가는 거라. 아, 한참 가단 과양땅을 근당 허난 갑자기 배고픈 기가 막 난거라 원. 한 발자국을 앞더레<sup>733</sup>) 영 노문, 뒤터레<sup>734</sup>) 두 발자국이 넘어가고, 걸을 수가 없어. 배고프고 시장헌디도 눈을 영 베롱허게<sup>735</sup>) 턴 우터레<sup>736</sup>) 바레난<sup>737</sup>) 니 귀<sup>738</sup>)에 풍경 들안 사는 집이 있어. 이거 누게네 집인고 허연 문패를 간 보난 과양생이네 집이라. 그 집이. 이젠 큰 성 허는 말이,

“나 동싱들아<sup>739</sup>), 우리 영 배고팡 갈 수가 잇이나. 나가 저 집이 들어 강 식

726) 가지 말 질: 가지 말아야할 길

727) 난디엇이: 근거나 이유 없이 엉뚱하여 어리둥절하다. 난데없이

728) 잇돌: 섬돌, 디딤돌

729) 춤: 침

730) 바끌테니: 뺨을테니.

731) 무르기: 마르기

732) 달레연: 잘 타이르다.

733) 앞더레: 앞으로

734) 뒤터레: 뒤로

735) 베롱허게: 눈을 감지 않고 가늘게 뜬 상태가 되다.

736) 우터레: 위쪽으로

737) 바레난: 쳐다보니. 바라다보니

738) 니 귀: 네 귀통이

739) 동싱들아: 동생들아.

은 밥에 물제미라도 빌영 오크메<sup>740</sup>) 우리들 갈라 먹영 가게.”

허난.

“어서 경 험셴.”

허연. 큰성님이 들어가명 짓알로

“소승 절이 웹네다.”

허연. 스님들은 아무디라도 들어가민 ‘소승 절이 웹네다.’ 허는 거난. 경 허난. 아따, 과양생이 각시 난간에 걸터 앓앗단 손가락질 허명.

“아침부터 제수까리 벗어지게<sup>741</sup>) 중이 즈식 들어왔이니. 야, 수장남(首長男)<sup>742</sup>) 수벨감(首別監)<sup>743</sup>)아, 저 중 귀 잡앙 저레 처불렌. 냅다 처불렌<sup>744</sup>.”

헌 거라. 경 안해도<sup>745</sup>) 배고프고, 힘도 없고게 허난에. 귀 심영 톡 건드난, 톡허게 드러누 거아니. 이젠 암만 기다려도 안 와가난, 이젠 셋 성이 들어간 거라. 셋 성이 들어가난, 그 셋 성도 경 귀 잡안 냅다 처분거라<sup>746</sup>). 죽은 아신 암만 올레서 기다려도 원. 가난, 큰 성도 안 나오고, 셋 성도 안 나오고.

‘가난 배고픈 집에 우리 성님네 원, 아시 생각 안허연 지네만 먹어 불엿인가?’

허연. 이젠 죽은 아시 들어 가가난.

“아이고, 오늘은 하나도 아니고 세 개씩 떼죽<sup>747</sup>) 채우멍 들어오랐이니. 오늘 제수까리 다 봤젠.”

허명 과양생이 각시가 저 중도 귀 잡앙 네훈들렌<sup>748</sup>) 허난. 죽은 아시가 허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네 동녕<sup>749</sup>)을 안 해주면 쪽박조차 껌니까? 우리도 원래 소스 즈식이 아니라마썸. 우리도 원래 동경국 버물왕이 아들이우다. 명과 복이 쫄르덴<sup>750</sup>) 허난. 절에간 불공허단, 아버지 어머니 보고판 가는 길에 하도 시장하길레 시장기나 물령 갈까 해서 잠깐 들었나이다.”

허난. 왕의 아들이엔 허난 겁이사 팻짝 난 거라. 그때엔 이제 밥 훈 손가락 거려놓고 냉수에 닥닥 줍안 손가락 세 개 걸천, 앓은 디 앞더레 앓아단 주난. 아이, 그거 훈 손가락씩 먹으난 눈이 베지그랑 허연<sup>751</sup>). 이만 허면 산이라도

740) 오크메: 올테니

741) 벗어지게: 재수가 매우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

742) 수장남: 머슴들의 우두머리.

743) 수벨감: 수장남과 같은 뜻.

744) 처불렌: 때리거나 부딪히게 하는 것.

745) 경 안해도: 그렇지 않아도

746) 처분거라: 때리거나 부딪히게 하다.

747) 떼죽: 무리

748) 네훈들렌: 내두르거나 휘두르다.

749) 동녕: 동녕아치나 거지가 먹을 것이나 돈푼을 얻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일. 동냥.

750) 쫄르덴: 째다고

넘어 가 질 듯, 물이라도 넘어 가 질듯. 이젠 그때엔 죽은아시 허는 말이

“형님네야, 어머님이 우리 올 때 뭘엔 골앗수과<sup>752</sup>). 어디 간 식은 밥에 물즙이<sup>753</sup>)라도 흰 손가락 얻어 먹으면 놨이거 공허게 먹고, 공허게 쓰민 목 걸리고 등 걸린덴 헛수게. 이거 비단 아홉 치만 과양생이 각시 애기라도 잇이민 속적삼이라도 해주렌 허주만은<sup>754</sup>), 머리 땡기라도 들이게 아홉 치만 끊어져똥 가기가 어떻허파<sup>755</sup>)?”

허난

“경 허렌.”

허연. 아이고, 그 비단 아홉 치 끊영주난. 경 잘 살아도 비단이엔 흰걸 안 봐난 생이라. 아이, 비단 보난 그냥 엇인 탐이 나는 거라. 그때

“아이고, 도련님네야, 우리 집이 들어왕 뽕서. 안 스랑도 좋수다. 밧 스랑도 좋수다. 내외스랑도 좋수다.”

하도 권허난. 이젠 들어간 거아니. 들어간 앳으난 술허고 꺾기허연 막 출령 들여 온 거라. 경 허난.

“절에 잇어부난 술허고 꺾기는 아니 먹읍네다.”

허난

“아이고, 모른 소리 맙서. 절간 안네서는<sup>756</sup>) 안 먹어도양, 절간 베끼던 나오민 다 먹영 덩갑니덴.”

하도 권헤난<sup>757</sup>) 법으로. 지금도 스님덜 제라허지<sup>758</sup>) 아니헌 스님덜 보민. 돼지고기도 먹곡, 술도 먹영 덩기는 스님도 잇고. 경 허연. 이제 그걸 술을 혼잔 썩 호록호록 마신게. 동더레<sup>759</sup>)도 비식, 술에 취헤연게<sup>760</sup>). 서더레<sup>761</sup>)도 비식, 남더레도 비식 영 드러누원 잇이난. 광양생이가, 영 귀주언<sup>762</sup>) 삼형제가 들으난, 정지에 간 솟두껍이 왈그랑탕 왈그랑탕 소리가 나. 아, 우리 비단이영 끊어주난 똥똥<sup>763</sup>) 점심이나 해주젠<sup>764</sup>) 햏인가. 점심 헤 주걸랑 똥똥이 우리

---

751) 베지그랑 허연: ‘베지근허다’는 고기 따위를 끓인 국물 같은 것이 깊은 맛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는 생기가 약간 돌아나는 모양을 나타냄.

752) 골앗수과: 말하였습니다.

753) 물즙이: 밥을 물이나 국에 말다.

754) 해주렌 허주만은: 해주라고 하지만은.

755) 어떻허파: 어찌합니까.

756) 안네서는: 안에서는

757) 권헤난: 권했던

758) 제라허지: 떳떳하지 않은. 격식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759) 동더레: 동쪽으로

760) 취헤연게: 취해서

761) 서더레: 서쪽으로

762) 귀주언: 귀 기울이다.

763) 똥똥: 딱딱한

764) 해주젠: 해주려고

먹영 가주겐 허연. 아, 삼형제가 눈게, 소로록허게 줍이 들어분 거라. 줍 들어 부난 과양생인 밥이랑 말앙, 오년 묵은 찰지름에 삼년 묵은 간장물에 솟디 난 불 숲아<sup>765</sup>) 가난 오근도근도근 데와지난. 그걸 그릇에 걸언 난 문을 확 올안보 난. 삼형젠 코 골멍 잠 주게. 술 먹어부난게. 겐 잠시난 웬 귀<sup>766</sup>)로 낙단 귀<sup>767</sup>)더레 소로록허게<sup>768</sup>) 비와불고. 또, 낙단 귀로 웬 귀더레 소로록 허게 비 와부난. 삼형제가 얼음산에 구름 녹듯 소로록허게 다 죽은거아니.

“어따, 이놈이 새끼들 잘 죽었저.”

비단을 확허게 빼연 금동귀상에 난 상거슴 통쇄 허연 싱강허게<sup>769</sup>) 증가 된<sup>770</sup>)

“야, 수장남 수벨감덜아, 이레들<sup>771</sup>) 오라. 오늘 밤이 막, 밤 짚영<sup>772</sup>)이. 짚은 밤이 뉘거든이. 요것 덜 가멩이<sup>773</sup>)에 툃툃허게<sup>774</sup>) 몰아 앓영이. 지게에 지영 강 이거 어디 잘못 데끼당<sup>775</sup>) 발각이 뉘민 큰일난다. 이거 버물왕이 아들이엔 들 헤라. 게난 존등들에<sup>776</sup>) 큰큰헌 돌멩이들 하나씩 돌아 메영<sup>777</sup>) 주천강 연 휘몯디 강 다 디물리와 불라<sup>778</sup>). 발각뉘게<sup>779</sup>) 말앙. 큰일나게 말앙.”

“알았수덴.”

허연. 종덜이사 뭐, 상전 말 들어살거난. 이젠 그날 밤 짚은 밤이 뉘난. 개, 고녕이<sup>780</sup>) 문딱<sup>781</sup>) 줍 자분 때에 지게에 지연, 가멩이<sup>782</sup>) 툃에 몰연, 몰안 주 천강 연휘몯디 간. 돌멩이 하나씩 돌아메멍 데껴분거라. ‘도둑놈이 들으카 흥 단 우뚝 사는 제격<sup>783</sup>).’으로. 지 헤진<sup>784</sup>) 짐작이 잇이난. 아침인 동세백이<sup>785</sup>) 일어난 거라. 과양생이 각시가 일어난 줍자는 수장남(首長男)들 강 깨완.

765) 불 숲아: 불을 때다.

766) 웬 귀: 왼쪽 귀

767) 낙단 귀: 오른쪽 귀

768) 소로록허게: 알맹이나 액체 따위가 가볍게 빠져나가거나, 들어가는 꼴. 곱게 잠이 드는 꼴.

769) 싱강허게: 열쇠나 키가 쉽게 열리지거나 닫히는 소리.

770) 증가된: 잠가두고

771) 이레들: 여기에.

772) 밤 짚영: 밤 깊어서.

773) 가멩이: 가마니.

774) 툃툃허게: 빈틈없이 탄탄하다.

775) 데끼당: 던지다가

776) 존등들에: 잔등이. 허리 부분에

777) 돌아 메영: 달아 매여서

778) 디물리와 불라: 들이밀어 불어라.

779) 발각뉘게: 발견되게

780) 고녕이: 고양이.

781) 문딱: 모두

782) 가멩이: 가마니

783) 도둑놈이 들으카 흥 단 우뚝 사는 제격: 도둑이 훔친 물건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자신의 한일을 되돌아 보는 격을 말함

784) 지 헤진: 자기가 했던.

785) 동세백이: 이른 새벽에.



“흔저 일어남이, 그냥 가민 놈이 알면 수상하게 생각을 허니까. 물 이경<sup>786</sup>) 물 멕이는<sup>787</sup>) 핑계에 헤근에게, 강 뺑, 주천강 연훼못디 간 보라. 영장(靈場)이 나 올르지 안 헛이나. 강 보라.”

허난. 이젠 물 이꺼앗언<sup>788</sup>) 간 보난. 아, 어적께도 엇엇던 고장(花) 세 개가. 삼색(三色)베기 고장(花)<sup>789</sup>)이 동골동골허게 뜬 거라. 게난 물은, 간 물 멕젠 헤가민 천리만리, 또 고장이 그냥 확허게 어느동안 놀아왕<sup>790</sup>) 물 먹는 물 주둥일 박박허게 모지려. 게난 판드레나<sup>791</sup>) 강 멕여보주긴 허연<sup>792</sup>) 물 꺾엉 판 딜로 간 멕이젠 허문, 또 어느동안 그레 놀아완 물 주둥일 막 무지려부는<sup>793</sup>) 거라. 게난, 이젠 그 법으로 물이, 주둥일 무지려부난 앞발로 물을 팡팡허게 그치영<sup>794</sup>) 물 먹어나난. 그 법으로 옛날 물들 헐 때에 물 이컨 물 멕이레 가민 들어가민, 앞발로 물부터 팡 팡 치워놔사 물을 먹어. 그 법지법으로. 경 허연 이젠 잡이 오란.

“간 보난 무슨 폐적(表迹) 엇어나?”

“아이고, 상전님 모른 소리 많서. 삼색 벵이 고장이 동골동골 떠신디양 물 멕젠 헤가민 물 주둥일<sup>795</sup>) 하도 무지려부난 물 못 먹연 그냥 오랏수다.”

아이고, 고장이엔 허난 그것에도 탐난 거 아니. 구덕 하나, 엇인 연서답<sup>796</sup>) ㄱ는 대구덕에<sup>797</sup>) 담안 물막개 놓고. 게, 주천강 연훼못딜 이젠 허울허울 간 거라. 간 빨래랑 와랑자랑 빠는 체허단, 삼색벵이 고장은 동골동골 떴이난 물막개로 활활활활 이녁<sup>798</sup>) 앞더레<sup>799</sup>) 등기명<sup>800</sup>)

“어따, 요 고장 곱기도 곱다. 나에게 테운<sup>801</sup>) 고장이컨 나 앞더레<sup>802</sup>) 오렌.”

허멍 물을 활활 동겨가난 고장 세 개가 동골동골 떠온 거라. 제일 앞이 오는 건 보난. 빨강 헨 고장인디 병실병실 웃는 형치(形體)를 허고, 가운데 오는 건 보난 노린<sup>803</sup>) 고장인디 싱긋싱긋 용심 내는<sup>804</sup>) 형치를 허고, 조름<sup>805</sup>)에 오는

786) 물 이경: 말을 매어서 이끌어 가다.

787) 물 멕이는: 물 먹이는.

788) 물 이꺼앗언: 말 이끌고서.

789) 삼색베기 고장: 세 가지 색의 꽃.

790) 놀아왕: 날아와서

791) 판드레나: 다른 곳으로

792) 멕여보주긴 허연: 먹여볼까 해서

793) 무지려부는: 모질게 비틀어 끊다. 풀이나 배추를 손으로 뒤틀어 뜬다.

794) 치영: 쳐서.

795) 물 주둥일: 말의 입.

796) 연서답: 서답=빨래. ‘연-’은 접두사.

797) ㄱ는 대구덕에: 가는 대로 만든 조금 큰 바구니

798) 이녁: 자기. 자신.

799) 앞더레: 앞으로

800) 등기명: 자기 쪽으로 오게 끌어당기다.

801) 테운: 주어진 ‘복을 타고나다’의 ‘타다’의 사동관형사형

802) 앞더레: 앞으로

건 푸린 고장인디 우는 형치를 현 거라. 손은 물 알더레<sup>806</sup>) 쓱헝게<sup>807</sup>) 드물  
 환<sup>808</sup>), 존둥이<sup>809</sup>)로 똑똑하게 꽃 세 개를 꺾은 구덕에 놓안 집이 오란. 이제  
 이 꽃을, 앓아도<sup>810</sup>) 보고 사도<sup>811</sup>) 보고 덩기멍<sup>812</sup>)도 보젠 어디 꼽으민 좋고  
 막 허연. 이젠 일문전(一門前)에 하나 꽃고, 뒷무똥<sup>813</sup>)더레 하나 꽃고 생깃지  
 동<sup>814</sup>)더레 하나 꽃고. 아, 꼽은 게, 과양생이 밥 먹어난 밥상 들령가젠<sup>815</sup>) 영  
 허민. 그자, 그 꽃이 과양생이 각시 허운데기<sup>816</sup>) 상고박도 심영 박허게<sup>817</sup>) 등  
 겨불고<sup>818</sup>), 이제 또 뒤에 장 거리레 가젠허민<sup>819</sup>), 뒷술작<sup>820</sup>)도 허운데기 심영  
 그자, 복허게 메불고, 무똥드레 나가젠허민, 앞술작 허운데기도 심영 복허게  
 메불고, 부에가 꺾죽굴이 난 거라원<sup>821</sup>). 사름도 아닌 허운데기를 고장신디 심  
 지덴<sup>822</sup>) 말이 무신 말이닌, 박박허게 그냥 무지런<sup>823</sup>) 정동화리(靑銅火爐)더레  
 불을 팍허게 붙여분거라. 경 헨 이젠 올레에 나간, 계도<sup>824</sup>) 부엔<sup>825</sup>) 나고 유왕  
 유리<sup>826</sup>) 헐이난. 그 동네엔 청토산이 마고할마님은 불망굴<sup>827</sup>)이 잇건 하나 빌  
 어단 식은밥에 물즙이<sup>828</sup>) 데왕 먹젠

“과양생이 각시야, 나 불망굴<sup>829</sup>) 헨 방울만 드라.”

허난에

“저, 우리 정지에 간 뵙서.”

허연. 이젠 정지에 간 숫강알이<sup>830</sup>)에 아멩 헤쌍봐도<sup>831</sup>) 불망굴이 엇인 거라.

803) 노란: 노란.

804) 용심 내는: 화를 내는

805) 조름: 꿈무니.

806) 알더레: 밀으로.

807) 쓱헝게: 쏘옥 내밀거나 살그머니 내미는 꼴. 가벼운 움직임으로 쓱 들어가는 꼴.

808) 드물환: 들이 밀어서

809) 존둥이: 허리 부분으로

810) 앓아도: 앉아서도

811) 사도: 사서도

812) 덩기멍: 다니면서

813) 뒷무똥: 집 뒤쪽의 드나드는 문이 있는 출입구나 그쪽의 가장자리 주변.

814) 생깃지동: 상방(上房)과 큰방 사이의 기둥.

815) 들령가젠: 들고가려고

816) 허운데기: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꼴.

817) 박허게: 빠른 움직임으로 찢어 없애는 꼴이나 그럴 때 나는 소리를 흉내 낸 꼴.

818) 등겨불고: 자기 쪽으로 오게 끌어당기다.

819) 가젠허민: 가려고하면

820) 뒷술작: 귀밑털. 머리털을 낮이 이르는 말.

821) 부에가 꺾죽굴이 나다: 팔죽이 꿇듯 몹시 화가 난다는 말.

822) 심지덴: 잡힌다는

823) 무지런: 모질게 비틀어 끊다. 풀이나 배추를 손으로 뒤틀어 뜯다.

824) 계도: 그렇더라도.

825) 부엔: 화는

826) 유왕유리: 마을을 돌아다니는 모습.

827) 불씨. 불 붙고 있는 나무가 아주 타서 숯불과 같이 별갈게 된 것.

828) 물즙이: 밥을 물이나 국에 말다.

829) 불망굴: 불씨. 불 붙고 있는 나무가 아주 타서 숯불처럼 별갈게 된 것.

이거

‘정동화리에 불 잇인가.’

허연. 안네 들어 간. 정동화리 헤쓰단<sup>832)</sup> 보난 불망굴은 엇고 구슬 세 개가 나온 거라. 구슬 앓안 베끼디<sup>833)</sup> 나완

“과양생이 각시야 이거 보라. 이거. 정지엔 간 보난 불망굴은 엇고이, 정동화리 헤싼 보난<sup>834)</sup> 구슬 세 개 잇이난 봉간<sup>835)</sup> 오랏저.”

허난. 아이. 그걸 또 박허게<sup>836)</sup> 빼앗으멍

“아이고, 이거 이 늙은이, 저 늙은이 불망굴이 없걸랑 그냥 오주. 나 애기 나민 주젠 더 곱질 디<sup>837)</sup> 엇이난, 불화리에 재 쏘곶<sup>838)</sup>에 구실을 곱정<sup>839)</sup> 놔뒀인디 판 오라불엇젠.”

박허게 빼앗은 거라. 게 손에 놓아 이레 놓아 동골동골, 저레 놓아 동골동골 허는 게 이녁 자신도 모르게 입에 들어 간 거라. 그것이. 입에 들어가난 동골동골 허단 보난, 구슬 세 개가 다 녹안 오물렉기<sup>840)</sup> 목 알더레 내려가분 거라. 아, 그날부터 포테(胞胎)가 뒤언 현 게 아홉열 덜 준삭(準朔) 채완 낳는 건 보난.

“아이고, 베여. 아이고, 베여.”

구들에서, 구들 니<sup>841)</sup> 구석을 다 뒤굴언, 막 애기 나젠 허난. 겐, 난 건 보난, 아들 하나 난 거 아니. 아, 이제 또 즈친<sup>842)</sup> 거 날건가

허연 뒤굴단 보난, 또 아들을 난 거라. 아이고, 이제 쌍둥이 낳았구나. 이제 사 즈친 거 나올테주 허연 또 뒤굴단 보난, 또 아들을 난 거라. 게 훈 날에 아들 세 개를 난 거라. 아이, 과양생이 각시가 자닥을 부리뒤<sup>843)</sup>, 이 나라 백성 누게가 아덜 세 개를 난 사람이 잇냐고 말이지, 나나 아덜 세 개를 낳고렌. 이거 어전에 보고허민 큰 베실을 내리울거옌. 이젠 어전에 보고를 헛어. 아들 세 겹 낳았습니다. 허연 보고 허난, 어전에선

“사람이 어찌 애기 세 개를 낳느냐. 개 삼시렁<sup>844)</sup>이나 훈 배에 애기 세 개

830) 솟강알이: 아궁이

831) 헤쌍봐도: 속이 드러나게 펼치다. 흐트러뜨리다. 헤치다.

832) 헤쓰단: 속이 드러나게 펼치다. 흐트러뜨리다. 헤치다.

833) 베끼디: 밖에

834) 헤싼 보난: 헤쳐 보니

835) 봉간: 물건이나 돈 따위를 거저 줘다. 어떤 것을 노력 없이 거저 얻다.

836) 박허게: 빠른 움직임으로 찢어 없애는 꼴이나 그럴 때 나는 소리를 흉내 낸 꼴.

837) 곱질 디: 숨길 곳.

838) 쏘곶에: 속에

839) 곱정: 숨겨서

840) 오물렉기: 먹이를 입 속으로 쏙 집어 넣어 삼켜버리는 꼴.

841) 니: 네(四).

842) 즈친: 암꿩. 여기서는 딸 아이를 말함.

843) 자닥을 부리뒤: 남을 업신여겨 있는 체 잘난 체 뽐내는 상태.

난 덴 허연, 무신 베슬은 안 내려오고 체 세 가마니를 마련허연 보내온 거라. 체 맥이는 개엔. 겐디. 아, 이 애기덜이 일곱 솔 뉘난, 한문서당 보내민 읽어도 장원, 써도 장원, 외워도 장원, 그렇게 역역허고<sup>845</sup>) 똑똑허는 거라 애기덜 삼형제가. 게난, 이젠 이디도 아닌게 아니라 서울 상시관이 과거허레들 이젠. 삼천선비들 다 가젠 허난, 이 아이덜도 가젠 허난 어멍은 하도 아들덜 아<sup>846</sup>)  
“니네, 가지 말라. 잘못 뎡기당 어느 놈 손땅에 죽어진다. 어느 놈 발땅에 죽어진다. 가지 말라.”

허난.

“우리가 안 가민 누계가 갑네까. 우리가 강 와사 이루저 어머니, 아바님 돌아가신 후에라도 축지방(祝紙榜)이라도 쓸 거 아니쎈.”

경 허연 우견<sup>847</sup>). 삼형제가 과걸 가부난. 메날<sup>848</sup>) 과양생이 각시는 이날이나 올 건가, 저날이나 올 건가. 막 질레서만<sup>849</sup>) 살아. 질레서만 살단, 흐를은 높은 동산에 간 불림질<sup>850</sup>)을 흐노렌 허난. 아이, 브려진 체 아니 허연 보난. 동으로 과거 당선 뉘언, 막 주네나팔<sup>851</sup>)들 불명 비비둥당 허멍, 과거들 뉘영 와라차락 막 들어오는 거 아니. 게난 지네 아덜덜인중은 몰르고. 7만히<sup>852</sup>) 허는 불림질이나 허지 안 허연

아이고, 저디 과거허연 오는 건 저거 어느 집안 산천인고, 어떤 놈이 집안은 과거 노민 저추룩<sup>853</sup>) 과거도 잘 뉘는고. 우리 집이 애기들은 아이고 어디 강 죽엇인가, 살앗인가. 어느 놈 손땅에 가신가, 발땅에 가신가. 생각허멍

“그자 저 과거 허영 오는 것들랑, 그자 요 우리 목다리 썸에만 오거들랑 오도독기<sup>854</sup>) 그자 다 죽게 해줍서.”

허멍 막 하느님신디 빈 거라게. 그것도 게. 아, 과거 허영 오는 건 보난 과양생이네 집더레 들어오는 거 아니. 과양생인 그땐 그냥 불림질 허단 빈 솔박 들르고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우리 집안 산천도 그럭저럭 뉘어간다.”

허멍 막 춤을, 덜씩덜씩 춤을 춘 거라. 경 헨 막 춤 천. 가메<sup>855</sup>)를 하메(下

844) 삼시렁: 삼시렁 하다(불품이 없다는 전라도 말.)

845) 역역허고: 사람이 약아서 미련하지 아니하다.

846) 아<sup>846</sup>): 귀여워서.

847) 우견: 되지 않은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다. 우겨서.

848) 메날: 매일

849) 질레서만: 길에서만

850) 불림질: 곡식을 바람에 날려서 쪽정이 등을 날려버리는 일.

851) 주네나팔: 피리.

852) 7만히: 가만히

853) 저추룩: 저렇게

854) 오도독기: ‘오도독’ 하는 소리를 내며 단번에 부러지는 꼴.

855) 가메: 가마

馬)허연. 큰아덜은 동방급제를 허엿수덴 허연, 문전(門前)에 출려놓안 절을 허렌 허연. 이젠 문전에 출려난 절을 허난 속곡허게 죽어불연. 일어나질 안허여. 셋아덜은 팔도도장원(八道都壯元)을 허엿수덴 허연 동네 어른덜 불러단 절을 허렌 허난. 속곡허게 절헨 게 아니일어나. 죽어분 거라. 죽은아덜은 조왕(寵王)에 강 조왕할마님 덕택으로 우리 영 과거 헨 오랏수덴. 허영 강 절 허렌 허연. 아이, 절을 허난 속곡허난 다 죽어분거야니 삼형제가. 아이고, 과양생이 각신 누원 둥굴뚝,

“우리 애기덜 헨 날 헨 시에 낱고, 헨 날 헨 시간에 과거 다 당선(當選)뉘고, 헨 날 헨 시간에 다 죽어불엇덴 허는 게 뉘 말인고.”

막 누원 둥근 거라. 뉘 둥글어도 어떻 해결 헐 판이 엇인 거라. 게난, 이제 느진덕이영, 이제 장남덜 거라,

“앞뵈디, 뉘뵈디 출병<sup>856</sup>)을 허영 뉘두라.”

허연. 출병허여 뉘. 내가 어느 놈을 물어도 내가 이 얘기를 꼭 허고야 말켄. 이제 짐치원(金緻員)을 좇앙 간 거라. 이젠 짐치원님 좇앙 간.

“원님아, 원님아, 경 헨게 아니고양. 난, 헨 시 헨 날 삼형제 낱고, 헨 날 헨 시간에 과거허연 다 당선(當選)뉘고. 아, 겐 완. 문전에영 조왕에영 다 절들 허단양. 헨 날 헨 시간에 다 죽어부는 일이 어디시느니. 해결을 해줍서.”

허난

“경 허건 집이 강. 아침이랑 아침 소지(所志)를 올리고, 낮이랑 점심 소지(所志)를 올리고, 어둑어가민 저녁 소지를(所志) 올리뉘, 석 덜 열흘 백일 동안에 아홉 상자 반을 소지(所志) 절체(缺處)를 드령 오민 나가 그 얘기를 허여주마.”

허난. 이젠 집으로 완. 막 청소허고 무시거 허연. 아침이도 보민 소지(所志) 허영 슬고, 낮이도 뉘든 소지(所志) 슬고, 저녁에도 뉘든 소지(所志) 슬고 허난, 셋 덜 열흘 백일이 뉘난, 요만이<sup>857</sup>) 헨 상자로 아홉 상자 반을 다 쓴 거라. 겐 원님 또 좇아 간 거라.

“원님아, 나 저. 아홉 상자 반 소지(所志) 슬안<sup>858</sup>) 왓습니다.”

허난. 원님 허는 말이,

“누계영<sup>859</sup>) 싸왕<sup>860</sup>) 죽으나, 도투단<sup>861</sup>)을 죽으나, 매를 맞안 죽으나, 경 헤엇이든 해결을 허주만은. 이녁으로 이녁 옥살이 지영, 이녁 애기 죽은 거 나 이 해결 못허키여.”

856) 출병: 정식 매장을 하기 전에 송장을 가까운 곳에 임시 묻어 두는 일.

857) 요만이: 이만큼.

858) 슬안: 불태워서.

859) 누계영: 누구와

860) 싸왕: 싸워서

861) 도투단: 다투다가

허난. 아이고, 성 담 베끼디레<sup>862</sup>) 나간게 만든 빙빙 돌아다니명  
 “개? 뜯 짐치원아, 썬? 뜯 짐치원아, 이만 헌 절체(節次)도 못허멍 이 고을에  
 사름 엇이난<sup>863</sup>) 완에<sup>864</sup>) 원님살이 험덴.”  
 막 옥을 헌 거라. 원님신디.  
 거난 원님이 하도 어이가 엇인 거라. 사름 닳아진 거 신디<sup>865</sup>) 헛이민<sup>866</sup>). 과  
 양생이 각시 만씩헌 거 신디 내가 이런 옥을 들었어 어떻 살린. 안으로 문을 딱  
 잡아안<sup>867</sup>) 거라. 게난<sup>868</sup>) 문 중간<sup>869</sup>) 누난, 지동토인(妓童通引)은 밥상을 들  
 런 들어와 보난 문이 증가지언<sup>870</sup>)  
 “이 문 엽서. 이 문 엽서.”  
 해도 문을 안 올라. 거 이제 안부인신디<sup>871</sup>) 간 곱은안 안부인이 밥상 들르꼭  
 허연 완  
 “원님아, 원님아, 어떻허난 문을 중간 놉디강. 이 문을 올라 칭원훈<sup>872</sup>) 말이  
 잇이나, 원통훈 말이 잇이나 나한테 곱읍서. 애기업게 말도양 귀 넘어 듣지 말  
 런 헛수다. 곱아 봅서<sup>873</sup>).”  
 허연. 이제 문 올라 곱는<sup>874</sup>) 건 보난 과양생이 각시네 사건이라. 게난. 이제  
 아이고, 게난 여자 머리가 빨라. 이제 그때엔 원님 안부인 허는 말이,  
 “아이고, 원님아, 헛 일 알고, 두 일은 몰람수파<sup>875</sup>). 경 저 어른만 즈들<sup>876</sup>)  
 일이 이수파. 이 고을에양 역력하고 똑똑한 강림이가 살았수께<sup>877</sup>). 강림이가양  
 하도 똑똑허연양, 문 안네도 아홉 각실 허연 살고, 문 베끼디도<sup>878</sup>) 아홉 각실  
 허연 살고, 이구 십팔 열으덱 각실 행 살았이난. 강림이 안티랑<sup>879</sup>) 곱지 말양  
 사흘 동안 개폐문(開閉門)법 열리뉘. 사발, 방문허영, 문딱<sup>880</sup>) 어른, 아이 다  
 동안(東軒) 마당에 나오렌. 사흘 동안을 방문을 허뉘, 강림이 신디랑 곱지 안

---

862) 베끼디레: 밖으로  
 863) 엇이난: 없어서  
 864) 완에: 와서  
 865) 거 신디: 것 에게  
 866) 헛이민: 했으면  
 867) 눈: 누운  
 868) 거난: 그렇게 해서  
 869) 문 중간: 문을 잠가서  
 870) 증가지언: 잠가져서  
 871) 안부인신디: 안부인에게  
 872) 칭원훈: 稱冤한. 분하고 억울함을 들어 말하는.  
 873) 곱아 봅서: 말해 보세요.  
 874) 곱는: 말하는  
 875) 몰람수파: 모르십니까.  
 876) 즈들: 걱정할  
 877) 살았수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878) 베끼디도: 밖에도  
 879) 강림이안티랑: 강림이에게는  
 880) 문딱: 모두

허문. 강림인, 진, 지신단<sup>881</sup>) 아니 곶오난, 아니 나와도 뉘 건줄 알앙 잇걸랑, 강 심어당 꺾(闕)을 시경, 저승 강 염라왕 잡혀오렌 허영<sup>882</sup>) 해결 허는 게 어땡허우파<sup>883</sup>)?”

허난. 아, 안부인 말도 들었보난 맞아뵈 거라. 겐, 이젠 사흘 동안을 사발통문을 다 헌 거라. 동안 마당에 시간뉘건<sup>884</sup>) 딱 다 나오렌. 문딱 해도<sup>885</sup>) 강림이 신단 안 곤 거라<sup>886</sup>). 안 7년 그날 아침인 문딱 나온 중에 강림이만 안 나온 거아니. 게난 그때엔 이제,

“강림이 꺾이여!”

이제 강림이 강 심영 오렌<sup>887</sup>) 허연. 심으레 간 보난. 강림인 진 안 나와도 뉘 건줄 알안. 기생첩들 품에서만 노뉘놀이개<sup>888</sup>)를 허는 거라. 게난 이제 강림이 너 이레 당장 나오렌 허연. 큰 칼을 씨완 동안 마당에 연단위에 세워 뉘. 이제 즈각(刺客) 놈 불르렌 허연. 즈각(刺客) 놈은 칼 허연 춤을 춘 거라.

“야, 강림아, 너 이 자리서 목숨을 바쳐 죽겠느냐? 저승 간 염라왕을 잡혀오겠느냐<sup>889</sup>)?”

아, 영 보난 즈각(刺客) 놈은 칼 심연 춤을 뉘 뉘 뉘 가난. 죽으켄 허문 저걸로 확 헌 번 후려불민 죽어짐직 허여 허난. 그때엔 확 생각허기를 ‘짐승은 나면 가죽을 냉기고<sup>890</sup>), 인간은, 사름은 나면 명예를 냉기렌.’

허난. 큰 소리로,

“예. 저승 간 염라왕 잡혀오겠습니다.”

허난.

“경 허문. 너 저승 강 오렌.”

“겐디 나 저승가렌 헌 이유는 뭘니까? 뉘 때문에 날 저승을 가렌험수까?”

허난에

“경 헌게 아나고. 이 고을에 과양생이네가 아덜 삼형제를 낳고, 삼형제 과거헌 오고, 삼형제가 헌 날 헌 시 다 죽으난, 이 얘기를 못허난 염라왕을 잡혀단 해결허젠 헐져.”

허난.

---

881) 지신단: 자기에게는

882) 잡혀오렌 허영: 잡아오라고 해서

883) 어땡허우파: 어찌합니까.

884) 시간뉘건: 시간되면

885) 문딱 해도: 모두에게 해도

886) 안 곤 거라: 말하지 않은 거야.

887) 심영 오렌: 잡아오라고

888) 노뉘놀이개: 놀이하다. 놀며 지내다.

889) 잡혀오겠느냐: 잡아오겠느냐.

890) 냉기고: 남기고

“저승 가렌 헌 폐적(表迹)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뭐를 가져야 저승을 갈 거 아닙니까?”

허난. 내어준 건 보난, 흰 종이에 검은 먹 글을 써 쥘 내어준 거라. 이거 본 메<sup>891</sup>)난 가정가렌. 이제 그거 들르고 허연. 아이고, 저싱 길이 어딘고, 저싱은 가젠 허문 어디로 어떻 허연 가는 길인고. 이제랑 동네에 유지급 들이나 좇아 강 들어보젠 유지어른들 좇양간

“저승은 어딜로 가는 거파?”

허난

“아이고, 난 몰른다.”

어딜 가문 좋고. 이젠 성방(刑房) 방에 놀려든 거라.

“난 몰른다.”

이젠 스령(使令). 사또 방에 놀려들어도

“난 몰른다. 저승은 우리 몰른다<sup>892</sup>).”

이별 잔으로 이별이여. 술 훈 잔 이거 발양가렌. 술이나 가는 디마다 주고. 이젠 제일 친허게, 막 훈디 기생 칩도 덩기고, 술 먹으레도 덩기고, 나도 가마. 나도 가마 허는 친구가 잇이난, 친구덜 좇안 간 거라. 간

“야, 친구 벗덜아 오라. 나영 훈디<sup>893</sup>) 저싱이나 강 오게.”

허난

“아이고, 난 말다. 저승이고 어디산디 난 말다.”

허난

“야, 느네들 너미<sup>894</sup>) 경 허지 말라. 나 옛날 돈 잇영 기생집이 가고 술집이 갈 때엔, 나도 가마, 나도 가마. 느네 벗덜도 하더라만은 저승은 가젠 허난 이 거 나 혼자 뿐이로구나 이.”

알앗덴 헨. 이젠 덩기단 수양 누님을 좇양 간<sup>895</sup>) 거라. 누님신디 간,

“수양 누님아, 나 저승 값우다.”

허난

“아이고, 오라방. 저승질은 머나먼 질 삼천칠백 리 질이엔<sup>896</sup>) 허연게 저승은 가젠 허문이. 눈물도 나고, 땀도<sup>897</sup>) 나곡이<sup>898</sup>) 보인 안개도 끼고, 산 안개도 끼곡 허메.”

---

891) 본메: 증거물이 될 사물.

892) 몰른다: 알지 못한다.

893) 훈디: 함께

894) 너미:너무

895) 좇양 간: 찾아가다

896) 질이엔: 길이라고

897) 땀도: 땀도

898) 나곡이: 나고



겐 눈물 수건을 끌엉 주는 거라. 뚝 수건이영 끌엉 주멍 이걸로, 가멍 눈물 나건 눈물 닦으멍 가고, 뚝 나건 뚝 닦으멍 가렌. 겐 청백베, 흑백베를 내어 준 거라.

“가당, 보인 안개, 산안개. 안개가 끼걸랑 청백베로 영 두르고, 흑백베로 영 두르곡 허영 강 오렌.”

겐 주난 그거 말안. 아이, 곰곰이 생각 허난. 아이고, 이거 큰각시, 시집오고 나 장계 갖젠 허여도, 하루 저녁 누워보지도 못 허고, 그냥 나 사모관디(紗帽冠帶)벗은 읍드레<sup>899</sup>) 놓아두고, 큰각시 족두리 벗건<sup>900</sup>) 놓아두엔. 그 질로 나 오란 이구 십팔, 열으덥 각시들만 좃앙 덩겜이난<sup>901</sup>). 아이고, 큰각시가 얼굴 잊어불엔 이거 어떻허믄 좋고. 이제랑 마지막으로 큰각시나 사는디나 강 얼굴 이나 보양 가주게 허연. 이제 큰각시 사는 델 간 거라. 허울허울 가당 보난 큰 각신 굴묵낭<sup>902</sup>) 방에<sup>903</sup>)에 도훼낭(桃花木) 절깃대<sup>904</sup>)에 물보리 섞어낸 이녁 전 승 팔즈 생각허멍

“이여도 방에야, 이여도 방에야~”

허멍. 좋은 소리 내걸천<sup>905</sup>) 방에를 콩콩 짱없주게. 게난 강림이가 허울허울 들어 가가난, 방에 지단 툃허게<sup>906</sup>) 방엘 놓아 된.

“아이고, 어떻허난 오늘은 저 우리 올레에 정문이 열어져십디가 범주리낭 가 시가 걸어져십디가?”

영 굴야도 속숨. 저영 굴야도 속숨. 그냥 구들문 올라뵈<sup>907</sup>) 허울허울 들어가는 거라. 거난, 강림이 큰각신 방에 만지단 7만히 생각허난.

‘잘나도 내 낭군이요, 못나도 내 낭군이요. 내 낭군이 워낙 잘 나부난, 각시 델토<sup>908</sup>) 기생첩년덜 이구십팔 여레덥 개를 행 덩겜이난<sup>909</sup>). 경 해도 나 집이 온 손님이난 구들에 간 보주겐.’

허연.

방에 지단 거 내불어뵈 구들에 간 문 올엔 보난 막 었더전<sup>910</sup>) 울었어. 영영 울었이난.

---

899) 읍드레: 옆으로

900) 벗건: 벗겨서

901) 좃앙 덩겜이난: 찾아서 다녔으니

902) 굴묵낭: 느티나무

903) 방에: 방아

904) 절깃대: 절구공이

905) 내걸천: 내면서.

906) 툃허게: 탁하게.

907) 올라뵈: 열어두고

908) 각시델토: 각시들도

909) 덩겜이난: 다녔으니

910) 었더전: 배를 바닥에 대고 쓰러지다.

“어떻허난 옷을 일 날 때 날 아니 훗앙 완게 만든, 올 일은 나날 날 훗앙 읍 디가?” 경 허난.

“나 ګ사<sup>911</sup>) 당신님 들어올 때에 그만 썩 저만 썩 곁은 말에 애들안<sup>912</sup>) 읍 없수과? 여자엔 현 건 양, 동산에 앗앙 소피<sup>913</sup>)를 봐도 치메깁<sup>914</sup>) 젓을 줄 모르는 건, 여자의 ㅁ음 아니과?” 허난. 강림이가 와들랑탕 일어나는 거라.

일어난. 아이고, 손 심언

“이 사름아, 저 사름아. 나, 자네 그만썩 곁은 거 애돌안 울거민, 나 이디 뭇 허레 오는고? 그게 아니고. 나, 저승 염라왕 잡으레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저 사름 얼굴이나 보양 가젠 나가 마지막 길을 오랏노라.”

허난.

“게문 저승은 무신거 허레 값수과?”

“염라왕 잡으레 값저.”

허난.

“게난 저승 가렌 현 본멘 줍데가?”

아이, 내어 눈 건 보난. 흰 종이에 검은 먹글이라. 그때엔 그걸 갓영 연휘뭇 디 우터레<sup>915</sup>) 치돌안 올라산 거라.

“어떻 현 판삽니까? 어떻 현 슝똥니까? 이 글은 이싱<sup>916</sup>) 글 아니우과. 저싱 글은 붉은 거에 흰 글을 써야 저싱을 가는 법이우덴.”

게난. 그때엔 맹전(銘旌), 우리 이제 맹전허는 게 강림이 큰각시가 내온 법. 경 허연 그 법으로 이제 맹전법이 강림이 큰각시가 내온 법이고. 경 현 그거 들러 앗언 집이 완. 아이고, 이거 살아도 막번, 죽어도 막번 호강이난. 옷이나 이제랑 멘들안 입전 보내주겐 허연. 남방사주(藍紡沙紬) 저고리에 북방사주(白紡沙紬) 말바지에, 별통 행경(行纏)에, 웨코 접은 백농(白綾) 보선<sup>917</sup>)에 이제 출려 놓고, 한산 모시 두루마기에 이제 남수와단(藍水疋 서단쾌지(快子) 출려 난. 이제 그거 허여 놓고, 이제 가명 또 베고프른 어떻허리 현. 강남서 들어온 쫘끄만<sup>918</sup>) 멧시리<sup>919</sup>)에, 일본서 들어온 쫘끄만 멧숏디<sup>920</sup>)에 이젠 시양삭삭 고운 쫘 곁안, 초징, 이징, 삼징 놓안 시리떡<sup>921</sup>)을 친거라. 떡 치언. 제일 우잇층

911) ګ사: 이제 막. 금방.

912) 애들안: 마음으로 섭섭해 노여워하다.

913) 소피: 소변

914) 치메깁: 치맛자락.

915) 우터레: 위쪽으로.

916) 이싱: 이승

917) 보선: 버선

918) 쫘끄만: 자그마한

919) 멧시리: 시루

920) 멧숏디: 솔에

921) 시리떡: 시루떡

은 앓아 놓안, 문전에 강 스지 삼장부떠 슬고, 절 삼베 허고,

“우리 낭군님 저승가는데 질 인도시켜 줘서.”

허연 허고, 또 훈층은 떼어 놓안, 조왕할마님 한티 간 이제 그추룩<sup>922)</sup> 골안에<sup>923)</sup> 스지 삼장 슬고, 제일 아랫 건 떼어 난 강림스제님 가명 시장기 멀릴 걸로<sup>924)</sup> 포따리<sup>925)</sup>에 툄툄허게 썩. 다 출리단<sup>926)</sup> 보난. 강림이 큰 각신 옷 멘 들저<sup>927)</sup>, 떡 멘들저 허단 보난. 동세백이<sup>928)</sup> 히영허게 붉아가는 거라. 날이. 구 들에 완 보난, 강림스제는 막 코만 골멍 잠서.

“아이고, 이 어른아, 저 어른아, 훈저 일어 납서. 저승질허고, 군대서 오랜 허는 일은, 대신도 못강 본인 백인<sup>929)</sup> 못 갑니다. 훈저 일어 납서.”

일어난 보난, 천하독(天下鷄)은 목을 들어 쯤지반반<sup>930)</sup> 울고, 지에독(地下鷄)은 출릴<sup>931)</sup> 치영<sup>932)</sup> 구구구구 대명천지가 붉아오는 거라.

아이고, 큰일났젠. 이젠 큰각시 허여논거. 옷 쯤근쯤근 문딱<sup>933)</sup> 입고, 떡 시장기 몰릴 거 허여논거 포따리에 허엿이난 쯤등들에<sup>934)</sup> 툄허게 묶으고. 큰각시 신디 굳는 말이

“설운 정네야, 멩 질게 살았이라. 살았이민이 나 강 오랑 검은 머리 백발이 뉘도록, 이제 파뿌리가 뉘도록 살겐.”

게 굳은 언약을 허여 뉘. 올레 곧 나사난 어떤 여자가 빈허벅 전 이레 주악, 저레 주악 험서. 게난 그 여자는 강림이가 저싱감덴 말은 들어신디게 그때 나 가는중 몰란, 확허게<sup>935)</sup> 나강 보난 강림이 나오난. 어드레, 그자 7썩사젠<sup>936)</sup> 현게. 이레 주악, 저레 주악 헤진 거주게. 게난 강림이가 삼각산(三角鬚)을 거 슬리고, 봉에눈(鳳眼)을 브릅뜨고 정동7뜯<sup>937)</sup> 풀딱지<sup>938)</sup>를 확허게 걷어 난. 주먹으로

“여자엔 현 건. 꿈에만 시꾸와도<sup>939)</sup> 새물(邪物)인데 왜 강림이 저승 가는 길

922) 그추룩: 그렇게

923) 골안에: 말하고서

924) 몰릴 걸로: 없앨 것으로

925) 포따리: 보따리

926) 출리단: 차리다. 준비하다.

927) 멘들저: 만들저

928) 동세백이: 이른 새벽에.

929) 본인 백인: 본인 밖에는

930) 쯤지반반: 고요한 밤의 닭 울음 소리.

931) 출리: 꼬리를

932) 치영: 치면서

933) 문딱: 전부

934) 쯤등들에: 잔등이에. 허리부분에.

935) 확허게: 재빠르게 움직이는 꼴.

936) 7썩사젠: 비켜서려고

937) 정동7뜯: 청동(靑銅) 같은.

938) 풀딱지: 팔뚝

에 어떤 여자가 빈 허벅을 지어서 어지르느냐고.”

말이여. 계난 주먹으로 그 허벅을 와쌍헝게<sup>940)</sup> 벌러 불었어. 겐 벌러난 법으로 옛날은 사름 죽어나민, 그 구들에 사기그릇 허여근에게 이제 와쌍와쌍 벌르고, 푸대더레<sup>941)</sup> 사기그릇 놔근에 방에 강, 와쌍와쌍 소리나게 시리 이제 그 법지법을 마련해두고. 이젠 곧 올레 나산 가노렌 허난, 어떤 청토산이 마고할 마님, 등 수구룩허게<sup>942)</sup> 굽고 허연. 아그랑 작데기<sup>943)</sup> 불 붙어난 거 짚으고, 불 붙어난 행주치메 돌려 입고, 계난 앞이 막 걸엄서.

‘아이고, 저 할마님은 어뎡헌 할마님인고. 저 할마님이영 말 벗이나 허연 혼디 가카.’

허연. 강림이가 제게 가가민 할마님도 제게 걸어불고, 앞이 가는다. 강림이가 할망 미치젠<sup>944)</sup> 뜨게 가가민, 할망도 뜨게 가고. 겐 가단 가단 높은 동산 잇이 난.

“호이~”

허멍 할망이 앓으난. 강림인 절을 허울허울 삼 배 허난.

“아이고, 어뎡헌 도련님이 넘어가단 이런 똥내 지렁내 나는 늙은이안티 절을 했수꽈?”

허난.

“아이고, 말도 맵서. 우리 집이도 강 보민양 백난 하르바님, 할마님 다 잇수다. 읍서 배고판 시장기나 멀령 가게마씀”

아, 내 눈 건 보난. 똑ㄱ뜨<sup>945)</sup> 떡이라.

헛 솜씨에, 헛 솟판에 솜씨라.

“어뎡허난 할마님 떡허고, 나 떡이 영 똑ㄱ뜨우꽈<sup>946)</sup>?”

허난에

“강림아, 모른 소리 말라. 난 느네 큰각시네 집이, 조왕할망인디, 너 허는건 행실이 궤썸허더라만은<sup>947)</sup>, 너 큰각시 하도 지극정성이 기특허난 너 저승질 굴아주젠<sup>948)</sup>. 너 큰각시 생각허영 나오랏이메. 나 떡이랑 너가 먹영 가고, 너 떡이랑 쌍<sup>949)</sup> 가당 보민, 문전하르방이 잇일꺼메<sup>950)</sup> 문전하르방 안네영 저승질

939) 시꾸와도: 나타나도. 보아도.

940) 와쌍헝게: 유리 따위가 깨지는 소리. 과자나 호두 따위를 바삭 깨무는 소리.

941) 푸대더레: 포대에

942) 수구룩허게: 고개나 등을 어느 정도 구부리다.

943) 아그랑 작데기: 오그랑 막데기

944) 미치젠: 따라가려고

945) 똑ㄱ뜨: 똑같은

946) ㄱ뜨우꽈: 똑같습니까.

947) 궤썸허더라만은: 궤썸하더라만은

948) 굴아주젠: 말해주려고

949) 쌍: 싸서

골아도렌<sup>951</sup>) 허라.”

허연.

“아이고, 고맙수덴.”

허연. 그 떡 갈라 먹언. 절을 허울허울 삼베 헤여된. 아, 고개 들렁 보난 할망이 감감무중이라. 엇어. 피라곡절(必有曲折)허다 허연. 이젠 또 가노렌 허난. 담뱃대 진진헌거 물고, 헤영 헌 하르바님이 높은 동산에 잇어. 간 절을 허울허울 삼베 허난.

“아이고, 어디 도련님이 넘어가단 영 헌 늙은이한테 절을 허었수과?”

“우리 집이도 백난 아버지, 어머니 다 잇수다. 옴서 하르바님, 우리 시장기나 멀령 가게<sup>952</sup>).”

게 배 고프고, 시장 허난 시장기 멀리젠 떡 내 놓은 건 보난 7튼 떡이라. 이젠

“어떻허연 하르바지 떡허고, 나 떡 영 7뜨짜?”

허난에.

“난 너 큰각시네 문전하르방인데, 너 허는 건 귀썸허드라만은 너이 큰각시 하도 지극정성이 기특 허난. 너이 큰각시 생각허난 저승질 골아주젠 나왔다.”

게난

“너 걸랑, 너 떡이랑 너가 먹영가고, 나 떡이랑 지금부터 너 들어갈 질은 일흔으덥 공 거름질로 세언 강. 들어강 보민. 질 님으단 허기버천<sup>953</sup>) 질토레비<sup>954</sup>) 질감관이 이원스제가 이제 누웠이메 너 그 떡을 주영. 시장기 멀리게 허영 저승질 골아도렌 허라.” 허연.

“경 험서.”

허연. 하르바님이 손 심언 그뻐 질을 다 골아준 거라.

“강림아, 요 질은 보라. 시왕감스 신병스(十王監司 新兵使)가 들어간 질이여. 요 질은 보라. 원왕감스 원감스(元王監司 元監司)가 들어간 질이여. 저 질은 보라. 짐추염나태선대왕(金緻閻羅泰山大王)이 들어간 질이여. 요쪽 질은 보라. 범7튼 스천대왕(四天大王)이 들어간 질이여. 요 질은 보라. 츠지 진강대왕(秦康大王)이 들어간 질이여. 이제 초강(初江), 제삼(第三) 송결전(宋缺典)에, 오간(吳官), 다섯 염나대왕(閻羅大王)이 들어간 질이여. 으섯 번성대왕(變成大王)이 들어간 질. 일곱 태선대왕(泰山大王), 으덥편. 경 형. 아홉 딱시 열, 십전대왕

950) 잇일꺼메: 있을테니

951) 골아도렌: 말해달라고

952) 멀령 가게: 없애고 가자.

953) 허기버천: 매우 시장하여 힘에 겹다.

954) 질토레비: 길을 보수하는 사람.

(十戰大王)??지 들어간 질이여. 강림아, 요 질은 보라. 천양처스(天皇差使)가 들어갈 질, 요 질은 지하처스(地下差使)가 들어갈 질. 요 질은 인왕처스(人皇差使) 들어갈 질, 요 질은 원직. 연직(年直), 월직(月直), 일직사자(日直使者)가 들어갈 질이여. 요 질은 보라, 황스제(黃使者)가 들어갈 질. 요 질은 적스제(赤使者)가 들어갈 질. 요 질은 보난 옥황방나장(玉皇방나장)이 들어갈 질. 요 질은 저승 이원스제<sup>955</sup>)가 들어갈 질. 요 질은 보난, 강림이 들어갈 질을 보난, 개미 훈 뿐 훈 질. 이견 너 들어갈 질이여.”

허난

“아이고, 하르바님아, 이 질을 어떻게엔 날?라<sup>956</sup>) 들어가렌 했수과?”

허난

“그 질을 너가 헤우청<sup>957</sup>) 들어가사 헐거엔.”

게난, 지금 현재 우리 인간들 죽으면, 심방 빌어단 질치곡 허는 것이 죽을 때는 강림사자님하고 데려서 저승을 가는 때문. 강림사자 들어가는 질이 하도 나쁜 질이라부난, 이제 그 질을 닦으멍 들어가는 거. 그 법으로 질치는 법이 뉘고. 겐 그 질을 가난

동드레 왕상허게<sup>958</sup>) 벌은 건, 서더레도 확허게시리 눅지고. 서이 왕상허게 벌은건 동더레도 눅지고. 경 제우제우 헤우천 들어간 보난, 질토레비 질감관 이원스제가 질 닦으단 허기버천 누운 거라.

“아이고, 이거 나 점심밥 먹영, 저 떡 먹영 시장기 멀립서.”

허난. 하도 베고프난, 듣도 뵈도 안허영 그걸 막 먹은거 아니. 먹언 이제 정신 출리난.

“당신 누군데 여길 왓습니까?”

허난

“나는 인간 짐치원 몸 받은 강림이가 뉘네다.”

허난

“어떻헌 일로 이딜 옴데가?”

허난

“난 염라왕 잡히젠 이디 왓수다.”

허난

“여기는. 이거, 인간이 오는 길이 아니고, 나는 저싱 염라왕이 인간에 원복장 제네 집이, 굿허는 디 느려사젠<sup>959</sup>) 허난, 질을 닦으단 허기버천 여기 누웠수

955) 이원스제: 저승의 사자(使者) 이름.

956) 날?라: 나에게

957) 헤우청: 뜯어서.

958) 왕상허게: 풀, 마른 가지, 가지 따위가 거칠게 널려져 있다.

다. 게난, 경 말양 나영 훈디 이디 샷단양, 스오시가 뉘결랑 이디서 잡합서.“

허난

“아이고, 아이 뉘네다. 아멩헤도<sup>960</sup>) 저승을 강 와사주. 이디 샷단 아니 뉘니덴.”

“경 허건양. 나도 놈이 거 공거 먹고 공거 쓰민 목 걸리고 등 걸리난, 속적삼이나 입영 읍디가?”

허난

“예. 입언 왓수다.”

“이레 벗읍서, 게건.”

경 허연. 이구산더레 올라산 초훈, 이훈, 삼훈을 쉰언. 게난 그 법으로 사람 죽으민 옛날은 지붕상상 조추무루에 올라강 속적삼 들링 ‘누구 누구 보~’ 허멍훈을 불릿주만은. 요즘은 또 이젠 장례식장에서 허던가, 경 안허민 어디 묻으레 강. 산에 강 훈 불링. 경 헨 이젠 훈 불려주난, 저승 초군문에 들어간 거라. 가신디. 아닌게 아니라 와라차라 앞엔 선배, 뒤엔 후배, 뉘 일과라 일기생애. 막 와라차라 와가난

‘아, 저기 염라왕이 잇구나.’

허연. 첫 번째 가메<sup>961</sup>)를 심어 보난, 빈 가메. 두 번째도 심언 보난, 빈 가메. 세 번째도 빈 가메. 네 번째도 심언 보난 빈 가메. 다섯번 째 벌련독계(別輦獨驕), 베락 천둥 소리에 와지끈 땅에 심언 보난, 염라왕이 앓은 거라. 아이고, 보난 눈은 통대왈 만인 허고, 말관 쓰고, 입은 작박<sup>962</sup>) 만이 허고, 코는 물똥코<sup>963</sup>)에. 훈 번 보고, 두 번 므스완 볼 수가 없어. 줌짜<sup>964</sup>) 헨 물러산거라. 강림이가 생각허기를

‘때는 요 때다. 요 때 안 잡혀버리면 이 노릇을 어떻허린.’

므습고시고<sup>965</sup>) 놀려들언 흥사줄을 그자, 읍이 샷단 다르르 풀언 간, 스문절박을 풀에 간, 탁 헌거라 게난. 아이, 염라왕이 용심을 내뉘,

“야, 도대체 누게가 나, 저승왕인 나를 잡히느냐?”

게난. 강림스제가 허는 말이,

“예. 저승왕도 왕이요. 이승왕도 왕이요. 나는 인간에 짐치원 몸 받은 강림입네다.” 허난

---

959) 누려사젠: 내려사려고

960) 아멩헤도: 아무래도

961) 가메: 가마

962) 작박: 주걱.

963) 물똥코: 말똥같은 코.

964) 줌짜: 뜻밖의 일에 깜짝 놀라다.

965) 므습고시고: 무섭더라도

“뭘 일로 나를 잡히느냐?”

“우리 인간에 과양생이가 있는데, 훈 날 훈 시에 아들 삼형제 낳고, 훈 날 훈 시에 아들 과거 헨 오고, 훈 날 훈 시에 다 죽으난 이 절체를 못해서 염라왕을 잡으레 왔습네다.”

허난

“야, 강림이 역력하고 똑똑하다.”

경 헨 이제 인정 주난. 염라왕이 강림이한테 인정을 준거주. 경 허난. 이젠 인정 받안, 흥사줄 풀련.

“경 말앙이. 강림아, 나영 훈디<sup>966</sup>) 아랫녁에 원복장제 단똥아기 다 죽어간 전새남<sup>967</sup>) 허없이메 글라, 그디, 굿허는 디나 강, 굿이나 받아먹영 가게.”

허난.

“경 험서.”

허연. 똥라앗언<sup>968</sup>) 간 보난. 올레에 간 보난 허덕이엔 현 심방이 굿을 험인 디, 저승왕도 읍서. 이승왕도 읍서. 뉘, 처스님네도 읍서 헤도, 강림이 읍센은 허지도 안허여. 올레에 쓸 케우리명도<sup>969</sup>) 부애가 풋죽굳이 난 거라<sup>970</sup>). 딱 시<sup>971</sup>) 흥사줄 내어난 굿허던 허덕이엔 현 심방을 스문절박을 톤톤허게 시겨볼 엇어. 경 허난. 그 중에서도 똑똑헌 신소미가 확허게 나사며 허는 말이,

“어제, 그지게 신관쳐스, 강림쳐스도 살려 읍서.”

허연 쓸 케우리난 그때엔 흥사줄을 풀어가난, 죽어가던 큰심방이 프룻프룻 살아난거 아니. 게난 옛날엔 아마도 시왕맞이 험 때는 시왕 당클만 메연 헤낫 인고라, 강림스제 나시<sup>972</sup>) 아래 혼저 스지 상 싱그라<sup>973</sup>), 그다음 앓아 살 거 난<sup>974</sup>) 떡도 흥곰씩<sup>975</sup>) 흥곰씩 멘들젠<sup>976</sup>) 허민 시간 오래 걸릴거난애, 흥꺼번 애 그자 담아난 시루떡 치여근에게<sup>977</sup>) 그레 올리라. 경 헨 이젠 문딱 강림스제 앓을 자릴 멘들어노난<sup>978</sup>). 시왕 당클 알로. 상당도속으난<sup>979</sup>) 염레왕은 청댓 썩<sup>980</sup>) 고고리<sup>981</sup>)로, 변장을 허연 올라사분 거라. 게난 강림이는 암만 좇아봐도

966) 훈디: 함께

967) 전새남: 무구와 제기가 없어서 빌어서 하는 곳. 환자의 병이 나아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곳

968) 똥라앗언: 따라서

969) 케우리명도: 멀리 흠뿌리거나 획 내던지면서

970) 부애가 풋죽 굳이 나다: 팔죽이 끓듯 몹시 화가 난다는 말.

971) 딱시: 다시

972) 나시: 뉘

973) 싱그라: 심어라. 제상을 차려 세움의 뜻.

974) 앓아 살 거난: 앓아야 할 거니까

975) 흥곰씩: 조금씩

976) 멘들젠: 만들려고

977) 치여근에게: 찌서

978) 멘들어노난: 만들어노니.

979) 상당도속으난: 굿을 마쳐 당클과 제상을 정리하니.



염레왕이 엇어져분거 아니. 아이, 이 노릇이여 이제 이꺀지 와놓고 이제 어드  
레 엇어져불영 나 헛걸음헨 이 노릇을 어떻허연 좋고. 푸리 몸으로 환생허연  
청대설 고고리 우에 간 턱허게 앓으난

“야, 강림이 침 역력허고 똑똑허다. 훈저<sup>982)</sup> 느려글라<sup>983)</sup>, 아래 느려글라.”

허연 느려완

“강림아, 느 몬저 가시라. 가시몬이<sup>984)</sup>. 나, 널모레 스싯날 당허민 틀림도엇  
이 나 동연(東軒)마당에 연단우이 느려사마<sup>985)</sup>.”

허난

“아이, 아니웁네다. 아멩헤도<sup>986)</sup> 가사주양<sup>987)</sup>. 아니가민 나 인정을 헤 줍니  
까?”

허난

“가시라. 가시몬 나가 틀림엇이 약속을 지켜마.”

“나, 혼도 불러불고 허난양. 나, 인간에 가질 못헙네다.”

허난.

“돌아사라.”

허연. 앞인 임금 왕 제, 뒤엔 놀룬 비 자를 써 주고, 백강생이<sup>988)</sup> 하나 내어  
주멍

“이 강생이 안앙 가당, 웨 나무<sup>989)</sup> 웨 득리<sup>990)</sup>에 행기수<sup>991)</sup>가 잇이메, 강생  
이 노민 팡허연 들어가건, 니도 훈디 강생이 톨랑 팡허게 들어가민 느 몸천<sup>992)</sup>  
잇인디 가 진다. 경 허민 느 몸천, 그레<sup>993)</sup> 삼화혼정(三化魂情)<sup>994)</sup> 들영 경 허  
연 느네 집이 좃양 가라.”

일러 주난

“경 헙셴.”

허연. 그날 안 내려오민 큰일납니다예. 막 굳은 언약을 헨 거라. 경 헨 이젠.

---

980) 청댓설: 큰곳할 때 마당에 번기를 달아 높이 세우는 대(竹).

981) 고고리: 꼭대기.

982) 훈저: 어서 빨리.

983) 느려글라: 내려가자.

984) 가시몬이: 가있으면

985) 느려사마: 내려사마.

986) 아멩헤도: 아무래도

987) 가사주양: 가야지.

988) 백강생이: 흰 강아지.

989) 웨 나무: 한 그루의 나무

990) 웨 득리: 한 개의 다리

991) 행기수: 늦그릇에 담긴 물. 행기물

992) 몸천: 몸 형체

993) 그레: 그리로. 그곳으로.

994) 삼화혼정: 인간은 육신은 하나요 혼은 셋이라 함.

강생이 안아 앓양 오단<sup>995</sup>), 웨나무, 웨드리에 드물련<sup>996</sup>) हु디 들어가난, 몸천이 혼 불러부난 강림이 몸천만 잇인 거라. 그땐 그 몸천들에 삼화혼정(三化魂情) 들언. 일어난 보난 동도 왯왯, 서도 왯왯, 남도 왯왯, 북도 왯왯. 천지가 컴컴한 밤이라. 영 멀리 베려보난<sup>997</sup>), 불이 베롱허게<sup>998</sup>) 싸진 집이 잇이난.

‘아이고, 오늘밤이랑 저 집이나 좃안 강 어뎡 마당 구석에라도 앓앗당 널랑 큰각시 사는 집을 좃양 가주<sup>999</sup>.’

허연. 가단 보난 마침 큰 각시가 시결명 잡식<sup>1000</sup>) 허연, 식계(祭祀) 넘어난 올레 완 훅훅 데껴덜<sup>1001</sup>) 안으로 들어 가명 문을 툃툃허게 증가부는<sup>1002</sup>) 거 아니. “이 문 올라. 이 문 올라.”

막 허난에

“앞집이 김서방네건 널랑 읍서. 식계(祭祀) 테물<sup>1003</sup>) 안네쿠다. 뒷집이 이서방이건 널랑 읍서. 식계(祭祀) 테물 안네쿠다.”

허난.

“난, 이 김서방도 이서방도 아니고이. 나, 강림이여.”

허난.

“아이고, 첨 우리 낭군은 저승 간 양 연삼 년 넘어난 오늘 이거 첫 식계(祭祀) 우다.”

허난.

“난, 저승 간 사흘 백이<sup>1004</sup>) 아니 살았저 만든 건 뭇 말이고?”

허난. 하도 경 해도 강림이노렌 막 헤가난.

“경 허건, 우리 낭군이 적실허면 내가 본메 본짱 논게 잇이난 창고망<sup>1005</sup>)으로 퀘자(快子) 썸<sup>1006</sup>)이나 내몰아 읍서.”

허난. 이제 창?망으로 퀘자 썸 영 내모난, 바농 훈 썸<sup>1007</sup>)을 본메본짱<sup>1008</sup>)으로. 그 옷 지을 때에 본메본짱으로 논게 돈딱 삭단, 바농 하나가 남은 거라.

---

995) 앓양 오단: 안아서 가지고 오다가.

996) 드물련: 들이밀어서.

997) 베려보난: 바라보니

998) 베롱허게: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게 켜지다.

999) 좃안 가주: 찾아가야지.

1000) 시결명 잡식: 제사 끝낸 뒤에 제상의 각 제물을 조금씩 뜯어 모아 잡신(군졸)에게 먹으라고 바깥에 던지는 일.

1001) 데껴덜: 던져두고.

1002) 증가부는: 잡아버리는.

1003) 식계 테물: 제사를 치르고 남은 음식.

1004) 사흘백이: 사흘 밖에

1005) 창고망: 창구멍

1006) 썸: 옷의 깃.

1007) 훈 썸: 한 썸.

1008) 본메본짱: 증거물이 될 사물.

게난,

“아이고, 내 낭군이 적실허덴<sup>1009</sup>.”

이젠 문을 다 올안. 게난 이제 강 아버지도 돌아 오라<sup>1010</sup>. 어머님도 돌아 오라. 형제간 덜도 돌아 오라. 이구십팔 열<sup>1011</sup>답 각시도 돌아 오라. 문딱<sup>1011</sup> 돌아 오라 허난. 아바진 들어오멍 <sup>1012</sup>늑단 흘목<sup>1012</sup>을 잡안 앓안 비새<sup>1012</sup> 7찌 울고, 어머님은 왼 흘목을 잡안 비새<sup>1012</sup> 7찌 우는 거라.

“아버지, 아바진 나 엇이난 어떻 험데가?”

허난.

“아이고, 곧도 말고<sup>1013</sup>, 일르도 말라. 느 엇이난<sup>1014</sup>이 <sup>1015</sup>마디마디<sup>1015</sup> 마다 느 생각이 나라.”

허난.

“아버지는 <sup>1012</sup>늑단 흘목 잡아부난, 성주성편(姓主姓便)을 마련허고. 아버지는 나 생각을 <sup>1015</sup>마디마디 헤부난. 아버지 살당 살당 돌아가시민 왕대, 방장(喪杖)대 헤영, <sup>1015</sup>마디마디 아버지 생각허멍, ‘아이고, 데고’ 허영 아버지 공을 갚아 드리쿠다.”

겐디, 아버지는 아멩헤도<sup>1016</sup> 남자의 부모라 <sup>1012</sup>늑식들 안티라도 영 감싸주는 일이 엇영 그냥 팍팍 곱아부난, 시무옷<sup>1017</sup>을 헤도 아버지 죽은 때 입는 시무 옷은 알단을 아니 감추와. 감추질 안허여.

“겐 이젠 어머님은, 나 엇이난 어떻 험디가?”

허난.

“아이고, 동더레 돌아사도 가슴이 멉멉, 서더레 돌아사도 가슴이 멉멉. 원, 그냥 가슴이 멉멉허연 살 수가 엇어라.”

허난. 어머님은 <sup>1018</sup>웬 흘목<sup>1018</sup>을 잡아부난 <sup>1018</sup>웨주웨편을 마련허고.

“어머님, 살당살당 돌아가시민, 동더레 <sup>1019</sup>벌은 머구냥<sup>1019</sup> 방장(喪杖)대헤영 어머니 생각 멉멉허게시리 어머님 생각허멍 연삼 년 공 갚아 드리쿠다.”

겐디, 어머님 돌아갓이민, 어머니 <sup>1012</sup>늑식들 곱은 일 헤도 항상 감추와. 아이고, 영영 말을 감추완 헤나부난 이 시무옷 보민, 요즘은 신식이난 다 박아불어서라

1009) 적실허덴: 틀림없이 확실하다.

1010) 돌아 오라: 데리고 오라.

1011) 문딱: 모두. 전부

1012) <sup>1012</sup>늑단 흘목: 오른쪽 손목.

1013) 곧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1014) 엇이난: 없어서

1015) <sup>1015</sup>마디마디: 마디마디(節節).

1016) 아멩헤도: 아무래도.

1017) 시무옷: 남자 손자 상주의 복옷.

1018) <sup>1018</sup>웬 흘목: 왼쪽 손목.

1019) 머구냥: 머귀나무.

만은, 시무옷을 보민 어떻 죽은 때에는 영 감싸근에게<sup>1020</sup>) 박양잇고. 아방 죽 으민 그냥 년들년들 현양 그냥 잇고. 게난 형제간들 돌아오라 허난. 형제간들 돌아오난

“나 엇이난 어떻 헤니?”

허난

“형님아, 모른 소리 맙서. 어디 간 우리만 잘 먹고, 잘 쓰곡양 헐 때엔 형님 적시도<sup>1021</sup>) 우리가 갈라먹고, 갈라쓰난, 더 하난, 막 기분이 좋습니다마는, 어디 뎡기단 친구들신디나 선배들신디라도 메나 복삭<sup>1022</sup>) 얻어 맞을 때엔. 아, 이럴 때 우리 형님도 잇엇이민 권력이 좋으난 펜백<sup>1023</sup>) 헤줄걸. 형님 생각 납디다.”

허난

“아이고, 형제간은 옷 우잇 브름<sup>1024</sup>)이여. 걸름<sup>1025</sup>)만 못 허다.”

거난 형제간은 수리대, 방장대도 수리대를 주는 거라. 게 수리대 짚으민 거 형제간이나 조케나 경 뒤는 거. 경 헤연 이젠 마련헤여 될.

“이구십팔 열으덱 각신 어디 가시넨?”

허난. 그날 그 시간으로 문딱 서방들 얻영 도망들 갖젠 허난. 이젠 큰각시?  
라

“자넨, 나 엇이난<sup>1026</sup>) 어떻헤니?”

허난

“아이고, 곤도 말고 일러도 맙서. 잇인 때엔 각시만 얻영 뎡기명 부수 날<sup>1027</sup>) 속상허고, 즐들리왔주 만은<sup>1028</sup>) 엇이난 양 훈 묵음 훈 뜻 허영 소상도 냉겨수다, 대상도 냉겨수다. 나 첫 식계도 허엿수다. 정절수절 직허영 앓젠 허엿수다.”

허난

“경 허난, 열 각실 얻영 뎡겨도 큰각시가 큰각시여.”

허연

“아버지도 갑서. 어머님도 갑서. 이제 형제간들도 가라.”

문딱 보내어 될. 시집가고, 장가를 가도 부부간에 관계를 안 맺언 각시만 얻

---

1020) 감싸근에게: 감싸서.

1021) 적시도: 몫도.

1022) 복삭: 마구, 힘껏, 마음껏.

1023) 펜백: 편백. 한쪽 편을 들다.

1024) 옷 우잇 브름: 옷 우에 바람.

1025) 걸름: 거름.

1026) 엇이난: 없으니까.

1027) 부수 날: 많은 날.

1028) 즐들리왔주 만은: 걱정시켰지 만은.

영 돌아뎡것인디, 그날 밤이 이젠 돌이가 누원. 열두 스랑을 다 풀리운 거라. 막, 말에 말 붙연가젠허민

“좁쌀<sup>1029)</sup> ㄱ찌 스랑<sup>1030)</sup> 스랑 줌진<sup>1031)</sup> 스랑, 좁쌀 ㄱ찌 줌진 스랑, 스랑 스랑 둥근 스랑, 보릿쌀 ㄱ찌 둥근 스랑, 모밀쌀<sup>1032)</sup> ㄱ찌 귀난 사랑이여. 곤쌀<sup>1033)</sup> ㄱ찌 궁근 사랑이여.”

경 허는다. 경 헨 허단 보난. 뒷날 아침이 동성방이 히영해도<sup>1034)</sup> 안 일어나 분거라게. 붉는 처리<sup>1035)</sup> 몰란. 게난 과양생이네 두가신, 어느 제민 강림이가 염라왕을 들안 이 일을 빨리 해결을 헤 줄 건고, 메날<sup>1036)</sup> 강림이가 앓인가, 안앓인가. 강림이 큰각시 집 메날 나드는 거라. 강림이가 앓인가, 안앓인가. 빨리 와서 지네<sup>1037)</sup> 애기 덜 해결 헐 거난.

경헌디<sup>1038)</sup>, 그날 아침인 간 보난, 문을 툰툰 증갓주게. 이 시간 됴민 큰각시가 일어남 뎡기는다 어떻허단 영 헛인고 허난. 손가락에 춤 불란<sup>1039)</sup> 창 ㄱ망을 툰란<sup>1040)</sup> 보난. 몸천은 하나고, 머리는 두개라. 아이고, 이거 저승 가노렌 헤 됴. 우리가 속앗구나. 밤인 됴민 큰각시영 헐 이불 쏘곶에 줌자고, 낮인 됴민 펑풍 뒤에 간 곱안<sup>1041)</sup> 살암덴. 거난 오곶<sup>1042)</sup> 짐치원신디 간 밀고(密告)를 헤 분거 아니. 게난 이젠 또 큰칼 씨완 강림일 또 동안마당 연단 위에 곶어단 세 완에 죽일팔로 막 허는 거라.

“넬 모리 스오시??지만 기다령 염라왕이 아니 내려사건 날 죽여 줌서.”

허난. 아닌게아니라 스오시가 됴여가난, 동으로도 날씨가 거뭇거뭇 헤가고, 서으로도 거뭇거뭇 헤 간게. 삼시간에 ㄱ랑 빗발 또록또록또록 털어지단 그냥 대오방 수천리 비가 넘실넘실 막 내려오는 거라. 겐 비가 막 오난. 이젠 너른 목에 번개 판짝 허듯이 허난. 좁은 목에 와지짱짱허연 벼락치난. 그 벼락 천둥 소리에 염라왕이 연단 위에 탁 산보난. 비오고 벼락 천둥소리에 문딱<sup>1043)</sup> 변장 들 허멍, 다 그디 잇인 사람들 곱아붙어신디<sup>1044)</sup>. 강림이는 이디 큰칼을 씨와

1029) 좁쌀: 좁쌀.

1030) 스랑: 사랑.

1031) 줌진: 가는.

1032) 모밀쌀: 메밀쌀.

1033) 곤쌀: 흰 쌀.(白米)

1034) 히영해도: 하얗게 되어도

1035) 붉는 처리: 밝는 것을.

1036) 메날: 매일.

1037) 지네: 자기네.

1038) 경헌디: 그런데.

1039) 춤 불란: 침 묻혀서

1040) 툰란: 뚫어서.

1041) 곱안: 숨어서.

1042) 오곶: 곧. 즉시.

1043) 문딱: 모두.

1044) 곱아붙어신디: 숨어버렸는데.

노난 돈도<sup>1045)</sup> 기도<sup>1046)</sup> 못허연 7만히 그 비 맞으멍 앓은 거라.

“강림아, 너 이거 뭐허는 짓이나?”

허난.

“아이고, 염라왕님아, 일 분 일 초만 늦었이민 머리털 하나가 7류왕<sup>1047)</sup> 죽을 뻔을 헛습니다.”

허난.

“야, 저 집은 저거 누게가 지엿이나?”

허난.

“강태공 서목시가 지엿수다.”

“흔저 불러오라.”

불러단,

“저 집 지을 때에 너, 지동<sup>1048)</sup> 몇 개 세왓느냐?”

허난

“스물네 지동을 세왓수다.”

허난

“흔저 세어보라. 느 세운 거 맞으냐?”

세단 보난 굴목<sup>1049)</sup>에 공깃지동<sup>1050)</sup>은 안 세운 거라. 스물다섯 개가 잇인 거라. 지동이.

“굴목에 공깃지동은 아니 세왓수다.”

허난. 염라왕은 벌써 짐치원이 그걸로 변장 헨 간 걸 알앗주게. 경 허연.

“툽 앓아단<sup>1051)</sup> 싸불라<sup>1052)</sup>”

허연. 툽 앓단 싸가난, 즈짓피(紫朱血)가 불꽃허게<sup>1053)</sup> 나난, 관디(冠帶) 섭으로 확 닦아부난 별건헌 거 아니. 이디 필 닦아부난. 계난 그 법으로 우리 심방 델토 큰긋허영 염라왕 청허는 곳 혈 때는 흥색, 흥포관디를 입어야 염라왕을 청허는 거고. 이젠 짐치원이 나오난, 염라왕 허는 말이,

“어명헌 일로 날 청헛디가?”

허난.

“아이고, 스실(事實)은 야카야카허연 과양생이네 이만저만 허난 청헛수덴.”

---

1045) 돈도: 달리지도.

1046) 기도: 기지도.

1047) 7류왕: 가려워서.

1048) 지동: 기둥.

1049) 굴목:방에 불을 때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주식의 아궁이.

1050) 공깃지동: 벽장 위에 가로 건너 자른 나무를 받치는 기둥.

1051) 앓아단: 가져와서.

1052) 싸불라: 잘라버려라.

1053) 불꽃허게: 발긋하게.

허난,

“과양생이네 불러들이렌.”

허연 불러오난,

“너네 애기덜 어디 문엇느냐?”

허난

“앞बाट, 뒷बाट 출병헛수다.”

“겐 팡 보라.”

간 팡 보난. 애기랑 말앙 아무것도 엇어 편편이라.

“영 헤도 바른말 못허것느냐?”

허난

“아이고, 우린 양 죄엔 현건 양 손톱만이라도 죄가 엇수다.”

허멍 하도 허난.

“경 허민. 알앗저. 어른, 아이 막론허고 이 동네에. 이 고을에 사람덜 족박들은 이 함박들은 이 문딱 나오렌.”

경 헨. 주천강 연화못 그 버물왕 아들들 드물라분<sup>1054</sup>) 물을 다 푼 거아니. 경 허연 다 푸단 보난, 빼만 슬그랑허게<sup>1055</sup>) 남은 거라 애기덜이. 염라왕이 서천꽃बाट<sup>1056</sup>) 도올란<sup>1057</sup>) 피 오를 꽃, 솔 오를 꽃, 오장 오를 꽃, 사름 생길 꽃, 말 글을 꽃. 이제 꽃을 문딱<sup>1058</sup>) 사름 생길 꽃을 푹푹푹 푼어다 놓안. 차례데로 놓안 송악낭<sup>1059</sup>) 막데기로 연 세번 착착 후리난, 애기덜이 와들레기<sup>1060</sup>) 일어나멍

“아이고, 봄 줍이라 너미<sup>1061</sup>) 자젓우다.”

허난, 염라왕이 울면서

“설운 애기덜아, 느네덜 물 아래 누원 얼마나 고생 하영 헤엿이니. 현저 보고픈 어멍국도 좃앙 가라, 아방국도 현저 좃앙 가라.”

경 헨 이젠 보내 된.

“너네덜 영 헤여도 바른말을 못 허것느냐?”

과양생이네 두가시<sup>1062</sup>)를 쉼앗베<sup>1063</sup>)로 묶은 거라. 일곱 쉼에 아홉 장남을

1054) 드물라분: 넣어버렸던

1055) 슬그랑허게: 몸 형체가 없고 빼만 남아 있는 상태.

1056) 서천꽃बाट: 환생(還生) 꽃 멸망(滅亡) 꽃 등 주화(呪花)를 가꾸는 꽃밭.

1057) 도올란: 올라가서.

1058) 문딱: 모두.

1059) 송악낭: 두릅나뭇과의 상록 활엽 덩굴성 식물.

1060) 와들레기: 급히 벌떡 일어나는 모양.

1061) 너미: 너무.

1062) 두가시: 부부.

1063) 쉼앗베: 마소에 짐을 실을 적에 동여매는 조금 굼직하고 기다란 참바.

거느런 벌통 돌아메고 허연, 벌통 또꾸망에 돌아메고 허연. 그냥 물에, 쉼에 튀어가민. 벌은 왕~허민 그냥 막 놀려들엉 허멍. 가시덤불마다, 돌갈퀴마다 그냥 하도 꾀언 덩기단 보난. 문딱<sup>1064</sup>) 갈기갈기 찢어지단 남은 건 뼈만 솔그랑 허게<sup>1065</sup>) 남아서.

“야, 이 동네에 열, 칠 팔세 난 애기씨덜 힘때 좋다. 혼저 이레 모이렌.”

허연. 굴묵냥<sup>1066</sup>) 방에 난 독독 못안<sup>1067</sup>). 거품 불언 푸~허연 불려부난. 여름 뉘민 모기가 뉘고, 칠팔월에 곡다기<sup>1068</sup>)가 뉘언. 산 때도 사름을 벳경 먹언게, 죽어도 사름 피 빨앙 먹어. 경 허연 모기 몸으로 이젠 환생을 시기난. 이젠 염라왕은 가젠 허난. 일곱 쉼에 아홉 장남, 과양생이네 꾀언 덩겨난 거.

“아이고, 우린 사름 죽여낫젠 허연양. 어디가민 붙여주지도 안허고 경 허난. 우린 어디 강 얻어먹읍네까?”

허난.

“너네랑 사름 죽영 귀양풀이 헐 때랑 큰 상 알로, 일곱 신앙 아홉 귀양으로 얻어먹으라.”

헤 뉘. 이젠 가젠 허난. 염라왕이 짐치원 7라,

“강림이 나 들앙 강 쓰쿠다.”

“어딜 말잇과?”

허난

“저승 강 마씀게.”

허난

“아이, 우리 이승도 똑똑헌 사름 잇어사 헐 거 아니꽈?”

허난.

“아이고, 경 허건양, 우리 하나씩 갈랑 가집주.”

“어떻 사름 하날 낳 두 개로 갈릅니까게.”

허난

“날랑 저승 가명 혼을 빼영 가크메, 짐치원이랑게 몸천 앓입서.”

허난. 짐치원은 혼 일은 생각허고, 두 일은 생각 못 허연

“예.”

허연. 대답을 헤 분거라.

계난 염라왕은 저승 가명 강림이 혼정 뵘 가분거 아니. 혼정 뵘 가부난. 이

---

1064) 문딱: 모두. 전부

1065) 솔그랑허게: 몸 형체가 없고 뼈만 남아 있는 상태.

1066) 굴묵냥: 느티나무.

1067) 못안: 찢어서

1068) 곡다귀: 각다귀



젠 연단 우이 오고생이<sup>1069</sup>) 사난.

“야, 박포수야. 저디 강 강림이?라 들어보라. 저승이 어떻 헨 디라니 헨 번 들어보라.”

허난. 간.

“야, 강림아, 야, 강림아, 해도 편편. 대답도 안허여. 저 강림이 봅서. 저거 저승 갖다오고렌 큰양 헨양 대답도 안 했수다.”

“그 새끼 이제부떠 경 큰양 해염 건 아그랑 작데기 자락 거려밀려볼라 뒤여 지게.” 허난 아그랑 작데기 특허게 건드난, 헛드랭이<sup>1070</sup>) 갈라지명 코로 귀로 쉬프리<sup>1071</sup>) 뽕뽕뽕뽕 허는 거 아니.

“아이고, 죽엇수다. 죽엇수다.”

허난. 이젠 큰각시한테 연락을 해야 뉘켄. 큰각신 어느 제민 해결 헤여될 왕, 젊은 때엔 각시만 얻영 덩기명 즈들리완게<sup>1072</sup>) 이제 나이드난 즈들리지 안허 영 살 건고. 바농 허연 손으로 옷 멘들단. 편지가 온 걸 깐 보난. 죽엇젠 헨 편지라.

“아이고, 나 노릇이여.”

막, 구들에서 지만 누원 둥글명 울고, 막 누원 둥그는게 상방 다 누원 둥글고, 마당?지 가난. 확 생각허난 이거 누게

‘거짓말 허연 허지 안했인가? 귀 소문 말앙, 강 눈 소문 허연 눈으로 강 봐 사주겐.’ 허연. 확 일어난 가젠 허난 머리가 이만이 헨거라. 막 누원 둥글어부난. 머리 확확 영영 허연. 영 허연 이거 무신 걸로 묶언 가코 허연 보리낭 확 둥견 영 묶으난 확 끊어져부는 거라. 산디짚(山稻) 확 둥견<sup>1073</sup>) 묶으난, 산디짚으로 묶으난 뉘는 거라. 질견. 게난 그 법으로 옛날은 사름 죽영 성복(成服)허기 전인, 산디짚 허영 머리 묶어근엥에 우리 상제덜 경 헨 덩겨난 법 마련허고. 간 보난 진짜로 죽은 거라.

“우리 낭군 무신 거 잘못 허영 죽입디가. 저승을 가렌 허난, 저승을 아니 가 십디가. 염라왕을 잡혀오라 허난, 염라왕을 아니 잡혀 오라십디가. 무신 일을 잘못 허영 죽엇수가. 누게 나상 말을 험서.”

해도 아무도 안 나사는 거라. 게난 강림이 큰 각시가 그때에 그냥 아멩이라도<sup>1074</sup>) 영장도 헤 불엇이민 지금도 혈걸. 그때에 초수렴(初小殮)도 허여도 섭

1069) 오고생이: 물건이 상하거나 수가 줄어지거나 하지 않고 본디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꼴. 흠어짐 없이 고스란히.

1070) 헛드랭이: 덩글랑이. 덩강. 덜렁.

1071) 쉬프리: 뽕파리.

1072) 즈들리완게: 걱정시키다.

1073) 둥견: 당겨서

1074) 아멩이라도: 아무렇게나

섭하다. 정수렴(中小殮) 허여줘도 섭섭하다. 이제 대수렴(大小殮) 헤여줘도 섭섭하다. 호상<sup>1075</sup>) 허연 문딱 입전 입관허여도 섭섭하다. 아이고, 이젠 또 그거 헤줘나난. 복 옷덜 문딱 이제랑 갈라 입지주겐, 복 옷덜 갈라 입저 줘도 섭섭하다. 이젠 성복제(成服祭)허여도 섭섭하다. 이젠 그거 헤나난 일포(日晡) 헤여줘도 섭섭하다. 동관(動棺)허연 산에 가명 소리들 내걸쳐 어양어양허멍 이제 소리허영 내영 가도 섭섭하다. 산에 간. 먹술 놓안, 땅을 판 그레 하관허여도 섭섭하다. 달귀지는 소리를 헤 봐도 섭섭하다. 모든 걸 허여도 섭섭허는 거라. 겐 테역단풍<sup>1076</sup>) 고사리 이불 뒤어도 섭섭하다. 산담 헤봐도 섭섭하다. 겐 집이 완 초우제(初虞祭), 이우제(再虞祭), 삼우(三虞) 졸곡(卒哭)??지 허여도 섭섭하다. 상식(常食)허여도 섭섭허고, 이젠 초허루 보름허여도 섭섭허고, 뭇 허여주민 나 무음이 풀어지코. 대소기(大小忌) 다 허여도 섭섭허고, 팔월 십오일 돌아와 가민 산에 금별 헤 주젠 별초 헤 줘도 섭섭허고. 다 넘으난. 석 들 열흘 백일 뉘난 담제(禫祭) 허여도 섭섭허고. 그 법으로 지금도 식계(祭祀) 멩질로부떠 사름 죽으민, 쪽 내려오는 것부떠 식계(祭祀) 멩질 허는 것까지 이게 강림이 큰각시가 내운 법. 하도 못살안 원이 지난. 경 허연 현디. 저승에서는 이제 염라왕이 적베지(赤牌紙) 주멍

“강림아, 이거 앓앙이. 인간에 강. 백난 하르방, 백난 할망으로부떠 차례차례 들앙오렌.”

허난. 강림스제가 똑바로 그걸 갖영 와불엇이민 지금도 우리가 차례차례 백난 하르방, 백난 할망으로 차례부떠 갈 걸. 앓안 오노렌 허난 일곱 까메귀가 강골강골 막 또꼬망에 좇안 덩기멍

“강림스제님아, 강림스제님, 걸영 강 올거민 우리 젓놀게<sup>1077</sup>) 붙여주민. 놀게<sup>1078</sup>)에 붙영 놀앙이나 강 오쿠덴.”

하도 허난.

“게문 너네 이거 붙여 주크메 놀앙 강 오라.”

허연 붙여 주난. 그거 젓놀게에 쿨언 오논디 물 잡는 빛이 잇어. 물 피나 혼 굴레씩 얻어먹영 가젠 간. 오독오독 담 우이간 앓으난, 물 잡던 도하닌<sup>1079</sup>)이 엔 현 피쟁인 물 발통을 끌언 흑 데끼난, 지네<sup>1080</sup>) 맞힘시카부덴<sup>1081</sup>) 퍼딱 누는 게, 좇쟁이<sup>1082</sup>)에 쿨엇던 건<sup>1083</sup>) 털어져분거아니. 게난 이젠 물 잡던 피쟁

1075) 호상: 수의(壽衣)

1076) 테역단풍: 단풍.

1077) 좃놀게: 앞날개.

1078) 놀게: 날개.

1079) 도하닌: 하인.

1080) 지네: 자기네.

1081) 맞힘시카부덴: 맞히는 줄 알고.

1082) 좃쟁이: 겨드랑이.

인 그걸 봉간 보난. 아이고, 사름 잡으레 가는 적베지라. 이거 무서운 거엔 칼을 박박 찢던 흑 데껴부난, 벳겻돌<sup>1084</sup>) 알로, 구렁인 데끼거니, 맞히거니 확 나완 움짱 들러먹으난. 까메권 인간에 가 보난 적베지가 엇연. 이제 물 잡는 밧딘 가보난 구렁이가 그걸 먹었어.

“나 적베지 드라. 나 적베지 드라.”

암만해도 구렁인 듣도 뵈도 아니헨 그걸 먹어불연. 구렁인 글 쓴걸 먹어부난 얼룩얼룩 허고. 이제 까메귀허고 구렁인 서로 보민 살부지<sup>1085</sup>) 원수라. 막 서로 그냥 까메귀가 까까까각 허연. 이제 그거 일러부난, 인간에 보난 열, 칠팔 세 난 청비발<sup>1086</sup>) 애기씨가 물 질레<sup>1087</sup>) 물허벅 지언 왓이난

“어른 갈 때 아이가라. 아이 갈 때 어른가라.”

까메귀들은 까악까각 울어가난

“헌저 글라, 저싱 가게.”

허난

“아이고, 우리 집이 강 뵈서. 백난 하르방도 있고, 백난 할망도 잇수다.”

허난

“헌저 강 보내라.”

허난. 강.

“할아버지, 저싱 갑서.”

“난 말다.”

“할망, 저싱 갑서.”

“난 말다. 저 살단 가키여.”

아무도 저승은 안 가켄 허는 거라. 게난 애기썬 앓안 삼동냥 용얼레기<sup>1088</sup>)로 머리 빗어 가가난. 일곱 까메권 상고박<sup>1089</sup>)더레 오란 혼정을 뵈 저승을 가분거 아니파. 겐 저승 가부난. 비는 촉촉허게 오고, 염라왕은 초군문이나 돌아보주긴<sup>1090</sup>) 허연. 초군문을 돌단보난 열 칠팔 세 난 애기씨가 열 손가락 눈에 덤연 비새 7찌 우는 거라.

“넌 누게가 되느넨?.”

허난

“난, 열 칠팔 세 난 애기씨로써 저승에, 인간서 명쫄란 왓수덴.”

---

1083) 쿨엇던 건: 품엇던 것은.

1084) 벳겻돌: 밖에 잇는 돌.

1085) 살부지: 살부지수(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말함.

1086) 청비발: 청비바리. ‘비바리’는 조금 성숙하나 아직 미혼인 여자를 상스럽게 일컫는 말.

1087) 물 질레: 물 길러.

1088) 삼동냥 용얼레기: 삼동나무로 만든 용 모양의 빗.

1089) 상고박더레:머리의 가운데 정수리 부분

1090) 돌아보주긴: 돌아봐야지.

허난. 이젠 강림이 불러단

“강림아, 나 저추룩<sup>1091</sup> 세파랑 헌<sup>1092</sup> 애기씨 들앙오렌<sup>1093</sup> 헤냐? 백 난, 하르방 할망 돌아오렌 헛주. 저추룩 세파랑 헌 애기씨 돌아오렌 헤냐?”

허난

“일곱 까메귀를 쫓습네다.”

까메귀 돌아오렌. 까메귀 와가난 그자 대번칙이<sup>1094</sup> 부에 난거라. 귀 심언 탁 치난, 귀도 오꼳 빠져불언. 까메귀 귀 엇어. 빠 부난. 귀도 오꼳 빠져불고. 송악낭 막데기로 그자 아랫저고리 세와난 하도 두드려부난, 갈아분 밧디 넘어 가젠 허민 앙글즈침<sup>1095</sup>. 메 두드려부난게, 종아리 두드려부난, 앙글즈침 허고. 멧독으로 까메귀는 꺼멍허고.

“너네 경혈 때 누게 봤느냐?”

허난

“똥수레기<sup>1096</sup>도 봤우다.”

“똥수레긴 어디 갔느냐? 심어 들어렌.”

똥수리도 오난

“너, 큰큰헌 몸천에 그거 훈디 인도 못헛느냐. 너 이놈이 새끼, 넌 돌르게<sup>1097</sup> 물도 못 빨아먹게.”

진진헌 주둥이<sup>1098</sup> 복허게<sup>1099</sup> 모지리멍

“널랑 물 먹구정허민 뺨도로록 뺨도로로로 비 청허영 터럭<sup>1100</sup>에 물이나 빨아먹엉<sup>1101</sup> 살아라.”

경 허연 법지법을 마련 허난. 일곱 까메귀도 반쳐스가 뉘영, 아침이 우는 까메귀는 어린아이 돌고 갈 까마귀, 낮이 우는 까마귀 젊은 사름 들앙 갈 까메귀, 저녁 때 우는 까메귀는 늙신네들<sup>1102</sup> 돌고<sup>1103</sup> 갈 까메귀. 또, 낭에 보면 높은 상가지(上枝)에 강 앓앙 올면 그 일가 방답<sup>1104</sup>에 상가지 즈순 돌고 갈 까메귀. 중가지 앓으민 중가지 즈순, 하가지 앓으민 하가지 즈순 돌고 갈 까마

1091) 저추룩: 저렇게.

1092) 세파랑 헌: 나이 어린의 뜻임.

1093) 들앙오렌: 데려오라고.

1094) 대번칙이: 단박에.

1095) 앙글즈침: 엉거주춤하다.

1096) 똥수레기: 술개.

1097) 돌르게: 구멍 따위를 둥그렇게 파낸 곳.

1098) 진진헌 주둥이: 긴 입.

1099) 복허게: 빠른 움직임으로 찢어 없애는 꼴이나 그럴 때 나는 소리를 흉내 낸 꼴.

1100) 터럭: 털.

1101) 빨아먹엉: 빨아먹고.

1102) 늙신네들: 늙은이들.

1103) 돌고: 데리고.

1104) 일가 방답: 일가 방상(같은 성씨로 이루어진).

귀. 서로 마주 보멍 까왓까왓 막 허민. 싸움혈 까마귀, 테 짓엉 막 텅기는 건  
부름 까마귀. 계난 까마권 하도 두드려부난 데가리가<sup>1105)</sup> 멍청허기 때문에, 먹  
을거 허영, 이젠 어디 초가집들 엇이난 허주만은, 초가지붕 우이 강. 팡 그디  
묻어 텡, 구름끼영, 구름 넘어가불민<sup>1106)</sup> 구름만 좇앙<sup>1107)</sup> 간 영똥헌디<sup>1108)</sup> 지  
붕 강 다 파불고, 경 허연 일곱 가마귀는 이제 또, 급허게 밤중에 우는 가마귀  
는 살인역적 날 가마귀엔 허영, 가마귀도 반 처스(差使)가 되는 법입네다. 다  
풀엇습네다.

---

1105) 데가리가: 머리가.

1106) 넘어가불민: 넘어가버리면.

1107) 좇앙: 찾아서.

1108) 영똥헌 디: 영똥한 곳에.

## 문전 본풀이

이번에는 들 적<sup>1109</sup>)에도 문전(門前), 날 적<sup>1110</sup>)에도 문전(門前), 우리가 들어올 때도 앞이 현관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도 현관으로 나가고, 계난 현관을 보고 옛날 어른들은 문전(門前)이라고 합니다. 현관이, 계난, 들 적 문전(門前) 날 적 문전(門前). 계난 문전본(門前本)인데.

옛날이라 옛적에, 남선고을은 남선비 생원(生員)이 살고, 여산국에 부인님이 살았으니, 부베간<sup>1111</sup>)을 삼안. 아이, 애기사 낳는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낳단 보난, 아들 놈만 일곱 개를 난 거라. 겐 나난, 애기덜 일곱 개 허고, 부베간 허곡 허른 아홉 식구 아니. 아홉 식구 먹영 살젠 허난 무시 거 있어. 가난허고, 서난허고<sup>1112</sup>), 가난공서<sup>1113</sup>) 헤노난. 이제 남선비 생원(生員)은 곡철곡셴<sup>1114</sup>) 거느령 남박<sup>1115</sup>)에 남신<sup>1116</sup>)을 팡 그걸 풀양 그날 그날 쫄 받아당 구명도식(求命圖食)을 헤영 살아가난,

하도 가난허고 허난, 남선비 생원(生員)이 생각을 허기를,

“여산국 부인님아, 경 말앙, 나가 제주도에서 나는 소산지(所產地) 제물을 실령 육지 강 그거 풀양<sup>1117</sup>) 쫄 받안, 계난 무곡(貿穀)이나 지어당 우리 식구들 살아가는게 어떻허우짜?”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협서.”

허난. 굴미굴산 노조방산 아야산<sup>1118</sup>)에 올란 곧은 냥을 비어단, 풍선을 지은 거라. 풍선, 초석 들안<sup>1119</sup>), 겐 풍선 지어 놓고, 제주서 나는 소산지(所產地) 제물은 뒤 산으로 가민 버섯이여, 초기여. 또 중산층으론 텅유지나 소유지 그런 거. 또 해각<sup>1120</sup>)으로 가민 저 소섬, 건미역 장광미역, 그 팡 엇인 거. 그런 것들 헤영 옛날 임금님안티 바쳐난 거난<sup>1121</sup>) 그런 걸 헤

---

1109) 들 적: 들어갈 적.

1110) 날 적: 나갈 적.

1111) 부베간: 부부간.

1112) 서난허고: 서럽고.

1113) 가난공서: 가난과 관련된 일.

1114) 곡철곡셴: 나무를 파거나 후비어 내는 연모로, 긴 자루가 달려 있으며, 날은 휘어져 있음.

1115) 남박: 나무로 만든 바가지

1116) 남신: 나무로 만든 신발.

1117) 풀양: 팔아서.

1118) 굴미굴산 노조방산 아야산: 아주 깊은 산을 뜻함.

1119) 들안: 달아서.

1120) 해각: 해촌.

영 전배독선<sup>1122</sup>) 잔뜩 실런 나가젠 허난, 여산국 부인 허는 말이,

“아이고, 생원(生員)님아, 경 허당 저 시퍼렁헌 바당을 건너가곡, 건너 오명 만약에 사름 일은 몰란, 당신네 안오민 이 노릇을 어떻게민 좋읍네 까? 어떻게영 소문 기별은 들읍네까?”

허난

“경 말양, 나가 나강 삼 년이 돼어도 아니 돌아오건 춤썰<sup>1123</sup>) 흔 제 허 영, 이제 사발에, 은사발에 이제 쓸 농곡 허영 허곡, 삼동낭 용얼레기<sup>1124</sup>) 를 그것에 묶영 경 허영 바당에 드리쳐 보민 내가 살앗이민 아무것도 아니 올라오고, 만약 죽엇이민 삼동낭 용얼레기에 나 머리턱<sup>1125</sup>)이라도 하나 올라와결랑 바당에서 죽엇구나 생각을 허렌.”

경 곶아된<sup>1126</sup>) 돛 돌아왔언<sup>1127</sup>) 벤 나간 거 아니. 겐 나간 우리 제주도 바당을 넘어사젠 허난, 이 바당 저 바당을 당허난 그자 모진 광풍이 앓아 당 불고 막 비브름<sup>1128</sup>) 치고, 하늘이 그자 남숫두쟁이<sup>1129</sup>)만이 데싸젓당 갈라젓당 헤가난 남선비 생원(生員)은 앓안,

“더 바랄딘 엇고 멩천(明天)ᄃ쁜 하늘님아, 요왕님아 선왕님아, 날 살려 줍서.”

경 험 축원허멍 허단 보난, 브름에 치데견<sup>1130</sup>) 성창머리<sup>1131</sup>) 붙인딘 보 난,

“여긴 어딘고?”

허영 강 보난, 오동나라 오동ᄃ울이라. 겐 그디 강 성창머리 내련, 벤 묶어두언. 이젠 베고프고 시장허난 주모 집이 간, 주모 할망신디 간, 밥, 옛날이난 국밥 정도 사 먹어왔언. 보난, 그 장시허는<sup>1132</sup>) 사람이 노일저데 귀일 딸이라.

게난, 그디서 그 베에 식경간 거 다 풀아사 쓸로 바짱 올건디, 이 날 저 날 행 살단보난 노일저데귀일 딸 호탕에 들언 전배독선 식거간 거 문딱

1121) 바찌난 거난: 바친 것이어서

1122) 전배독선: 한배 가득.

1123) 춤썰: 명주썰.

1124) 삼동낭 용얼레기: 상동나무로 만든 빗.

1125) 머리턱: 머리털. 머리카락.

1126) 곶아된: 그렇게 말해두고.

1127) 돌아왔언: 달고서.

1128) 비브름: 비바람.

1129) 남숫두쟁이: 나무로 만든 솔뚜껑.

1130) 치데견: 치올려서.

1131) 성창머리: 배를 매는 곳.

1132) 장시허는: 장사하는.

풀안. 그디 서 다 먹어분 거 아니. 계난, 이젠 갈 데 올 데도 엇고 허난, 노일저데귀일 뜯허고 부베간이 된 거라. 경 헨 부베간이 돼영 살아부난, 그거 폰<sup>1133</sup>) 돈은 문딱 두어 바둑 두어 장기 두멍허연 노일저데귀일 뜯 호탕에 빠지난 다 엇어져 불고, 먹을 거 엇이난 체죽<sup>1134</sup>)만 부루 썩 줘부 난, 그거 먹단 보난 오꽃<sup>1135</sup>) 안명천지(眼盲天地) 눈 어둑어분 거라. 겐 눈 어둑어부난

이젠 고향에선 아들들은 커가난,  
“어머님아, 우리 아버지 어디 갔우파?<sup>1136</sup>)”

허난.

“느네 아버지 느네들 먹영 살리젠이 무곡치레<sup>1137</sup>) 간 아니오랴저.”

허난.

“아버지 갈 때 무시거 글은<sup>1138</sup>) 말은 엇우파?”

허난.

“이만이만 허영 삼동냥 용얼레기 디물리와 보렌<sup>1139</sup>) 글아라.”

허난.

“느네들 경 말앙이, 초신<sup>1140</sup>)을 흔 사름이 하나씩 날 삼아 도라.”

허연. 이젠 초신을 하나씩 삼안 어머니 안네난, 으섯 벤<sup>1141</sup>) 등에 지고, 흔 베<sup>1142</sup>)는 밭에 신고, 겐 성창머리를, 밤인 웨민 촌 느룻<sup>1143</sup>)에 낮인 웨민 벳 맞이멍 이젠 춤썰 흔 제에 삼동냥 용얼레기 헤영 바당더레 데끼멍

“설운 낭군님아, 살앗건 흔저 오고, 죽엇건 머리턱이라도 하나 올라 읍 서.”

허연 데껴두언<sup>1144</sup>) 그 신발이 다 끊어지게 성창머릴 바라들고<sup>1145</sup>) 바라 나단 마지막 날은 건전보난 머리턱이랑마랑 아무 것도 엇인 거라. 엇이난 아고 살앗구나, 아들들 일곱 성제가

“어머니, 경 말앙. 어머니가 베를 우리가 짓어 노커메<sup>1146</sup>) 그 베 탕 흔

---

1133) 폰: 판.

1134) 체죽: 겨죽.

1135) 오꽃: 곧. 즉시.

1136) 갔우파?: 갔습니까?

1137) 무곡치레: 糶穀하러.

1138) 글은: 말한.

1139) 디물리와 보렌: 넣어 보라고.

1140) 초신: 짚신.

1141) 으섯 벤: 여섯 켤레는.

1142) 흔 베: 한 켤레는.

1143) 촌 느룻: 가을이나 겨울철, 맑고 바람 없는 밤이나 새벽 때에 춥게 느껴지는 찬 기운.

1144) 데껴두언: 던져두어서.

1145) 바라들고: 걸어 다니고.



번 강은에게 우리 아바질 좇앙 읍서.”

허난.

“경 허렌.”

허연. 겐 아들들 일곱 성제가 굴미굴산 노조방산 아야산 짚은 곳디 간  
곧은 낭 비어단 베를 짓으난 또 풍선을 지어논겨주. 경 헨 지영

“어머님아, 아바님 잘 좇앙 읍서.”

허난. 또 여산국 부인님도 베 탕 가젠 허난, 꼭 그 자리에 가난 이 바당  
광 저 바당에 가난 모진 광풍이 불언 막 데싸젓닥 갈라젓닥<sup>1147)</sup>

“아이고, 멩천(明天)ᄃ쁜 하늘님아, 날 살려 줍서. 요왕님아, 선왕님아,  
살려 줍센.”

허연. 벤 앓앙 성창더레 치데기난<sup>1148)</sup>, 이젠 닷줄은 메여두고 내런, 성창  
머릴,

“이디, 어디나 오라젓인고?”

허연. 성창머릴 바라난 가노렌 허난, 지장밭(黍田)디 새 드리는<sup>1149)</sup> 애기  
씨들이, 지네 놀레주게, 지네 놀레로<sup>1150)</sup> 부르멍

“아이고, 요 새 저 새, 밥주리<sup>1151)</sup> 옥은<sup>1152)</sup> 새야, 너미 경 옥은 척 허지  
말라. 요 남선비 옥은 간에도 아이, 못인<sup>1153)</sup> 그물에 들언, 노일저데 호탕  
에 빠전 전베독선 다 풀아먹언 체죽만 먹단 보난 안명천지(眼盲天地) 웨  
엿젠. 주어 저 새!”

허멍. 지장밭디 새 들을 드렸어<sup>1154)</sup>. 그걸 놀레로 부르멍. 게난 그뎌 여  
산국 부인님이 허는 말이, 턱허게 산

“야, 설운 애기덜아, 니네들 아까 곶은 말 다시 한번 곶아 보라.”

허난

“우리 아무거엔도 아니 곶앗우다<sup>1155)</sup>.”

허난

“금방 곶은 말 곶아보라. 나이 느네 뎡기 ᄃ슴<sup>1156)</sup> 주마.”

1146) 짓어 노커메: 지어 놓을 테니.

1147) 데싸젓닥 갈라젓닥: 뒤엎어지다가 바로 되고.

1148) 치데기난: 치올리니.

1149) 새 드리는: 새 쫓는.

1150) 놀레로: 노래로.

1151) 밥주리: 잡자리.

1152) 옥은: 역은.

1153) 못인: 묶은(結).

1154) 드렸어: 쫓고 있어.

1155) 곶앗우다: 말하였습니다.

1156) 뎡기 ᄃ슴: 뎡기를 만드는 천, 옷감.

허난. 곤는 건 보난 그 말이라. 안명천지(眼盲天地) 뉘엇젠 허난

“그디 가젠 허민 어디 가민 가느니?”

허난

“요 제 넘고 저 제 넘곡 행 강 뵈서. 비주리 초막<sup>1157</sup>)에서양 체죽단지<sup>1158</sup>) 읍뎡이<sup>1159</sup>)에 찬 개 다울리멍 앓앗우다.”

아닌게 아니라, 요 제 넘고 저 제 넘영 가단 보난, 거적문에 웨 돌체기<sup>1160</sup>) 하나 돌아 놓고. 아이고, 난간에 앓안 체죽단진 읍뎡이에 창 앓곡, 눈은 안명천지 뉘여부난 막뎡이<sup>1161</sup>) 들런, 그 개 왕 먹어불카부덴게<sup>1162</sup>), 체죽 먹어불카부덴 개 다울리멍<sup>1163</sup>) 앓아서. 겐 여산국 부인님이 들어사명

“아이고, 넘어가는 사름이우다만은, 저 집이나 흐꿈만<sup>1164</sup>) 빌립서.”

허난에

“아이고, 우리 집을 뵈서. 어느거 빌리곡데곡, 어느거 주인 앓고, 어느거 나그네 앓을디파?”

게난

“나도양, 고향 산천가든 집도 잇곡 절도 잇곡, 다 잇우다. 경 허주만은 이거 웨방 나와부난에, 경 허건양 저 슯이라도 흥번 빌립서. 나 밥이나 흥때, 베고판 밥 흥때만 행 먹영가쿠다.”

허난.

“그걸랑 경 험서.”

허난. 정제에<sup>1165</sup>) 간 슯두깁인<sup>1166</sup>) 을안 보난, 하도 체죽만 썩 먹어나난 체죽으로 그득은<sup>1167</sup>) 거라. 게난 앓뵈디 놀러들언 삼수세기<sup>1168</sup>) 허여단 박박허게, 슯을 이젠 흥불 두불 연시번 서너번을 막 뎡불<sup>1169</sup>) 썩어두언. 시양삭삭<sup>1170</sup>) 그은 썩, 즈둥이 진 그은 썩 초불 두불 연 시번을 썩언 슯디 놓안, 불낙시견<sup>1171</sup>) 밥 허연 반찬 즐리고 경 허연, 이젠 상에 들런 남선비

1157) 비주리 초막: 아주 작은 초막.

1158) 체죽 단지: 겨죽 단지.

1159) 읍뎡이: 옆구리

1160) 웨 돌체기: 외 돌찌귀.

1161) 막뎡이: 막대기.

1162) 먹어불카 부덴게: 먹어 버릴까봐.

1163) 다울리멍: 내쫓으면서.

1164) 흐꿈만: 조금만.

1165) 정제에: 부엌에.

1166) 슯두깁인: 솥뚜껑이.

1167) 그득은: 가득한.

1168) 삼수세기: 한삼 덩굴.

1169) 뎡불: 다섯 번.

1170) 시양삭삭: 몹시 흰.

신디 들렁 간 거라.

“주인님아, 주인님아, 이 밥이나 자셔 봅서.”

허난에

“아이고, 나는 아이 먹쿠다.”

“아이고, 문전 므른 공서가 잇이명 주인 므른 나그네가 잇입네까. 게도 주인이 먹어봐사 나그네도 먹을 거 아니짜.”

허난.

“경 험서.”

허연. 혼 순고락을 폭허게 떼, 거련<sup>1172)</sup> 입더레 노난, 아이고, 눈물은 다 룩다룩 알더레 털어전 막 밥 입에 물어둬서<sup>1173)</sup> 운거라. 계난 여산국 부인 님 허는 말이,

“주인님아, 어떻 허난 경 울었우까?”

“아이고, 나도양 옛날엔 이런 밥도 먹어나고양 이런 반찬도 먹어났우다.”

울명도, 경 곶으난,

“계건 옛말이나 곶아봅서<sup>1174)</sup>.”

“아이, 옛말 모름네다.”

“본말이나 곶아봅서.”

“본말도 모름네다.”

“계건, 살아 온 말이나 곶아봅서.”

허난. 영 곤는 거 보난, 난 남선고을 남선비고양, 우리 안부인은 여산국 부인이고 고향 산천서 애긴 낳는게 아들 일곱 성제 나부난, 먹을 거 엇영 무곡(貿穀)지레 오랏단 노일저데귀일이 뜰 호탕에 빠지언 나 신세가 영 뒤엇우다. “

허난. 그땐 여산국 부인님이 놀러들언 손을 폭허게 심언 돌이가 막 우는 거라.

“나가 여선국이우다. 나, 당신님 좃안 물 넘으명 산 넘으명 이깁지<sup>1175)</sup> 오랏우다.”

젠 막 우노렌 허난, 노일저데귀일이 뜰은 이녁은<sup>1176)</sup> 흐루 간, 때 삼시

---

1171) 불낙시건: 불을 놓아서.

1172) 거련: 거려서.

1173) 물어둬서: 입에 문 채로.

1174) 곶아봅서: 말해보세요.

1175) 이깁지: 여기까지.

1176) 이녁은: 자기는.

어디 큰일 허는 집이 간 뽕그렉이<sup>1177)</sup> 얻어먹고, 남선비 나신<sup>1178)</sup> 네무련<sup>1179)</sup> 그 체 혼쭈 빌언 치멧각<sup>1180)</sup>에 놓안 흥글흥글 허멍 집이 오는 거주게. 겐 오단 보난 물론 여자허고 손들 심영 막 울명덜 손 심영 앓은 거아니. 들어오멍

“이, 개 ㄱ든 놈아, 쉼 ㄱ든 놈아, 질레에<sup>1181)</sup> 넘어가는 질칸나이 년덜<sup>1182)</sup> 심어 놓아 히약가십<sup>1183)</sup> 뒤일러나. 날랑 더운 땀 흘리멍 너놈 먹을 거 강 빌레 땡기당보건 너놈은 집이 앓앙 허는 것이.”

막 욱을 허는 거라. 게난 남선비 허는 말이,

“아이고, 경 현게 아니고, 나 고향산천에서 큰부인이 나 좇앙 오랏젠.”

허난. 아이고, 그땐 엇인 언강<sup>1184)</sup>에

“아이고, 경 헛수까. 성님아, 성님이우짜? 성님인 거 나 몰란양 나 잘못 헤젓우다게.”

허멍 막 엇인 영강 헨. 이젠 막 헤뉘.

“아시야, 이런 남편 모성 살젠 허난 고생 헤엇저. 고생 하영 헤엇저. 저 정지에 간 보라. 나 밥 헤여뉘 거렁 남은 거 잇이메<sup>1185)</sup> 그거 밥 먹으라.”

간 보난, 헤영헌<sup>1186)</sup> 밥 행 앓이난,

‘아이고, 고향에선 영 잘사는 사름이로구나.’

밥은 먹으멍 벌써 음흥헌 ㅁ음이 난거라.

‘저 년을 죽여붙어사 나가 고향에 강 안구들<sup>1187)</sup>도 나 츠지허고, 고향간도 나 츠지 헤사 영 헤영헌 밥을 먹을로구나.’

허연. 이젠 밥 뽕그렉이 먹어 앓언 완

“아이고, 성님아, 읍서 이디양, 이 고을에 막 좋은 주천강 연혜뭇이 잇우다. 그디 강 우리 몸모욕<sup>1188)</sup>이나 행 오게마썸.”

---

1177) 뽕그렉이: 배가 불룩하게.

1178) 나신: 뭇은.

1179) 네무련: 함부로 대해서.

1180) 치멧각: 치맛자락.

1181) 질레에: 길에.

1182) 질칸나이 년덜: 길 넘어가는 여자들.

1183) 히약가십: 농(弄)을 걸어서 놀리는

1184) 언강: 아양.

1185) 잇이메: 있으니.

1186) 헤영헌: 하얀.

1187) 안구들: 안방.

1188) 몸 모욕: 몸 목욕.

허난,

“성님도 오젠 허난 쫘물<sup>1189)</sup> 몸드레 지쳐실거, 나도 오늘 강 일 허젠 허난양 막 더운 땀 흘려나난 강 우리 모욕행 오게마씀.”

허난,

“경 허렌.”

허연. 몸모욕허렌 간 옷들은 벗언 즈근즈근 돌 우터레<sup>1190)</sup> 지쳐된, 물은 참방참방 모욕 허노렌 허난 노일저데귀일이 딸이 왕

“성님, 영 험서. 등에 때나 밀어 안네저.”

허난,

“아시, 영허심 나가 밀어 주커라.”

허난

“아이고, 성님아, 우이로 내리는 물이 발등더레 진납께게<sup>1191)</sup> 알더레 누리곡<sup>1192)</sup>, 게난, 나가 먼저 성님 등을 밀어 안네걸랑<sup>1193)</sup> 성님이랑 날 밀어 줘서.”

허난. 폭 고정 들언

“아시, 경 허심.”

허연 돌아 앓은 게 흔 번 두 번 미는체 허당<sup>1194)</sup> 세 번쩨 자락허게 밀리 명 물더레 빠져분거라 그냥. 게난, 여선국 부인은 올라오젠 영 광들 짚어 가민 떼여불고, 올라오젠 헤가민 떼여불고 험게 물에서 히단히단 지치난 죽으명

“너 이년아, 너년은 날 죽염다만은 우리 애기덜 일곱 성제 잇이난 너년 그냥 내불지 안힐 것이다.”

경 곶아된<sup>1195)</sup> 물더레 소로록 곶라앗아<sup>1196)</sup> 분거라. 겐 곶라앗아 부난, 이젠, 지 옷은 내불어된 아이고, 여선국 부인 강 벗어 놓은 옷 문딱 즈근 즈근 입영 집으로 흥글흥글 오난 확 거짓말을 험거주.

“아이고, 노일저데귀일이 딸양, 험실이 궤썸허영 나 죽여뵤 오랏수 다.”

---

1189) 쫘물: 짚물.

1190) 우터레: 위로

1191) 진납께게: 떨어집니다.

1192) 누리곡: 내리고.

1193) 안네걸랑: 안내면.

1194) 미는 체 허당: 미는 척 하다가.

1195) 곶아 됴: 말해두고.

1196) 곶라앗아: 가라앉아.

원, 남선빈 목소리도 몰라시카 원.

“그년 잘 죽였어. 나 그년으로 허연이<sup>1197)</sup> 나 신세가 다 동나고 나 빙신<sup>1198)</sup> 뉘영 눈<sup>1198)</sup> 어둑어서.”

“아이고, 글읍서<sup>1199)</sup>. 흔저 우리 집이 가게. 우리 아들덜 기다리는 집이 가게.”

경 헨 여산국 부인님 탕 간 메여 놔둔 베 잇이난,

그거 탄. 이제 고향 산천더레 오는 거 아니. 계난 아덜덜 일곱 성제는 메날<sup>1200)</sup> 뱃머리에 상 이 날이나 우리 아버지가 오랏인가, 저 날이나 오랏인가, 메날 기다리단 아, 흥를 날은 먼 바당더레 바레난, 가마귀 좃늘게 만씩<sup>1201)</sup> 가뭇가뭇 헌 게 무시겨 봐져. 켄 지네들 일곱 성제들 손그뭇<sup>1202)</sup> 들영 짓은 베<sup>1203)</sup>난 탁 알앗주게. 경 허연 증금증금 그 베가 오는 건 보난 지네가 짓은 베라. 막둥이, 일곱차 녹디생이 곤는 말이

“형님네야, 아버지 어머님, 오는데 흔 번 드리<sup>1204)</sup>나 놓아보게마썸.”

허난.

“경 허렌.”

허연. 쥬 큰 아덜은 갓을 벗언 드릴 놓고,

“난, 갓 벗영 드리 놓으키여.”

둘췌 성은 망긴 벗언 드릴 놓고, 세췌 성은 두루막 벗언 드릴 놓고, 넷차는 저고리 벗언 드리 놓고, 다섯차는 이제 행경 벗어 드리 놓고, 으섯차는 다님 벗어 드리 놓고, 아, 일곱차 허는 말은,

“성님네들은 드릴 잘 놓았우다만은, 이네 몸은 칼선드리<sup>1205)</sup>웨다.”

허난, 형님네 허는 말은 깜짝 놀레언

“아이고, 나 동싱아, 어떻허난 아버지 어머님 오는데 칼선드리가 무시겄고? 아시야.”

허난

“형님네야, 저디 오는 거, 나 생각인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적실 현<sup>1206)</sup>저 답수다만은, 어머님은 우리 어머님이 아닌 것 답수다.”

---

1197) 허연이: 인해서.

1198) 빙신 꺾지: 병신까지.

1199) 글읍서: 갑시다.

1200) 메날: 매일.

1201) 좃늘게 만씩: 결날개 만큼.

1202) 손그뭇: 손금.

1203) 들영 짓은 베: 들어서 지은 베.

1204) 드리: 다리(橋).

1205) 칼선드리: 심방이 신칼 두개를 세워놓고 다리(橋)모양으로, 칼날 두 개가 모두 위로 향해 놓인 것.

“결 어떻 알아지느니?”

허난,

“오걸랑 집을 먼저 좃앙 갑센<sup>1207</sup> 헨 앞이 세왕 보고 , 집이 강 우리 밥 출령 내놓는 거 보민 알아질 도리가 이실거아니파.”

“어서 경 허렌.”

허연. 이젠 벳조판<sup>1208</sup>을 놓안 느리는 건 보난, 아방 어명이 내려가난, 이젠 아방이영 안앙들<sup>1209</sup> 울고불고 막 허명 아들덜 곤는 말이

“어머님아, 어떻허난 어머님은 그전 얼굴이 엇수파?”

“아이고, 말도 말고 일르도 말라. 가명 하도 멀미 헤놓고 오명 하도 멀미 헤놓고 허난, 나이, 정신도 하나도 엇고, 나 얼굴이 엇다.”

허난.

“경 허우파. 계건<sup>1210</sup> 어머님이랑 앞이 상<sup>1211</sup>, 어머니 이제도록 아바지 만남 스실<sup>1212</sup> 애길 다 곴아실<sup>1213</sup> 거난에 앞이 상 글읍서. 우리랑 아바지 손 심영 가명 만단정혜(萬端情懷)나 곴으명 가쿠다.”

허난,

“경 허렌.”

허연. 앞이 사난, 말덴<sup>1214</sup>은 못허고, 집은 몰르고 눈치만 보명 이 골목 드레도 주왱주왱 들어가져 저 골목드레도 주왱주왱 들어가져, 이젠 제우 제우<sup>1215</sup> 집 좃앙 간, 이젠 밥은 허젠 허난 고팡에 강 곤썰 향이카부텐 을 앙보민 보리썰 향, 보리썰 향이카부텐 을앙보민 즽썰, 즽썰 향이카부텐 을 아보민 피썰, 피썰이카부텐 을앙보민 곤썰, 막 그냥 선후도착이 쉼 거라. 겐디 제우 좃안 밥은 허연, 상은 출령 내 놓는 건 보난, 아방 받던 상은 죽은아덜, 죽은아덜 받던 건 큰아덜, 큰아덜 받던 건 말췌아덜, 말췌아덜 받던 건 셋아덜, 막 그냥 거꾸로 느다<sup>1216</sup>, 밥상을 출려 논 걸 보난, 손가락이영 왔다리 갖다리 현거라. 계난, 아덜덜 일곱 성제는 벌써 이걸로 봐도 눈칠 이제 알안, 우리 어명이 아니로구나 현 걸 알안.

1206) 적실현: 틀림없이 확실하다.

1207) 좃앙 갑센: 찾아 가십서.

1208) 벳조판: 배에서 보조로 사용하는 판

1209) 안앙 들어: 안아서 .

1210) 계건: 그러면.

1211) 상: 사서.

1212) 스실: 사실.

1213) 곴아실: 말했을.

1214) 말덴: 싫다고

1215) 제우제우: 겨우겨우.

1216) 거꾸로 느다: 거꾸로 또는 바른 모양을 뜻함.

흐름은 비는 축축하게 오난, 일곱 성제가 친구 벗네 집이 초신 삼는다 놀레<sup>1217</sup>) 가 분거라. 겐 놀레 가부난, 노일저데귀일이 딸도 ㄱ만히<sup>1218</sup>) 지만<sup>1219</sup>) 구들에 낫단 생각을 허난, 아이, 나가 잘못허당 나가 요것들 손에 꼭 나가 죽어짐직을 허난, 나가 먼저 피를 썩 요것들을 죽여불주젠헨. ㄱ만히 누웠단 생각을 허난

“아이고, 베여. 아이고, 베여.”

허멍. 베 아팡 죽어지켄 그냥 구들 니 구석<sup>1220</sup>)을 다 뒥구는 거라. 겐, 하도 등글어가난, 남선빈 이제 베끼디<sup>1221</sup>) 텅기단 제우<sup>1222</sup>) 좇아얏언 집드레 들어 산, 아이고, 부인님아, 어디가 아팡 영 허엿어? “

허난,

“베 아팡 죽어지쿠다게.”

허난,

“에, 나 썰어나주저.”

허난,

“아이고, 썰어오고 무시거고, 이거고 저거고 다 설러 뒥 요 제 넘고, 저 제 넘영 강 보면, 삼도전 시커리<sup>1223</sup>)에 멩텅이<sup>1224</sup>) 쓴 점쟁이<sup>1225</sup>)가 잇우다. 그디 강 점이나 헤여 뺑 읍서. 무신 동티산디, 어디 걸려사신디사 혼저 강 읍센.”

허난. 남선빈 각시 곤는 양<sup>1226</sup>) 올레로 몽텅이<sup>1227</sup>) 짚으고 허연 두들락 두들락 허연 좇안 삼도전 시커리 가는 동안에, 영 창고망으로 보난, 남선비 올레드레<sup>1228</sup>) 나가부난 화다닥허게 나완 헛간에 간, 이제 멩텅이 앗아내언, 울담질<sup>1229</sup>) 허영 이 담 넘고, 저 담 넘언 허연 삼도전 시커리에 간 앗은 거 아니. 앗앗단에 남선비 가가난

“아이고, 문점이나 지왕 갑서.”

허난,

---

1217) 놀레: 놀러.

1218) ㄱ만히: 가만히.

1219) 지만: 자기만.

1220) 구들 니 구석: 방 네(四) 구석.

1221) 베끼디: 밖에.

1222) 제우: 겨우.

1223) 시커리: 세거릿길.

1224) 멩텅이: 망태기.

1225) 점쟁이: 점쟁이. 점을 치는 사람의 제주어

1226) 곤는 양: 말하는 대로.

1227) 몽텅이: 몽둥이.

1228) 올레드레: 올레에.

1229) 울담질: 울타리를 넘어 다니다.



“아이고, 경 해도 나 점허레 앓우다. 우리 집 안부인양, 거령청허게<sup>1230</sup> 잇단 베가 아팠 둥글없우다<sup>1231</sup>. 게난 영 짚어 봅서.”

허난, 갑자 을축 혈 충도<sup>1232</sup> 몰랑 갑자 을축 병정 몰축 허멍 이젠 거꾸로 느다 허는 체 허당,

“아들 일곱 성제 납디가?”

허난,

“예. 낱앗우다.”

허난,

“영 곶으민 나신디 육혈 말이우다만은 양, 이 애기덜 일곱 성제 애 내 영 먹어사 부인 병 좋구다.”

허난,

“양! 그거 무신 소리짜?”

허난,

“갑서.”

허멍. 보내분 거라. 올레로 돌아 앓안 어들락 터들락 헌디 몽텅이 짚영 오노렌 허난, 어느 동안 담 튀영<sup>1233</sup> 올담질 허영 완, 헛간에 완 멩텅이 들러 데껴된 구들에 누윙 창 고망으로 영~ 올레드레 보난, 올레로 남선비가 몽텅이 짚영 앓어. 그뎨 또,

“아이고, 베여. 아이고, 베여.”

허멍. 막 베아팠 죽어가는 체 헌 거 아니. 완,

“무시거옌 곶읍디가게? 제게 곶읍서.”

허난,

“아 가난이, 아덜덜 애<sup>1234</sup> 내영<sup>1235</sup> 먹으렌 “

“아따가라, 그 놈이 점쟁이 미친놈이 점쟁이 아니짜? 나 속으로 난 애 길 어떻 앨(肝) 내영 먹읍네까?”

허난에,

“아이고, 다시 혼 번만 강 읍서. 다신예, 요 제 넘고 저 제 넘고 강 보민 니커리<sup>1236</sup>에 양 푸는체<sup>1237</sup> 쓴 점쟁이가 잇우다. 그디 강, 혼저 강 읍

---

1230) 거령청허게: 난데없이.

1231) 둥글없우다: 텅굴고 있습니다.

1232) 혈 충도: 할 줄도.

1233) 담 튀영: 담 튀어서.

1234) 애: 간(肝).

1235) 내영: 내어서.

1236) 니커리: 사거리.

서.”

허난, 또 이젠 돌아가는 동안에, 푸는체 헛간에 강 앓아내영 울담 튀영 은에게, 울담질 허영 셋질<sup>1238</sup>)로 간, 니커리에 앓앗단, 또 가난, 또 아들 일곱 성제 애를 내영 먹으렐 곤는 거라. 켜 남선비 돌아오는 동안에 지는 또 담념영 왕 그거 헛간더레 데껴두영 구들에 누윙 문 고망으로 뵙,

“아이고, 베여. 아이고, 베여. 가난 무시거옌 헛디가?”

허난,

“그디도 가난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영 먹으렐.”

“아이고, 그냥 일은 아니우다. 흐 번만 더 가뵙양, 삼판<sup>1239</sup>)에 시 번<sup>1240</sup>)으로, 시 번에, 세 밧디 강 흐말에<sup>1241</sup>) 지영<sup>1242</sup>) 흐 수 엇이 나양 아들덜 엘(肝) 내어 줍서. 나가 먹영양 나가, 나 안네쿠다.”

이제 가난, 아닌게 아니라, 또 지가 간 경 곶안<sup>1243</sup>) 집으로 들어온 거 아니.

“나양 흐 베에 두 개씩 네 번만 나민 벨리(別利) 채왕<sup>1244</sup>) 으덱 성제, 벨리 채와근에게 으덱 성젤 안네쿠덴<sup>1245</sup>).”

남선빈, 장도칼 앓아 내언 벧남석<sup>1246</sup>)에 간, 칼을 슬금슬금, 슬그랑 슬그랑 시릉 시릉허멍 허노렐 허난, 동네에 청토산이 할망은 불망굴<sup>1247</sup>)이나 잇이민 빌어당 식은 밥에 물즙이<sup>1248</sup>)라도 데왕 먹어보카 허연에 오단 보난, 남선비가 칼을 내뵙 갈았어.

“남선비 생완(生員), 무신거 허젠 칼 곶았수가<sup>1249</sup>)?”

허난,

“아이고, 우리 집이 안부인 아판양, 막 죽게 뵤언 세 밧디<sup>1250</sup>) 간, 점 허난양, 저 아들들 일곱 성제 애(肝) 내영 먹어사 신병 조켄 허난, 애(肝) 내젠<sup>1251</sup>) 장도칼을 갈암십주.”

---

1237) 푸는체: 키..

1238) 셋질: 지름길.

1239) 삼 판: 세번째의 .

1240) 시 번: 세 번.

1241) 흐말에: 한말에.

1242) 지영: 저서.

1243) 경 곶안: 그렇게 말해서.

1244) 채왕: 채워서.

1245) 안네쿠덴: 안내겠습니다.

1246) 벧남석: 양지바른 곳.

1247) 불망굴: 불 붙고 있는 나무가 아주 타서 숯불과 같이 별갈게 된 것.

1248) 물즙이: 밥을 물이나 국에 만 것.

1249) 곶았수가: 갈고 있습니다.

1250) 세 밧디: 세 곳을.

허난, 아이고, 그땐 할망이 불망굴 빌레<sup>1252</sup>) 오랏단 다 데껴뿔 이 아덜  
덜 어디 가신고 좃단 보난, 아들들은 아무 분시<sup>1253</sup>) 몰르게 강 막 웃음벨  
탁<sup>1254</sup>)들 허멍 친구 벗덜이영 초신덜 삼으멍 노는 거라.

“게난, 아이고, 야이들아, 너네들 어느 염치(廉恥)로 웃을 생각이 났이  
니? 흔저 니네 집이 강 보라. 느네이, 죽은어명이 아판 다 죽어간, 점인가  
어딘가 허난에 느네들 애 내영 먹어사 병 존덴 허난, 느네 아방, 느네 애  
(肝) 내젠 칼 곶았어라<sup>1255</sup>).”

허난, 그땐 삼형제가 비세(悲鳥)곶이 울멍덜 올레에 왕 산 거라. 샷단,  
죽은 아시, 막둥이가, 녹디생이가 근는 말이,

“성님네야, 이디 사십서. 내가 들어강 무신 핑계를 헤여도 칼을 빼영  
오쿠다.”

죽은 게 들어가멍,

“아바지, 무신 거 헤엿수파<sup>1256</sup>)?”

“아이고, 니네 어멍 아판 죽을 스경(死境)이 뉘난, 점허난 느네들 애  
(肝) 내영 멕이렌<sup>1257</sup>) 헤영 애 내젠 칼 곶았저.”

“아바지, 춤 잘 했우다. 즈식은 또 죽어불민, 나민 즈식이고, 어멍은 죽  
어불민 또시 얻기 전인 어멍이 엇수게. 겐디, 아바지, 생각헤영 봅서. 우  
리 애(肝) 내는 건 좋수다만은, 아바지 즈식, 아바지가 우리 애(肝) 내젠  
허른 아들 하나에 흔 번씩만 가슴 아파도 일곱 번을 가슴 아프고, 애(肝)  
내어놓앙 우리 그냥 내불지 못허영 어디강 흑이라도 흔 곶체<sup>1258</sup>) 뒤영<sup>1259</sup>)  
문젠 허민, 아바지 어둑운 눈에 몸도 불편헌디, 이제 아바지 못 건디꼭 험  
니다. 그 칼을 날 줍서. 나가 앓앙 강양, 형님네랑 나가 애(肝) 내영 오크  
메, 나 하나만 아바지 손으로 애 내민 가슴도 흔 번만 아프고 흑도 흔 곶  
체만 뒤으민 아바지 편안헿 좋을거 아니파.”

허난, 아, 그 말도 들언 보난 맞아 뉘난,

“경 허렌.”

칼을 준 거라. 에이그, 게난 그 칼 앓안 일곱 성제가 올레에 간 만난 비

1251) 애 내젠: 간 꺼내려고.

1252) 빌레: 빌러.

1253) 분시: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이나 슬기. 분수.

1254) 웃음벨탁: 유쾌하게 깔깔 지껄이며 즐김.

1255) 곶았어라: 말하고 있더라.

1256) 헤엿수파: 하고 있습니까.

1257) 멕이렌: 먹이라고.

1258) 곶체: 삼태기.

1259) 뒤영: 덮어서.

세(悲鳥)같이 울멍 어디레 가민 조코. 막 가는게 굴미굴산 노조방산 에야  
산을 막 올라산 거라. 산더레 그자 막 올라 간, 산에 간 미여지 뱅뒤<sup>1260</sup>  
시난, 막 울멍

“설운 어머님아, 어머님은 어디 가고, 이거 어떻게 일이웬?”

우노렌 허단, 무정 눈에 즘이 소로록허게 온 거 아니. 일곱 성제가 누웠  
자는디 어머님이 꿈에 시꾸완<sup>1261</sup>

“아이고, 설운 애기덜아, 어디 완 누웠 잠디 흔저 일어들나렌.”

허연. 시꾸완 와들랭이<sup>1262</sup> 일어난 보난 꿈이라. 아이고, 이거 피라곡절  
(必有曲折) 허다. 어머님이 시꾸완 우리<sup>7</sup>라 일어나렌 허연, 경 허연 영  
앗앗이난, 산노리<sup>1263</sup> 하나가 툃락툃락 튀멍 느려 오는 거라. 이제 그 노  
리를 심영 죽영 앓앙 가젠 죽이젠 허난

“아이고, 난 산신대왕 산신백관인디, 날랑 살령 보내고 나 조롬<sup>1264</sup>에  
곧 산툃<sup>1265</sup> 일곱 므리가 오랏이메, 에미랑 씨전중(-傳種)으로 놓아 두고  
새끼 으섯이랑 애(肝)내영 갑서.”

허난,

“너, 거짓말 아니냐?”

허난,

“아이, 정말이우다.”

“거짓말이민 너 심영 죽여볼켄.”

허연. 저고리 앞섭<sup>1266</sup> 박허게 브령 춤 불랑<sup>1267</sup> 똥고망에 탁허게 부쳐  
서. 겐 그 법으로 노리꽁지<sup>1268</sup>는 히는 법이우덴 허영 칫영 부찌부난<sup>1269</sup>,  
히는 법이고. 겐 아난게 아니라 노린 보내딩<sup>1270</sup> 잇이난, 산툃 일곱 므리  
가 내려오는 거 아니. 겐 에미는 씨전중(-傳種)으로 보내어 두고, 새끼 으  
섯은 가죽 벳겨 놓고 허연 잡안, 질로 죽은<sup>1271</sup> 죽은 멥게냥<sup>1272</sup> 잇이난,  
이렁이렁 솟불 피와 놓고, 꿩기들은 일곱 성제가 모여앗안, 익엇이나 흔

1260) 미여지 뱅뒤: 아무 거침없이 탁 트인 널따란 별판.

1261) 시꾸완: 꿈에 나타나서.

1262) 와들랭이: 급히 별떡 일어나는 모양.

1263) 산노리: 산노루.

1264) 조롬: 꿈무니.

1265) 산툃: 산돼지.

1266) 앞 섭: 옷의 앞자락.

1267) 춤 불랑: 춤 발라서

1268) 노리꽁지: 노루꽁지.

1269) 칫영 부찌부난: 찢어서 붙여버려서.

1270) 보내딩: 보내놓고.

1271) 저절로 죽은

1272) 멥게냥: 청미래덩굴.

점, 설엇이나 흰 점, 구워가명 맛봐가명 먹는 게 다 먹어붙고, 애(肝) 으섯  
개만 남은 거라. 애(肝) 으섯 개 들런 집으로 내려오단, 이제 막둥이 곤는  
말이,

“성님네야, 성네랑 좌우 팔방에 다 벌어지영 잇입서. 나만 들어가커메.  
나가 들어강 어떻 큰 소리가 나건, 돌맹이 들은 이, 막데기 들은 이, 활  
들은 이, 창 들은 이, 그때랑 와르르 놀려 듭서.”

이젠 해된. 이녁 혼자만 들어간

“어머님, 성님들 애 내영 오랏우다.”

“아이고, 경 헛이나.”

경 허명 구들에 간 보난, 누웠이난에<sup>1273</sup>), 머리말에 강 앓은 거주게. 앓  
으난

“아이고, 중병 든 사름은이 약 먹는디 아니 본다. 나가 불라.”

허난, 베끼디레 나오명 손고락<sup>1274</sup>)에 춤 불란 창고망을 딸좌된<sup>1275</sup>), 영  
나완 베끼디 나완 창고망으로 영 곱안 보난에, 사름 애(肝)엔 허난에 겁난  
생이라. 입술에 콧바위에만 불긋불긋헌 거 묻혀뵈 그자 자리 알더레 솔솔  
다 물어 놓는 거라. 게난, 경 물어뵈.

“아이고, 하나만 더 먹엇이민 가슴에 몽클락헌 거<sup>1276</sup>) 문짝<sup>1277</sup>) 느려가  
키여게.”

허명 헤가난, 게난, 녹두생이가 문을 확 올안 들어간

“어머니, 경 허민양, 나 이제 죽을 거난, 마주막<sup>1278</sup>)으로 영 험서. 어머  
님 머리에 니<sup>1279</sup>)나 이 흥번만 잡아뵈 나 죽으쿠다.”

“아이고, 중병 든 사름이, 머리에 니 아니 잡나.”

“어머니, 경 허민 영 험서. 어머님 눅는 자리나 흥번만 나가 싹허게 청  
소헤뵈근에게<sup>1280</sup>) 죽으쿠다. 닭아근에 죽으쿠다.”

허난,

“중병 든 사름 눅는 자리 아니 치운다.”

그뻐 그냥 부에가 풋죽 곶이 난<sup>1281</sup>) 거라. 허운데기<sup>1282</sup>) 심언 밧자리더

1273) 누웠 이난에: 누워 있으니.

1274) 손고락: 손가락.

1275) 딸좌된: 뚫어두고.

1276) 몽클락한 거: 물렁하고 듭직한 것.

1277) 문짝: 하나도 남김없이.

1278) 마주막: 마지막.

1279) 니: 이(蠶).

1280) 청소헤 뵈근에게: 청소해 두고서.

1281) 부에가 풋죽 곶이: 팔죽이 끓듯 몹시 화가 난.

레<sup>1283</sup>) 둘러메영 탁 쳐똥 자리 확하게 견영 보난, 애 으섯 개 잇인 거 아  
니. 흔 착 손에 세 개씩 들런 지봉상상<sup>1284</sup>) 조치므루<sup>1285</sup>) 올라산,

“이 동네에 다심어멍<sup>1286</sup>) 허영 사는 애기덜, 다심애기<sup>1287</sup>) 들양 사는 애  
기덜 우리 보양 정다십센<sup>1288</sup>). 성님네 살앗 건 몸천<sup>1289</sup>)으로 놀려들고<sup>1290</sup>),  
죽엇 걸랑 혼정(魂情)으로 놀려듭센.”

와르르 허게시리<sup>1291</sup>) 돌멩이 들은 이, 막멩이 들은 이, 창 들은 이, 활  
들은 이, 놀려들언 보난, 아바지도 엇고 노일저데귀일도 엇인 거라. 좃단  
보난, 노일저텐 그냥 살떠레<sup>1292</sup>) 부뜨젠<sup>1293</sup>) 구들에게, 백장(壁穢), 그 작박  
골은<sup>1294</sup>) 손콍으로 백장(壁穢) 허우뜰언<sup>1295</sup>) 나가난 벤소백이<sup>1296</sup>) 엇인 거  
라. 게난 더 들을 디<sup>1297</sup>) 엇이난 칙간<sup>1298</sup>)에 간 쉬은대자(五十五尺) 머리로  
목 메언 지렁이<sup>1299</sup>) 죽영 잇엇고, 아바진 좃단 보난, 아바진 큰 소리들 나  
가난 올레드레 들으민 살아지카부텐 올레드레 가단 정살<sup>1300</sup>)에 간, 발 걸  
런 넘어진 게 그냥 그디서, 올레서 죽은 거라. 게난, 이제 이 포마실<sup>1301</sup>),  
어뎡허연 우리가 푸지건히<sup>1302</sup>) 포마시 허린.

이젠, 벳 듯듯 난<sup>1303</sup>) 디레 노일저데귀일이 뜰 끓어다 난. 머리는 박박  
끓어단 저 바당더레 앓앙 데껴부난 저 멘산<sup>1304</sup>)이여 툴이여 감테여 문딱  
마련을 허고, 눈은 들라단<sup>1305</sup>) 천리통 망안경으로 설립을 허고, 귀는 끓어  
단 이제, 무신 무전기여 전화기여 설련허고<sup>1306</sup>), 코는 들라단 침통으로 멘

1282) 허운데기: 머리카락을 낮추어 부르는 말.

1283) 밧자리 더레: 방의 바깥 목에.

1284) 지봉상상: 지붕 위.

1285) 조치므루: 상마루 맨 위 꼭대기.

1286) 다심어멍: 의붓어머니.

1287) 다심애기: 의붓자식.

1288) 정 다십센: 정 다스리라고.

1289) 몸천: 몸 형체.

1290) 놀려들고: 날라들고.

1291) 허게시리: 하계꿈.

1292) 살 떠레: 살 방편으로.

1293) 부뜨젠: 붙으려고.

1294) 작박 골은: 주걱 같은.

1295) 허우뜰언: 굽어뜰어.

1296) 벤소백이: 번소밖에.

1297) 들을 디: 달릴 곳.

1298) 칙간: 변소.

1299) 지렁이: 길게 늘어져서 있는 모양

1300) 정살: 정낭.

1301) 포마실: 원한 갚음을.

1302) 푸지건히: 통쾌하게.

1303) 벳 듯듯 난: 별 따듯하게 난.

1304) 멘산: 해초의 일종.

1305) 들라단: 도려내어서.

들고, 입은 들뢰단 마이크 멘들고, 니빨은 빠단 바당에 대우살, 대우살도 마련허고, 손은 끊어단 글쟁이<sup>1307</sup>)로 쓰고, 발은 끊어단 곰베<sup>1308</sup>)로 쓰고, 젖은 들뢰단 가지쟁이<sup>1309</sup>)도 쓰고, 바당에 가른 해삼으로도 씻텐 허고, 베또롱<sup>1310</sup>)은 들뢰단 보말, 수두리 보말인가 경 해연 보말로 마련허고, 베는 들뢰단 물이슬, 요즘 말론 해파리, 그거 마련허고, 이제 똥꼬망은 들뢰단 물문주리로 설런 허영, 강 몰랑 아기덜 갓당 가운데 꼭 녹돌민<sup>1311</sup>) 물 짝허게 글겨붙고 경 허영 물문주리<sup>1312</sup>) 허고, 이젠 배설은 끊어단 쉼앗베<sup>1313</sup>)도 설런헛텐 허고, 손톱 발톱은 빠단 굼뵈<sup>1314</sup>), 바당에 가민, 굼뵈도 설런허고, 이젠 남선비 좋아하던 어느 세계 물건은 끊어단 저 바당에 데껴부난 대전복이여 소전복이여 이제 마련허고, 허단 남은 건 굴묵냥 방에 에 뉘 독독허게 뭇안<sup>1315</sup>) 폭풍브름 불러부난 모기 극다기 몸이 뵈젠 허고, 이제 이년은 포마시 이만 허난, 아멩 우리 어멍을 좇아봐사 뵈켤. 이젠 지네 짓어 논 베 잇이난, 아방도 탕 가고 헌 베 잇이난, 그 베 탄.

“멩천(明天)ㄴ쁜 하늘님아, 우리 어머님 좇젠 헛이메<sup>1316</sup>), 이 바당을, 우리 어머님신디레 우리를 인도를 헤 줍서.”

허난.

“지도를 헤 줍서.”

겐 가는 건 보난, 오동나라 오동ㄴ을 간 부찐 거라. 겐 내령, 그냥 이레 저레 땡기멍 “어머니, 어디잇우까? 어머님, 혼정(魂情) 잇건 우리들 눈에 펜식<sup>1317</sup>)허영 아무겔로나 나타납센.”

중얼중얼 허멍 막 헛인디, 주천강 연훼뭇딜 넘어갈 때엔 아무것도 엇어 신디 넘어올 땐 보난 연꽃이 핀 거라. 야, 이거 피라곡절(必有曲折)허덴, 이젠 그 물을 푸당 봐도<sup>1318</sup>) 갑돌고, 푸당 봐도 갑돌고 물이 붓뜨질<sup>1319</sup>) 못허는 거라. 게난 녹디생이가,

1306) 설런허고: 마련허고.

1307) 글쟁이: 갈퀴.

1308) 곰베: 곰방메.

1309) 가지쟁이: 개지. 늦그릇의 뚜껑.

1310) 베또롱: 배꼽.

1311) 녹돌민: 누르면.

1312) 물문주리: 말미잘.

1313) 쉼앗베: 마소에 집을 실을 적에 동여매는 조금 굼직하고 기다란 참 바.

1314) 굼뵈(뵈): 딱지 조개의 일종.

1315) 뭇안: 찢어서.

1316) 좇젠 헛이메: 찾으려고 하니까.

1317) 펜식: 헛 것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다.

1318) 푸당 봐도: 퍼 봐도.

1319) 붓뜨질: 줄어들지

“맹천(明天)ㄹ든 하늘님아, 이 물이나 붓뜨게 시겨 줘센.”

헨 축원헤 된. 송악낭 막데기로 연시번 착착 후리난, 물이 ㄹ짜허게<sup>1320</sup> 짜. 아이고, 보난, 어머니은 물 아레서 죽언 슬은 다 시내방천에 흘러블고, ㅼ만 슬그랑허게<sup>1321</sup> 남은 거 아니. 경 허난, 서천꽃밭디 녹디생이가 놀려들언, 피 오를 꽃, 슬 오를 꽃, 말 ㄹ를 꽃, 오장육부 생길 꽃, 사름 생길 꽃, 문딱<sup>1322</sup> 꽃을 똑똑허게 꺾어부난, 서천꽃밭디 강 놀려들영, 그것도 천천히 꺾엇이민 혈걸. 제기 지네 어멍만 살릴 예산허영<sup>1323</sup> 막 덩기멍 와닥와닥 꺾어부난 꽃끼리 부닥친 거라. 게난, 서천꽃밭디 화강(火光)이 중천헛구나<sup>1324</sup>. 만약, 새 집 짓영 강 문전본 풀 때엔, 성주풀이 갈 때는 서천꽃밭디 이젠 서로 막 부딪쳐부난 화강이 중천허연 서천꽃밭디 불이여영 허고, 경 안헌 디는 그냥 혈 때는 본풀이를 그냥 허는디, 경 허영 꽃을 꺾언 ㄹ. 이제 츠레츠레대로 어머니신디 놓안.

“어머니아, 이 때는 어머니 때리는 때가 아니고, 어머니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안테 불효자식 매 놓았우덴.”

연시 번을 후리난, 와들렝이 일어나멍,

“아이고, 봄 즈이난 너무 자지엇저.”

허멍 와들렝이 일어난 거라. 이젠 어머니을 돌아앗언 고향으로 온 거 아니.

“어머니, 흐저 그릅서. 게나저나 물 아레 누원 고생 하영 헛우덴.”

젠 돌안 완. 어머니는 물쏘곱에<sup>1325</sup> 살아나부난, 조왕할망으로 앓안, 옛날엔 게나제나 불 숲안게 물 흐직 데우젠<sup>1326</sup> 헤도 불 숲양 데웁곡, 모든 걸 흐루 세 번 밥헛도 불 숲양만 허고 허난에, 흐루 삼시 번 불화식 허걸랑 ㄹㄹ허게<sup>1327</sup> 앓양 불도 초곡 조왕할망으로 들어 앓읍서. “

허연 헤된. 이제랑 법지법이나 마련헤보젠,

“아바진 올레서 죽어부난 올레지기<sup>1328</sup> 정살주목(柱木) 네룽지기<sup>1329</sup>로

1320) ㄹ짜허게: 물기나 습기가 잦아 없어진 꼴.

1321) 슬그랑허게: 몸 형체가 없고 ㅼ만 남아 있는 상태.

1322) 문딱: 전부. 모두.

1323) 예산허영: 생각해서.

1324) 화강(火光)이 중천 헛구나: 서천꽃밭의 꽃들을 꺾는 과정에서 꽃들이 서로 마주쳐 닿거나 부딪치는 모양을 불이 난 것으로 표현.

1325) 물 쏘곱에: 물 속에.

1326) 데우젠: 데우려고.

1327) ㄹㄹ허게: 따뜻하게.

1328) 올레지기: 올레를 지키는.

1329) 정살주목 네룽지기: ‘올레’ 어귀에 ‘정살’을 뚫어 걸치도록 구멍을 파 세워 놓은 주목(柱木)과 정살의 신.



직협서.”

허고, 계난 그 집이 식구들이 문딱 이 집 안넬<sup>1330)</sup> 츠지행<sup>1331)</sup> 잇인 거라. 어머니랑 조왕할망<sup>1332)</sup>으로 앓읍서 허고, 노일저데귀일이 딸은 벤소<sup>1333)</sup>에서 죽어부난 벤소지기로 앓앙, 계난, 벤소허고 조왕은 두 씨앗<sup>1334)</sup>이라부난, 조왕엇거 벤소에 못가고, 벤소엇거 조왕에 못오고, 예를 들영 조왕엇거 벤소 간거는 경, 저, 벤소엇거 예를들어 조왕에 온거는 경 뭐안헌디, 조왕엇거 들렁 벤소에 가민 급헌 동티(動土) 불러주영, 노일저데귀일이 딸이 시알허영<sup>1335)</sup> 경 허영 사름 죽는 법.

이젠 큰아들은 어덜로 가쿠젠 허난, 젤 큰아들은 동이 청대장군, 두 번째 아들은 서이 백대장군, 세 번째 아들은 남이 적대장군, 네 번째는 북이 흑대장군, 아, 저, 제일 큰아덜은 상성주(上成造), 두 번째는 중성주(中成造), 세 번째는 하성주(下成造), 네 번째는 동이 청대장군, 다섯 번째는 서이 백대장군, 으섯 째는 남이 적대장군, 계난 아들 하나만 더 잇엇이민, 동서남북을 막고 트고 헌 거를 안헐 거주게. 안헐 건디 죽은아들 그레 앓으렌<sup>1336)</sup> 허난 죽은

“난, 마우다<sup>1337)</sup>. 난 일문전 하르방으로 들어앓으쿠다.”

허연. 헤부난<sup>1338)</sup>, 아들 하나가 엇어부난, 예를들어 올리는 이거 정유년 이난 동이 막고, 새헐 돼민 꺼꿀로<sup>1339)</sup> 도는 거라. 새헐 돼민 북이 막아. 그 삼형제가 안 앓은 디는 막는 거. 이제 또 새헐 나민 서가 막고, 경 허명 츠지 안헌 딘 막는 거고, 츠지 헌 딘 아니 막는 거고, 경 허난 헤우년<sup>1340)</sup>도 꺼꿀로 거, 삼살방(-煞方)은 꺼꿀로 도는 법이고, 그 법으로, 옛날, 지금이야 집이서 떡 안헐주 만은<sup>1341)</sup> 옛날엔 석 덜 그믐날엔 정월 초하루 멩질 허젠 허믈 떡을 치주게. 겐, 정지<sup>1342)</sup>에서 시리떡<sup>1343)</sup>을 치민, 그 시리가 오골렉이<sup>1344)</sup> 잘 익으면 일 년 열두 달 집안이 편안허고, 시리

1330) 집 안넬: 집 안에를.

1331) 츠지행: 차지해서.

1332) 조왕할망: 부역의 신.

1333) 벤소: 변소.

1334) 씨앗: 시앗. 남편의 처 또는 첩.

1335) 시알허영: 시샘해서.

1336) 앓으렌: 앓으라고

1337) 마우다: 싫습니다.

1338) 헤부난: 해버려서.

1339) 꺼꿀로: 거꾸로.

1340) 헤우년: 그 해만이 가진 자연이 주는 환경이나 특성을 일컫는 말.

1341) 안헐주 만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1342) 정지: 부역.

1343) 시리떡: 침떡.

떡을 치어도 잘 안치나 어떻허민 집안이 흐뭇 즈든덴<sup>1345)</sup> 허고, 시리 치어  
근에게 탁 얹어 놓앙,

그 말 안 곱아쫓구나<sup>1346)</sup>. 그 어떻 들앙을 때에 어떻 누워난 자리를, 어  
떻 어떻 누워난 자리를 내불리엔 그 어떻 누워난 자리를 막 뒤지단보난,  
그릇이 동골락허게<sup>1347)</sup> 뉘난, 얹어놓안 으섯 성제(兄弟)가 문딱 주먹으로  
박아불어신디 일곱 번쩍 완 보난, 박을 데가 엇어 쥘 가운디 팡허게시  
리<sup>1348)</sup> 박으난, 시리고망 일곱 개를 마련 허난, 그 시루고망 일곱 개 현  
것에서, 떡을 치민 녹디생이가 쥘 가운딧 걸<sup>1349)</sup> 박아부난, 쥘 가운딧 걸  
칼로나 무시 걸로<sup>1350)</sup> 영 순고락이라도 영 딸랑 지붕상상 즈치므루 문전  
(門前) 우이로 허영 데껴근에게<sup>1351)</sup> 허고, 경 허는 법, 문전본(門前本) 다  
풀엇습니다.

---

1344) 오골랙이: 고스란히.

1345) 즈든덴: 걱정한다고.

1346) 곱아쫓구나: 말해주었구나.

1347) 동골락허게: 동그랗게.

1348) 팡허게시리: 팡하게끔

1349) 가운딧 걸: 가운데 것을.

1350) 무시걸로: 무엇으로.

1351) 데껴근에게: 던져서.

## 세경본풀이

이번에는 세경본입니다.

먹은 이도 세경의 덕, 입은 이도 세경의 덕. 이게 무슨 뜻이고 허민. 우리가 먹는 것도 다 쌀로 해서 밥을 헤먹기 때문. 세경 땅에 농사를 지어서 먹었기 때문, 먹은 이도 세경이 덕. 입은 이도 세경이 덕이엔 현건. 이웃 같은 것덜, 뭐해서 다니는 것도, 다 땅에서 만들고 허기때문에 세경이 덕. 농사짓는 것도 세경의 덕. 우리가 살아서도 세경 땅에 살고, 집 짓영사는 것도 세경 땅에 집을 짓고, 걸음 밭 허는 것도 세경 땅에 난 텅기고, 살당살당 죽어도, 뭐 묻엇던 화장을 헛던, 땅더레 강은에 허는 거난, 세경이 덕. 게난, 세경은 반대를 못허는 게 세경이고.

옛날은 옛적에, 원진국 대감님과 즈지국 부인님이 살앗인디. 부베간이 춤 잘 살아도 애기가 엇어. 애기가 엇이난, 절간 법당에 간 수록을 드련. 애긴 낳는 건 보난, 딸을 난 거 아니. 겐 이 딸을 금인가, 은인가. 상다락, 중다락, 하다락에 키우고. 불민<sup>1352)</sup> 놀아나불카<sup>1353)</sup>, 췌민<sup>1354)</sup> 까질건가<sup>1355)</sup>. 막 금인가, 은인가 허연 키우는다.

이 딸이 흔 설, 두 설 열다섯 십오 세가 돼여가난. 이제 글공부도 허고, 활공부도 허고 하강거<sup>1356)</sup> 다 허는다.

흔를 낳은 늦은덕정하님 거느리고 허연. 주천강 연훼못덜 연세답<sup>1357)</sup>을 갖주. 겐 연세답을 간. 연세답을 와랑자랑 허노렌 허난. 췌<sup>3</sup>뜨든 도련님이 넘어가는 거라. 게난 확 일어산 보난 손으로 물을 확확 거련 먹없이난. 즈 청비가 먼저 믈음<sup>1358)</sup>에 잇이난 간거 주게. 옷통더레 간.

“아이고, 도련님아, 도련님은 어디레 가는 도련님이 뵈네까?”

허난.

“난 거무선생안티 글 공부 값우다.”

허난

“아이고, 겐디 먼 길을 가는 분이 손으로 경 물을 먹으민 속 몰라가는

---

1352) 불민: 불면.

1353) 놀아나불카: 날아버릴까.

1354) 췌민: 쥐면.

1355) 까질건가: 깨질건가.

1356) 하강거: 이것저것.

1357) 연세답: 빨래.

1358) 믈음: 마음.

냥 목이 물르고<sup>1359</sup>), 경 허영 안 됩네다.”

경 허명. 이제 그릇에 물을 확 떠. 수양청버드냥 씹<sup>1360</sup>을 확허게<sup>1361</sup> 훌턴<sup>1362</sup> 사발드레 놓안 안넌거라. 게난 문도령은 허는 말이,

“이거 물에 티가 잇이민 티를 주어뵈 주는게 정 사실이거늘. 어째서 물에 티를 놓아서 줍니까?”

허난

“아이고, 먼 길 행허는 것 같아서, 급허게, 제기<sup>1363</sup> 먹으면 물에 언친<sup>1364</sup> 건 약도 엇인 법이난. 물에 경 풀잎사릴 놔사<sup>1365</sup> 닛굽<sup>1366</sup>으로, 그 풀잎사릴 안 먹젠 허민 닛굽으로 슬슬 불어사 물에 체허질<sup>1367</sup> 안허는 법 입네다.”

허는 거라.

“아, 그렇습네까.”

헨 가젠 헤가난

“아이고, 도련님아, 저양. 우리집이도 간 보민 양. 나영 혼 텃줄<sup>1368</sup>에 난 쌍둥이 오랍동싱<sup>1369</sup>이 잇인디. 거무선생안티 공부허레 가젠 헤도 친글 엇영 못 값우다. 경 허난. 우리 오랍동싱 혼디<sup>1370</sup> 들양<sup>1371</sup> 강 공부허는게 어땡허파?”

허난

“경 허건. 경 험서.”

허연. 허던 연세답 물 잘잘 나는 거 문딱<sup>1372</sup> 설런<sup>1373</sup> 이젠 집으로 들어간 거아니.

“아바님아, 어머님아, 나 거무선생안티 글공부 가쿠다.”

허난

---

1359) 물르고: 마르고.

1360) 씹: 앞.

1361) 확허게: 재빠르게 움직이는 꼴.

1362) 훌턴: 훑어서.

1363) 제기: 빨리.

1364) 언친: 체한.

1365) 놔사: 놔야.

1366) 닛굽: 잇몸

1367) 체허질: 체하지.

1368) 텃줄: 텃줄.

1369) 오랍동싱: 오라비, 동생

1370) 혼디: 함께.

1371) 들양: 데리고.

1372) 문딱: 모두. 전부.

1373) 설런: 하던 일을 끝내려고 정리해서.

“어따, 춤 지집년<sup>1374</sup>이 남도 낫저. 무슨 글공부 말이고.”

허난

“아이, 경 해도. 집안에 무신 일이 나민 누게 빌영 축지방을 쓰명 험네  
까. 글공부를 해야 돼쿠다.”

허난

“경 허민 강 오렌.”

허난. 이젠 여복 방에 놀러들언<sup>1375</sup> 여자 옷을 다 벗어두언, 남복 방에  
놀러들언 남자 옷 다 입언. 오랍동생이엔 거짓말 헤부난, 이젠 남자로 출  
련. 겐 남자로 출려앗언, 이젠 올레에 간 허난에 문도령은

“아까 들어간 애기씨광 얼굴이 똑 곱으텐<sup>1376</sup>.”

허난

“흔 아방 생기고, 흔 어멍 난 형제간이 딱날 수가<sup>1377</sup> 잇수가.”

허연. 이젠 거무선생안티 간 게. 밤이 녹젠 허난<sup>1378</sup>

‘아이고, 이저 남자 여자가 밤이 누웁 즘질에라도 알민 이 노릇을 어떻  
허민 좋고.’

막 탄복을 헨 거라. 경 허단 밤이 이젠 즘 자젠 허든

“문도령님아,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 허렌<sup>1379</sup> 아니 험데가?”

허난

“아무 말도 안 험데다.”

허난

“우리 어머니양, 밤에 즘 잘 때에 은대양에 물을 땡, 은하시(젓가락)를  
가운데 걸청 그걸 가운데 놓양 즘을 자사, 그걸 안 떨어지민 글이고 활이  
고 다 잘 쏘양 가고, 그걸 떨어치우민 낙방을 헨덴 험디다.”

계난

“우리 어머니, 안 곱읍데다<sup>1380</sup>. 게걸랑<sup>1381</sup> 우리 경 허영 잡주.”

허연.

은대양 물 땡 하시<sup>1382</sup> 착 두 개 걸치난. 문도령은 그것에 속아노난 하

---

1374) 지집년이: 계집년이.  
1375) 놀러들언: 덤벼들어서.  
1376) 곱으텐: 같다고.  
1377) 딱날 수가: 다를 수가.  
1378) 녹젠 허난: 누우려고 하니.  
1379) 어떻 허렌: 어떻게 하라고.  
1380) 안 곱읍데다: 말하지 않았다.  
1381) 게걸랑: 그렇다면.  
1382) 하시: 젓가락.

시 착만 털어지카부덴, 보실락, 이레 보실락 저레 보실락 허단 보난. 밤세  
냥<sup>1383</sup>) 즈을 못자고, 즈청빈 지가 거짓말 허연 곶아진 거난, 털어지고 씨  
곡<sup>1384</sup>) 막 몸질허명 자단 보난. 이젠 즈 푸지게<sup>1385</sup>) 잔 거주게. 경 허명 글  
공분 허난. 즈청비는 거무선생 곤는 양 잘허고, 문도령은 앓양 막 꾸딱꾸  
딱, 밤이 즈 못자부난. 즐단보민<sup>1386</sup>) 글도 못허고 활도 못허는 거라. 경 허  
난 이젠 즈청비가 허는 말이 우리 경 말양 양. 우리 시합이나 헤봄주.

“어떤 시합을 험네까?”

허난. 아, 거무 선생이,

‘분명히 즈청비 허는 건 보면 여자가 닳은디 저렇게 남자 행동을 헌덴  
말이여.’

계난

“너네덜 경 말양. 아침이랑 삼베중이<sup>1387</sup>)를 입영. 아침이 동더레 해 떠  
올 때랑 그레 걸음을 걸어보렌.”

‘아이고, 이놈이 노릇은 어땡허믄 좋고.’

이젠 어디 간 뭇똥<sup>1388</sup>) 봉가단<sup>1389</sup>) 썰로 묶언 이제 양 다리더레 묶어 앓  
언. 경 허연 이젠 어글락 어글락 걸어 가 가난. 이젠 남자 행착 헌 거 아  
니. 거무 선생이 경 허민 그것에도 속아 넘고. 경 허민

“너네덜 둘이가 씨름이나 헤보렌.”

계난 씨름은 헤보젠 허난. 어느동안 정지<sup>1390</sup>)에 간에 춤지름<sup>1391</sup>) 헨 귀레  
레 블라 놓안. 문도령은 혼 번 두루 메영치민, 즈청빈 두 세 번이나 와자  
착 와자착 두러메영<sup>1392</sup>) 쳐불고<sup>1393</sup>), 겐 씨름헤도 저.

이젠

“오즘 곶길락<sup>1394</sup>)이나 헤보젠.”

헨. 오즘 곶길락허젠 허난 문도령은 솟붕이라부난<sup>1395</sup>), 그냥 곶기고, 즈  
청빈 왕대 죽대 열두 므작<sup>1396</sup>) 헤단 알드레 받천 곶기난, 열두 방축을 곶

1383) 밤세냥: 밤세도록.

1384) 털어지고 씨곡: 떨어지든지 말든지

1385) 푸지게: 충분히.

1386) 즐단보민: 즐다보면.

1387) 삼베중이: 삼베로 만든 바지

1388) 뭇똥: 말똥.

1389) 봉가단: 주워서.

1390) 정지: 부엌.

1391) 춤지름: 참기름.

1392) 두러메영: 둘러메어서.

1393) 쳐불고: 내치고.

1394) 곶길락: 어린아이들이 하는 내기로, 오즘 따위를 멀리 싸기 내기.

1395) 솟붕이라부난: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라서.

긴 거라.

오줌 골길락이도 지고, 씨름허기도 지고, 글공부도 지고, 모든 것이 다 진거라. 경 허난 문도령은 공부할 취미가 엇어져분거라, 모든 것이 다 지어가난. 계난 흐를은 잇이난, 옥황에서 편지 서신 오기를. 아버지 어머니 이 편지 서신 보낸 거주.

“문도령아, 혼자 오랑 서수왕에 장계 가라.”

허연 편지가 탁 허게시리 세수허노렌 허난, 은대양에 털어지난. 이젠 즈청비신더레 편지 뵈우멍

“이거 봅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날 7라 혼자 왕 장계가렌, 서수왕에 장계가렌 허연 편지 오랏수다.”

허난 즈청빈 가슴이 덜컥 헌거라. 이녀은 문도령을 짝사랑허영 끝이 왓인디 이제 문도령만 가불민 어떻허리. 경 허연 이젠

“아이고, 기짜.”

허여된. 지도 확 들어간 먹으로 박박허게 확 써네.

“아이고, 문도령님아, 이거 봅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나신디 제계 왕 장계 가렌 허연 편지 오랏수다. 겐 우리 올 때도 혼자 오랏이메<sup>1397)</sup> 갈 때도 혼자 가당 헤어지는게 어떻 허우짜?”

허난

“경 험서.”

허연. 이젠 거무 선생 하직허연. 이젠 장계들 가켄허연. 딱 즈청비네 올레 오난. 저, 즈청비네 올레가 아니고, 오단. 몸 모욕<sup>1398)</sup>이나 이제랑 헤영 헤어지겐, 이제 연삼 년 동안 때영 헛이난에, 몸 모욕 허영 헤어지겐 허연. 주천강 연훼못디 허난 문도령 신디레

“모든 걸 나신디 저부난<sup>1399)</sup> 알통에서 험서. 나는 문도령안티 모든 걸 이것이난 옷통에서 모욕을 허쿠다.”

허연

“경 허렌.”

허연. 문도령은 진짜로 몸을 멘들랙이<sup>1400)</sup> 벗영 모욕을 평당평당 허고, 즈청빈 옷 안벗언 벨착벨착 손발만 씻은 거주게. 겐 손발만 발착발착 씻

1396) 무작: 마디(節)

1397) 오랏이메: 왔으니까.

1398) 몸 모욕: 몸 목욕.

1399) 저부난: 저버렸으니.

1400) 멘들랙이: 옷을 다 벗어 버린 꼴.

어가난 이젠

‘아이고, 이디서 헤어지민 이제 다시 언제사 만날런지.’

생각을 허난. 수양버드낭 이파릴 확허게 꿩영 그디 글 삼제(三字)를 쓴 거라.

‘이 멍청한 문도령아, 연삼 년 동안 혼디 살아도 남녀 간에 구별 모른 문도령아.’

경 허연. 이젠 그걸 띠우난, 막 몸 모욕허단 보난에, 무시거 수양버드낭 이 동글동글 떠 와. 그거에 보난 글 삼제(三字)가 딱 베겨진 거라. 경 허난

‘아이고, 이거 나가 속아지엇구나.’

웃을 제게 입영 가살건디, 즈청빈 그냥 집더레 도망가불고, 문도령은 마음은 급허지, 웃은 입젠 허난. 바지에 다리 하나씩 드물려야 헐 건디, 그냥 바지가달 하나에 다리 두개가 들어간. 이레도 팡 얹어지고, 저레도 팡 얹어지고. 제우제우<sup>1401)</sup> 이젠 막 와려지민<sup>1402)</sup> 허고

‘게메<sup>1403)</sup> 내가 꼭 여잔 줄 알앗인디, 남자에 행동을 하니까 나도 착각 허연<sup>1404)</sup> 남자로 속안 이제 지금까지 살아젓구나.’

허연. 경 허연 올레에 간. 그냥 집더레 들어가카부덴, 즈청비는 별써 알 안에 올레에 간 산 거주게. 게난 놀려들언 즈청빌 막 안아가난 즈청비 허는 말이

“영 허지 말앙. 나가 들어강. 아버지, 어머니신디 강 허락을 말앙 오쿠다.”

허난

“경 허렌.”

허연

이젠 허락을 말으레<sup>1405)</sup> 가는디 들어간에.

“아바님아, 어머님아, 나, 간에 글공부허연 연삼 년 살안 오랏수다.”

허난

“엇다, 나 딸 애기 착실허다. 느<sup>1406)</sup> 방으로 들어가라.”

허난에

---

1401) 제우제우: 겨우겨우.

1402) 와려지민: 급하게 서두르긴.

1403) 게메: 그러게 말이야.

1404) 착각허연: 착각해서.

1405) 말으레: 말으러.

1406) 느: 네.



“아니, 경 험게 아니고. 나영 같이 간 글공부허던 친구가 잇인디 해는 서산열락(西山日落) 지어지고, 질에 질병나고, 밭에 밭병 난 갈 수가 잇이 난, 나영 혼디영 오늘밤이랑 누웠단 가는게 어떻허파?”

허난에

“남즈가, 여자가?”

허난에

“아이고, 남자 자식을 어떻 들양옵네까<sup>1407)</sup>. 여자우다.”

허난

“열다섯 십오 세 안네걸랑<sup>1408)</sup> 느 방으로 돌양가고, 열다섯 십오 세가 넘엇건 이제 어떻 방으로 보내라.”

허난

“열다섯 십오 세 아래우다.”

허연. 이젠 올레더레 여자 옷 앓안 간. 올레 간, 남자 옷 다 벗겨뒀. 이젠 여자 옷 입져 놓안. 손 심영 이녁 방더레<sup>1409)</sup> 들양 간 거라. 들양 가난 그때부터 열두 스랑을 다 풀리고, 즈청비 귀한 즈식이난, 상다락여 중다락이여 얼그럭 덜그럭. 이제 뭐 비단클이여 막 부제칩<sup>1410)</sup>이 잇이난, 그런 것들 막 허고 험거 아니. 겐 그날 밤이 지세연 허는디, 올라가젠 허난에

“아이고, 문도령님아, 가쁜 이제 어떻험니겐. 게난 본메본짱<sup>1411)</sup>이나 내 여취뒀 감서.”

허난. 이젠 도실씨 흔 방울을 내어준 거라. 도실씨 흔 방울 내어주멍

“이거 창 무똥<sup>1412)</sup>에 싱경. 이거 순이 나고, 잎이 돋고, 남이 뒹영<sup>1413)</sup>이 도실꽃<sup>1414)</sup>을 피영 열매가 올안<sup>1415)</sup>, 타 떡없이민 나가 강 오켄.”

“게민 경 험셴.”

허연. 이젠 옥황더레 문도령은 올라가불고, 그날부터 도실씨 이젠 창 무똥에 싱건. 것이 순이 나고, 잎이 돋고, 겐 남이 뒹고, 꽃이 피언에. 도실이 올안, 결 탄 먹어도 문도령은 소식이 엇인 거 아니. 아이, 그계 환장을 현 거라. 즈청빈 막 이날이나 올건가, 저날이나 올건가. 막 그냥 엇인 신

1407) 들양옵네까: 데려옵니까.

1408) 안네걸랑: 안이거든.

1409) 이녁 방더레: 자기 방으로.

1410) 부제칩: 부잣집.

1411) 본메본짱: 증거가 될 만한 사물.

1412) 무똥: 드나드는 문이 있는 출입구나 그쪽의 가장자리 주변.

1413) 남이 뒹영: 나무가 되어서.

1414) 도실꽃: 복숭아꽃.

1415) 올안: 열어서.

경질이 나고 막 허연 허노렌 허난. 흥번은 질레에 나간 보난. 놈이 집이 장남덜은 물몰이<sup>1416</sup> 쉼몰이<sup>1417</sup>에 막 진달래여, 아지랭이 꽃이여 꺾언, 산천(山川)에 간 물믄쉬(馬들牛) 맥여앗영 어리렁아 떠리렁아 내려오는 거라. 겐 그 꽃 하나만 드렌허난

“상전님네 집이도 정이엇인 정수넴이, 밥도 아홉 동이 국도 아홉 동이 먹영 경 즈만 자게 말앙, 강, 믄쉬 강 먹임도 허고 꺾어오렌 험서.”

허난

“아이고, 맞덴.”

허연. 이젠 집이 완에

“야, 정수넴이야, 경 즈만 자지 말앙. 강 저 놈이 집 고추룩<sup>1418</sup> 강 아지랭이꽃이여 진달래꽃도 강 꺾영 오고 경 허렌.”

허난. 그때엔 이제 진달래꽃도 꺾으고 아지랭이 꽃도 꺾으고 행 오켄 허연. 물 아홉 쉼 아홉 꽃영 나간 거아니. 겐 나간 동더레 벌은 낭 하나에 물 아홉 묶으고, 서더레 벌은 가지에 쉼 아홉 묶으고. 계동. 진<sup>1419</sup>, 미어진 뱅디<sup>1420</sup>에 누원 동더레 돌아누원 흥즘<sup>1421</sup>, 서더레 돌아누원 흥즘 자단 보난, 물 아홉 쉼 아홉은 물도 먹고정 허고, 애가 킁킁 믄르난<sup>1422</sup> 다 죽은 거라. 일어난 보난 아이고, 이젠 이결 어떻 허린. 작박 ㄱ뜬<sup>1423</sup> 손콥으로 그 물 아홉, 쉼 아홉 문딱 벳건<sup>1424</sup>. 이젠 멩게낭<sup>1425</sup> 솟불 피완. 익어시냐 흥 점, 설어시냐 흥 점 허멍. 다리 쫙끄랭이<sup>1426</sup> 앓앙. 그결 문딱 물 아홉, 쉼 아홉 먹언. 이젠 가죽 머리만 등에 진거라. 가죽만 낀 등에 지언.

‘아이고, 이제 집이 가민 상전님안티 무시거엔 곶앙 이 욱을 들으리.’

헨. 거 지언 오노렌 허난 올리수에 보난, 올리<sup>1427</sup> 한 쌍이 툃락툃락 튀 없어. 허난

‘아이고, 저거 맞형 가민 우리 상전님 좋아헐거난에 저거나 맞형 가

---

1416) 물몰이: 말몰이.

1417) 쉼몰이: 소몰이.

1418) 고추룩: 처럼.

1419) 진: 자기는.

1420) 뱅디: 넓은 벌.

1421) 흥즘: 한잠.

1422) 킁킁 믄르난: 몹시 마르니.

1423) 작박 ㄱ뜬: 주걱 같은.

1424) 문딱 벳건: 전부 벗겨서.

1425) 멩게낭: 청미래덩굴.

1426) 쫙끄랭이: 아주 편한 자세로 거칠 것 없이 두발을 쭉 편 모습.

1427) 올리: 겨울에 날아드는 철새인 오리 따위를 모두 일컫는 말.

주.’

헨. 이제 황기도끼 내난, 이레 황 저레 황황허연 걸로 탁허게 물더레 맞 허난, 올린 푸드득 놀아나불고, 황기 도끼는 물 알러레 소로록 허게 골라 앓아분 거 아니. 아이고, 이젠 이 도끼 찢아살건디 옷 멘들렉이<sup>1428)</sup> 벗어 놓아된 강, 동으로 들엉 서으로 나고, 서으로 들엉 동으로 나도, 올리 도끼도 못 찢고, 베끼디<sup>1429)</sup> 나완보난, 피체 7튼<sup>1430)</sup> 도둑놈덜은 옷도 구쟁이 점벙이<sup>1431)</sup> 다 앓앙 돌아나분 거라.

원, 옷도 멘들렉이 벗고 아무것도 이젠 엇인 거라. 게난 이레 돌아사도 강알<sup>1432)</sup>에 것도 들앙들앙 저레 돌아사도 등강등강 허난. 그뻐 이제, 개똥풀<sup>1433)</sup> 허연에 이걸 어떻허린 허연 그 풀 뜯어네 강알만 막안. 겐 강알만 막아앓언에. 이젠 집더레 그냥도 못 들어가난. 그때엔 이제 울다리 튀언 집이 간, 주쟁이<sup>1434)</sup> 썬네. 뒤에 간 곱안. 어떻 아무도 못볼 때라근에 강 옷이라도 찢앙 입주게 헨. 주쟁이 썬 앓앓이난 정술텍인 뒤에 장 거리레 간 보난. 개낭잎<sup>1435)</sup> 뜯어네 강알 감추완 주쟁이 썬 앓앓이난, 뒤에 장 거리레 갓인디 어떻 주쟁이가 들썩들썩 헨 거 아니. 게난

“아이고, 상전님아 큰일났우덴.”

허난

“무사?”

허난

“저디 주쟁이가 막 춤을 춰우덴.”

허난 이젠 상전님은 간.

“귀신이냐, 생인이냐? 어서 썬 나오렌. 귀신이건 썬 물러가렌.”

막 헤가난. 영 메록허게<sup>1436)</sup> 나오는 건 보난 정수넴이 아니. 보난 옷도 멘들렉이 벗어 개낭잎 허연 강알만 막안 앓이난

“이거, 어떻헌 일이니?”

허난

“아이고, 경 헨게 아니고.”

---

1428) 멘들렉기: 옷을 전부 벗어서 맨 몸이 들어난 상태

1429) 베끼디: 밖에.

1430) 피체 7튼: 동작이 재빠른 꼴을 나타낸 말.

1431) 점벙이: 점방이.

1432) 강알: 사타구니.

1433) 개똥풀: 누리장나무 잎.

1434) 주쟁이: 띠나 짚으로 둥글게 엮어 가리 꼭지 따위에 덧대는 물건.

1435) 개낭잎: 누리장나무 잎.

1436) 메록허게: 숨겨져야 할 것이 조금 나와 드러난 꼴.

거짓말을 헛 거라.

“저 하늘에서 문왕상 문도령 궁네청 시네청 돌아왔영 완<sup>1437</sup>), 막 몸 모욕 허명 막 노념놀이 허는거 구경 허단 보난 물 아홉 쉼 아홉도 다 죽어 불고, 오단 올리 혼쌍 맞형 오젠 헛 게 황기도끼도 일러불고, 도둑놈들 다 구쟁이 점벙이 앓안 가부난 영 뒸우덴.”

허난

“아이고, 정수넴아. 물 아홉 죽은 것도 좋고, 쉼 아홉 죽은 것도 좋고 이. 옷 일러분 것도 좋다. 나 새 옷 주크메<sup>1438</sup>) 경 허민. 느, 그 문왕상 문도령 내려왕 놀아난 디 알아질타?”

허난

“예. 알아지쿠덴.”

“게른 느, 날 그디 돌아가줄타<sup>1439</sup>)?”

허난

“예. 돌아가쿠다.”

허난

“알앗젠.”

이레 오렌 허연. 이젠,

“넬랑<sup>1440</sup>) 가게.”

허난

“상전님아, 가젠허민 물머리<sup>1441</sup>)에 코스<sup>1442</sup>)도 허고, 밥도 허고 혜사 겁니덴.”

“젠 어떻게 어떻게 출리느니?”

허난

“나 곤는 양 험서. 논쟁이<sup>1443</sup>) ㄱ루 닷 웨건, 소금 닷 웨 냥 밥을 지으고. 또, 춤ㄱ루<sup>1444</sup>) 닷 웨건, 소금 혼 줌 노나마나 허영 밥을 지으고. 경 혜사 험니덴.”

이젠 경 허연 헤노난. 구쟁이 닥물<sup>1445</sup>) 봉가단<sup>1446</sup>) 물 발 들런에<sup>1447</sup>) 물

---

1437) 돌아왔영: 데리고 와서.

1438) 주크메: 줄테니.

1439) 돌아가 줄타: 데려다 주겠느냐.

1440) 넬랑: 내일되면.

1441) 물머리: 말머리.

1442) 코스: 고사.

1443) 논쟁이: 메밀을 맷돌에 갈아 가루를 만들 때, 가루를 쳐낸 그 나머지로, 갈린 껍질과 가루가 뒤섞인 나깨.

1444) 춤ㄱ루: 참가루, 곧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아 순수한 메밀가루

밭콧 알르레<sup>1448</sup>) 짚른 거라. 그걸. 짚러네 물 우이.

“상전님아, 이디 잇입서. 나가 물 탕 버릇을 그르쳐사 헐거 아니펜.”

허연. 물 탄 영 가젠 허난. 물은 자울락 자울락 구쟁기 물 박아나부난  
건지 못헿 헤가난

“이거 봅서. 이거 물머리도 코스를 지내사 허는 겨우덴.”

허난

“경 허렌. 어떻 허는 거니?”

허난. 이레 밥이영 국이영 다 출려놉센 허연. 겐 문딱 이젠 밥이영, 국  
이영, 채소영, 실과영, 이젠 제숙이영 구워노난. 절 허는체 흐멍<sup>1449</sup>) 그거  
를 확허게 빼어불엇주게. 구쟁기 물 빼된

“이거 코스 헤난 건 어떻 헷네까?”

허난

“게 느 다 먹어불라게.”

허난. 이젠 다리 쫓끄랭이 벌어 앓안, 이제 그거 순작<sup>1450</sup>)만씩 빙에기만  
씩<sup>1451</sup>) 다 먹어 놓안. 겐 그거 먹어된. 이젠 어리섞섞 물 탄게 지만 물 탄  
막 돌아나부는 거 아니. 막 돌아나부난

“상전님아, 구덕<sup>1452</sup>) 지영 이레 왓삼서.”

헤된. 지만 막 돌아나부난

상전은, 즈청빈

“아이고, 정수넴아게 혼디 글라게<sup>1453</sup>). 혼디 글라게.”

헤도. 지만, 천장아 만장아 막 돌아나부는<sup>1454</sup>) 거라. 겐 막 돌아나부난  
즈청비는 가당가당 먹을거엔만 허민 탁 두리는 거난<sup>1455</sup>). 점심이나 먹영  
가겐허든 이제 세울테주긴<sup>1456</sup>) 허연.

“아이고, 정수넴이야, 나 배고판이 건지 못허키여. 오라 밥이나 먹영가  
게.”

---

1445) 구쟁이 닥물: 소라 꺾데기.

1446) 봉가단: 주워서.

1447) 들런예: 들러서.

1448) 알르레: 아래.

1449) 허는 체 흐멍 : 하는 척 하면서.

1450) 순작: 메추라기.

1451) 빙에기만씩: 병아리만큼.

1452) 구덕: 조금 큰 바구니.

1453) 혼디 글라게: 같이 가자.

1454) 돌아나부는: 달아나버리는.

1455) 두리는 거난: 미치는 것이니까.

1456) 세울테주긴: 세우겠지.

허난. 그때에 물을 세운 거라.

“경 험서.”

허연. 물 세완 이제 밥은 먹젠 허난

“상전님, 논쟁이 ㄱ루 닷 뒤 소금 닷 뒤 논 거, 상전님, 그거 먹읍서. 춤ㄱ루 닷 뒤 소금 노나마나헌 건, 나 먹쿠다.”

허난. 어이척냥<sup>1457)</sup> 엇인 거라. 경 험 바파주언에. 혼직<sup>1458)</sup>을 즈청비 끊어먹으난. 짤짤헨 먹을 수가 엇어. 목이 캄캄 물란

“아이고, 정수넴아 나 짱<sup>1459)</sup> 못 먹키여게 오라 바짱<sup>1460)</sup> 먹게. 바짱 먹게.”

허난.

“어디 바꿀 말이파? 상전님 먹다 남은 건 종이 먹고, 종이 먹다 남은 건 개가 먹고, 개가 먹다 남은 건 쥐가 먹읍네다.”

경 허명. 하도 지만 먹어가난

“게믄<sup>1461)</sup> 나 못 먹키여. 느 나거영 다 앓아단 먹어불라.”

허난. 지건<sup>1462)</sup> 밥으로 삼고, 상전 건 반찬으로 삼안 순작만씩 빙에기만 썩 다 들러먹은 거 아니. 먹어놓안 이젠 물 타 앓언 어리썩썩 어리썩썩 허연 가명

“아이고, 나 목 물란이. 정수넴아, 목 물란 못 가키여. 오라 물이나 흐뽀<sup>1463)</sup> 먹영가게. 요 물 먹영 가게.”

허믄

“아이고, 그건 게우리<sup>1464)</sup> 죽은 물이우다.”

가당가당

“영 허라. 이 물 먹영가게.”

“건 극다귀<sup>1465)</sup> 죽은 물이우다.”

“아이고, 나 목 물란 못 가키여. 가단 이 물 흐뽀 먹영 가사키여.”

허믄

“그건 모기 죽은 물이우다.”

---

1457) 어이척냥: 어처구니.

1458) 혼직: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양.

1459) 짱: 짜서.

1460) 바짱: 바뀔서.

1461) 게믄: 그렇다면.

1462) 지건: 자기 것은.

1463) 흐뽀: 조금.

1464) 게우리: 지렁이.

1465) 극다귀: 각다귀.

죽어도 못 먹게 구는 거라 경. 못 먹게 헨.

“게른 어디강 먹느니?”

허난

“흐끔만 더 가민 막 좋은 물 잇수덴.”

허연. 이젠 감감헌 게 그디 간 보난에 어디 숲 속 닭은디 간 이젠 허난.

“이 물 먹는 물이가?”

허난

“예. 이거 먹는 물이우다.”

“영 허라 나 물 먹저.”

“아이고, 상전님. 이 물은양, 아무상 잇이 경 먹는 물이 아니우다. 이 물은 먹젠허민양 나 뽀따랑<sup>1466</sup>) 먹어사 험네다.”

“어떻허연 뽀따랑 먹느니?”

“이거 손으로 거려 먹으민 손 몰라가는 양<sup>1467</sup>) 몰르고, 그릇으로 먹으민 그릇 몰라가는양, 목이 들르는 물이라부난양. 이 물은 먹젠허민양. 옷, 우 알로 민짜<sup>1468</sup>) 벗어두언양. 엇더정 먹어사 목이 안 몰라마썸. 게난 나 먹는거 보양 먹읍서양.”

허연. 지 엇더전 먹으멍 뒤로

“아이고, 상전님아, 나 빠지쿠다. 나 즐레석<sup>1469</sup>) 등집서. 등집서.”

허난. 이젠 거 등견. 아이고, 경 허연 그 물 먹으난 어떻 험 수가 잇이 이젠. 즈청비도 그 옷을 하나씩 두개씩 다 벗인 거 아니. 벗어두언 엇더전 물 먹단 보난 정수넴이 허는 말이

“아이고, 상전님아 그 물 아레 봅서. 하늘옥황 문왕성 문도령네양 막 궁네청 시네청 느려완 노념놀이<sup>1470</sup>) 험우게.”

영 보난 얼릉얼릉얼릉 허는 거라. 확 고개 들렁보난 낭 우터레<sup>1471</sup>) 즈청비 옷 문딱 데껴똥<sup>1472</sup>) 얼릉얼릉 허난, 옥황에서 문왕상 문도령 궁네 시네(宮女侍女) 들앙왓덴 거짓말을 헨 거라.

‘아이고, 나가 이것인디 속아지엇구나. 이 노릇을 어떻허든 좋으리.’

“야, 정수넴아. 나 옷 도라. 나 옷 도라.”

1466) 뽀따랑: 무엇을 모범으로 삼아 그와 같이 좇아 해서.

1467) 몰라가는 양: 말라가는 대로.

1468) 민짜: 전부. 모두.

1469) 즐레석: 묶는 줄 따위를 가리키는 말.

1470) 노념놀이: 놀이하다. 놀며 지내다

1471) 낭 우터레: 나무 위에.

1472) 문딱 데껴똥: 모두 던져두고.

허난

“상전님아, 나 도렌허는 거 다 주켄 허민<sup>1473</sup> 옷 안네쿠다<sup>1474</sup>.”

“응, 기여 골으라.”

“상전님에 입이나 흔번 맞춰보았이민<sup>1475</sup> 좋암 직 허우다<sup>1476</sup>.”

허난.

“아이고, 우리집 강이, 나 누는 구들<sup>1477</sup>에 강이, 옛단질<sup>1478</sup> 먹어보라. 나영 입맞춘 거보단 더 좋아진다.”

“상전님아, 읍서 상전님 젓대 곁은 허리나 안아보게마썸.”

“나 허리 안으는 거 보단이 나 눕는 방에 강이, 나 금상 이불에 강 원 앙칭칭 잣베게 허연 누워보라 더 좋아진다.”

“읍서. 젓이나 흔번 문직어보게<sup>1479</sup>.”

“나, 젓 문직는 거보단이 나 눕는 구들에 강이, 가지깡이<sup>1480</sup> 잇저. 그 것 강 문직어보라. 춤 좋아진다.”

“상전님아, 읍서. 손이나 흔번 심어보게.”

“아이고, 나 손 심는 거 보단이 나 눕는 구들에 강이, 그디 들어강 보라. 경 허민 나 손 심는 거보다 더 좋아진다.”

이 핑계 저 핑계 헤가난 막 부룩부룩 욕심을 내는 거라. 어떻 므스 운<sup>1481</sup> 거라 이젠. 경 허연.

‘아이고, 저거 잘못 건드렸당 나가 살챌 목숨 꼭 죽어짐직 허난 저걸 어떻 달레사주겐.’

헨 거짓말을 헨 거라.

“야, 정수넴아, 이젠 오늘 밤인이 날이, 해가 지언. 이제 그냥 집이 갈 수가 엇이난 경 용심내지<sup>1482</sup> 말라. 아멩헤도<sup>1483</sup> 오늘밤이 느영 나영 이디 산골에서 누윙 자사키여. 경 허난. 용심내지 말앙 느영 나영 뉵 잘거난 나 옷을 드라.”

허난. 그땐 병삭허게<sup>1484</sup> 웃으멍 이제 옷을 내어준 거라. 이젠 어디 나

---

1473) 주켄 허민: 주갠다고 하면.

1474) 안네쿠다: 드리겠습니다.

1475) 맞춰보았이민: 맞추어보았으면.

1476) 좋암 직 허우다: 좋을 것 같습니다.

1477) 구들: 방.

1478) 옛단질: 옛단지를.

1479) 문직어보게: 만져보게.

1480) 가지깡이: 개지. 늦그릇의 뚜껑.

1481) 므스운: 무서운.

1482) 용심내지: 화내지.

1483) 아멩헤도: 아무래도.



완에

“야, 우리 한지(寒地)에 누워지느냐? 무시거<sup>1485</sup> 작지<sup>1486</sup>라도, 돌맹이라도 허영 흐뭇 움막이라도 둘러라. 영 다왕 뉘사주. 이거 어디 허정청헨 누워 지크냐게.”

허난. 거 숯붙인 돌 우이 영 해연 다와노난, 이젠 다 뉘젓이카부덴<sup>1487</sup> 서른으덱 닛바디<sup>1488</sup> 허우덩씩 웃으난. 영 안네 간 보난

“아이고, 정수넴아 이거 아이 뉘키여. 요 고망<sup>1489</sup>이 베롱베롱베롱 허난이 동네사람 누게가 넘어가단 보민이. 아는 사름은이. 종광 흐집이 혼디 누웠젠 허고<sup>1490</sup> 헨이. 욱헌다. 게난이. 이거 보리낭<sup>1491</sup>이라도 허영 고망을 막아사키여.”

허난. 그땐 이젠 보리낭허영 즈청비는 안네<sup>1492</sup>에 잇고. 정수넴인 베깃디서<sup>1493</sup> 보리낭허연 부지런히 고망 막단보민, 즈청빈 안네서 세 고망 막으민, 흐 고망은 빵 불 숯양 추와불고<sup>1494</sup>. 다섯 고망 막으민, 두 고망은 빵 불 숯아불고. 밤세도록 그 ㅈ망 막단보난 붉아분 거라. 아이, 거난 또 커싱커싱 허멍<sup>1495</sup> 죽일팔로 허는 거아니.

“아이고, 정수넴이야, 이젠 기왕지사 오늘은 붉아부난이, 이젠 느영나 영 늙진 못허고 나 독무릅<sup>1496</sup>더레 완 엇더지라. 나 니(이)나 잡아주마 허난. 독무릅더레 완 엇더지난, 데가린 걸언 보난. 이가 그냥, 바로 제일 흙은 건 군스(軍士)로 놓아두고, 제일 죽은 건 장수(將帥)로 놓아두고, 제일 죽은 건 군스(軍士)로 놓아뉘. 중간이만 똑똑똑죽죽여가난. 손은 즈청비가슴도 강 문직젠<sup>1497</sup> 허웃허웃, 즈청비 강알더레도 손이 허웃허웃 경 허난. 어뎡어뎡 달레연 이젠 소로록허게 즈이든 거라. 경 헨 즈드난.

‘요눔이 새끼 잘 되엇젠.’

허연. 천 근 쌀에 백 근 쌀을, 활을 내여 놓안, 즈청비가 정수넴이 귀더

1484) 병삭허게: 병긋허게.

1485) 무시거: 무엇.

1486) 작지 : 작은 돌맹이

1487) 뉘젓이카부덴: 되어졌을까봐.

1488) 닛바디: 이빨.

1489) 고망: 구멍.

1490) 누웠젠 허고: 누웠다고 하고.

1491) 보리낭: 보리 수확한 짚

1492) 안네: 안에.

1493) 베깃디서: 밖에서

1494) 불 숯양 추와불고: 불을 때며 태워버리고.

1495) 커싱커싱 허멍: 트집을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면서 성질을 부리다.

1496) 독무릅: 무릎.

1497) 문직젠: 만지려고.

레, 웬 귀로 느단 귀더레<sup>1498</sup>) 콧 쏘아분 거라. 게난 그냥 정수넴이가 죽어  
분거 아니. 겐 죽으난. 이젠 내불어된 물 타 앓언.

‘이제랑 나 집이 거주긴.’

허연 왕강싱강 물 탄 가노렌 허난 산신대왕이 탁 나타난 허는 말이

“저디서 오는 저 아가썬지, 총각인지 어뎡허난 브름알로 넘어가렌. 물  
조름<sup>1499</sup>)에 무지력 총각<sup>1500</sup>)이 핏네<sup>1501</sup>)가 탕천허연 바짝 뒤에 쫓앗젠.”

겐 허연 브름알로 허연 집이 간

“어머님아, 아바님아, 나 여쭙 말씀이 잇습네다.”

허난

“어디 갔다 완디?”

허난

“나 곤는<sup>1502</sup>) 말부떠 대답을 험서. 어머니, 아바지 종이 아깍수가?<sup>1503</sup>)  
이녁 애기가 아깍수가?”

허난

“아이고, 암만해도<sup>1504</sup>) 종이 아까운들 이녁 애기만이 아깍느냐.”

허난

“경 허지에. 게난 어머니, 나 정이웃인정수넴이 하도 행실(行實)이 궤썸  
허연<sup>1505</sup>) 죽여된 오랏수다.”

허연.

“아이고, 요년, 저년. 예펜<sup>1506</sup>) 년이 사름을 죽이덴 말이 뭇 말이고.”

아이, 느 가고정 헌 데로 나가렌. 다올려분 거라<sup>1507</sup>). 다올려 부난 이젠  
열다섯 십오세까지 입던 옷 걷어 설르고 나완.

‘어덜 가민 좋고.’

나산 덩기단<sup>1508</sup>). 브레보난<sup>1509</sup>) 서천꽃밭디<sup>1510</sup>) 부대감네 집이 공고를 썸  
불인 거보난.

1498) 웬 귀로 느단 귀더레: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

1499) 물조름: 말공무니.

1500) 무지력총각: 머리를 풀친 총각.

1501) 핏네: 피 냄새.

1502) 곤는: 하는.

1503) 아깍수가: 기본형인 ‘아깍다’는 비교 상대적인 것보다 우위인 것

1504) 암만해도: 아무리해도.

1505) 궤썸허연: 궤썸해서.

1506) 예펜: 여자.

1507) 다올려 분거라: 내쫓아 분거라.

1508) 덩기단: 다니다가.

1509) 브레보난: 바라보니.

1510) 서천꽃밭디: 환생(還生) 꽃 멸망(滅亡) 꽃 등 주화(呪花)를 가꾸는 꽃밭.

‘우리 서천꽃밭디 부엉새가 앓앙 올면 서천꽃밭디 검뉴울<sup>1511)</sup>이 자꾸  
웨고 영 허니까. 아무라도 서천꽃밭디 부엉새를 잡아주면 내가 말젯사위  
를 허켤.’

딱 공고를 붙여 잇는 거라. 그때엔 이제 물 이견<sup>1512)</sup> 들어간에 물 세(舌)  
를 딱 허게 묶었어. 경 허연 춤썰로 묶언

“실례하겠습니다.”

허난

“예.”

허난

“아, 나 과거 정네엔 넘어가는 사람인데 공고를 보니까 서천꽃밭디 부  
엉새가 뭐 어떻 헤엿젠<sup>1513)</sup> 허연 혼번 들어와 봤습네다.”

허난

“아이고, 부엉새만 잡아주면 이제 즈원(自願)사위 허쿠덴.”

허난

“우리 쉼 출<sup>1514)</sup>이나 흐끔 줘서.”

허연. 출 앓아단주난 세(舌), 혀를 춤썰<sup>1515)</sup>로 묶어부난 먹질 못허주게.  
막 음~ 헤가난

“야, 이 몰아, 저 몰아. 든건, 든 덧 행실허고. 나건, 난듯 행실허라. 어  
뎡 경 집이서 먹어난 죽만 먹어지느냐.”

허난에. 그 부대감 각신

“아이고, 우리만 잘 살암텐 허단보난, 우리보다 더 잘 살앙 저 므  
쉬<sup>1516)</sup> 죽 썰 주는 생인게.”

경 험 죽 썬단 주난. 그 춤썰을 탁 클러부난 할쪽할쪽 먹은 거라. 겐 밤  
인 누웠이난 부엉새가 부엉부엉 헤가난 옷통 솔허게<sup>1517)</sup> 벗언. 서천꽃밭디  
간 베따지<sup>1518)</sup> 영 내연 누웠이난, 부엉새 그디 딱뎡헌<sup>1519)</sup> 디 완. 베따지  
에, 우이 톱 앓으난 그자 폭허게 심언. 겐 화살 앓아간 그레 찢런 꽃밭디  
레 데견 내붙어서. 들어오명 창그망을 화살 그망만이 뜰란<sup>1520)</sup> 들어와서.

---

1511) 검뉴울: 시들어 가는.

1512) 물 이견: 말을 이끌어서.

1513) 어떻 헤엿젠: 어떻게 하고 있다고

1514) 쉼 출: 소 꼴.

1515) 춤썰: 명주실.

1516) 므쉬: 마소.

1517) 솔허게: 살짝이

1518) 베따지: 배(腹)의 낮은 말.

1519) 딱뎡헌: 따뜻한.

아침엔 누워 안 일어나난. 자노렌 허난 부대감이 완.

“어떻, 언치낙<sup>1521</sup>) 어떻 무슨 소식이 엇어신가?”

허난

“아이, 누워 자노렌 허난 부엉부엉 허길레. 활 혼 대를 던지긴 던젓습 니다만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난. 서천꽃밭디 간 보난. 진짜 부영새가 활에 찢린 죽언 잇인 거라. 계난

‘아이고, 참 이거 우리 사위 혈만허덴.’

허연 이젠 즈원사월 현 거 아니. 경 허연 즈원사월 헛인디. 석 달(月) 열 흘 백일을 막 잘 맥이고 헤도 부부간에 관계가 없어. 이 남녀간에 구별법이 엇이난. 이제 말젓뜰<sup>1522</sup>)은 아버지, 어머니신디 말을 허뵈,

“어떻허난 저추룩 도고(道高) 높은<sup>1523</sup>) 사월 허연. 원, 이거 석 달 열흘 백일 뵈도 손도 하나 까딱 안 헛우다.”

허난. 이젠 사위 불러단. 즈청비 불러단

“어떻허난 우리 딸이 얼굴이 못 낫는가, 메치<sup>1524</sup>)가 못 낫는가? 뭐가 분함해서 손도 하나 꼬딱 안 헛이니?”

허난

“아이고, 경 현게 아닙네다. 나는 강남천저국 세변도원수(世變都元帥)를 막으레 가는 길이라서 부정허고 서정허연 가면, 이제 부정타서 안뵈까봐 제가 몸 정성을 하고 잇습네다.”

허난. 그 말도 들언보난 그럴 듯 현 거라. 경 허연 이젠 서천꽃밭디 들 어간에. 이 핑계 저 핑계 허명. 피 오를 꽃, 술 오를 꽃, 오장육부, 말 굴 을 꽃, 사름 생길 꽃이여 문딱 꺾은 거라. 켜 헨 꺾언. 몰르게 앗안 나완. 정수님이 죽은 달 또 좇안 간. 그 꽃을 츠레츠레 대로 다 뵈. 송악낭 막테 기로 연세 번 때련. 살련. 또 물에 태완 어떻신디 간 거라.

“어머니, 아버지. 이녀 애기보다 더 아까운 종하님 살련 오랏수다.”

허난

“어따가라. 지집년이 남도 낫저. 사름을 죽이고 살리덴 말이 뵈 말이 고. 아이고, 나가렌.”

---

1520) 툀란: 툀고서

1521) 언치낙: 어제 저녁.

1522) 말젓뜰: 셋째딸.

1523) 도고(道高) 높은: 거만하디의 의미임.

1524) 메치: 맵시.

다올려부난. 이젠 그뎨 나완. 갈 디도 엇고, 올 디도 엇고, 어딜 가든 좋고 혜연. 지만 비새골이 울멍 덩기단보난. 주막집이 왈그락 달그락, 찰그락 찰그락 무슨 소리가 나는 거라. 켜 영 보난. 비단을, 할망이 앓안 비단을 막 짚어. 계난 이제 비단에 탐난겨주게. 경 헨 가네

“넘어가는 과거 정네(貞女)우다만은 할마님 목 플란 물이나 흐뎡 줍서.”

허난

“느도 예펜<sup>1525</sup>)이메 느 대로 정지에 강 거렁 먹으라.”

허난

“아이고, 계도 초행길에 어떻 뒤 험네까. 주인 모른 공서가 잇입네까.”

계명 허난,

“알앗젠.”

허연 이젠. 할망 물 뜨레<sup>1526</sup>) 가분 세에 비단클에 앓앙 막 비단을 짚 거라. 짜난, 할망은 완 물 주멍

“아이고, 애야, 그 비단은 어디 갈 건줄 알앙 느가 그 비단을 짚이니? 애야.”

허난

“어디 갈거짜?”

허난

“거 문왕상 문도령 서수왕에 장계 가는디 갈 비단이여게 그거게.”

계난

아이고, 그 말 끝에는 이녀 내불어뎨<sup>1527</sup>) 서수왕에 장겔 간뎨 말이 뎨 말이나. 눈물이 다룩다룩다룩 떨어진 게. 비단을 짜멍 눈물이 떨어진 게, 그것이 금바둑 옥바둑이 뎨거라. 눈물 떨어진 게. 아이 계난. 할망은 완 보난 할망보단 더 잘 짜진 거라. 막 바둑노멍, 무니 노멍 막 잘 짜지난.

“계난 는 어디레 가는 누게고?”

허난

“난 아방 눈에 글리나고<sup>1528</sup>), 어떻 눈에 시찌난<sup>1529</sup>) 갈데 올데가 엇언

---

1525) 예펜: 여자.

1526) 물 뜨레: 물 뜨러.

1527) 내불어뎨: 내버려두고.

1528) 글리나고: 눈에 거슬리고.

1529) 시찌난: ‘글리나다’에 리듬이나 짝을 맞추기 위해 쓰인 것으로 추정됨.

영 유왕유리<sup>1530</sup>) 험우다.”

허난

“느 비단도 곱게 짜고. 경 말앙 나신디 수양딸로나 들라.”

허난

“경 험서.”

경 혜연. 수양딸로 들엇인디, 할마님은 이제 그 흥세(紅絲)미녕<sup>1531</sup>)을 다 짜지난. 그 미녕을 들러앗언 이젠 옥황에 올라간거주게. 문도령네 집이 가난. 이제 다 영 폐왕 보명, 다 폐왕 보단 보난 막꿏더레<sup>1532</sup>) 가가난 더 곱게 짠 거라. 막 무늬 노명 막 헤진 거라. 문도령이

“이건 누게가 짠 거우짜?”

허난

“아이고, 그건 우리 집이 수양딸이 짠 거라.”

허난에. 아, 막꿏디엔 ‘인간 즈청비.’ 험 글자를 딱 베겏젠<sup>1533</sup>). 경 허난

“누게가 짜수젠?”

허난

“우리 집이 수양딸이 짠젠.”

허난

“게믄 나, 오늘 밤 야사삼경 깊은 밤이 돼민 느려사쿠다.”

허난. 할망은 이제 완, 막 지꺼지언. 도고(道高) 높은 사위 헤지카부덴<sup>1534</sup>) 막 그날밤이 이젠. 방도 느 흐나만 츠지허영 누라. 씨암톡도 딱 잠안 놔두고. 이제 사위 7심<sup>1535</sup>) 오민 맥이젠. 경 험 독방 출런 녹지난<sup>1536</sup>). 그날 밤 야사삼경 깊은 밤이 돼난 즈청비 눈 구들<sup>1537</sup>)에 그림자가, 허뜩비 뜩 사름 그림자가 막 현 거라.

“귀신이나? 생인이나?”

허난에

“아이고, 귀신이 어찌 여기 올 수가 잇것느냐. 난 하늘옥황 문왕상 문

1530) 유왕유리: 마을을 돌아다니는 모습.

1531) 흥세(紅絲)미녕: 혼인잔치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가져가는 폐백인 무명.

1532) 막꿏더레: 맨 끝으로.

1533) 베겏젠: 박혀있다고.

1534) 헤지카부덴: 할 수 있을까봐.

1535) 사위 7심: 사위가 될 사람.

1536) 녹지난: 눅히니.

1537) 눈 구들: 누운 방에.

도령이엔.”

허난. 즉청비가 그만큼 생각을 허난.

‘문도령이 아니든 내가 무사 이 팔자가 돼영 어멍 눈에 گل리나고, 시찌 나고. 내가 이 귀양을 텅기멍 이걸 허리.’

생각을 허난 막 그냥 께쌌헌 거라. 경 허연 문도령이 분명허걸랑 창고망으로 손가락을 내밀렌. 켜, 영 헨 손가락을 창고망으로 내미난, 부에 난<sup>1538</sup>) 짐에 바놓으로 손가락을 꼭 허게 찢러붙어서게. 계난 즉진피(紫芝血)가 불긋허게 나난.

“아이고, 인간네는 이거 부정(不淨)허고 서정허연<sup>1539</sup>) 놀팍 네<sup>1540</sup>) 난 안뉘켄.”

옥황더레 도올라<sup>1541</sup>) 붙어서. 뒷날 아침인 할망은 막 씨암푹 놓아놨단, 그거 허연 죽 쑤고 허연. 그릇도 두개 놓고, 손가락도 두개 놓고 허연. 앓 안 들어온 거 아니. 들어완 보난. 혼자만 눈 거 아니.

“어떻허난 어치냐 무슨 소식 엇어나?”

허난

“옥황에서양, 문도령 와십디다 만은양, 하도 생각허난 께쌌허연. 나, 바 놓으로 찢러부난 부정허덴 올라가뵈데다.”

허난

“아이고, 느 가라. 느 경 헤부난 느네 어멍신디도, 아방신디영 부모 눈에 گل리나고, 시찌난 나왔이네. 나도 느 님은아이 못 들양 살키여.”

나가렌 헨 내쫓아분 거라.

‘아이고, 계난 이제 갈 디도 엇고, 올 디도 엇고, 집도 나오고 이 노릇을 어떻게린.’

헤연. 질레<sup>1542</sup>)에 유왕유리 허연 텅기노렌 허난 궁네(宮女)청 시네(侍女)청덜은 앓안 비새글이 아이들 울었어.

“느넨 누게고?”

허난에

“우린 하늘옥황 문왕성 문도령 아레 잇인 궁네(宮女) 시네(侍女)청이우다.”

---

1538) 부에 난: 화가 난.

1539) 서정허연: 부정에 맞춘 조운구(調韻句)

1540) 놀팍 네: 피비린 내.

1541) 도올라: 도로 올라.

1542) 질레: 길.

허난

“무사 경 울었이니?”

허난

“문도령이 아팠. 심리병이 난. 죽을 스경이 뉘난. 우리 ㄹ라 인간에 내려강 즈청비 먹는 물을 떠와사, 그 물을 먹어사 살아나지켤<sup>1543)</sup> 헤연. 인간에 내려오긴 헛우다만은 즈청비 먹는 물이 어느 물산디<sup>1544)</sup> 좇지를 못헨 영 헛우덴.”

허난.

“경 허븐. 나가 곶아주크메이<sup>1545)</sup>, 느네가 그걸 떠 올라강 표주박을 흔번만 더 내루왕, 날 흔디 우터레 옥황더레 돌아다주민 어떻허니?”

허난

“어서 경 헛서.”

허연. 이제 그 물 곶아주난. 그 물을 떠 올라가고, 이제 표주박을 또 흔번 내루왕 즈청비도 올라간거아니. 켤 올라가난 그 아이덜이 물을 잉어 가는 걸<sup>1546)</sup> 먼 디서 집 깃지 다 본 거라. 방이여 어디 깃지 다 받. 켤 그 날 밤이 뉘난. 문도령 녹는 창문 엠<sup>1547)</sup>에 큰 도실낭이 잇이난 그 우이 올라간 앳안. 머리도 다 깎으고 헤연 앳안 잇이난에 문도령이 밤중엔 이 밤과 저 밤 세연 나완. 문 올안 나완.

“아따, 저 들은 참말로 곱긴 곱다만은 인간에 잇인 즈청비만은 아니 곱덴.”

허난

즈청빈 또 가호가호(家戶家戶) 촌촌(村村). 이젠 머리 삭발헤연에 권제<sup>1548)</sup>를 받으레 덩길 때로구나. 계난 권제 받으레 덩길 때난. 머리 다 깎으고, 송낙 쓰고 스님으로 출련. 경 헤연 그 집이 간에 권제 받안 나완. 처음엔 권제를 간. 흔번 간 받안 나완에 문도령 얼굴을 본거라. 다 보안 낫단. 또, 이젠 경 앳앳이난 낭 우이서 허는 말이

“어따, 저 들(月)은 곱긴 곱다만은 옥황에 문도령만이 아니 곱덴.”

허난

“거 누게니?”

1543) 살아나지켤: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1544) 물산디: 물인지.

1545) 곶아주크메이: 말해줄 터이니.

1546) 잉어 가는 걸: 머리 위에 이고 가는 걸.

1547) 엠: 길이나 담장가나 옆. 사람이나 물건의 곶.

1548) 권제: 재미(齊米).



내려오렌 허난. 내려온 건 보난. 낮이 권제 받으레 왔다 간 스님이라.  
송낙을 확 벳건 보난 즈청비아니.

“아이고, 즈청비아, 이거 어떻게 일이고?”

허난

“난, 당신 때문에 나, 팔자스주(八字四柱)가 다 그르천 영 뒤텔수다.”

허연. 이젠 이녁 구들더레 솔짝허게<sup>1549)</sup> 들안 들어간 거라. 들안 들어간 디 그 전인 밥도허영 느진덕정하님이 밥을 구들에 드물리민, 반 사발뻬이 안떡영 나오던 밥이 흔 그릇 다 떡영 나오고, 세숫물도 땡 드물리민, 곱닥 허연 나오던 물이 팍팍 뒤텔<sup>1550)</sup> 나오고. 수건도 흔끗<sup>1551)</sup>만 젓영 나오던 수건이 양끗이 다 젓고. 아멩해도 이상헌 거라. 겐 느진덕정하님이 영 창 3망으로 간 보난. 곱닥헌 애기씨가 펑풍 두깡<sup>1552)</sup>으로 왔다갔다 허는 거 아니. 이젠 상전님네신디 간 일러분 거주게. 그 말을 간 곶으난. 상전님네 허는 말이

“아무라도 우리집 메누리로 올 자랑. 문국성, 씨아방 직량도폭을 딱 맞게 지어단 입지렌.”

허는 거라. 게난 이제 푼리 몸으로 환싱(還生)헨 간. 지레기<sup>1553)</sup>가 얼마니, 소매가 얼마니, 짓이 얼마니, 품이 얼마니 문딱 제연 완. 시아방 직량도폭을 헨 입지난 딱히 맞은 거라. 게 어디 선비들이나 모인 디 입언 가민

“아따, 그 옷 누게 지엿수과<sup>1554)</sup>. 누게 지엿수과.”

허멍 막 허고 허난. 문도령이 어멍을 좇앙 갓구나. 어멍을 좇앙 간.

“어머님아, 나 예숙<sup>1555)</sup>이나 흔번 제껴 봅서.”

허난

“응. 곶으라보게.”

허난

“묵은 장이 좋읍네까, 새 장이 좋읍네까?”

“새 장이 곧 먹을 땐 좋긴 좋아도 묵은 장만큼 짙은 맛은 엇나.”

“게믄, 새 옷이 좋읍네까. 묵은 옷이 좋읍네까?”

---

1549) 솔짝허게: 살그머니.

1550) 뒤텔: 굶어서.

1551) 흔끗: 한쪽.

1552) 펑풍 두깡: 병풍 뒤.

1553) 지레기: 길이.

1554) 지엿수과: 지었습니까.

1555) 예숙: 수수께끼 놀이.

“어디 웨방<sup>1556</sup>) 갈 때 새 옷이 흐뭇 좋긴 좋아도이, 묵은 옷만이 방장무장<sup>1557</sup>) 입진 못한다.”

“게른 새 쓸밥이 좋읍네까. 묵은 쓸밥이 좋읍네까?”

허난

“새 쓸밥이 코시롱허게 좋아도 묵은 쓸만이 풀은 엇나.”

“새 사름이 좋읍네까. 묵은 사름이 좋읍네까?”

“새 사름이 좋긴 좋아도 묵은 사름만이 짚은 속은 모른다.”

“어머니, 나 서수왕에 장계 아니가쿠다.”

게난, 서수왕 딸은 문도령 장계 안가켄 헤부난 목 메연. 막 편지 슬안<sup>1558</sup>) 먹고, 목매연 죽언. 새 몸에 헨 가불고. 아이고, 이젠 메누리 뉘 자랑. 장계 아니가켄 허난. 아무나 잇어도 잇일거 아니젠. 도폭 지어단 시아방 입으난 맞음도 허고허난. 나와근에게 쉰대자(五十尺) 땅을 판 거라. 그레<sup>1559</sup>) 숯 쉰 가멩이<sup>1560</sup>) 놓고 허연. 거에 불을 붙연. 우리 메누리가 뉘 자랑 이 칼선드리<sup>1561</sup>) 밧아들고 밧아나렌. 게난 즈청비가

“멩천(明天)글은 하늘님아, 나 쉼엔 헌건 정수냄이 죽엇단 살린 쉼백인<sup>1562</sup>) 엇수다. 날 살리컬랑 하늘에서 비라도 오게 시겨 줍센.”

허연. 막 축원(祝願)을 헌 거라. 축원(祝願)을 허연 칼 우터레 탁 올라산 방울비가 도록도록도록, 비가 털어져 가난. 불은 와랑와랑 헌디, 비가 와가멩, 숯불이 꺼져가멩, 칼은 구워져가멩, 식어져가멩 허연. 마지막까지 다 가난. 시아방이 완,

“아이고, 나 메누리 뉘 자격이 적실허다.”

허연. 탁 안은게 뒷꿈치가 슬짝<sup>1563</sup>)허게 빈 거주게. 겐 비난. 헤영헌<sup>1564</sup>) 치마각에 피가 맺어진 거라. 게난

“며늘애기야, 어떻허난 치마각에 즈지피(紫之血)가 붙엇저.”

허난. 거 밧 비영 헛텐 허민 안 뉘거난

“아바지, 모르는 소리 맘서. 우리 여정네(女貞女)덜은 열다섯 십오 세가 뉘민 선브름 후브름 월경법(月經法)도 잇습네다.”

1556) 웨방: 집을 떠난 먼 지방.

1557) 방장무장: 격식을 따짐이 없이 항시 입을 수 있는

1558) 슬안: 태워서.

1559) 그레: 거기에.

1560) 가멩이: 가마니.

1561) 칼선드리: 칼날 두 개가 모두 위로 향하여 놓인 것.

1562) 쉼 백인: 죄 밖에.

1563) 슬짝: 살짝.

1564) 헤영헌: 하얀.

허난

“아, 경 허넨.”

허연. 그때부터 이제 월경법(月經法)도 뒀덴 허고, 겐 이젠 다 끝나난. 강남천즈국에 세변도원수<sup>1565</sup>)를 했젠 허난. 문도령이 막으레 가살건디

“문도령님아, 그만히 앓아십서. 나가 강 막아 오쿠덴.”

경 허연 강남천즈국에 간. 세변도원수 간 막안 온 거라. 막앙오난, 이젠 그 밑에 삼천선비덜은 앓앙 놀고, 바둑 두고 이제 장기 두고 허는 디서는 문도령 그라

“거기 가시믄야, 느네 각신 어뎡헌 각시고. 강남천즈국도 강 막아오고 어뎡헌 각시고. 흥덕 내라, 두덕 내라.”

허멍 허는 게. 이제 흥들은 술, 걸인잔치 그추록<sup>1566</sup>) 험덴 허연. 가젠 허난 소겔 허멍 이디 이만이 담안 주멍

“낭군님아, 가걸량양. 술을 천 잔을 주고, 만 잔을 주고. 그건 독약이우다. 독주우다. 먹지 말앙 그냥 이 알드레 다 담앙 읍서.”

허난. 간. 주는양 문딱 가슴더레만 담앙 오는게. 게와시(乞人)가

“아이고, 도련님아 나 술 흥 잔만 받았 잡서.”

하도 허난. 게와시(乞人)건 어뎡 안 허카부덴 그걸 말앙 먹은게, 물 우이에 알드레 탁 털어져분거라. 게난 물은 그냥 즈청비신디 놀아완 앞밭로 막 팡팡팡팡 지어가난.

“이 물아, 저 물아. 어서 흥저 글렌.”

허연. 물 우이 타난. 물이 간 건 보난, 문도령이 쓰러전 잇인 거라. 이젠 안앙, 흥짜 손으로 안앙 물 탄 이제 집이 완. 박거레<sup>1567</sup>) 눅져두고, 재열<sup>1568</sup>) 하나 심어단, 실에 묶언 창문에 돌아메난. 보로롱보로롱 그 재열 소리 나난. 이젠 그 동네 선비덜은 이제 문도령 죽엇젠. 우리 강 보겐 허연.

“저, 이디 문도령 어디 갔이니?”

허난

“아이고, 저 구들에양. 누원양. 저거 봅서. 저 코고는 소리. 바르릉 바르릉 소리 안났수과. 막 코골멍 잡수게.”

아, 진짜 보난 와르르와르릉 허는 거라. 무쇄 즈배기<sup>1569</sup>) 헤 난. 확확 던

1565) 세변도원수: 난리.

1566) 그추록: 처럼.

1567) 박거레: 바깥채.

1568) 재열: 매미.

지명

“예. 이거.”

무췌 방석 허연 데끼명

“이 방석더레나 깔앙 앓읍서.”

허난. 아이, 즈청빈 데껴신디, 확 들르젠 허민 버청 들를 수가 엇어. 이 녀은 믰물<sup>1570)</sup> 즈배기 헨 먹으명. 그 선비덜신딘 췌 헨, 무췌 즈배기 헨 췌에.

“아이고, 이것들이나 혼 그릇씩 먹영 갑서.”

허난, 혼번 와드득 췌으난 그냥 니빨<sup>1571)</sup>이 다 꺾어지는 거라. 야, 이거 무섭고 석거운 사람이엔. 경 헨, 이제 그냥 뭐 헨게. 이젠 그 췌을, 정수넴이 살려난 췌을 낫단. 그걸 놓안, 이젠 문도령을 살린 거라. 겐 살린 허는 말이

“도련님아, 나, 사실은 정수넴이 살리젠 허난양. 서천췌밭디 부대감네 집이 들어간. 나 그디 즈원사위 허엿단. 나, 나온 적이 잇수다. 게난 그딜 강 선 보름 살건, 나신디 후 보름 살고. 나신디 선 보름 살건, 그디 강 후 보름 살앙. 양쪽 살림을 허영 험서.”

허난, 경 허켄 헨 게. 그디 가난 하도 잘 해주난. 오췌<sup>1572)</sup> 잇어분 거 아 니. 즈청비 생각을. 즈청빈 을 때 꺾지 광목 치마를 간장 물에 등강<sup>1573)</sup> 널고, 간장 물에 등강 널고. 밤이는 촛이슬 맞고, 낮이는 촛벧<sup>1574)</sup> 맞으명 막 등간 넌 거라. 겐 널엇당.

아, 어느날 갑자기 생각허난 문도령이

“아이고, 이거 즈청비 잇인걸 나가 잇어붙어된 왓덴.”

경 헤연 이제 완에. 물 타얓언 오는 게 모자도 거꿀로<sup>1575)</sup> 쓰고, 사모관 디도 거꾸로 입고. 아멩이나 제게 헨 오는게, 막 거꿀로 헨 왓이난. 오직 이나 날 브리기 싫어사 영 모자영 다 거꿀로 췌 읍네까. 종수덴 신도 거꿀로 신고 헨 왓이난. 그때엔 그 치메영 확 감아 입언. 난 가쿠다. 난 나 세상으로 금시상 느려사쿠덴 허연.

---

1569) 즈배기: 수제비의 일종으로 가루를 되직하게 반죽하여 반죽을 조금씩 떼어내어 끓는 물에 넣어 익힌 음식.

1570) 믰물: 메밀.

1571) 니빨: 이빨.

1572) 오췌: 곧. 즉시. 그만. 경황이 없이 불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을 나타냄

1573) 등강: 담가서.

1574) 촛벧: 찬 별.

1575) 거꿀로: 거꾸로.

오젠 허민 치메각에, 간 돌아정

“아이고, 나 잘못해서게. 잘못해서게.”

영 등기문<sup>1576</sup>) 하도 간장에 블라부난<sup>1577</sup>) 복 치져지고<sup>1578</sup>).

영 등경,

“아이고, 나 잘못해서게.”

허민 영 복 찾아지고 현 것이, 그것이 나부<sup>1579</sup>)가 뗏텐예.

그것이 나부가 뗏텐허고, 이젠 내려오단 보난 정수넴이가 뻘뻘 몰란<sup>1580</sup>)  
질레 앓은 거라.

“야, 정수넴이야, 느 어떻헌 일이고?”

허난

“아이고, 큰 상전님네 다 죽어부난. 갈 데 올 데 엇고, 베고프고 시장  
허연 영 앓앗수덴.”

허난.

“글라. 가게 나 느 밥이나 얻어 먹여주메.”

헨. 어떤, 막 부제칩이 물므쉬에, 사름에덜 헤연. 밧 하나, 막 담아 난.  
밧 가는 디가 잇이난, 간.

“실레허쿠다만은. 먹던 밥이라도 잇거들랑 흐꿈만<sup>1581</sup>) 줍서. 요기나 행  
가쿠다.”

허난. 막 욱만 허는 거라.

“젊은 것들이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너네대로 행 먹으라.”

허명 막 욱만 허연. 아이고, 아니 뉘켄. 또 이제 오단 보난. 할망, 하르  
방만 굴쟁이<sup>1582</sup>) 용쉬 행은앵에 들렝이 밧디<sup>1583</sup>) 허는 디 잇이난, 그디 간

“아이고, 하르버지, 할머니 쉼송허우다만은. 먹던 밥이라도 잇걸랑 이  
레 흐춤만, 우리 요기헨 가쿠다.”

허난,

“아이고 게, 인척<sup>1584</sup>) 오랏이민 우린 못 먹어도 느네 줄걸. 저디 강 보  
라, 차롱<sup>1585</sup>)에 간 보라.”

---

1576) 등기문: 당기면.

1577) 블라부난: 묻히니.

1578) 치져지고: 찢어지고.

1579) 나부: 나비.

1580) 몰란: 말라서.

1581) 흐꿈만: 조금만.

1582) 굴쟁이: 호미.

1583) 들렝이 밧디: 아주 작은 밧.

1584) 인척: 일찍.

허연. 그걸 이제 먹으난. 그 할망, 하르방 준 디랑, 그 밧디랑 모든 게 막 잘돼게 헤연. 가지으름<sup>1586</sup>), 쇠으름 올라근에게<sup>1587</sup>). 조도허민 왕강싱강 허게 허고, 보리에도 감비역<sup>1588</sup>)도 주게 말고, 산디에 나분데기<sup>1589</sup>)도 주게 말고, 콩에 반착짜리 저접께<sup>1590</sup>)도 주게 말앙, 막 부자팔명 돼게 허고. 그 쉼쉬여, 물쉬여. 막 잘사는 밧디랑, 가난 밥 흔적도 안 쥘게. 저 밧디랑 하간 거 허걸랑, 문딱 아니만 돼게허렌 허연. 그 법으로 우리가 밧디강 밥 먹젠 허믄, 제석할망 나시렌<sup>1591</sup>) 허영. 문저, 서너 밧더레 케우려똥<sup>1592</sup>) 밥 먹고 허는 거. 게난 용시<sup>1593</sup>)를 헛인디, 오곡농스(五穀農事) 씨를 탕 와야 농사를 질 건디. 이젠 염제실농씨안티 이젠 즈청비가 올라간 거라. 올라간. 오곡씨를 타앗언 내려오단 생각해 보난, 모물썸<sup>1594</sup>) 안 탄 와져서. 게난, 이제 두 번차 올라간 모물씨 타난. 포따리도 안 앓앙 가고, 아무것도 안 앓앙 가부난, 그때엔 소중기<sup>1595</sup>) 벗언. 소중기 쌍 모물씨 앓앙 와나부난. 모물씨는 소중기에 앓앙 오명<sup>1596</sup>) 걸름<sup>1597</sup>) 위영 어디영 찰찰찰 혈명<sup>1598</sup>) 앓안 와부난, 걸름 위에도 나고, 모물은 늦은 농스허여도 혼디 헤 먹고, 모물은 말째<sup>1599</sup>) 탄 와부난 경 헛젠 허연 세경본입니다.

1585) 차룻: 대나 짜리를 이용하여 네모나고 속을 좀 깊숙하게 결고 뚜껑을 만들어 주로 음식 따위를 넣어 다니기 좋게 만든 그릇.

1586) 가지으름: 가지열매.

1587) 올라근에게: 열어서.

1588) 감비역: 감부기.

1589) 나분데기: 벼 이삭이나 콩 따위의 꼬투리에 열매가 달렸으나 여물지 못한 것.

1590) 저접께: 벼나 콩따위의 낱알이 깨어져서 온전하지 못하게 된 것

1591) 나시렌: 뭍이라고.

1592) 케우려똥: 멀리 흩뿌리거나 획 내던져 두고.

1593) 용시: 농사.

1594) 모물썸: 메밀씨는.

1595) 소중기: 무명으로 만든 여자의 속옷인데, 폭이 넓고 길이는 무릎까지 옴. 주로 해녀들의 물옷으로 쓰였음

1596) 앓앙 오명: 갖고 오면서.

1597) 걸름: 거름.

1598) 혈명: 주로 쌀 따위를 그릇이나 자루에 담아 넣을 때, 잘못 넣어서 바닥에 흩뜨리거나 그릇이 뒤집어져 바닥에 내뿌린 상태.

1599) 말째: 나중에.

## 고전적 본풀이

이번에는 눈미 와산 고칩, 양칩에 조상본풀입네다. 고전적 조상부터 하겠습니까.

옛날 고전적 할아버지가 부모 혈속 탄생혈 때에 얼굴은 보난 관옥이오, 몸은 풍신이라. 구덕에 녹전 자는 건 글소리, 노는 건 활소리, 혼 설 두 설 일곱 설이 당허영 한문서당 부치난 읽어도 자원, 써도 자원 하도 경 열일허연. 경 허연 입장 결혼 허난 딸 하나 나서. 딸 하나 나신디. 이젠 옛날 그 시절에는 빼우령 양반칩이서만 사돈 삼을 때난 뜰을 나난 구덕 혼스<sup>1600</sup>)를 하는데 저기 그 예촌 양자숙 덕에 간 구덕 혼스를 허여 두고.

하르바님은 시월 동당 과거를 헌덴 허난, 과거 보레 가젠허난. 아기씨 몸종은 악싱이, 악싱이 돌아단 몸종을 놓아두고, 겐 하르바님은 시월 동당 과거를 허레 간. 삼천 선비들 가운데 과거 시험을 본디 다섯 가지 베실이 합격이 된 거라. 첫 베실은 내직 베실, 둘째는 워직 베실, 셋차는 참이 참판 베실, 넷차는 전직 베실, 다섯차는 현감 베실. 겐 다섯차 베실이 줄줄이 내려오난. 그때엔 하르바님 어느 밑으로 들어가사 헐 거난. 저 한양 고을로 들어간 거라. 한양 고을에 간 하르바님은 사는 게, 하도 밑음씨도 좋고, 하간 해결도 잘 허고 모든 걸 잘 다스려 백성들을 잘 다스려네 현감살이를 허난. 연삼 년을 살안 오젠 허난 밑음 백성들이

“아이고, 현감님아 혼 해만 더 살아 줘서. 두 해만 더 살아 줘서. 스정스정 허는 게. 스정에 버천 살단보난, 혼 십 년을 살아진거라. 겐 살안. 살단보난 고향에 가숙(家屬)도 있고, 애기도 단뜰애기 난 내비여똥<sup>1601</sup>) 오고 계난 이젠 어떻게신고 아맹헤도 가야똥켄. 마을 백성들이 오꼴 나산거라. 물 내여놓고, 피리단자, 옥단자 내여놓고. 하르바님을 베 타는 디라도 모셔 가젠. 겐 물을 탄 왕강싱강 오노렌 허난. 저 영암. 덕진드리를 당허난. 어떤 열 칠팔세 난 청비발애기씨가 무신 두리알낭포<sup>1602</sup>) 데가리에 이고 허여네 하르바님 앞을 확 허게 젓인거라. 계난 하르바님이, 현감님이. 용심수산 내명

“야, 어떻게 허자나. 여자엔 헌건 꿈에만 시꾸와도<sup>1603</sup>) 새물인데. 양반의 행차 길에 어떻게 허 여정네가 앞을 젓없이넨.”

그땐 하인덜 7라,

“당장 강 저 여정넬 심어오렌.”

겐 심젠 허난 스낭बाट드레 호로록허게 들어가분거라 그 여자가. 계난 하인들은 심젠, 스낭बाट 들어간 암만 좇으난 잇어. 훤은 스낭बाट, 존 스낭बाट 아래 간. 암만 좇아도 인기척은 엇어지고, 스낭बाट 아래보난 두리알낭포 포따리가 잇인거라. 계난 그 포따리를 스낭बाट 아래서 클런 보난, 진녹색 저고리에, 연밭물 치메에, 은빈에, 늦빈에, 은가락지, 늦가락지, 청메실, 흥메실, 주흥당상 벌모작 그런게 잇이난. 이제 탁 포따리 묶언

1600) 구덕 혼스: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면 배필이 될 것으로 정해 두는 것.

1601) 내비여똥: 내버려두고.

1602) 두리알낭포

1603) 시꾸와도: 나타나도.

하인들은 이제

“아이고, 현감님 모르게 우리 제주절도 갖영가민 큰 재산이난. 우리 곱정 가게.”

헨. 이젠 나완보난

“현감님아, 간 보난 인간처랑 말앙 아무 물체도 엇입디텐.”

헨. 경 허냐고. 경 헨 이젠 벳머리로 느려산거 아니. 겐 이제 벳머리로 느려산 베를 제주도더레 돌령 베질을 헤여 올건디. 원, 베질 헐 일기가 안나는 거라. 겐 두 일레 열 아흘을 딱 묶어진 못 돌아가난 현감님이 어디 간 장님신디 간 문복단점(問占)을 허난.

“현감님아, 벳장 알을 뜯영 봅서. 벳장 아래 보물 곱으고, 제물 곱은 두리알랑포가 잇수다. 그걸 벳장 우터레 내어 놓아. 산돏 잡아 장제맛이 벨고스 허영 바당드레 그 거 던져볼고, 경 허영 방고삼채<sup>1604</sup>)를 올려 보면 알아볼 도리가 잇수다.”

헨. 이젠 완. 아닌게 아니라. 벳장 알 뜯영 보난 두리알랑포가 있어. 이제 그걸 앓 아내언 백장 우이 놓안, 산돏 잡아 장제맛이 벨고스 허고, 이젠 방고삼채를 덩덩 올리고

“나에게 태운 조상이민 제주절도로 가민 위허쿠다.”

허연 물꺼꿈<sup>1605</sup>)더레 혹 데껴분거아니. 겐 헨 현감님은 이젠 오는디. 그 애기씨 몸 종 악싱인 이젠 연세답을 허레 저 화북 금동지 알에 간, 연세답을 와랑자랑 허노렌 허난. 물꺼꿈에 두리알랑포가 올라온 거라. 게난 이젠 그걸 앓아네 올라갓주게. 올라가네

“아이고, 애기씨 상전님아 이레 와 봅서. 이레 와 봅서.”

허난

“무사?”

허난

“이레 와 봅서. 이디 곱닥헌 저고리도 잇고양, 비녀도 잇고, 가락지도 잇고양. 다 잇수다 이레 읍서.”

허연. 이젠 비녀 허연 찢르고, 애기씨 머리더레 찢르고, 가락지 헨 끼우고, 진녹색 저고리에 연반물색 치메여 입져가난 애기씨가

“악싱아~”

허난.

“예.”

허난

“어평허난이. 나, 어깨에 청지녕<sup>1606</sup>)이 기는 듯, 흑지녕이 기는 듯이, 막 스프르스 르르 했저.”

헨. 아, 그 말 곱아된 그냥 삽시간에 실연실청 실연광청이 들린거라. 막 소리허멍 이녁만 영암 덕진드리로 놀고 가자. 뽀, 훤은 스낭뵈디로 놀고 가자. 쥌 스낭뵈디로

1604) 방고삼채: 출항의 신호로 북을 세 번 치는 일.

1605) 물꺼꿈: 물거품.

1606) 청지녕이: 청 지네.



놓고 가자. 안세미로 놓고 가자. 밧세미로 놓고 가자. 지리세미로 놓고 가자. 막 소리  
허멍 춤을 들썩들썩 추단 악싱이가 눈 꿈박 허는 사이에 애기썩 감감무중 뉘분거라.  
아이, 이 노릇을 어뎡허코 걱정허노렌 현 차에, 이제 현감님안티서 연락이 오기를

‘현감님 금동지 알로 배 대어시메 빨리 애기씨 들앙 오렌.’

악싱이안티 연락이 온 거라.

“아이고, 이 노릇을 어뎡 허민 좋고.”

이젠 그냥 악싱이만 간 거라. 간, 먼 딜로 옆데헤연

“현감님아, 죽을 췌를 지엿습네다.”

“뭘 췌냐?”

허난

“그런게 아니고. 애기씨는 어제, 그지갯날 감감무레가 뉘언 이젠 애기썩 엿수다.”

허난

“이년, 저년 죽일년 잡을년아. 오늘 당장 이 시간에 강 애기씨 안 좇아오민 너, 청  
뎡삽<sup>1607</sup>)에 목 걸령 죽이켤.”

계난 이젠 애기썩 좇아야 될 거 아니. 계난 이젠 일어산 비새(悲鳥) 곱이 울멍

“아이고, 날 난 어뎡은 어디 가신고, 좁쌀메만이만<sup>1608</sup>) 살 도래가 시민 무사 놈이  
집 종살이를 허리.”

그 말 곱울 멍 애기썩 좇당보난. 저 산더레 보난, 애기씨 치메영 저고리영, 이제  
옥색저고리에 빨간 치멜 입으난. 그것이 걸런 찢어진게 년들년들 가싯냥<sup>1609</sup>)에도 걸  
어지고, 덤벌에도 걸어지고 허난. 그걸 중심으로 톨랑 간 보난, 그 애기씨 구덕흔스  
헤난 예춘 양좌숙 댁에 가 분거라. 겐 그디 간.

“계시파? 이디 저 목안 애기씨 아니 덩깁디가?”

허난

“목안 애기씨 산디, 누게 산디 모르긴 허주만은 어제, 그지갯날 온몸이 피로 유월  
(流血)이 낭자뉘언. 저 뒤에 신돔박냥 아래 간 왕대 죽대 꺾어단 그걸로 피리단저, 옥  
단저 불단, 오늘 아침인 우리집 장남덜 논 밧디 일허레 가가난 그디 혼디 갓젠.”

“그딘 어딜로 갑니켤?”

허난

“요만치, 요 제 넘고, 저 제 넘영 가 보렌.”

헨. 간 보난. 아이고, 집이선 아무 일도 안 허영 꽃 곱이 키운 애긴디, 젓대 곱은  
걸어 놓고, 정강이 걸어 놓고 허연. 이레 참방, 저레 참방 들어산 논일을 헐어. 악싱  
이가 간.

“아이고, 상전님아, 상전님아. 이거 어뎡헌 일이우파. 큰상전님 오란 상전님 제게  
아니 좇아 오민 날 청뎡삽으로 목 걸령 죽이켤 허연 좇안 오랏수다.”

허난

---

1607) 청뎡삽: 푸른 대나무 잎.

1608) 좁쌀메만이만: 좁쌀만큼만.

1609) 가싯냥: 가시나무.

“너, 이년아. 날 들레오명 어느 게 옷가메냐, 어느 게 쌍가메냐?”

가메도 하나 아니 갖어 왓덴 욱을 헨 거라.

“그런거 못 앓어 온건 나 췌척<sup>1610</sup>이고, 나 등더레 돌아집서.”

경 허연. 이젠 업은 반, 꺾임 반. 경 허연 집이 들안 온 거아니. 집이 돌아완 구들  
더레 노난. 그날부떠 먹던 밥도 아니 먹고, 자던 잠도 아니 자고. 막 실연광증이 뵤  
거라. 게난 일가 췌당<sup>1611</sup>들은 현감신디

“현감님아, 어디 강 들어뵤 무시거 험서.”

다 곱아도

“양반집이 굿이엔 헨건 뵤고.”

허명 욱만 부수헨거라. 이젠 허단허단 버치고, 췌당덜 권에 버천 가물개 이원신안티  
간 문점을 지난

“이 애기씨 살리컨 굿을 험서.”

허난. 이젠 그 애기씨 살리젠 집이 이원신 오란 굿을 시작헨 거 아니. 초감제<sup>1612</sup>가  
넘어들고, 초신맛이<sup>1613</sup>가 넘어들언 초이공맛이<sup>1614</sup>가 당허난 이원신님이 곤는 말이

“현감님아, 곤기는 췌송허우다만은 애기씨를 시왕맛이 앞이 내어놓앙 춤을 추와 보  
는게 어떻허우파?”

허난

“이거 양반집이 굿허는 것도 사름 헨 짓이 아난데, 양반이 뵤 내뵤 춤추덴 말이 뵤  
말이고?”

욕 해뵤.

“게은 애기씨 대신 애기 몸 받은 몸종이 나상 춤추는 건 어떻 허겠느냐?”

허난

“아멩이라도 험셴.”

겐 이젠 애기씨 대신 애기 몸종 악싱이가 나산 니나뵤니뵤니야 니냐뵤니뵤니야 허  
명 시왕 앞으로 춤을 췌. 경 허난 이젠 그 굿을 액 막안. 도액 막안 딱 곤는 말이

“현감님아, 곤기는 췌송허우다만은 곱을 말은 곱아야 되겠습니까.”

“뵤 말이나?”

허난

“우리가 이 굿을 멩<sup>1615</sup> 가불민. 삼일이 넘고, 오일 칠일 안네에 동네 금방상에  
어디 초흔 소리가 나면 애기씨가 살아난 줄을 알고, 경 안 허건 애기씨 눅는 구들문  
을 올안 보면 알아볼 도리가 잇습네다.”

허난 그 굿을 멩 가불고. 현감님은 어느 제민 사흘이 뵤건고, 동네 초흔 소리가

1610) 췌척: 죄.

1611) 췌당: 친척.

1612) 초감제: 청신(請神)의 제차(祭次)로서, 정장(正裝)한 수심방이 가무(歌舞)로써 집행하여 나간다.

1613) 초신맛이: 초감제 후에 다시 재차 떨어진 신을 청하는 제차(祭次).

1614) 초이공맛이: 초공과 이공신을 맞아 들여 하는 맛이곳.

1615) 멩: 마쳐서.

안나. 어느 제민 닷새가 뵈건고, 초흔 소리가 안나. 어느 제민 일레가 뵈건고, 일레 뵈도 동네 초흔소리가 안나난. 애기 녹는 구들문을 올안 보난 동이<sup>1616)</sup> 곶이 사려 앓안<sup>1617)</sup> 애기씨가 죽은 거라.

계난 현감님이 울명 통곡을 허뵈.

“서룬 애기야, 영 죽을 줄 알았이민 내어 놓앙 춤이라도 추게 내불겜. 춤도 못 추게 허연 서룬 애기 죽엇젠.”

경 헤연 본메본짱<sup>1618)</sup>이나 내어 주켄 허연. 이추룩 허연 영 허영 사려 앓앙 죽은 거주게. 꼭 영 허연 앓앙 죽으난. 늘랑 동이풀이 대풀이나 받기 마련허렌 허연. 동이풀이 받는 법은 그 애기씨 나시. 경 허연 한복 입지고, 쏘굽에 쌀 놓고 허영 허는거. 겐 죽으난, 이젠 저 명도암 고장남밭 안테왓다 가네 가운데 묻은 거라. 아, 묻언 얼마 엇이난 몸종 약싱이가 죽은 거라. 겐 약싱인 죽으난 애기씨 몸종이난에 왼쪽으로 간 묻엇주. 묻언 놔두난 얼마 엇이난 또 현감님이 죽은 거라. 현감님은 아버지만 우터레 간 묻언. 또 얼마 엇이난 이원신님<sup>77)</sup>지 죽은 거라. 겐 이원신님은 올레로 간 묻언. 겐 현 목숨 죽을 때, 네 목숨이 죽언. 계난. 이제 그 고칩이나, 광산김칩이, 명도암 광산김칩인 간 보면 이제 이 조상을 허는디. 명도암에서 그 맛을 즈순덜은 본향으로 위허고, 먼디 사는 즈순덜은 조상으로 위허영 이 조상을 놀리는 고칩이 허고, 광산김칩이 이제 조상입네다.

---

1616) 동이: 넓기는 하나 높이는 별로 높지 않은 질 그릇의 하나.

1617) 사려 앓앙: 움츠려 앉아서.

1618) 본메본짱: 증거가 될 만한 물건.

안판관 조상본풀이

이번에는 선흘 안칩잇 조상 본풀입니다.

안씨 하르바님넨, 저 안동 7을 안동서, 소문에 들으난 우리 제주도 백성들 다 굶어 죽게 뒤편헨 허난, 무곡을 전배독선((全船獨船) 시꺼얏언 제주 절도로 오는 게, 애월 듬북 석은개 알로 들어오란, 이젠,

“큰성은 어딜로 가쿠겐?”

허난,

“난 과납<sup>1619</sup>)으로 들어가마.”

“셋성은 어딜로 가쿠과?”

허난,

“난 더력<sup>1620</sup>)으로 가마.”

“게난, 아신 어딜로 갈티?”

허난,

“난, 선흘<sup>1621</sup>)로 가쿠다.”

허연. 삼형제가 각각이 다 빠어진거라<sup>1622</sup>). 경 허영 가신디, 선흘 안칩잇 하르바님은 주인을 못인 게 현칩일 간 주인을 못인 거라. 거난 현칩이 주인을 못언 살명 사놈만 허레 덩긴 거주. 사놈허레 덩기명 살았이난,

흐를 날은 성님네 돌이가

“아이고, 우리 아시, 선흘 간 어떻 살았인고 혼 번 좃양이나 가 보저.”

허연. 이젠, 성제가 좃아 얏언, 아시 좃안 간 거 아니. 간 보난, 사놈허레 간 엇인 거라. 경 헤연 헤가 지언 헤가난 오랏인디,

“어떻 살았디엔?”

허난,

“난, 사놈허명<sup>1623</sup>) 살았우다.”

허난,

“게문, 널랑 나 사놈허는 것도 구경도 허고, 혼디 글읍서.”

허연. 아, 산에 가신디, 그날따라 사놈은 못허고 이젠, 어둑어가난<sup>1624</sup>) 굴 쏘곶에 간 누웠인디, 아침인 헤가 빠쪽허게 헤가 터 와가난 아이, 베끼디 영 나온 게 무신게 뵤쩍허는 거라. 보난 고레방석만인 허게 빙빙 사려진 천구아구 데맹이<sup>1625</sup>)라. 겐 영 보난, 귀도 돌고, 겐 귀 돌은 베염이주 말하자면, 겐 잇이난

“아이고, 이거 어떻허믄 조콘.”

1619) 과납: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옛 지명.

1620) 더력: 제주시 애월읍 상·하가리 옛 지명.

1621) 선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622) 빠어진거라: 사방으로 산산이 흩어지다.

1623) 사놈허명: 사냥하면서.

1624) 어둑어가난: 어두워가니.

1625) 천구아구 데맹이: 천구(天口) 아가리 대망(大蟒). 곧 아가리가 하늘에 붙은 대망(大蟒).

허연. 이제 큰성이 약도리<sup>1626</sup>)를 내어 놓안

“나에게 태운 조상이건 이 약도리더레 들어옵서.”

허난, 꼼짝도 안허여. 이젠,

“셋성이 나 약도리로 들어 옵센.”

허난, 아이 탁탁 털멍 꼼짝도 안허여. 죽은아시가 약도리 내어 놓안

“나에게 태운 조상이건 나 약도리에 들어옵서.”

허난, 그땐 이제 기어왔던 그 약도리에 들어오는 거라. 슬슬허게 들어오난, 이젠 지언 일어사젠 허난 무거원 일어살 수가 이서.

“나에게 태운 조상이건 몸천을 가뻑게 험서.”

허난, 영 전 일어사난 거뿐헌거라. 이젠 지언 완, 저 선흘 오라네 베남터<sup>1627</sup>)에 모셔두언. 그땐 사농허레 간 게 사농이 어떻사 잘 뻬인지, 그냥 이레도 팡 저레도 팡 막 사농이 잘 뻬 거라. 겐 성님넨, 아시 사농허영 잘 사는 거 뵙 가불고,

현칩이선 하도 착실허고 양전허게 사난, 즈운사월<sup>1628</sup>) 헌거라. 즈운사월 허난, 안씨 하르바님네는 삼년 일동 부군(富君)<sup>1629</sup>) 조상으로 큰긱허고, 죽은긱허고. 피 그르<sup>1630</sup>)에 피가 나고, 비어불어도, 씨 안 뿌려도, 조 그르에 그냥 조가 나고, 보리 그르에 보리가 나고, 경 멧 년씩 썰 안 뿌려도 농사를 행 먹는 거라. 경 하도 춤 잘 뻬언, 경 허연 무곡을 곳간에 데며 노난<sup>1631</sup>),

어전(御殿)에는, 서울에는 막 송년 들언 백성들 죽을 스경(死境) 뻬난, 영물 김동지 영감, 방에 아흙, ㄱ레<sup>1632</sup>) 아흙허영 잘 산뎡 허난, 김동지 영감 ㄱ라,

“무곡을 바치렌.”

허난,

“난 경 혈 자신이 없습네다.”

“게난, 누게를 허닌?”

허난, 이젠, 안씨 하르바님을, 선흘 안뎡을 ㄱ르친거라. 게난 육지서 주추스령이 느려산거주. 주추스령에 뻬(升)지기 섬지기<sup>1633</sup>) 말지기 다 느려산 안칩이 무곡 바치렌 허난, 하르바님은 막 걱정을 헌거라.

“아이고, 무곡 어떻허영, 삼백 석을 어떻허영 바치린.”

막 걱정허는디, 할마님이 꺾가 좋아신 ㄱ라, 할마님이 꺾가 존 생이라.

“아이고, 경 즈들 게<sup>1634</sup>) 잇수까? 나신디 멧경 내뵙센.”

게난, 우터레, 우이 가멩이<sup>1635</sup>)덜은 열두 말씩을 놓고, 알더렌 가가민 삼백 석이난,

1626) 약도리: 노끈 따위로 그물 같이 맺어 둘레에 고를 대고 긴 끈을 단 물건.

1627) 베남터: 선흘리의 지명.

1628) 즈운사월: 신부추에서 적극적으로 서둘러 얻은 사위.

1629) 부군(富君): 뱀을 일컫는 말.

1630) 그르: 작물을 수확하고 난 빈 밭.

1631) 데며 노난: 쌓아 노니.

1632) ㄱ레: 멧돌.

1633) 섬지기: 곡식을 섬(石)으로 지키는 신.

1634) 즈들 게: 걱정할 것이.

1635) 가멩이: 가마니.

아래 가맹이덜은 가가민, 열 말도 놓앙 혼 가맹이 으덜 말도 놓앙, 혼 가맹이 아홉 말도 놓앙 혼가맹이 허멍, 문딱 체와분 거 아니. 경 허난, 이제, 주추스령 완 문딱 뉘로 뉘연에 허난, 우이 가맹이덜은 열두 말이 딱딱 맞앗주게. 계난, 그걸 다 경 뉘로 뉘수가 엇이난 말제랑 알더레 가가난 무조건 다 시끄렌 허난, 삼백석을 문딱 시경 서울 임금님안티 가난, 임금님이 안씨 하르방허고 현씨 할망 불러들이렌,

경 허연 거 시경 갈 때는 영물 김동지 영감네 베혜영 상선 아홉 중선 아홉 하선 아홉허연 허난, 그 베로 다 시경가고, 경 혜연 불러오렌 허난, 서울 가난,

“땅 혼 착을 갖겠느냐? 물 혼 착을 갖겠느냐?”

혜도,

“난 땅 혼 착도 물 혼 착도 마우덴.”

혜연.

“날랑 판관 베슬이나 내려와 줘서.”

허연. 판관 베슬 내려와 주고, 할마님은 부인, 부인, 정부인 숙부인 베슬을 내려오난, 삼년 일동 큰곳 죽은곳 허단, 이젠, 메느린 허는디 저, 삼양, 화북 이칩이 장계를 갖어 아들이, 계난 그디서 안씨 하르바님허고, 안판관 하르바님허고 현씨 할마님은 죽어부난,

이젠 이칩이, 그 할망이 큰곳 죽은곳을 허단, 저 고래 의원<sup>1636</sup>을 빌언 혼 해 큰곳을 허연. 경 허연, 곳 무찬 간, 가수리<sup>1637</sup> 허레 가신디, 가수리 허연 안체폴 지난 막 무거운 거라. 경 막 무거와도 그냥 지언 가난디, ‘구으니무를’ 올라사난 중이 대스(太師)가 속닥속닥 앓앙 즐았어. 계난 가수리 헨 받아오던 돌레떡에 시리떡에 주어네, 이제 시장기 멀립센 주고, 보난, 그 안체포<sup>1638</sup>에 부군(富君) 한집이 쫓안 와 분거라. 고래 의원 그 안체포에, 겐 쫓안 와 불고 허난, 스님안티 그 떡 맥이난 스님 허는 말이,

“나도 놈이 거 공허게 쓰민 목 걸리고 등 걸리는 법이난, 나도 당신님 이루제<sup>1639</sup> 살당 물을 디나 하나 보아드리겠습니다.”

허연. 한로영산으로부터 물줄기를 다 불환 보난, 저 용무루, 용두암에 그 디 산 터를 봐주멍

“당신 이루제 죽영 이 디 산을 쓰면 심방 대는 끊어지고, 대정원 정의원 뉘, 다 높은 사름이 뉘켤.”

아닌게 아니라, 고래 의원 살단살단 죽으난, 그디 간 묻으난, 아들은 대정원이여 정의원이여 다 뉘엿젠 말이 잇습네다.

1636) 고래 의원: 고씨 큰심방.

1637) 가수리: 큰곳 때의 제차(祭次) 이름. 도진 제차(祭次)에서 모든 신(神)들을 돌려 보낸 후, 마지막으로 그 신들을 따라온 하위잡신(下位雜神)들을 대접하여 보내는 제차(祭次)이다.

1638) 안체포: 심방이 곳을 하러 갈 때 멩두(신갈, 산판, 요령)을 넣어 가고, 돌아올 때는 이 멩두와 쌀을 담아 오는 자루.

1639) 이루제: 이후에.

## 양씨애미 조상본풀이

이번엔 양씨애미 조상본풀입니다. 양씨애미는 지금 현재도 저, 눈미 와산 가민 삼대, 사대 그 정도뿐이 안뵈었습니다. 양씨애미 조상은 눈미 양칩잇 조상인데 우이로 오라방이 삼형제 있고, 똥은 단똥로, 경 너오누이가 솟아난, 아바진 어린때사 돌아가셔불어 신디사, 대으섯 설 녀먼 일곱 설은 당허난, 친구덜이영 강 양태 쫄명도 놀레, 소리도 허민 심방 소리,

“너 놀레 흥번 불러 봐.”

허민, 놀레도 불르민 심방 놀레. 이제 그디 강 심방

“나 점 해봐. 나 점 해봐.”

허민,

“너 오늘 어멍신디 강 매 맞으키여.”

허민, 아, 집이 강 진짜로 어멍신디 매 맞고.

“너 물질레 가든 대바지<sup>1640</sup> 벌럼직허다.”

허민, 아, 물질레 갓당 대바지도 벌르곡. 경 친구들은,

“아이고, 양씨애미야, 느이, 점쟁이나 헛이민 좋으키여. 심방이나 헛이민 좋으키여.”

허민.

“아이고, 게메 말이여<sup>1641</sup>. 무시것사 허민 좋을지 모르키여.”

경 허멍 허는디. 저 눈미 살멍 허벽 지영 당세미<sup>1642</sup>에, 당 이신 즈갓디<sup>1643</sup>, 당세미에 물 솟으는디 이시난 그디 물질레 강, 영 동서남북더레 베려방 사름이 아무도 아니 오라가민 이녁만 허벽 장단 두들멍 이제 심방 소리도 허여보고, 심방 놀레도 허여 보고.

경 허멍 허는 게, 열다섯 나는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라. 어머니 돌아 가시난 막 울멍

“아이고, 어멍아, 나 놓아 똥 어멍만 죽어불민, 나 누게영<sup>1644</sup> 살렌 죽읍디겐.”

막 헌게. 이젠 개광자릴<sup>1645</sup> 파 놓안. 그레 어멍 관을 들여놓젠 헌 게, 오꼳 양씨애미가 개광자리더레 들어가분 거라. 나부떠 죽어불주, 난 살앙 똥허랴 허난, 이제 오라바님네 삼형제가 제우<sup>1646</sup> 달레언 우터레 건져 뉘. 게난, 어멍은 묻어똥 집이 오난, 저 노늘 김씨 선생 빌어단 귀양풀이 허고, 초새남질로 마당에서 귀양풀이<sup>1647</sup> 헨 질을 치는디, 양씨애민 상방에서 마당더레 브레멍 이제 굿허는 심방 보아근에게 발 어멍 노렌 헌 거 방 발짓 노래는 거. 손짓 노래는 거 문딱<sup>1648</sup> 뽀똥<sup>1649</sup> 막, 마당에서 굿

1640) 대바지: 물을 길어 다니는 작은 동이.

1641) 게메 말이여: 그러게 말이지.

1642) 당세미: 샘 이름.

1643) 즈갓디: 옆에.

1644) 누게영: 누구와.

1645) 개광자릴: 장사를 지낼 때 관이 들어갈 자리.

1646) 제우: 겨우.

1647) 귀양풀이: 사람이 죽어 장사를 지낸 날 밤에 행하는 굿 이름.

1648) 문딱: 모두. 전부.

은 죽은곳이 되고, 지 혼자만 상방에서 허는 곳이 큰곳이 됐거라. 경 허연 이젠 김씨 선생넌 곳 다 허영 안체포<sup>1650</sup>) 설런 안체포 묶어가난, 이녁도 바로 이녁 입던 옷들 문딱 조근조근 묶언. 김씨 선생 가부난 이녁도 집 나온 거라. 그 포따리 묶어얏언. 집 나완 김씨 선생네 집이 좃앙 간

“에이고, 나, 들앙 텅기명 심방 질이나 뵈와 줘서.”

허난,

“아이고, 아니 뵈네다. 그 오라바님덜 나 청뎃섭<sup>1651</sup>)에 목 걸려 죽입네다. 혼저 돌아 갑센.”

게난, 제일 큰 오라방은 정민장<sup>1652</sup>)으로 살앗젠. 그 마을에 정민장, 지금 7트민 은<sup>1653</sup>) 이장, 정민장으로 사난. 이젠 집이 가렌 허난 집인 안가고, 그 질로 저 물장오리 테역장오리로 올라분거라. 게난 오라바님네 삼형젠 방방곡곡을 다 좃은 거라. 누이가 어서저부난. 방방곡곡을 좃단좃단 못좃안 소문에 들으난, 몰 보레 텅기는 사름 쉼 보레 텅기는 사름들 말에 의허난, 물장오리 테역장오리 어떤 여정네가 이신디 귀신도 아니고 생인도 아니라렌 그디 잇젠 소문에 들언. 큰 오라방이, 큰 오빠가 몰 타얏언 간 보난, 그 어멍 질 치는거 봐나난, 저 고사리, 고사릿댄 영 서로 등겨단<sup>1654</sup>) 영헨 묶어 놓고, 열두 개, 열두 문 잡안. 또 미미쟁이<sup>1655</sup>) 꺾어네 그거 신칼 대신 잡고, 경헨 지혼자만 막, 질치는<sup>1656</sup>) 시늬을 막 왓다갓다 왓다갓다 허는거라. 경 허난 큰오라방이 거기서 달렌거주.

“아이고, 나 누이야, 느, 이디서 영 허지 말앙 글라. 집이 가민 느 허켄 허는 거 다 해주마.”

경 해주카부덴 몰 우터레 톡허게 타난 이젠 집이 둘안 온 거 아니. 겐 둘안 오난, 요 예펜 년 허나, 요년이 허나로 우리 집안 멍상거리<sup>1657</sup>) 허젠 험덴. 구들더레, 창고 님은 구들더레 다락 드물려난 베깃딜로<sup>1658</sup>) 상거심통췌<sup>1659</sup>) 문을 절로 싱강 증가분거라. 아이고, 경 헨 증가불문<sup>1660</sup>) 밥도 아니 주고, 물도 아니 주고, 막 물령 죽이젠 허는거주게. 게난 오뉴월 즈작굴이<sup>1661</sup>) 벳은 과랑과랑 나도, 목이 큰큰 몰라도 물도 아니 주고 허난, 배고팡 험이민 셋오라방 죽은오라방은, 큰 성 알민 셋아시 죽은아시다 죽을 거주. 큰 성 몰르게 넘어 가는체, 넘어 오는체 허멍 보리낭께기 꺾영 창고망으로 드물환, 베깃디서<sup>1662</sup>) 물 평 안네서 뵈아 먹으렌.

---

1649) 뽀뎃뎃: 본 따르며.

1650) 안체포: 무구(巫具)인 멩두를 담아 놓는 자루.

1651) 청뎃섭: 대나무 잎.

1652) 정민장: 지금의 이장.

1653) 7트민은: 같으면은.

1654) 등겨단: 당겨서.

1655) 미미쟁이:

1656) 질치는: 질침을 하는.

1657) 멍상거리:

1658) 베깃딜로: 바깥으로.

1659) 상거심통췌: 자물쇠.

1660) 증가불문: 잠가버리면.

1661) 즈작굴이: 몹시 따가운 것 같은.



“아이고, 누이야 흔저 빨아 먹어 불라. 빨아 먹어 불라.”

허연 빨아 먹게 허고, 이젠 산에 강 물보레<sup>1663</sup>) 덩기당 질쌌<sup>1664</sup>)에 탈 탕 그것에 곱  
정 완 큰 성 몰르게 창고망으로 쥘 이거 먹엉 살아나렌. 아이고, 경 허멍 허는게. 예  
으섯(十六) 나는 해엔 오월 쓰무나흘 날은 이젠 7만이<sup>1665</sup>) 이시난에 큰오빠가 개 잡  
앙 숲안 그 국물을 앗앙 온 거라.

“야, 나 누이야, 이레 흔저 나오라.”

허난, 영 베끼디 나오난,

“저 개장국 끓러시메 저거 흔저 먹으라.”

허난,

“나 죽으면 죽었주 그거 못 먹쿠다.”

“게민 저걸로 머리라도 곱으라.”

허난,

“나, 머리 못 곱으쿠다.”

“게건, 저 걸로 모욕이라도 허라.”

“모욕 못 허쿠텐.”

헨.

“이년, 생긴 년 이런 년이 어디 시넨.”

막, 그 도고리<sup>1666</sup>)에 눈 걸 그냥 확들렁 우터레<sup>1667</sup>) 확 덮어분 거라. 경 헨, 물 잘잘  
허는 걸 구들더레 또 담아 낚 문을 증가불었어<sup>1668</sup>). 거난 양씨애민 비새굴이 울멍  
“날난 어머님아, 날 내불어뵈 나 이 고생허게 허젠 내불어뵈 어디레 갑디겐.”

허연. 막 울단보난 그자 옆더지언 죽어분 거라. 옆더전 죽어부난 이제 셋오빠허고, 죽  
은 오라방허곤, 아이고, 인척이 막 큰성 소리도 나고 막, 우느 소리도 나고 헨게 어떻  
헌 일인고 허영. 영 완 창고망 툄란 보난 누이가 죽어서 옆더전. 경 허난 이젠 브린  
척도 아니 헌척 허연 큰성신디 간,

“형님, 저 년 그만허난 죽은 쟁이우다.”

허난,

“그년 죽은 게 아무 년이고 놈이고 칭원(稱冤)허냐? 너네 다 흔칼에 찔렁 죽이켤.”

경 허멍 확허게 완게만은 지동에 마페 치메<sup>1669</sup>) 걸어저시난 그거 박박 브런. 일곱메  
에 묶언. 그냥 지게에 지언 저 와산 절루니왓이엔 헨. 그 지경이름. 절루니왓디 간 그  
자 땅도 파는 체 마는 체 허연 그자 들여놓안, 흑도 덮으는 체 마는 체 허연 그 우터  
레 범주리 가시냥 헤단 탁허게 봉분 우터레 덮은 거라. 거저 다 혈만 허난에 그때엔

1662) 베끼디서: 바깥에서.

1663) 물보레: 말보러.

1664) 질쌌: 길가.

1665) 7만이: 가만히.

1666) 도고리: 큰돌이나 통나무의 가운데를 쪼아 넓고 움푹하게 파내어 물건을 놓거나, 동물에게 먹이를  
줄 때 쓰는 것.

1667) 우터레: 위에.

1668) 증가불었어: 잠가버렸어.

1669) 마페 치메: 마포 치마.

이젠 셋오바랑허고 죽은오라방은 먼 딜로 보단 다 혈만 허난 간 거 아니.

“성님, 이년양, 이만만 허민 똥우다. 형님이랑 돌아 갑서.”

경 허연 성님은 이젠 집더레 보내된. 먼딜로 영 보난 집이 다 갈만 허난, 가시냥 걷어두고, 이젠 흑 다 헤쳐두언 누이 파내영 오라방덜 비새(悲鳥)같이 울멍

“아이고, 서룬 나 동싱아, 그만허난 죽어지엇구나이. 서룬 나 동싱아, 아이 곱닥헌<sup>1670</sup>) 얼굴에 조은 소리에, 소리도 그만허난 허사로구나. 조은 얼굴도 이제 못 볼로구나.”

허멍 오빠들이 막 운 거라. 경 헨 막 울언

“새로 잘 물어주마이.”

허연에. 개광자리도 새로 파고, 새로 허영 가멩이턱 허단 뒤어놓고, 봉분도 곱닥허게 헤연. 경 헨 와부난, 양씨애미 이제 저승은 들어가간 서천꽃밭디서 아따, 인간에 얼굴도 좋다, 계난 예으섯(十六) 나는 해에 문 잡안 눈게 쓰무하나(二十一) 나는 해 오월 쓰무나흘(二十四日) 날엔 경 죽은 거주. 경 허난 인간에도 얼굴 잇구나. 너무 얼굴도 곱덴. 경 헨 양손으로 완 손 심영 서천꽃밭디 돌양 가난 꽃감관 꽃생인은 꽃하 양씨애미 주멍 이거 키우렌 허난, 아, 양씨애미 꽃 준건 시들시들 문딱 몰라분 거라. 계난 꽃감관 허는 말이

“양씨애미야, 어떻허연 너 우론 쉼께기 곱내여<sup>1671</sup>) 돼지고기에 종경내여<sup>1672</sup>) 몰께기<sup>1673</sup>)에 누린내여 개고기에 노랑내여 부정이 만허연 검뉴울꽃 똥없저. 는 이 꽃밭디 못산다 돌아가렌.”

경 보내부난 이젠. 저승 용도머리에 완 앓안. 저승도 못 가고, 이승엔 완 보난 신체는 물어불엇주게. 계난 살아나지도 못허고 경 허연 앓안 울없이난, 고전적 하르방은 물탕 왕강싱강 즈순네 집이 굿허난 상 받젠 노력삼시난

“어드레 가는 하르바님 똥네까?”

허난,

“난, 고전적인데 우리 즈순네 집이 굿허는디 상 받으레 값젠.”

허난,

“아이고, 하르바님아, 나도 돌양 가 줍서. 나도 인간에 오라바님네 삼형제가 잇수다만은 큰오라방 강단허연 나 심방 닛젠 허난 못 나게 허연 날 죽여부난 큰오라방 까지는 씨멜쪽<sup>1674</sup>)을 시기쿠다만은 셋오라방 까지 죽은오라방 까지가 이시난, 셋오라방 까지 죽은오라방 까지 삼년 일동 굿허민 현감님도 모셔강 상을 받아 안네쿠다. 날 돌양 가 줍센.”

하도 허난,

“계난 년 부정이 만 허난이 풋죽<sup>1675</sup>)이라도 사 먹영 부정 가영 오렌.”

---

1670) 곱닥헌: 예쁜.

1671) 곱내여: 쇠기를 냄새여.

1672) 종경내여: 소, 돼지 따위의 불알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

1673) 몰께기: 말고기.

1674) 씨멜쪽: 흔적이나 근거가 없이 모두 없어지다.

1675) 풋죽: 팔죽.

허난, 이젠 풋죽 할망신디 간 풋죽 사 먹어얏언 현감님이 돈 주난 그거 앗앙 강 헤연 사먹영 오난, 현감님은 올레에 이시난 심방이 전적 하르바님도 읍센 헤연 들어가불고 양씨애민 어느때 올레 사도 누게 원, 원미<sup>1676</sup>) 혼 술가락 감주 혼 잔 주는 자가 엇인 거라. 겐 올레 어깃담에 샷단 셋오라방 톨신디 의탁을 헨 거라. 의탁허연,

“난 양씨애민데, 어느 누게 원미 혼 그릇 아니 주고 감주 혼 잔 안 주고. 난, 큰오라방 너무 강단허연 개장국 끓연 나 우이 씌어부난, 난 부정허연 저승도 못 가고, 이싱도 완 보난 신체 물어부난 이승도 못 오고, 경 허연 난 양씨애미노라.”

입으로, 들런 막 휘뿌리는 거라.

“나 울영 삼년 일동 큰굿 허민 큰빔 사게 해주고, 족은굿 허민 족은빔 사게 해주워, 큰가지는 나가 씨멜쪽을 시기겠다. 겐디 셋가지 족은가지는 막 번성을 해주크메 나 울영 삼년 일동 굿해 도렌.”

경 허멍 해난 법으로서 양칩이는 고전적 하르방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양씨애미를 조승 용도머리에서 만났 혼디 돌양 가난 때문에 양씨애미가 우리 즈순네 굿혈 때는 나가 받아 안네쿠다 해나부난, 이제 양칩이 굿혈 때도 고전적 거느리는 법입니다.

---

1676) 원미: 영위 앞에 올리는 흰쌀만으로 쏜 죽.

